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000-00

정책보고서 2019-

근로능력가구 장기수급자 심층분석 및 자립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태완·임완섭·정은희·정세정·주유선
김경휘·최준영·신재동·강예은

【책임연구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포용복지와 사회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공저)

포용성장 비전과 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공저)

【공동연구진】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경휘 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신재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강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출문 <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한 「근로능력가구 장기수급자 심층분석 및 자립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홍 식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한계	8
제2장 자활지원제도 및 인프라 현황과 성과분석	3 1
제1절 서론	B
제2절 자활사업 현황과 문제점	5 1
제3절 시사점	8
제3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근로능력자 특성	5 5
제1절 데이터 개요	5
제2절 장기수급자 규모 및 특성 분석	5 5
제4장 실태조사를 활용한 근로능력자 특성	7 6
제1절 조사개요	7
제2절 가구일반, 소득 및 자산	7
제3절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 수급실태	3 9
제4절 탈수급 및 노동시장 이력	31
제5절 정서적 자활: 고용희망과 지각된 고용장벽	521
제6절 개인 및 사회복지제도 인식	5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8
제1절 주요연구결과	8
제2절 정책제언	15

참고문헌	199
------------	-----

부록	201
----------	-----

표 목차

〈표 1-1〉 근로능력 장기수급자 실태조사 주요 결과	7
〈표 2-1〉 자활사업 변천사를 통해 바라본 자활사업 성격의 변화	7..... 1
〈표 2-2〉 지역자활센터 전달체계	8..... 1
〈표 2-3〉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사업 개요	1..... 2
〈표 2-4〉 기관 유형	3..... 2
〈표 2-5〉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액, 매출적립금, 직접사업비재투자, 수익금 현황	25
〈표 2-6〉 자활사업 참여 시기	8..... 2
〈표 2-7〉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	0..... 3
〈표 2-8〉 시기별, 지역별 참여자 자활역량 평가 점수	2..... 3
〈표 2-9〉 자활사업 참여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3..... 3
〈표 2-10〉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유형	5..... 3
〈표 2-11〉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소득추이	8..... 3
〈표 2-12〉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금융재산 추이	9..... 3
〈표 2-13〉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금융일반재산 추이	9..... 3
〈표 2-14〉 내일키움통장 참여 이후 일과 자신에 대한 생각	0..... 4
〈표 2-15〉 자활기업 현황	1..... 4
〈표 2-16〉 자활기업의 업종 현황	2..... 4
〈표 2-17〉 자활기업 규모별 참여인원 현황	3..... 4
〈표 2-18〉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지표 변화	4..... 4
〈표 2-19〉 자활성공률과 탈수급률 추이	6..... 4
〈표 2-20〉 지역자활센터 지역유형별 성과평가 점수 분포	7..... 4
〈표 2-21〉 농촌형 지역자활센터 도농복합형 지역자활센터 평가등급 분포	8..... 4
〈표 3-1〉 장기수급자 특성 및 평균 수급개월수	6..... 5
〈표 3-2〉 장기수급자 급여종류별 근로능력유무	7..... 5
〈표 3-3〉 장기수급자 조건 유형별 인구학적 특성	0..... 6
〈표 3-4〉 장기수급자 조건 유형별 사회적 특성 I	0..... 6
〈표 3-5〉 장기수급자 조건 유형별 사회적 특성 II	1..... 6
〈표 3-6〉 장기수급자 조건 유형별 취업상태	2..... 6

〈표 3-7〉 장기수급자 조건 유형별 근로능력 특성	3	6
〈표 3-8〉 장기수급자 조건부와 유예사유	3	6
〈표 4-1-1〉 근로능력 장기수급자 실태조사 주요 결과	8	6
〈표 4-1-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조사표 구성	9	6
〈표 4-2-1〉 응답자 분포표	0	7
〈표 4-2-2〉 동거 가구원 수	1	7
〈표 4-2-3〉 가구원 중 노인 및 등록장애인 수	2	7
〈표 4-2-4〉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 및 아동 수	4	7
〈표 4-2-5〉 가구 구성	5	7
〈표 4-2-6〉 응답자 교육수준	6	7
〈표 4-2-7〉 응답자 혼인상태	7	7
〈표 4-2-8〉 응답자 건강상태	8	7
〈표 4-2-9〉 응답자 장애종류(복수응답)	9	7
〈표 4-2-10〉 응답자 심신능력상 근로능력정도	0	8
〈표 4-2-11〉 응답자 근로무능력 사유	1	8
〈표 4-2-12〉 응답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2	8
〈표 4-2-13〉 응답자 비경제활동 사유	3	8
〈표 4-2-14〉 월평균 생활비	4	8
〈표 4-2-15〉 생활비 항목별 지출수준	5	8
〈표 4-2-16〉 월평균 가구 총소득	6	8
〈표 4-2-17〉 가구 총자산	7	8
〈표 4-2-18〉 가구 금융자산	8	8
〈표 4-2-19〉 가구 총부채액(명의 기준)	9	8
〈표 4-2-20〉 현재 주택 유형	0	9
〈표 4-2-21〉 주택 점유형태	1	9
〈표 4-2-22〉 주택내 사용 방수	1	9
〈표 4-2-23〉 주택 사용 면적	2	9
〈표 4-3-1〉 급여별 응답자 특성에 따른 수급자 비율(중복응답)	4	9
〈표 4-3-2〉 현재 수급중인 급여 수급 이유_1순위	5	9
〈표 4-3-3〉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예상 기간: 생계급여	6	9
〈표 4-3-4〉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예상 기간 의료급여	7	9
〈표 4-3-5〉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예상 기간_3] 주거급여	9	9
〈표 4-3-6〉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예상 기간_4] 교육급여	0	0
〈표 4-3-7〉 수급가구에서 벗어나도 계속 받고 싶은 급여	2	0
	1	

〈표 4-3-8〉 자활사업 참여경험	3·0 1
〈표 4-3-9〉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	4·0· 1
〈표 4-3-10〉 첫 번째 자활근로 참여기간	5·0· 1
〈표 4-3-11〉 첫 번째 자활근로 유형	7·0 1
〈표 4-3-12〉 자활장려금 경험여부	8·0 1
〈표 4-3-13〉 자활장려금의 충분성	9·0 1
〈표 4-3-14〉 자활사업의 경제적 도움 정도	1·1· 1
〈표 4-3-15〉 자활사업 만족도	2·1 1
〈표 4-4-1〉 생계급여 탈수급 경험여부	3·1· 1
〈표 4-4-2〉 생계급여 탈수급 사유	5·1 1
〈표 4-4-3〉 소득증가의 주요 요인	6·1 1
〈표 4-4-4〉 행정상의 주요 변화 요인	7·1· 1
〈표 4-4-5〉 탈수급 희망여부	8·1 1
〈표 4-4-6〉 탈수급 시 노동시장 경험 여부	9·1· 1
〈표 4-4-7〉 탈수급 시 노동시장 경험자의 노동시장 참여 기간 : 첫 번째 기간	0·2· 1
〈표 4-4-8〉 탈수급 시 노동시장 경험자의 첫 번째 기간 종사상 지위	1·2· 1
〈표 4-4-9〉 탈수급 시 노동시장 경험자의 첫 번째 기간 직종	3·2· 1
〈표 4-4-10〉 탈수급 시 노동시장 경험자(첫번째 기간)의 일을 그만둔 사유	4·2· 1
〈표 4-5-1〉 고용희망척도 문항	6·2 1
〈표 4-5-2〉 Hong·Polanin·Key, & Choi(2014), 최상미(201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의 지각된 고용장벽 척도 문항 비교	6·2· 1
〈표 4-5-3〉 지각된 고용장벽의 요인별 문항 구성	8·2· 1
〈표 4-5-4〉 자기 보고된 근로능력별 고용희망(응답자 기준)	9·2· 1
〈표 4-5-6〉 자기 보고된 근로능력별 지각된 고용장벽	1·3· 1
〈표 4-5-8〉 일 경험별 고용희망(응답자 기준)	4·3· 1
〈표 4-5-9〉 자활참여 경험 여부와 고용장벽(응답자 기준)	6·3· 1
〈표 4-5-10〉 정부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와 고용장벽(응답자 기준)	6·3· 1
〈표 4-5-11〉 탈수급시 일을 한 경험 여부와 고용장벽(응답자 기준)	7·3· 1
〈표 4-5-12〉 연령-교육수준별 고용장벽: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8·3· 1
〈표 4-5-13〉 교육수준-근로능력정도별 고용장벽: 1)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0	4· 1
〈표 4-5-14〉 교육수준-건강상태별 고용장벽: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2· 1	4· 1
〈표 4-5-15〉 건강상태-근로능력별 고용장벽: 2) 일하는데 제약이 되는 건강상태	4·4· 1
〈표 4-5-16〉 연령-교육수준별 고용장벽: 3) 적절한 직무 기술의 부족함	6·4· 1
〈표 4-5-17〉 연령-근로능력정도별 고용장벽: 3) 적절한 직무 기술의 부족함	8·4· 1

〈표 4-5-18〉	연령-교육수준별 고용장벽: 12) 지역사회 내에 일자리가 부족함	0.....5..... 1
〈표 4-5-19〉	연령-건강상태별 고용장벽: 12) 지역사회 내에 일자리가 부족함	2.....5..... 1
〈표 4-6-1〉	아동·청소년 시절 경험: 1)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7.....5..... 1
〈표 4-6-2〉	아동·청소년 시절 경험: 2)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7.....5..... 1
〈표 4-6-3〉	아동·청소년 시절 경험: 3) 가계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한 적이 있다	8.....5..... 1
〈표 4-6-4〉	아동·청소년 시절 경험: 4) (구)생활보호대상자여서 국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5..... 1
〈표 4-6-5〉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1) 건강	2.....6..... 1
〈표 4-6-6〉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2) 가족의 수입	3.....6..... 1
〈표 4-6-7〉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3) 주거 환경	4.....6..... 1
〈표 4-6-8〉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4) 가족 관계	5.....6..... 1
〈표 4-6-9〉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5) 직업	6.....6..... 1
〈표 4-6-10〉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6) 사회적 친분관계	7.....6..... 1
〈표 4-6-11〉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7) 여가생활	8.....6..... 1
〈표 4-6-12〉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8) 전반적 만족도	9.....6..... 1
〈표 4-6-13〉	우울 측정 CESD 11문항별 분포	0.....7..... 1
〈표 4-6-14〉	우울 측정 CESD	171
〈표 4-6-15〉	현재 삶의 상태	271
〈표 4-6-16〉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경험 및 만족도	4.....7..... 1
〈표 4-6-17〉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신뢰	5.....7..... 1
〈표 4-6-18〉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	6.....7..... 1
〈표 5-2-1〉	자활 참여경험, 탈수급희망, 탈수급 경험 및 노동시장 경험	6.....8..... 1
〈표 5-2-2〉	탈수급희망, 자활 참여경험 및 탈수급 경험 간 비교	7.....8..... 1
〈표 5-2-3〉	탈수급희망, 자활 참여경험 및 탈수급 경험 간 모수추정	8.....8..... 1
〈표 5-2-4〉	탈수급희망, 자활 참여경험 및 탈수급 가능성·탈수급시 원하는 급여	9.....8..... 1
〈표 5-2-5〉	탈수급희망, 자활 참여경험 및 응답자 연령·(구)생활보호 수급여부	0.....9..... 1
〈표 5-2-6〉	자활 참여경험, 탈수급 경험 및 노동시장 경험 간 관계	1.....9..... 1
〈표 5-2-7〉	일 참여경험, 자활참여 경험 및 탈수급 희망 간 관계	2.....9..... 1
〈표 5-2-8〉	일 참여 경험, 자활 참여경험, 탈수급 희망 및 근로능력 정도 간 관계	3.....9..... 1
〈표 5-2-9〉	일 참여 경험, 자활 참여경험, 탈수급 희망 및 응답자 연령 간 관계	3.....9..... 1

그림 목차

[그림 2-1]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사회적협동조합) 다변화 사업 모형	2..... 2
[그림 2-2]	2018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0..... 3

[그림 2-3]	전반적인 건강상태	3	3
[그림 2-4]	취업 및 창업가능한 건강상태	3	3
[그림 2-5]	현재 자활사업 참여가능 건강상태	3	3
[그림 2-6]	동일 연령대와 비교한 건강상태	3	3
[그림 4-5-1]	자기 보고된 근로능력별 고용희망	9	2 1
[그림 4-5-2]	자기 보고된 근로능력별 지각된 고용장벽의 하위요인	2	3 1
[그림 4-5-3]	일 경험별 고용희망	4	3 1
[그림 4-5-4]	일 경험과 고용장벽	5	3 1
[그림 4-5-5]	연령-교육수준별 고용장벽: 1)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9	3 1
[그림 4-5-6]	교육수준-근로능력정도별 고용장벽: 1)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4	1
[그림 4-5-7]	교육수준-건강상태별 고용장벽: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3	4 1
[그림 4-5-8]	건강상태-근로능력별 고용장벽: 2) 일하는데 제약이 되는 건강상태	5	4 1
[그림 4-5-9]	연령-교육수준별 고용장벽: 3) 적절한 직무 기술의 부족함	7	4 1
[그림 4-5-10]	연령-근로능력정도별 고용장벽: 3) 적절한 직무 기술의 부족함	9	4 1
[그림 4-5-11]	연령-교육수준별 고용장벽: 12) 지역사회 내에 일자리가 부족함	1	5 1
[그림 4-5-12]	연령-건강상태별 고용장벽: 12) 지역사회 내에 일자리가 부족함	3	5 1
[그림 4-6-1]	아동·청소년 시절 경험_전체	6	5 1
[그림 4-6-2]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_전체	1	6 1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 한계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9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이 제정된지 20년이 되는 해이며, 2015년 맞춤형 급여 도입이후 4년이 지나는 해이다. 지난 20년간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우리나라 빈곤층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 기여와 기대가 큰 만큼 기초 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부담 또한 함께 증가하였다. 그 결과가 2015년 맞춤형 급여로의 전환을 가져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맞춤형 급여 도입의 목적은 사각지대 해소, 급여수 준의 적정성 보장 및 탈수급과 탈빈곤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데 있었다. 지속적으로 수 급기준(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이 개선되면서 사각지대가 점진적으로 줄어 왔으며, 최저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면서 각 급여별 기준선도 상향조정되 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목표중 하나가 탈수급과 탈빈곤 촉진 이다. 무엇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장기간 남아 있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기준으로 10년 이상 수급가구 규모는 278천가구(전체 수급가구의 약 27%)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1인 가구는 220천가구, 2인 이상 가구는 약 58천가구로 나타 나고 있다. 관련 자료를 통해 살펴봐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장기간 기초 생활보장제도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11년~'16년 수급이력이 있는 230만명 중 4년 이상 수급자는 43% 수준(6년 이상 31.1%) 이 중, 15~70세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59만명)는 17.3% 이상이 4년 이상 수 급을 유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이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장기간 머 무르고 있는 원인으로 인해 탈수급과 탈빈곤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장기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다양 하게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본인의 근로의사에 의해 수급지위를 지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와 둘째 외부적 요인으로서 가족내 장애인, 노인, 자녀 등 돌봄을 필요로 하

는 대상이 있는 경우, 셋째, 빈곤가구로 오랜 기간 생활함으로써 인적 및 물적 자본 형성이 충분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오랜 기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수급층에 비해 그 비율이 두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김원정(2016)에 의하면 수급자격 변동에 있어 수급탈락자는 수급탈락 직전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신규진입자는 근로소득이 낮아지면서 둘 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였다. 결국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시장소득을 획득해야 함에도 현재의 장기수급자는 이에 대한 의지가 적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근로 의지와 욕구가 낮은 경우 정서적 치유(최상미 외, 2017, 218)와 더불어 개인의 인적 및 물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정서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자활프로그램 내에서 이들 수급자를 어떻게 치유하고 가족내 및 노동시장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도 중요하다.

안서연 외(2011) 연구도 근로능력자를 중고령자, 중장년남성, 중장년여성, 청년집단으로 분류 후 분석시 집단별 수급탈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근로이었으며, 둘째,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확률이 낮아지는 현상과, 셋째, 수급자의 심리·정서적 요인 중 자존감과 주관적 수급탈피 전망이 수급탈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가구 여건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장기간 수급에 머무를 경우 최근 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혹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살펴볼 때, 2015년 맞춤형 급여 도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장기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본인의 근로능력과 의사를 떨어뜨림은 물론,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어 빈곤대물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김재호(2013) 연구에서도 근로능력 가구가 근로능력이 낮은 가구에 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높은 상태의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맞춤형 급여 도입의 취지

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자로서 일을 하지 않고 장기간 수급가구로 머무르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각 가구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탈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로 장기간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욕구에 부합되는 급여와 일자리 지원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 장기수급자 실태 및 현안에 대한 파악을 통해 빈곤의 함정과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하며, 둘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욕구 파악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 자활사업 확산 및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셋째, 맞춤형 급여 목적인 욕구별 단계별 급여제공과 일을 통한 복지제공을 통해 공공부조에 대한 의존성,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있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우리 보고서에 담고자 하는 연구내용은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 장기수급자 대상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심층분석을 진행하였다.

근로능력(만 18~64세)이 있는 장기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국 1,005명을 기준으로 조사가 2019년 10월~11월말까지 면접조사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근로능력 수급자라는 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가 수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고 충분하지 않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연령이 만 18~64세, 2011~2018년 사이 4년 이상 수급이력을 가진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장기수급자 일반사항으로 근로능력 장기수급자의 가구 및 개인 일반특성으로 가구구성, 개인 및 가구의 인적자본 특성, 수급이력, 소득 및 자산 등을 파악하였다. 이외에 개인적 특성으로 장애, 불안, 정서적 문제 등 및 가구특성으로 노인, 장애인, 유아 등 돌봄, 가구 이력 등을 포함하는 정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근로능력 가구 중 장기수급자의 동태적 현황 분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의 탈수급, 재진입 등에 대한 변동사항, 지위 변동에 따른 가구 및 개인 변화 등과 근로능력 수급자 노동시장 이력, 복지 및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욕구를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탈수급 시기의 노동시장 이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장기수급자를 위한 노동시장 지원 정책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노동시장 이력에 대해선 2010년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및 노동시장 참여이력 등을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근로의지, 지속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동 욕구, 복지수요 파악을 위한 복지욕구 등도 함께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실태조사와 별도로 사회보장정보원의 장기수급자 통계를 지원 받아 자활참여자 중 장기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타 복지제도에 대한 이력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과 관련한 심층분석을 급여, 급여기간, 자활사업 참여 등과 기타 다른 복지제도 수급이력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실태조사 및 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통해 파악된 것을 토대로 근로능력 장기수급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자립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개인 혹은 가구 상의 장기수급 상황 파악을 통해 맞춤형 자활 및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우리 연구는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연구로 외부와 연구협력체계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근로능력 장기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외부 조사업체(한국리서치)와 컨소시엄 체결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표 설계 및 자료에 대한 분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무엇보다 함께 연구를 진행한 한국리서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사업체로서 우리 원과 다수의 조사를 함께 진행한 바 있으며, 복지 관련 조사를 주기적으로 수행해온 조사기관으로서 근로능력 장기수급자 조사연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근로능력 장기수급자 대상 실태조사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011년 이후 근로능력이 있는 장기수급자 1,00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장기수급자에 대한 정의는 2011년부터 2018년 사이 근로능력자로 4년 이상(분석기간 8년중 절반 이상 기간을 수급한 경우) 수급 경험이 있는 장기수급자로서 선정하였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주요한 조사 내용은 가구상황, 노동시장이력, 복지욕구 등 조사, 가구일반사항으로서 소득, 자산, 가구원 상황(가구원 수, 학력, 성별 등), 돌봄 대상 등, 장기수급자 개인 사항으로 노동시장 참여 이력, 정서적, 정신적 현황 파악, 개별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였다.

모수추정 가중치 부여전 근로능력 장기수급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1,005명 남성이 52.1%, 여성이 47.9%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많았다. 연령별로는 만 50~64세가 54.8%로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비슷한 수준에서 만 35~49세 24.1%, 만 34세 이하가 21.1% 순이었다.

〈표 1-1〉 근로능력 장기수급자 실태조사 주요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005	100.0
성별	남성	524	52.1
	여성	481	47.9
연령별	만 34세 이하	212	21.1
	만 35~49세	243	24.1
	만 50~64세	550	54.8
교육수준	초졸 이하	249	24.8
	중졸	211	21.0
	고졸	399	39.7
	대졸 이상	145	14.5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 편	772	76.8
	보통	108	10.7
	건강한 편	126	12.5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196	19.5
	단순근로가능	98	9.7
	단순근로미약자	227	22.6
	근로능력없음	484	48.2
가구구성	단독가구	450	44.7
	모/부자가구	149	14.8
	조손가구	71	7.0
	다문화가구	3	0.3
	기타(일반가구)	333	33.2

주: 1) 가중치 부여전 조사대상 특성을 정리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는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6.8%로 조사대상자 네명중 세명이 어느 형태로든 건강에 있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통과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3.2% 수준이었다. 근로능력에 있어서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한 경우가 48.2%로 역시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단순하지만 근로가 가능한 경우는 29.2% 수준이었다. 가구형태는 주로 단독가구로 44.7%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은 일반가구로 33.2%의 순이었다.

위와 같은 근로능력자에 대한 실태조사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근로능력자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원자료를 활용하여 근로능력 장기수급자 주요 수급이력(각 급여별 등)과 자활사업 참여 경험, 미참여자에 대한 미참여 이유 등을 분석하였다.

이외에 근로능력자를 위한 정책제언을 위해 외부 자활 사업 관련 전문가 등과의 자문 등을 거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한계

우리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간과되어온 장기수급자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지만, 구체적으로 수급자를 추적조사하여 수급자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경우는 없었다. 우리 연구가 장기수급자와 관련되어 처음으로 진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후속연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며, 제2차 기초생활보장 기본 및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해이다. 2차 기본 및 종합계획이 수립되는데 있어 우리 연구결과가 기초자료 및 통계 제공을 통해 자활사업이 좀 더 맞춤형으로 계획이 수립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가 가지고 있는 연구 및 정책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연구수행에 있어 한계를 지적할 수 밖에 없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여부를 판정해야 하는데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근로능력을 판정하는 방안이 연령밖에는 없었다는 조사설계의 한계가 있었다. 근로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령과 더불어 건

강상태, 사회활동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파악되고 이를 기반으로 조사대상자를 선발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상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두 번째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사전접촉을 통해 조사가 수행되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급 이력 등에 대한 정보 등에 문제제기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향후에는 통계 구축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수급자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과 같이 제도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와 발전을 위해 정부 조사통계의 경우 피조사대상자가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제도 개선시 함께 포함될 필요가 있다. 조사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 공무원, 리서치 회사 등의 협업과 협조하에 조사가 의미 있게 잘 마무리 되고, 국가 통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 연구의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다.

제 2 장

자활지원제도 및 인프라 현황과 성과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자활사업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시사점

2

자활지원제도 및 인프라 현황과 성과분석 <

제1절 서론

자활사업이 제도화된 2000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자활사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을 이루었다. 자활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던 제도화 초기에 비하면, 2019년 현재 지역자활센터는 전국에 249개 지역에서 저소득 빈곤층의 경제적, 정서적 자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활사업 인프라가 249개 지역자활센터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5개 광역자활센터 그리고 자활연수원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자활사업 인프라 확대는 자활사업이 지난 20년 동안 저소득 빈곤층의 경제적, 정서적 자활을 지원 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것에 의문이 없을 것이다.

자활사업의 인프라 확대만큼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변화이다.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해마다 큰 변화가 있었다. 2018년 현재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자활사업 관련 기관 및 사업에 참여하는 규모가 11만 명 내외로 발표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자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은 약 4만 명 내외이다. 이러한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는 최근에 큰 변화를 나타냈다. 그 변화의 원인은 2015년 시작되었다가 최근에 완화된 고용노동부의 취업 우선지원정책이다. 2015년에 시작된 취업 우선지원정책은 그동안의 자활사업 참여 가능성이 큰 수급자가 기초지자체에서 지역자활센터로 의뢰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기초지자체에서 무조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다가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때 지역자활센터로 의뢰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취업 우선지원정책으로 인해, 이 기간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취업 우선지

원정책에 대한 낮은 성과와 부정적 평가로 인해, 최근 취업 우선지원정책은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자활센터 참여자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자활사업 인프라의 확대 및 참여자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자활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새로운 사회경제 여건에 맞추어 유형을 다변화하려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여러 찬반 의견이 있지만, 경제적인 성과가 뒷받침됨에 따라 해마다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 의지 및 자활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다양한 교육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년 자활사업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자활사업은 이와 같은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일부 문제는 10년 전에 제기되었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 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이다. 지난 20년 동안 지역자활센터 인프라는 급격하게 확대되었지만,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잡음이 여전히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전달체계는 처음부터 기초부터 중앙까지 한 번에 명확하게 역할과 기능이 설계되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활사업 전달체계는 기초단위가 먼저 만들어지고 중앙단위 중간단위 전달체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는 과정에서 전달체계 상호 간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타난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감소는 지역자활센터가 249개소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효율성 차원의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지역자활센터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참여자의 감소와 함께 참여자의 근로능력이 해마다 낮아지고 고령 참여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적자본이 낮고 나이가 많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적자본이 낮은 것은 교육, 훈련을 통해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고령 참여자 비율과 근로미약자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 자활사업의 주된 성과가 취업과 창업을 통한 탈수급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도시형 지역자활센터도 나타나지만, 도농복합형 및 농촌형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 형태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셋째, 이외에도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자의 노동자성, 자활실무자 또는 참여자의 낮은 임금, 사례관리 체계, 자산형성지원사업, 기능 및 유형 다변화 사업, 성과평가 등의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

우리 절에서는 자활사업이 지난 20년 동안 수행해온 현황과 성과 그리고 향후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제2절 자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자활사업의 변천사를 통한 자활사업 인프라 변화

자활사업은 한국 전쟁 이후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 빈곤, 실업 등의 문제를 국민의 단위에서 맞서고 해결하기 위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생산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생산공동체란 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산업화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고용과 실업 그리고 빈곤 문제를 공동체 형태의 협동조합을 형성하여 대응하기 위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산공동체는 오늘날 하나의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적인 생산공동체는 1992년 서울 하월곡동의 ‘건축일꾼 두레’, 1993년 상계동의 봉제협동조합 ‘실과 나눔’, 1994년 봉천동의 ‘나섬 건설’, 1995년 구로의 봉제협동조합 ‘한백’, 마포의 ‘마포건설’ 등이었다(황천호, 2019). 이와 같은 생산공동체는 풀뿌리 공동체를 중심으로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연대를 통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운동 차원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일어난 약 30여 년 동의 생산공동체 운동이 1990년대 이르러 가시적인 양적, 질적 성과를 나타냄에 따라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자활사업이 처음으로 제도화된 시점은 생산공동체 운동에서 ‘자활지원센터’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부터이다. 자활지원센터는 지난 30년 동안 생산공동체의 활동

을 통해 얻은 결실을 ‘자활’이란 이름에 담아 제도화되었다. 이때 자활사업은 여전히 생산공동체 운동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생산공동체 운동이 제도화되어 자활지원센터가 되었으나 그 운동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자활지원센터의 주축이 생산공동체 운동을 했던 인력이 거의 그대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00년 중반까지만 해도 여전히 이 생산공동체 운동성이 자활사업 전반에 내포해 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99년 자활지원센터였던 기관명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도화되면서 ‘자활후견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이 당시는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국가적 실업 및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점을 본격적인 자활사업 제도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자활사업은 우리나라 처음의 근로연계복지라고 평가될 정도로 생계급여와 자활급여를 연계하여 근로조건 이행을 전제로 복지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기부터 자활사업은 그동안 자활사업에 내포되었던 빈민운동 또는 생산자협동조합 정신에 기초하기보다는 정부의 공공부조 일자리 사업 또는 근로복지연계 사업에 기초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7년 자활후견기관 명칭을 ‘지역자활센터’로 변경하면서 자활사업을 중앙정부사업이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면서 지역화를 모색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언급한 ‘지역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기관의 명칭에 ‘지역’이란 이름을 붙이면서 보다 현장 중심이면서 지역 중심의 복지사업 및 일자리 사업으로 바라봐지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이후 자활사업은 인프라의 급격한 확대, 참여자 감소 현상, 그리고 근로미약자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전환기에 놓여 있다. 현재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 또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체계, 기관의 규모에 따른 예산 지원, 센터의 기능다변화, 참여자의 근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례관리체계 도입,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한 탈빈곤 유인책 등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자활사업이 이제 어느덧 20년을 맞이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앞으로 20년은 무엇을 향해 진화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도전을 받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자활사업은 민간의 노력과 경험으로 시작해

서 정부 주도의 근로연계복지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발전 모습으로 인해 민간의 자율성과 적극성보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자활사업에 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자활사업의 운동성과 능동성과 같은 요소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2-1〉 자활사업 변천사를 통해 바라본 자활사업 성격의 변화

연도	명칭	주요 내용
1960~1995	생산공동체 운동	-산업화에 따른 도시 빈민 문제 해결 집중 -대표적운동: 건축일꾼 두레, ‘실과 나눔’, ‘나섬 건설’, ‘한뼘’, ‘마포건설’ -노동자협동조합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과 자주경제조직 운동
1996~1999	자활지원센터	-자활지원센터 명칭으로 시범사업으로 생산공동체의 제도권 진입 -민간에서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 받아 빈민운동에서 확장된 복지사업으로 민관협력체계 구축 -교육을 통한 공동체 개념을 보다 확장
2000~2007	자활후견기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함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으로서 자활사업 시작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근로유능자에게 자활사업 부과 -보다 견고하게 제도화 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과 지원을 함께 받음으로 자율성 하락
2007~ 현재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예산 지원 및 성과평가 실시 -전국단위 자활사업 전달체계 구축 -자활사업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실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실시 등

자료: 황천호(2019)의 글 수정인용.

2. 자활사업 인프라 확대와 성과분석

자활사업이 제도화된 후, 지금까지 자활사업은 지속적인 인프라의 확장과 성장을 이루었다. 2019년 10월 현재, 자활사업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중심축으로 한국자활연수원과 15개 광역자활센터, 249개 지역자활센터로 확장되었다. 이와 같은 자활사업 인프라 확대는 자활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층이 근로를 통해 경제적 자활과 정서적 자활을 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자활 인프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동안 많은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표 2-2〉 지역자활센터 전달체계

구분	운영 현황	운영주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개소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연수원	1개소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15개소	-12개소:(재)한국자활복지 개발원 -3개소:광역시, 지역자활센터 협의회 /지부
지역자활센터	249개소	사회복지법인

지난 20년 동안 자활사업 인프라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또 는 임시방편으로 봉합되어 마치 “문제이지만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인지하고 행동” 하려는 현상이 바로 각 전달체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정의이다. 사실, 이 러한 지적사항은 2004년 광역자활센터가 시범사업으로 출발하면서 지금까지 제 기되는 문제이다. 그 사이 광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만 3번이나 이 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차원에서 큰 노력 을 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최근에 중앙단위 차원의 논의로서 중앙자활센터에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조 직의 명칭과 위상이 변경된 변화이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연수원과 12개 광역자활센터와 같은 법인 체계로 전화되었다. 하나의 법인에 여러 조직을 편입 함으로써 조직이 규모나 체계만을 고려한다면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자활사업의 중 심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외형적인 확장과 달리 하나의 조직같 이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서로 다른 성격과 지향점을 갖는 조직이 부자연스럽게 합쳐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러 조직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는 것은 단순한 통합 자체에만 의미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화학적인 통합이 필 요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현재 세 조직 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 자활연 수원, 광역자활센터가 하나의 체계로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하나가 아닌 각 독립체 로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획, 인사, 예산 등의 면에서 하나의 체계와 규정을 따라야 함에도 현재는 그렇지 못하 고 있다. 당장은 세 조직이 하나의 조직으로 형태를 갖춘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

지만, 향후 유기적이고 같은 규정과 체계 안에서 조직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자활사업 인프라 관련해서 지난 15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이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 간의 역할과 기능이다. 전달체계가 상부에서 하부로 단위로 설계가 되면 상하 조직 간에 불협화음이 덜 할 수 있지만, 현재 자활사업 조직은 그 반대로 하부단위 전달체계가 구축되고 점차 상위조직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구축된다. 이로 인해 하부단위에서는 상위조직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심하며 그 역할과 기능이 충돌할 때는 그 거부감이 더 심각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 모두 서로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지만, 여전히 그 불씨는 남아 있다. 또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간에도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적이 있다. 즉 중간전달체계이자 지원조직인 광역자활센터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하부 조직 역할과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조직의 역할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15개 광역자활센터 사이에도 여전히 다른 조직으로 되어 있다. 현재 광역자활센터 15개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법인화가 이루어졌고, 다른 3개는 아직 시 직영 또는 지역자활센터 지부가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다. 각기 독립적인 법인 형태로 존재하던 광역자활센터를 단시간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법인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센터장에 대한 인사권 문제뿐만 아니라 법인화 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간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향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 지난 15년 동안 자활사업의 운영의 중요한 축인 중앙단위의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자활연수원,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이 네 축이 현재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그려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20년 역시 자활사업 인프라가 태생적으로 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3. 자활사업 인프라 기능과 역할 변화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괄목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자활사업이 제도화된 후 자활사업은 최근 들어 그 참여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감소가 급격하게 나타난 시점은 2015년 정부에서 시행한 취업 우선지원정책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감소는 단순히 자활사업 참여자가 감소하여 매년 배정된 자활사업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활사업 전반에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와 함께 지금처럼 많은 지역자활센터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 참여자는 조 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 특례자이다. 지역자활센터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원인 자활사업 참여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지역자활센터가 과연 적정 규모의 참여자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때 과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 하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이 문제는 도시형의 지역자활센터보다 농촌형 지역자활센터 또는 도농복합형 지역자활센터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을 위한 적정 참여자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센터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사업의 성과 달성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자활사업에서 지속해서 언급되는 것이 앞서 언급한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북행복재단, 전남복지재단 등의 기관에서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연구 중의 하나가 농촌형 지역자활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설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주지하고 있듯이, 농촌형 지역자활센터는 규모 면에서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건강상태가 열악한 참여자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기관들에 도시형 또는 도농복합형 지역자활센터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통해 기관이 역할과 기능을 동일하게 유도한다면 대상과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드물 것이다.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감소 현상과 근로능력 미약자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대부분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기는 하나 거주 인구 자체가 적은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일수록 더 어려운 상황에 부딪쳐 있다. 더 나아가 단순히 이 문제를 지역 단위로만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단위

에서 좀 더 혁신적인 자세로 바라봐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지역자활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하고자 한 다양한 노력 중에 눈에 띄는 시도는 지역자활센터의 기능다변화 사업과 유형 다변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1개 기초지자체에 2개 이상 복수로 설치된 지역자활센터만 제한적 공모 형태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을 다음에 제시된 것처럼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모든 유형의 센터는 사례관리, 인적자원개발, 교육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센터의 강점을 고려하여 네 가지 유형 중 2개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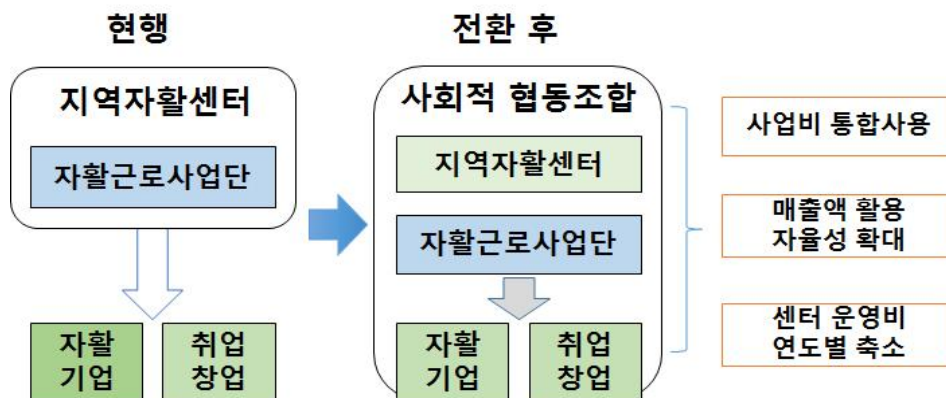
〈표 2-3〉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사업 개요

공통사업		선택사업	
자활사례관리(자산형성 포함)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상담, 홍보, 기초교육 등 긴급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	A	사회서비스 사업형
		B	시장진입 사업형
		C	일자리 연계형(인턴형 자활근로)
		D	사회통합 사업형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제외하고 시범사업 참여 지역 간 성과평가 진행하며, 개별 센터가 아닌 지역 전체 자활사업의 총량을 평가에 반영하여 지자체와 자활센터를 동시에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상의 노력은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로 인해 추가로 지속하지 못하였다. 먼저, 지역자활센터 기능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하겠다. 모든 지역자활센터가 사례관리, 창업, 취업, 교육 등을 한정된 자원 속에서 다 잘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동일 지역 및 인접 지역의 지역자활센터간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센터들이 인위적으로 하나의 센터가 되거나 사업적으로 완전히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지역자활센터 기능다변화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활사업 참여자가 감소하고 노동강도가 강한 자활사업에 참

여할 인원이 점차 감소하고 그 추세가 지속한다면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든 다변화하는 것이 재차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 변화의 노력으로 지역자활센터 유형 다변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사업은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현행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유형다변화 사업에 선정된 지역자활센터는 기존 모법인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던 것을 독립적인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으로 운영하게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된 지역자활센터는 협동조합 체제 내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근로사업단, 취업과 창업, 자활기업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각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업비 통합사용, 매출액 활용 자율성 확대를 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자율성화 재정적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되면, 3년 동안 센터 예산을 슬라이딩-다운(Sliding Down) 방식으로 최대 30%까지 센터 운영비(보조금)를 줄여나가야 한다. 물론 이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은 최대한 확보하되, 지역자활센터가 이전보다 자생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사회적협동조합) 다변화 사업 모형



이와 같은 지역자활센터의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은 처음 시작된 2015년 5개소를 시작으로 2016년~2018년 매년 2개소 그리고 2019년 12개소로 확장되었다.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기관 유형

시범사업 참여연도	기관	지역유형	규모유형
2015	남원	도농복합형	확대형
	마산희망	도시형	기본형
	봉화	농촌형	기본형
	시흥작은자리	도시형	표준형
	제주이어도	도농복합형	확대형(표준형)
2016	안산	도시형	표준형
	충주	도농복합형	확대형(표준형)
2017	부평남부	도시형	확대형
	포항나눔	도시형	확대형(표준형)
2018	평택자활	도시형	표준형
	포항	도시형	확대형
2019	남양주	도시형	표준형
	부천나눔	도시형	표준형
	수원	도시형	표준형
	양주	도농복합형	표준형
	파주	도시형	기본형
	창녕	농촌형	표준형
	합천	농촌형	표준형
	울진	농촌형	표준형
	금정구	도시형	확대형
	사상	도시형	확대형
	사하	도시형	표준형
	보성	농촌형	표준형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인과의 충분한 합의와 동의가 있지 않고서는 신청서 제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2019년 그동안의 전환 숫자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요청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자활센터와 법인과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국의 249개 지역자활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는 법인 모두가 자활사업에 관심이 많거나 지역자활센터와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다. 백학영 외(2017) 연구에서는 법인과 지역자활센터가 교류 및 지원이 오래전부터 많지 않았거나 오히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지지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신청을 한 지역자활센터는 모법인과의 관계가 일정 정도 정리되거나 지지적인 분위기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앞서 제시된 연도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된 센터를 보면, 도시지역에 속한 센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지역에 소재한 지역자활센터가 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자활사업 이미지와 내용으로는 현재의 시장구조에서 아무리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더라도 경쟁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활사업 실무자 또는 참여자 역시 안정적인 보조금이 지원되는 상황에서는 경쟁력을 스스로 갖추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름 말로 표현하면,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 체계의 지역자활센터가 아닌 내부로부터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조직의 체질 개선을 통한 혁신이라고 볼 정도로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에 이루어진 백학영 외(2017)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자활사업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은 자활사업을 공공부조 일자리 및 작업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이 생산하는 양질의 상품이 지역사회에서 선호되지 않거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백학영 외(201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상품을 사회적 협동조합 명칭으로 홍보 및 판매를 했을 때 매출액에서 더 낮은 결과를 얻은 사례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이후, 기관의 전체 매출 증가한 이유는 그동안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은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환은 자연스럽게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로 연결되고 있어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지역자활센터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된 지역자활센터의 매출액이 전환되기 전보다는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백학영 외, 2017). 분석대상 5개 기관 중 4개 기관에서 2014년보다 2016년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활근로사업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매출액은 2014년은 약 1억 9,900만 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약 2억 6,100만 원으로 31%가량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5〉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액, 매출적립금, 직접사업비재투자, 수익금 현황

	2014	2015	증감
남원	95,410,154	227,360,953	131,950,799
마산희망	170,003,812	239,586,288	69,582,476
봉화	150,801,346	158,262,016	7,460,670
시흥작은자리	480,338,058	321,105,657	-159,232,401
제주이어도	96,500,175	359,332,449	262,832,274
평균	198,610,709	261,129,473	62,518,764
총계	993,053,545	1,305,647,361	312,593,816

자료: 백학영 외(2017).

그리고 이 연구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된 센터의 실무자와 참여자 모두 비교적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센터 운영 예산 삭감 문제 및 실무자의 신분 등과 관련한 개선점이 여러 가지 제기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지역자활센터 실무자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자활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책임져서 해야 할 센터 운영을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이라는 명목으로 시장화하려는 의도 또는 책임 회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2019년 지역자활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에 12개 센터가 전환되었다는 것은 분명 자활사업 현장에서도 지역자활센터의 위기와 그에 따른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향후 더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주제이다. 자활사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지역자활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또는 점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자활센터 역할 기능의 문제는 지속해서 다루어지고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4. 자활실무자 특성 변화와 전문성 제고

2000년 이전 생산 운동을 했던 기존 운동가의 상당수가 제도권 내로 진입하여 자활사업의 주축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때 자활사업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자활사업의 생산공동체 운동의 또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고 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현재 대부분 지역자활센터의 실장 이하 자활실무자는 생산공동체 운동을 이끌었던 세대와 분명 다르다. 즉 과거 자활사업을 생산공동체 운동 및 빈민운동의 하나로 생각하고 자활사업에 종사했던 실무자와 2000년 자활사업이 제도화된 이후 자활사업에 진입한 세대와는 자활사업에 대한 경험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실제로 과거 생산공동체 운동을 했을 당시 현장 전문가였던 세대는 현재 대부분 센터장 또는 기관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기존 센터장이 맡았던 업무를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학생 또는 자활경험이 부족한 인력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센터장과 실무자 간 많은 충돌과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의 실무자들은 비록 급여가 적고 업무가 많고 힘들어도 소명의식을 갖고 자활사업을 했다면, 오늘날 실무자들은 그러한 헌신과 소명을 강요받기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조건과 근무환경도 소명의식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현재 많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실무자를 채용할 때 경험하는 것은 한 번의 채용공고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렵게 채용을 하더라도 자활에 대한 이해 및 소명의식이 부족한 사람으로 어쩔 수 없이 충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근에 충원되는 자활사업 실무자는 소명의식보다 근로조건이나 급여가 맞지 않으면 경력을 쌓은 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실무자의 잦은 이직과 이직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실무자의 부족뿐만 아니라

자활사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해서 지속해서 논의되는 것은 자활사업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지역자활센터에 종사하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 측면에서 사업기획, 사업 진행, 사업컨설팅, 마케팅, 예산, 평가 등의 영역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낮은 처우로 인한 인력의 낮은 이직은 전문성이 낮은 실무자로 채워지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지역자활센터에 채용되는 인력 중 상당 수가 사업기획부터 예산과 평가과정에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실무자가 많다. 따라서 실무자의 전공 및 경험과 무관하게 사업의 기획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역량 강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자활센터의 주요 사업인 자활근로 사업단 및 자활기업이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활실무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역량강화지원사업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연수원, 광역자활센터에서 역할을 나누어 보수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

5. 자활사업 장기참여자와 참여자 현황 분석

자활사업은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시기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시점이지만, 자활사업은 2000년 이전에 이미 시범사업 수준에서 진행된 바 있다. 따라서 길게는 2000년 이전부터 참여해서 현재까지도 참여한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 기간을 분석하기 위해 자활패널조사(2014)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 참여한 1,436명 중에서 가장 오랜 참여경험을 파악된 사람은 2014년 조사 시점 기준 최대 18년을 자활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1999년을 시작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전부터 자활사업에 참여경험이 있는 장기참여자는 8명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제도화된 2000년 이후 2010년 동안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4~14년을 참여한 경험을 가진 참여자는 594명으로 전체 조사 응답자의 41.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고려해보면 본 조

사에 참여한 참여자의 약 43% 내외가 최소 4~18년 동안의 자활사업 참여를 지속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20년 가까이 자활사업에 참여한 참여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6〉 자활사업 참여 시기

(단위: 명, %)

연도	빈도	백분율	참여기간 (2014년-자활사업 참여시점)
1996년	1	0.07	18
1997년	2	0.14	17
1998년	2	0.14	16
1999년	3	0.21	15
2000년	13	0.91	14
2001년	9	0.63	13
2002년	11	0.77	12
2003년	9	0.63	11
2004년	11	0.77	10
2005년	35	2.44	9
2006년	32	2.23	8
2007년	41	2.86	7
2008년	80	5.57	6
2009년	158	11.00	5
2010년	195	13.58	4
2011년	266	18.52	3
2012년	536	37.33	2
2013년	32	2.23	1
Total	1436	100.0	-

자료: 자활패널자료(2014).

물론 최근에 만들어진 자활사업 지침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자활사업은 5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처럼 자활사업을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예측된다. 자활사업에 참여자 상당수가 근로능력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수준도 매우 낮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서는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자활사업에서 참여자가 장기간 참여한다는 것을 복지의존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활사업 참여 자체가 의미가 있는 참여자도 상당수라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현행 자활사업의 정책목표가 취업과 창업을 통한 탈빈곤이라고 한다

면, 장기수급자가 취업과 창업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관리, 기초교육, 직무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자활사업에 장기간 참여한다는 것은 분명 사회적으로나 참여자 본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와 함께 참여자 개인적으로는 복지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과연 현행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기에 적절한 대상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이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노동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자활사업에 장기간 참여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힘든 대상을 근로무능력자 중 조금 역량 점수가 높다고 해서 강제로 참여시킨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자활사업 참여 선전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대부분은 근로능력 판정에서 근로무능력자로 판정되었음에도 그들 중에서 높은 점수 40~60점에 속한다는 이유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이 논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 제도화 20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기존 자활센터의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준이 적절하다고 인정한다 치더라도 근로무능력자에게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 인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설사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이를 그저 그래왔으니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봐야만 자활사업 장기참여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자활사업에 한 번 진입하게 되면 지속해서 참여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활사업 참여자는 2015년 이후 취업 우선지원정책을 실시하면서 참여자의 감소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비록 최근에 이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를 통해 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가 미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7〉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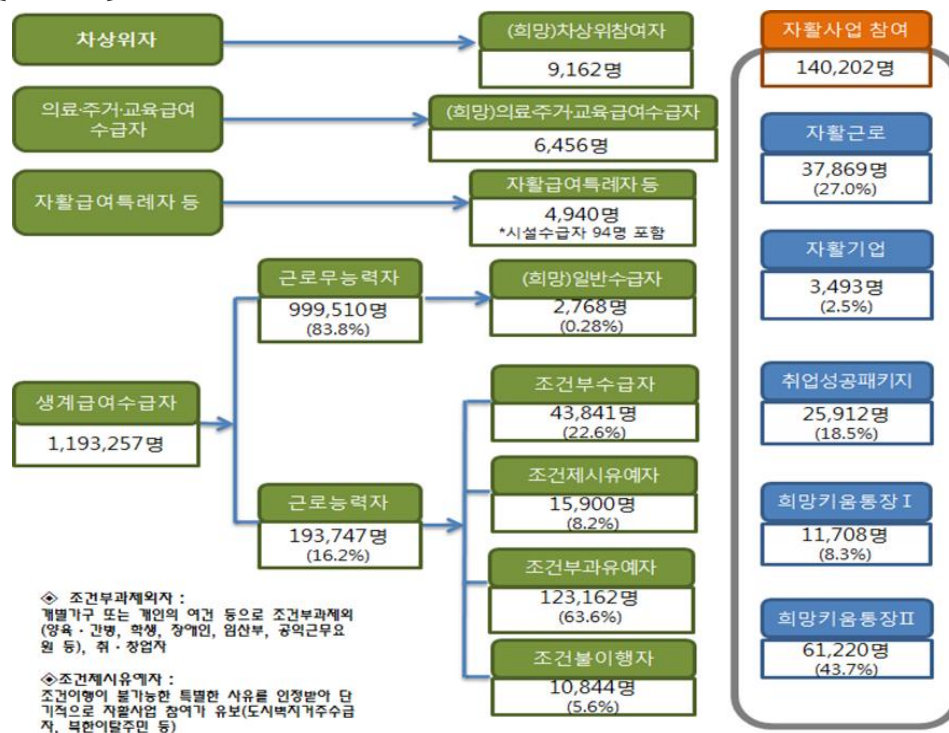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참여자	88,839	87,226	83,368	96,659	98,980	101,626	99,574	97,512
보건복지부	86,399	79,311	69,958	81,651	80,990	75,532	69,925	71,600
고용노동부	2,440	7,915	12,410	15,008	17,990	26,094	29,649	25,912

자료: 오창균(2019).

2018년 복지부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여자 약 14만 명 중 자활근로사업 약 3천 명, 자활기업 약 3천 명으로 약 4만 명 내외 참여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정도의 규모로 전국의 247개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된다는 것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노력과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2] 2018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2018)

그리고 방안들이 모색될 때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 지금까지 언급된 방법 즉, 조건부과예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차상위계층의 참여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노숙인, 다문화가족, 교정, 청년 등에게까지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를 위해 현재 높아져 가는 조건부과예외자 비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차상위계층이 좀 더 참여할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 몇 개만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해서 자활사업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을 미세조정해서 참여하는 근로자가 많더라도 결국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참여자만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욱 혁신적인 관점에서 공격적으로 자활사업 대상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자활사업 참여자를 다문화가족 여성, 노숙인, 교정대상자, 청년까지도 더 공격적으로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대상들이 부처별 소관 유사 사업이 존재할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이들 대상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논의해보는 것도 고민해볼 만하다고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청년자활사업은 새롭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가구 자녀 중 청년들이 가구의 생계급여와 수급권 문제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청년들에게 국가가 자립과 자활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청년 자활을 수행하는 센터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청년 모집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활사업 참여했다가도 포기하는 참여자가 많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자활사업의 존재를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감소와 이에 적절한 확대방안에 대한 고민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만 자활사업의 20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 분석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에 관한 문제는 자활사업이 제도화된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그러한 문제들이 2015년의 취업 우선지원정책을 통해 더 심각해지고 그것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로 나타나면서 더 중요하게 대두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자료는 행복e음 자료일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행정자료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료에 대한 신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일부에서 분석된 자료의 결과를 살펴보면 간접적으로나마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홍범(2017)의 자료에 따르면, 자활사업에 참여한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50~51세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2015년 이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참여자의 평균 자활역량점수는 약 51점 내외로서, 이러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자활역량 평가점수를 고려할 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자활역량 평가점수는 이들보다는 더 낮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하겠다.

〈표 2-8〉 시기별, 지역별 참여자 자활역량 평가 점수

(단위: 점)

구분	시행전 (2012.9~2.13.4)	시범사업실시시기 (2013.9~2014.4)	확대실시시기 (2014.5~2014.12)	제도개편시기 (2015.1~2015.4)
초기실시지역	49.3	49.1	49.3	48.5
확대실시지역	51.2	51.0	51.4	50.8
전체	51.8	51.6	51.8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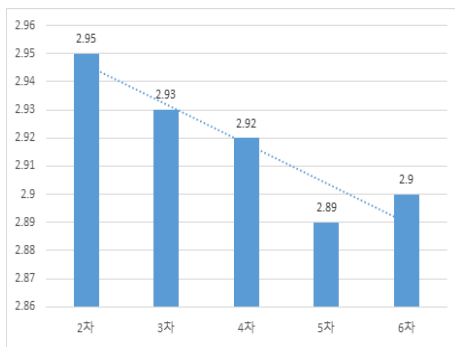
자료: 손홍범(2017).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집한 자활패널조사 2차~6차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가 인식하는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타인과 비교한 건강상태 및 지난 1년 전과 비교한 건강상태 역시 전반적 건강상태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현재 자활사업 참여하는 참여자가 인식하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수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에서 부과되는 직무 수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건강상태 점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성공패키지로 갔을 때의 점수가 평균 50점 내외라는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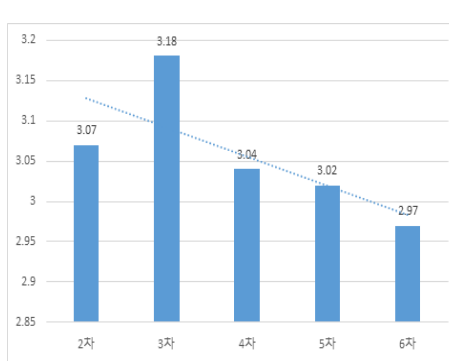
실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역량점수가 정량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과 함께 자활패널 조사 자료를 통해 파악된 자활사업 참여자가 인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가 해마다 감소한다는 두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즉,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상태는 아주 오래전에도 좋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상태는 제도변화 요인을 통해 더 좋지 않아졌다는 사실이다.

〈표 2-9〉 자활사업 참여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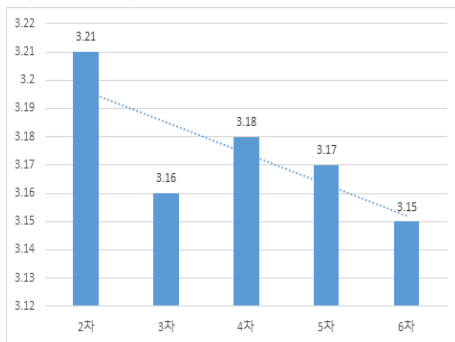
구분	2차	3차	4차	5차	6차
전반적건강상태	2.95	2.93	2.92	2.89	2.9
타인파비교한건강상태	2.93	2.92	2.91	2.9	2.9
1년전비교한건강상태	2.86	3.08	2.83	2.89	2.85
일상생활수행가능정도	3.1	3.05	3.07	3.1	3.03
취창업가능정도	3.07	3.18	3.04	3.02	2.97
현재직무수행가능건강상태	3.21	3.16	3.18	3.17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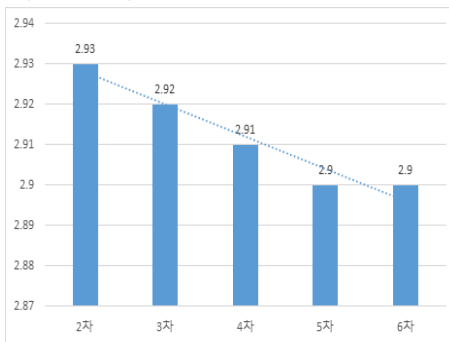
[그림 2-3] 전반적인 건강상태



[그림 2-4] 취업 및 창업가능한 건강상태



[그림 2-5] 현재 자활사업 참여가능 건강상태



[그림 2-6] 동일 연령대와 비교한 건강상태

자료: 자활복지패널(2017).

이처럼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상태가 점차 나빠지는 것은 참여자의 건강 자체가 나빠졌다는 사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활사업 노동강도를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자활사업이 단순히 근로 의지 및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사례관리 프로그램 수준으로 평가된다면 자활사업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건강상태에 맞게 설계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자활사업의 정책목표 중의 하나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탈수급률, 취창업률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정책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정책개입 효과성 지표가 상당 부분 불일치한다는 문제이다. 심지어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탈빈곤율 및 탈수급률은 지자체 통합 평가 지표의 하나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와 정책대상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례관리와 치료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다 근로능력이 좋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참여자의 확보되어야 한다.

7.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변화에 따른 사례관리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사업 부적응자, 장기체류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에 실시된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사업으로 인해 자활 사례관리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실제로 2013년 하반기부터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으로 인해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중 근로능력미약자의 비율 증가하였다. 따라서 자활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성 증가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중 50대 이상의 참여비율은 증가(47.9%→51.8%→55.3%),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 유지가 필요한 시장진입형 사업단의 비율은 지속해서 감소(41.3%→37.3%→35.4%)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이처럼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례관리가 필요한 참여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변화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

사례관리에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에 사례관리가 도입되면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례관리가 체계성 없이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자활사업에 적용되는 사례관리의 종류는 Gateway 사례관리,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내일키움통장 사례관리, 인큐베이팅 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총 5개이다. 사례관리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다양한 특성과 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지역자활센터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산발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다. 즉, 지역자활센터처럼 큰 기관이 아닌 곳에서 여러 형태의 사례관리가 각각 이루어진다면, 이를 맡은 사례관리자의 수와 역량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자활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형태의 사례관리에 대한 문제 시 되는 실정이다. 물론 모든 센터가 5개 종류의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제시된 표에 따르면, 전체 247개 센터 중 게이트웨이 사례관리를 운영하는 기관은 109개소, 자활사례관리 운영센터 90개소, 통장사례관리를 운영하는 기관은 총 143개소 나타났다.

〈표 2-10〉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유형

(단위: 점)

	게이트웨이 사업센터	자활사례관리 사업센터	통장사례관리 사업센터
기존	93	77	사업센터: 143
신규	16	13	
합계	109	90	143

자활사업 참여자의 장기수급, 근로능력 저하, 고령화, 심리사회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자활사업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것이 사례관리이다. 사례관리는 자활사업에 사례관리 개념이 도입되면서 인큐베이팅 및 게이트웨이, 자활사례관리, 통장사례관리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및 다양한 교육 등의 지원 하고 있다. 실제로 광역자활센터 차원에서도 자활사례관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례회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사례관리에 대해 매년 우수 자활사례관리 및 우수 통장사례관리를 발굴하고 시상하여 공유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사례관리가 점차 중요해지고,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특성 변화로 인해 많은 지역자활센터가 사례관리 개념을 자신들의 센터 프로그램에 시범사업 형태든 각자 센터의 상황을 반영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자활사례관리 개념이 도입되고 시범사업형태로 확대 운영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첫째, 같은 대상층으로 하는 249개 지역자활센터에서 각기 다른 사례관리를 운영함으로써 사례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체 249개 센터에 동일하게 운영하는 사례관리지원 사업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249개 지역자활센터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은 사례관리 사업이 일부 센터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지역자활센터에서 균질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고 있듯이, 지역자활센터의 인력 현황은 매우 열악한 현황이다. 기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지역자활센터 평균 실무자 수는 6~7명 수준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지원을 받는 센터와 그렇지 않은 센터 간에 사례관리 업무 수행 여부 및 사례관리 질적 수준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사례관리 종류 중 게이트웨이 및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센터와 통장사례관리자가 지원되는 센터 간 사례관리의 내용과 수준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활사업에서 사례관리가 중요함에도 여전히 시범사업 수준에서 사례관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센터 간의 사례관리 수준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하겠다. 자활사업에서 자활사례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시범사업 형태로 지속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이다. 그리고 시범사업 센터로 선정되지 않은 센터에서는 사업을 위한 사업 인력도 부재한 상황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누군가에게 부과해야 하고 이로 인해 기관의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업 진행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와 연계된다. 현재 적용되는 성과평가 지표 내에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적절히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통해 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센터의 사례관리 사업과 그렇지 않은 센터의 사례관리 사업을 평가하는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자활사례관리의 시범사업 운영방식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례관리 사업 방향 설정 아래 다양한 지원의 체계가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센터별로 다양한 사례관리 시범사업 및 사례관리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사례관리자 간에 발생하는 처우 및 고용불안의 문제이다. 게이트웨이와 자활사례관리가 운영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참여자의 근로능력 저하와 심리·사회적 불안 역시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활사례관리가 자리 잡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는 점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자활사례관리자의 연봉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다. 그리고 이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기 위해 중앙자산키움펀드 재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지침 개정으로 요원해지고 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사례관리자는 이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고, 이마저도 지침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센터별로 천차만별의 임금을 지원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통장사례관리 역시 2017년 이후 임금이 동결된 상황이다. 이처럼 지역자활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원 세 명 모두가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셋째, 자활사례관리사의 낮은 처우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는 자활사례관리자의 잦은 이직과 전문성 결여이다. 자활사례관리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언급할 때 일선 현장에서 먼저 지적하는 것이 자활사례관리자의 전문성과 근속이다. 주지하고 있듯이, 대부분 자활사례관리자는 시범사업 중심으로 고용상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다. 아마도 대부분의 전담 자활사례관리사의 고용 신분은 계약직으로서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담 자활사례관리자의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자활사례관리 담당자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선 자활사례관리자들이 모이는 회의에 참석하면 자활사례관리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자활사례관리자의 잦은 이직은 실제 사례관리대상자와의 라포형성 및 정보의 지속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문제는 자연히 자활사업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활사례관리자의 잦은 교체는 자활사례관리자의 전문성이 모자란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자활사례관리자는 젊고 관련 경험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자활사례관리자의 고용 신분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잠시 채용되어 근로하다가 구직활동을 통한 이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잦은 이직은 관련한 전문성이 쌓이기도 전에 이직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쌓일 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지역자활센터에 나타난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변화는 기존의 자활사업의 접근방식으로 그 결과나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새롭게 변한 자활사업 및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개입과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자활센터별로 적절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8. 자활사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사업성과 분석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축적을 통한 탈빈곤율을 높이기 위하여 내일키움통장이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인 2013년 4,383명이었다가 2017년까지 약 13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처음 내일키움통장사업에 진입하기 이전의 소득 대비 2013년부터 2017년 동안 가입자의 소득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소득증가로 인한 수급탈락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표 2-11〉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소득추이

	2013년 가입자	2012년 대비 증감	2014년 가입자	2013년 대비 증감
2012년	711,354		576,252	
2013년	812,462	114.2	667,357	115.8
2014년	798,036	112.2	790,075	137.1
2015년	805,909	113.3	788,448	136.8
2016년	782,357	110.0	788,784	136.9
2017년	771,533	108.5	785,622	136.3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을 포함함.

자료: 조준용 외(2018)

반면에 소득과 달리 금융재산의 추이는 제도 진입 초기에 비해 5년이 지난 2017년 약 1.3배의 증가 폭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 통장사업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는 1.5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물론 큰 변화는 아니지만, 가입의 소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표 2-12〉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금융재산 추이

구분	2013년 가입자	2012년 대비 증감	2014년 가입자	2012년 대비 증감
2012년	8,151,089		7,594,617	
2013년	9,108,390	111.7	8,207,793	108.1
2014년	9,379,076	115.1	8,706,077	114.6
2015년	10,042,237	123.2	9,356,694	123.2
2016년	10,449,825	128.2	9,545,823	125.7
2017년	10,677,202	131.0	11,152,965	146.9

※ 금융재산: 금융성 증여재산,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증권거래, 보험증권, 비상장주식,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자산형성사업통장, 연금, 실업급여, 퇴직연금, 기타 일시금

또한, 통장사업 가입자의 일반재산을 분석한 결과, 제도 진입 초기와 비교하면 4~5년이 지난 시점에 일반재산이 약 2.7배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3〉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금융일반재산 추이

	2013년 가입자	2012년 대비 증감	2014년 가입자	2012년 대비 증감
2012년	4,275,683		3,548,286	
2013년	4,753,721	111.2	3,789,675	106.8
2014년	6,397,770	149.6	4,626,596	130.4
2015년	8,243,313	192.8	6,078,941	171.3
2016년	9,463,510	221.3	7,057,018	198.9
2017년	11,365,083	265.8	8,170,364	230.3

※ 일반재산: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항공기/동산, 자동차, 회원권, 분양권 등
자료: 조준용 외(2018)

이처럼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그동안 소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활사업에 새로운 전환기를 제시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경제적인 자활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자활의지를 고

취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조준용 외(2018)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일 키움통장 가입자가 자산형성지원을 사업 참여를 통해 자신이 과거보다 더 열심히 근로하는 태도로 변했다고 하거나 가족으로부터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표 2-14〉 내일키움통장 참여 이후 일과 자신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일하는 것이 즐거워졌다.	33(27.0)	55(45.1)	27(22.1)	7(5.7)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33(26.6)	58(46.8)	27(21.8)	6(4.8)	
미래를 생각하면 점점 자신이 생긴다.	34(27.6)	42(34.1)	36(29.3)	11(8.9)	
자녀(혹은 가족)에게 더 당당해질 수 있다.	35(28.9)	48(39.7)	31(25.6)	7(5.8)	
통장 가입 후 자존감이 더 높아졌다.	32(26.2)	42(34.4)	39(32.0)	9(7.4)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	28(23.3)	39(32.5)	39(32.5)	13(10.8)	1(0.8)

자료: 조준용 외(2018)

이처럼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있어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탈수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 능력은 여전히 미약함에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될 때 탈수급이라는 이행조건이 부과되어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통장사업 가입은 일종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 그리고 지원일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통장사례관리자가 내일키움통장 뿐만 아니라 희망키움통장까지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양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통장사례관리자 실질적인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업무이 과부하로 인한 내일키움통장 관리자에 대한 깊이 있는 사례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량 면에서도 더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통장사례 관리는 통장가입자에게 정기적인 연락과 함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가입자 교육 관련

업무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통장사례관리자의 적절한 업무 분석과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례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장사례관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뿐만 아니라 통장사례관리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한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9. 지속가능한 자활기업 육성 방안 마련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중 매출액과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들이 전환됨으로써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자활기업은 총 1,211개 사업체 13,512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현재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성공률을 산정할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의 중요한 결과물이자 자활사업 전반의 중요한 성과지표로 간주되고 활용되고 있다.

〈표 2-15〉 자활기업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기업 수	참여인원
지역자활기업	1,170	5,940
광역자활기업	38	1,561
전국자활기업	3	6,011

자료: 보건복지부(2018)

현재 자활기업의 주요 업종을 분석하면, 청소, 집수리, 돌봄, 재활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마치 과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5대 표준화 사업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자활기업의 업종별 현황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자활사업은 5대 표준화 사업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 성격이 갖는 업종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더 커서 지난 20년 동안 변하지 않고 표준화 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난 20년 동안 지역자활센터들은 실제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

여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자활사업을 둘러싼 대내외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일부 사업들은 성공하고 또 다른 사업들은 실패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의 산물이 표준화 사업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는 자활사업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러한 업종과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왜 지난 20년 동안 5대 표준화 사업을 벗어나지 못했는가에 대한 사업의 다양성과 확장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이다. 자활사업이 보호된 시장에서의 지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쟁력을 갖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시도를 했음에도 시장에서 실패하게 된 것이라는 차원의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표 2-16〉 자활기업의 업종 현황

(단위: %)

구분	청소/소독	집수리	돌봄 (간병)	음식/ 도시락	폐자원재 활용	서비스/세 차	기타	계
개소	252	212	111	190	56	28	321	1,170
비중	21.5	18.1	9.5	16.2	4.8	2.5	27.3	100

자료: 보건복지부(2018)

이처럼 자활기업이 처한 상황을 업종의 경쟁력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자활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이유는 자활기업의 업종뿐만 아니라 자활기업이 갖는 인력특성과 지원 체계와도 관련이 있다. 즉, 자활기업 종사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일반적으로 자활기업 종사자들이 가진 인적자본 및 근로능력, 자본력, 기술 등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와 같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원해야 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그 지원 체계는 광역자활센터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건복지부가 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별 소재한 광역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와의 역할과 기능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부분이 자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이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전환된 후 일정 기간에 한시적인건비 지원과 행정지원을 지역자활센터와 지자체로부터 받게 되어 있다. 이 과정이 종료되면, 상당수의 자활기업은 바로 기

업이 도산 및 폐업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전환되면서부터는 광역자활센터가 더 적극적으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 행정, 예산 지원 측면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현재는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에 대해 어떤 서비스나 관심을 두고자 하더라도 지역자활센터와의 미묘한 관계로 인해 당연히 그렇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광역자활센터가 직접사업보다는 자활기업에 대한 전 방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자활기업 성장의 한 축으로 많이 논의되는 것이 자활기업의 광역화 또는 규모화하는 작업이다. 2018년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광역자활기업은 38개소, 전국적 규모의 자활기업은 3개소로 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국 자활기업의 기업수는 3개소이지만 참여 인원은 지역자활기업 또는 광역자활기업의 숫자만큼이나 참여 인원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유사한 자활기업에 대한 규모화와 광역화가 일자리 창출 측면이나 사업의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실제로 자활기업 참여자의 인원현황을 보면, 10인 이하 자활기업이 전체 자활기업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당수의 자활기업이 소규모 영세자영업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광역자활센터는 지역의 다양하고 많은 자활기업의 광역화 및 규모화를 위한 사업지원 노력을 한다면, 자활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성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2-17〉 자활기업 규모별 참여인원 현황

구분	5인 이하	6인 이상~10인 이하	11인 이상 ~ 30인 이하	31인 이상 ~ 50인 이하	51인 이상~100인 이하	100인 이상	계
개소	916	179	63	8	2	2	1,170
비중	78	15.3	5.4	0.7	0.1	0.1	100

자료: 보건복지부(2018)

10. 자활사업 성과평가와 자활성공률 분석

자활사업에 성과평가 개념이 적용되면서 자활사업은 2010년부터 평가가 시행

되었다.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가 시작된 후 2016년 현재 평가 지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다음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부 지표는 1회 또는 2회 정도만 적용되고 삭제되고 대신 새로운 지표가 추가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업 또는 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평가시행 초반 이후 일정 정도의 지표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지표의 다양한 변화는 충분히 당연할 뿐만 아니라 지표에 대한 정의 또한 변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만흔 지표와 각 지표의 잦은 변화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피감기관에는 참으로 힘든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현행 지역자활센터 지표는 2015년과 2016년 사이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향후 지표는 좀 단순화 하면서 지표 변화 역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표 2-18〉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지표 변화

구분	16	15	14	13	12	11	10
참여자수						●	●
자활성공율					●	●	●
취창업율	●	●	●	●			
탈수급율		●	●	●	●		
급여변동율	●						
취창업유지율	●	●					
취업유지율				●			●
취업유지율_3개월			●	●	●	●	
취업유지율_6개월			●	●	●	●	
자활공동체_1인당월평균급여						●	●
자활공동체수						●	●
자활공동체생존율						●	●
참여자직무교육이수율	●	●	●	●	●	●	
참여자인적자본향상	●	●	●	●			
전문자격증비율					●		
민간자격증비율					●		
자산형성지원	●	●					
시장진입형_1인당연평균수익금	●	●	●	●	●		●
시장진입형_1인당월평균매출액	●	●	●	●	●	●	
시장진입형_자활기업전환참여자비율					●		
사회서비스형_이용자만족도	●	●	●	●	●	●	

사회서비스형_1인당연평균수익금	●	●	●	●	●		●
사회서비스형_1인당월평균매출액	●	●	●	●	●	●	
참여자소양교육이수율	●	●	●	●	●		
자활기업_참여자1인당월평균급여액	●	●	●	●	●		
자활기업_수급자비율				●	●		
자활기업_대표자만족도					●		
자활기업_사회적기여율	●	●	●				
자활기업_일자리증가율		●	●				
자활기업_사업지속율	●	●					
사례관리체계화수준	●	●					
사례회의개최율			●	●	●		
종사자직무교육이수율	●	●	●	●	●	●	
종사자직무교육이수시간							●
네트워크인식도조사					●		
홍보	●	●	●	●	●		
종사자1인당근속일수	●	●	●	●			
외부기관후원연계	●		●	●		●	●
종사자복지지원	●		●				
지역사회공헌건수	●		●				
사회적경제협력건수	●		●	●	●		
사회적혁신신성			●				
지역취약계층지원_일자리	●		●		●		
자활기업교육지원	●						
지자체위탁사업	●		●	●	●		
민간공모사업	●		●	●	●		
지역유관기관공동연계사업건수					●		
자활사업미참여자_지역일자리성공율				●	●		
지역특화사업	●						
재무회계투명성		●	●	●	●		

앞서 살펴본 지표 중 삭제되지 않고 지속해서 적용되고 강화되는 지표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자활성공률과 탈수급률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자활사업을 통해 자활성공률 지표를 발표한다.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성공률은 2012년 대비 2017년은 2배 이상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률을 살펴보면, 2012년 14.7%이었던 것이 2017년 25.1%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한적인 자료지만 2015년 이후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공률 및 탈수급률이 감소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2012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던 자활성공률과 탈수급률이 왜 감소 추세를 보이는가요?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감소와 함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이 매우 낮아졌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자활사업 전반에 활기가 낮아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량적으로 성과지표가 서서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된다.

〈표 2-19〉 자활성공률과 탈수급률 추이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자활성공률	13.6	15.9	33.7	—	37.3	34.4
탈수급률	14.7	15.9	20.1	—	28.5	25.1
정의	- 자활성공률: 취업 및 창업자수 - 탈수급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난 참여자수					

자료: 보건복지부(2018).

이 부분에서 아이러니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활사업 참여자는 감소하고 참여자의 근로능력이 낮아 취업 및 창업 그리고 탈빈곤율은 낮아지는데 그것을 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과 평가하고자 하는 지표가 여전히 일치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참여자의 특성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를 여전히 자활성공률을 평가겠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여러 정치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취업 및 창업률 지표를 삭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실제로 학계나 현장 실무자는 이 지표에 대한 가중치 및 배점을 줄이고 오히려 사례관리와 같은 근로 의지나 근로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수행한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평가와 관련한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평가의 형평성 문제이다. 지역자활센터는 매년 전년도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를 앞서 제시한 표에 근거하여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표를 적용하면서 전국의 249개 지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같은 자활사업을 하는데 서로 다른 지표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각 지역자활센터가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고려나 가중치 부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도시형에 속한 지역자활센터의 약 90%는 70점 이상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농촌형과 도농복합형은 60점대 이하 비율이 도시형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0〉 지역자활센터 지역유형별 성과평가 점수 분포

(단위: 개소, %)

구분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전체
50점 미만	2(3.1)	4(7.8)		6(2.7)
50-59점	3(4.7)	1(2.0)	5(4.6)	9(4.0)
60-69점	13(20.3)	8(15.7)	6(5.5)	27(12.1)
70-79점	23(35.9)	24(47.1)	43(39.4)	90(40.2)
80-89점	20(31.3)	10(19.6)	41(37.6)	71(31.7)
90점 이상	3(4.7)	4(7.8)	14(12.8)	21(9.4)
합계	64(100.0)	51(100.0)	109(100.0)	224(100.0)

이처럼 각 지역자활센터가 속한 지역 구분에 따라 성과평가 점수가 다른 상황 속에서 평가등급을 부여할 때, 각 지역 유형에서 상대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기관 수를 고려한 최우수, 우수, 미흡 기간을 선정한다.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공평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비슷한 점수대를 갖고 있지만, 센터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점수가 높음에도 낮은 등급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점수가 낮음에도 높은 등급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다음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이 실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두 지역 유형 센터가 최우수 숫자는 도농복합형다는 기관 수가 적은 농촌형에 더 많은 센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수센터의 경우 평균 80점대 평가를 받아야 우수기관이 되는데, 도농의 경우 70점대를 받아도 우수센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흡기관의 경우 도농복합형 센터보다 농촌형에 센터가 60점대 평가점수를 받고도 보통 등급을 받지 못하고 미흡에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현행 지역자활센터 평가 지표는 센터별로 동일한 지표

를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잣대를 사용하지만, 실제 등급을 부여할 때는 동일 지역의 소재한 기관끼리만 평가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결여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

〈표 2-21〉 농촌형 지역자활센터 도농복합형 지역자활센터 평가등급 분포

(단위: 개소, %)

구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합계	
	농촌	도농	농촌	도농	농촌	도농	농촌	도농	농촌	도농
50점 미만							2	4	2	8
50-59점							3	1	3	7
60-69점					10	8	3		13	34
70-79점				2	23	22			23	70
80-89점	4	4	13	9	3				20	53
90점 이상	3	4							3	10
합계	7	5	13		46		8		64	143

제3절 시사점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도입된 자활사업은 어느덧 20년을 맞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자활사업 인프라는 1개 중앙지원조직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5개소의 중간지원체계, 249개소의 실행기관인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1개의 자활연수원까지 확대되었다. 이 기간에 자활사업 현장에서는 정부 취업 우선지원 정책으로 인한 참여자의 급격한 감소와 같은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현행 자활사업의 목적인 취업 및 창업률, 탈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변화를 모색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역자활센터 기능 및 유형다변화 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도입, 희망리본사업, 사례관리지원사업, 청년자활사업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자활사업의 인프라 확장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정책변화 시도는 자활사업이 나름의 방식으로 변화하는 자활 내외부의 변화에 대해 대응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활사업은 양적 성장만큼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의문점이 있다. 즉 자활

사업이 지난 20년 동안 많은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겠지만, 그만큼 자활사업이 질적으로 성장해서 투입한 예산 대비 사업의 성과를 달성 또는 달성하려고 노력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눈초리가 있다.

지금까지 기술했던 자활사업의 문제를 세 가지 관점에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자활사업이 가진 다양한 문제를 자활사업 인프라 관점, 인적자원 관점, 사업 운영 관점, 사업평가 관점에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은 지난 20년 동안 놀라울 정도의 확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지적하는 것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자활연수원)-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 간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확대한 인프라 구조만 보면 흠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체계가 갖춰진 것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서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중앙조직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 간 역할과 기능,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 간 역할과 기능, 광역자활센터와 자활연수원 간 역할과 기능 문제 등 문제가 산적하다. 제도가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아직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각 조직이 왜 존재하며, 무엇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의 규모만을 확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자활 20년이 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철저히 이루어져 향후 보다 체계화된 자활사업 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활사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적 구성인 실무자와 참여자 변화이다. 최근에 종사하는 자활실무자와 15년 이상의 빈민운동을 경험한 실무자 간에 자활사업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분명 다르다. 일선 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여러 번 지적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자활사업 실무자의 특성은 자활사업을 빈민운동 및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직업적 또는 사회복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두 관점에서 발생하는 차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종종 충돌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 실무자의 특성이 변했다면, 그것에 맞는 적절한 보수체계, 교육체계,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복지 영역에서 지역자활센터는 매우 힘든 일자리로 알려져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인력과 함께 인력의 잦은 이직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실무자의 잦은 이직은 자활사업 실무자의 전문성이 쌓을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무자의 잦은 이직은 자활실무자의 전문성이 매우 낮아지는 결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활실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채우는 자활사업 전반의 질적 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난 20년 동안 자활사업 실무자만 변한 것이 아니라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역시 함께 변화했다는 점이다. 지금의 자활사업 참여자는 과거와 달리 근로능력 및 건강상태 수준이 매우 낮다. 실제로 자활 현장에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 고령화, 심신 미약자 비율과 근로능력 미약자 증가는 자활사업이 과거의 자활사업을 통한 취업 및 창업을 이룰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활사업 현장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 고령화와 함께 취업 우선지원 정책으로 인한 참여자 감소, 근로능력 미약자 증가 문제로 인해 자활근로사업단 유지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연스럽게 자활근로사업에서 자활기업으로의 전환 사례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변화에 맞는 자활사업의 목적 재설정 및 이들에 대한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심리·사회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업운영 측면에서, 지난 20년 동안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다. 희망리본사업, 지역자활센터 기능 및 유형 다변화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관리지원사업, 청년자활사업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느 하나 문제없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희망리본사업은 사업의 성과가 좋았으나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로 사업이 이관되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사업은 시범사업 후 호지부지된 상태이고, 유형 다변화사업은 현재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부분에서도 사업의 목적 방향 및 예산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현재 나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사례관리

측면에서 해결할 문제가 산적하다. 사례관리지원사업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그리고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내에서 사례관리자 간 다른 처우와 보상체계, 사례관리 지원의 체계성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자활사업 역시 나름 정책의 목표가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상을 발견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 이처럼 자활사업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업적 변화는 분명 자활사업의 발전하는 모습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산적해 있는 문제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각 주제에 대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방향과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업의 평가 측면에서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 평가 체계의 확립이다. 지난 20년 동안 평가체계가 도입된 시점 이후 성과평가 주기와 지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표의 증감을 포함한 지역자활센터 평가 방식이 많은 변화가 함께 있었다. 그러나 성과평가 주기와 관련해서 아직도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 간 이견이 존재하고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평가 지표 역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 즉 센터의 지역 유형과 규모 유형에 따른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적 기준을 사용하면서 평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모두가 만족하는 평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체계가 지난 20년 동안 확립되지 못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지적이다. 앞으로 20년은 이러한 평가에 대한 독립성, 투명성, 형평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이 걸어온 지난 20년에서 벗어나 어떠한 방향으로 자활사업이 나아갈지에 대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지난 20년 동안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위 제도처럼 인식되어 조건부 이행을 위한 일개 사업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자활사업은 자활사업을 통한 탈빈곤 및 탈수급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큰 노력을 해왔다. 이제는 정부의 공공부조 사업 또는 일자리 사업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자활을 통해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자립이 가능한 상태로의 이행까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서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제 3 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근로능력자 특성

제1절 데이터 개요

제2절 장기수급자 규모 및 특성 분석

제3절 시사점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 근로능력자 특성 <

제1절 데이터 개요

이번 장에서는 장기수급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19년 6월 기준 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급기간이 월 단위 기준 48개월 이상인 대상자를 추출하였으며, 시설수급자는 제외하였다. 즉, 2011~2018년 사이 근로능력자(만18~64세 이하)로 4년(48개월) 이상 수급 이력이 있는 대상을 추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수급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의 실태에 대해 파악하는 접근이며, 이는 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장기수급자 규모 및 특성 분석

장기수급자 특성 분석에서는 먼저 장기수급자들의 특성별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특성별(성, 연령대, 건강상태, 생계급여 수급여부, 주거급여 수급여부, 의료급여 종별, 근로능력유무) 규모와 평균 수급개월수와 급여별(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근로능력자 규모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과유예자, 자활조건이행자별로 인구학적 특성(성, 연령대), 사회적 특성(장애여부, 건강상태, 가구원수, 지역), 취업상태 변화, 근로능력 특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조건제시유예사유와 조건불이행사유는 데이터 상 파악이 어려워 조건부과유예 사유를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장기수급자의 여러 특성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별 장기수급자 비율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52.1%, 여성 47.9%로 여성보다는 남성의 장기수급자 비중이 4.2% 포인트 높았다. 연령을 기준으로 50~64세가 54.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연령대 순으로 35~49세 23.7%, 19~34세 18.7%, 18세 이하 18.7%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사회적 특성으로 살펴본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한 경우 33.1%, 장애가 있는 경우 33.1%로 동일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질병이 있는 경우가 29.2%였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약 67%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급여별로는 생계급여 수급하는 장기수급자는 98.5%, 주거급여 수급하는 장기수급자는 97.5%, 의료급여 1종은 68.7%, 의료급여 2종은 31.3%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로능력유무에 따라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장기수급자가 74.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있는 경우는 25.4%에 불과하였다.

〈표 3-1〉 장기수급자 특성 및 평균 수급개월수

(단위: 명, %, 개월)

구분		장기수급자		평균 수급개월수
		명	%	
성	남	226,449	52.1	91.4
	여	208,065	47.9	92.0
연령대	18세 이하	12,685	2.9	92.2
	19~34세	81,016	18.7	91.5
	35~49세	102,875	23.7	89.9
	50~64세	237,938	54.8	92.5
건강상태	건강	135,155	33.1	86.9
	장애	134,898	33.1	94.4
	질병	119,077	29.2	93.2
	질병+장애	10,852	2.7	96.1
	허약	7,787	1.9	92.4
생계급여 수급여부	비수급	6,630	1.5	92.4
	수급	426,816	98.5	91.7
주거급여 수급여부	비수급	10,804	2.5	91.1
	수급	422,642	97.5	91.7
의료급여 종별	1종	295,001	68.7	92.3
	2종	134,468	31.3	90.4
근로능력유무	없음	310,988	74.6	92.5
	있음	106,086	25.4	90.3

주: 장기수급자(48개월 이상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행복e음 원자료

특성별로 평균 수급개월수를 살펴보면, 이번 분석은 장기수급자(48개월 이상 수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상당히 많은 기간 수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수

급자 중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중이 높았으나 수급개월수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길게 나타났다(남성 91.4개월, 여성 92.0개월).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장기수급자 비중과 유사하게 50~64세가 92.5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은 18세 이하 92.2개월, 19~34세 91.5개월, 35~49세 89.9개월로 근로가 가장 활발한 나이대에서 수급개월수가 가장 짧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한 경우가 평균 수급기간이 가장 짧았고, 질병과 장애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96.1개월로 가장 길었고, 장애가 있는 경우 94.4개월로 그 다음이었다. 의료급여 종별로는 의료급여 1종인 경우 92.3개월, 의료급여 2종인 경우 90.4개월로 1.9개월의 차이를 냈다. 근로능력유무별로는 장기수급자 비중은 큰 차이를 보였으나, 수급개월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92.5개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90.3개월로 2.2개월 정도 차이를 보였다.

급여종류별 근로능력유무를 살펴보면, 생계급여 수급하거나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장기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생계급여 수급하는 장기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75.4%,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 24.6%였고,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장기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75.2%,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 24.8%로 나타났다.

〈표 3-2〉 장기수급자 급여종류별 근로능력유무

(단위: 명, %)

구분			근로능력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 있음
생계급여	비수급	수	901	4,622
		비율	16.3	83.7
	수급	수	309,979	101,201
		비율	75.4	24.6
주거급여	비수급	수	4,910	4,675
		비율	51.2	48.8
	수급	수	305,970	101,148
		비율	75.2	24.8
의료급여	1종	수	272,422	14,717
		비율	94.9	5.1
	2종	수	37,042	89,111
		비율	29.4	70.6

주: 1) 장기수급자(48개월 이상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2)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중 시설수급자 제외

자료: 행복e음 원자료

의료급여 종별로는 1종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가 94.9%로 대부분이었으며, 2종의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율이 29.4%, 근로능력이 있는 비율이 70.6%로 차이를 확인하였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인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유형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조건제시유예, 조건부과유예, 조건불이행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보건복지부, 2019).

현행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대상자이며, 조건제시 유예자는 조건부과 대상자 중에서 조건이행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대상자를 의미한다. 조건제시 유예는 제한적이고 예외적 조치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시·군·구담당자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건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조건부과 유예자와 같이 조건제시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12가지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조건제시 유예를 위해서는 ① 도서벽지거주 수급자, ② 북한이탈주민, ③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④ 12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생후 6~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원 1인(※만1세 생일이 도래한 달의 말일까지), ⑤ 사회봉사명령을 이행중인 자: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지정받은 봉사시간이 자활사업과 중복된 사람, ⑥ 외국인 수급자, ⑦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사람, ⑧ 시험준비생, ⑨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학원 수강생(원칙적으로 연 1회 인정), ⑩ 20세 이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초중고대학교 휴학생, ⑪ 원격대학, 학점 은행제 대학 재학생, ⑫ 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사람 중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조건부과 유예자는 조건부 수급요건을 유예 받은 수급자로 해당 요건에 부합될 경우에 유예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조건부과 유예를 위해서는 ①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양육, 간병·보호해야 하는 가구원 1인, ② 대학생(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③ 장애인(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여 중인 장애인), ④ 임산부(임산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⑤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⑥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1월 이상

지속, 주3일, 1일 6시간: 주 4일 22시간 이상 근로), ⑦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3개월 한정), ⑧ 기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알콜중독 또는 향정신성 약물중독 치료과정에 있는 자) 중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건불이행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 이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한 자를 의미한다. 조건불이행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되는데, ① 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에 불응하거나 자활사업실시 기관의 상담에 불응한 경우(고용부 지원 취업대상자의 취업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상담불응 포함),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실시 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아래 그림 조건불이행 기준 중 1~4 중 한 조건이라도 위반할 경우는 조건불이행에 해당, ④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자가 불성실 사업 참여가 반복되는 경우 지역생활보장위원회, 자활기관협의체의 결정으로 참여중지 및 조건부과유예 처리 가능한 경우이다.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계급여는 3개월간 중지되며, 생계급여 중지는 모든 가구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본인의 급여만 중지되며, 나머지 가구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받을 수급액을 뺀 나머지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액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희망참여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급여는 중지되지 않는다.

장기수급자의 조건 유형별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는데, 조건제시 유예는 여성이 56.9%, 조건부과 유예는 61.3%, (자활조건이행상태) 불이행 60.4%, 이행 67.3%로 확인되었다. 연령대별로는 조건제시 유예는 19~34세가 43.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50~64세가 31.9%순이었다. 조건부과 유예는 19~34세가 58.0, 자활조건이행상태에 따라서는 불이행하는 경우는 19~34세가 43.4%, 이행하는 경우는 50~64세가 41.1%로 가장 높았다.

장기수급자의 조건 유형별 사회적 특성으로 장애여부를 살펴보면 조건제시 유예는 장애가 있는 비율이 4.9%, 조건부과 유예는 2.3%, 자활조건이행상태에서 불이행은 3.0%, 이행은 8.0%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별로는 조건제시 유예는 71.5%가 건강한 편이었으며, 질병이 있는 경우도 21.3%로 나타났으며, 조건부과 유예는 대부분이 건강한 편으로 확인되었다. 자활조건 이행상태에 따라서는 불이행하는 경우 건강 80.5%, 질병 13.5%, 이행하는 경우에는 건강 73.9%, 질병 15.1%로 나타났다.

〈표 3-3〉 장기수급자 조건 유형별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조건제시유예	조건부과유예	자활조건이행상태	
					불이행	이행
전체		수	6,981	50,240	3,782	11,548
		비율	100.0	100.0	100.0	100.0
성별	남성	수	3,006	19,469	1,496	3,776
		비율	43.1	38.8	39.6	32.7
	여성	수	3,975	30,771	2,286	7,772
		비율	56.9	61.3	60.4	67.3
연령	18세 이하	수	423	3,628	35	184
		비율	6.1	7.2	0.9	1.6
	19~34세	수	3,043	29,161	1,641	3,114
		비율	43.6	58.0	43.4	27.0
	35~49세	수	1,291	9,465	1,120	3,509
		비율	18.5	18.8	29.6	30.4
	50~64세	수	2,224	7,986	986	4,741
		비율	31.9	15.9	26.1	41.1

주: 1) 장기수급자(48개월 이상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2)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중 시설수급자 제외
자료: 행복e음 원자료

〈표 3-4〉 장기수급자 조건 유형별 사회적 특성 I

(단위: 명, %)

구분			조건제시유예	조건부과유예	자활조건이행상태	
					불이행	이행
장애 여부	장애없음	수	6,641	49,083	3,668	10,628
		비율	95.1	97.7	97.0	92.0
	장애있음	수	340	1,157	114	920
		비율	4.9	2.3	3.0	8.0
건강 상태	건강	수	4,530	40,719	2,759	7,801
		비율	71.5	90.0	80.5	73.9
	장애	수	212	891	89	638
		비율	3.4	2.0	2.6	6.0
	질병	수	1,349	2,695	463	1,590
		비율	21.3	6.0	13.5	15.1
	질병&장애	수	42	77	9	48
		비율	0.7	0.2	0.3	0.5
	허약	수	201	875	106	486
		비율	3.2	1.9	3.1	4.6

주: 1) 장기수급자(48개월 이상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2)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중 시설수급자 제외
자료: 행복e음 원자료

장기수급자의 조건 유형별 사회적 특성으로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조건제시 유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3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3-5〉 장기수급자 조건 유형별 사회적 특성Ⅱ

(단위: 명, %)

구분		조건제시유예	조건부과유예	자활조건이행상태	
				불이행	이행
가구 원수	1인가구	1,796 25.7	4,510 9.0	656 17.4	2,057 17.8
	2인가구	2,204 31.6	15,372 30.6	1,177 31.1	3,681 31.9
	3인가구	1,750 25.1	16,810 33.5	1,106 29.2	3,238 28.0
	4인가구	773 11.1	8,559 17.0	525 13.9	1,619 14.0
	5인가구	302 4.3	3,033 6.0	202 5.3	596 5.2
	6인가구 이상	156 2.2	1,956 3.9	116 3.1	357 3.1
지역 구분	대도시	364 5.2	3,471 6.9	88 2.3	746 6.5
	중소도시	4,343 62.2	26,873 53.5	2,315 61.2	6,961 60.3
	농어촌	2,274 32.6	19,896 39.6	1,379 36.5	3,841 33.3

주: 1) 장기수급자(48개월 이상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2)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중 시설수급자 제외

자료: 행복e음 원자료

장기수급자 조건 유형별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조건제시 유예는 비경제활동 59.0%, 실직 및 미취업이 20.4%, 일일고용 12.4%순이었고, 조건부과 유예는 대부분이 비경제활동으로 65.7%, 일일고용 13.2%, 실직 및 미취업 12.7% 순이었다.

자활조건 이행상태에 따라서는 불이행하는 경우는 당연히도 비경제활동(51.7%) 및 실직 및 미취업(23.6%)이 75.3%를 차지하였으며, 이행하는 경우는 비경제활동(35.2%) 및 실직 및 취업(27.3%)이 62.5%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일일고용 23.0% 순으로 확인되었다(표 3-6 참조).

장기수급자 조건 유형별 근로능력 특성을 살펴보면 조건제시유예는 근로능력이 있는 비율이 88.8%, 조건부과유예는 100.0%, 자활조건불이행은 99.2%, 자활조건이행은 95.8%로 확인되었다. 근로능력평가점수대별로는 37~44점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조건제시유예는 32.2%, 조건부과유예는 38.3%, 자활조건불이행과 이행은 둘 다 40.0%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표 3-6〉 장기수급자 조건 유형별 취업상태

(단위: 명, %)

구분		조건제시유예	조건부과유예	자활조건이행상태	
				불이행	이행
취업 상태	상시고용	19	133	7	71
		1.3	2.0	1.1	3.4
	일일고용	177	885	98	483
		12.4	13.2	14.7	23.0
	임시고용	37	185	29	139
		2.6	2.8	4.4	6.6
	자영업	25	134	9	29
		1.8	2.0	1.4	1.4
	농업	6	20	1	8
		0.4	0.3	0.2	0.4
	어업	0	5	0	0
		0.0	0.1	0.0	0.0
	축산업	0	1	0	0
0.0		0.0	0.0	0.0	
기타	22	61	10	50	
	1.5	0.9	1.5	2.4	
실직 및 미취업	292	849	157	574	
	20.4	12.7	23.6	27.3	
비경제활동	844	4,402	344	741	
	59.0	65.7	51.7	35.2	
취업준비중	8	23	11	8	
	0.6	0.3	1.7	0.4	

주: 1) 장기수급자(48개월 이상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2)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중 시설수급자 제외

자료: 행복e음 원자료

장기수급자 조건제시 유예, 조건부과 유예, 자활조건불이행에 따른 사유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데이터 상 조건부과 유예사유만이 파악할 수 있었다. 장기수급자 조건부과 유예자들의 사유로는 대학생이 49.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주3일 이상 근로자(32.65%), 양육간병(11.43%), 법률의무이행자(3.13%)순으로 나타났다(표 3-8 참조).

〈표 3-7〉 장기수급자 조건 유형별 근로능력 특성

(단위: 명, %)

구분		조건제시유예	조건부과유예	자활조건이행상태	
				불이행	이행
근로 능력	없음	636 11.2	15 0.0	27 0.8	432 4.2
	있음	5,036 88.8	50,225 100.0	3,275 99.2	9,769 95.8
근로 능력 평가	0점	810 30.6	985 24.7	279 30.8	651 24.5
	1~29점	225 8.5	338 8.5	50 5.5	193 7.3
	30~36점	623 23.6	606 15.2	103 11.4	409 15.4
	37~44점	850 32.2	1,526 38.3	362 40.0	1,065 40.0
	45~60점	136 5.1	527 13.2	112 12.4	344 12.9

주: 1) 장기수급자(48개월 이상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2)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중 시설수급자 제외

자료: 행복e음 원자료

〈표 3-8〉 장기수급자 조건부과 유예사유

(단위: 명, %)

구분	2019.06.	
출소자	70	0.14
대학생	24,843	49.45
법률의무이행자	1,571	3.13
보장시설퇴소자	13	0.03
약물중독	38	0.08
양육간병	5,743	11.43
임산부	331	0.66
입영예정자	141	0.28
자영업자	439	0.87
전역자	211	0.42
주3일 이상 근로자	16,402	32.65
직업재활참여 장애인	13	0.03
치료회복중인자	260	0.52
학교졸업(중퇴)자	165	0.33

주: 1) 장기수급자(48개월 이상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2)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중 시설수급자 제외

자료: 행복e음 원자료

제 4 장

실태조사를 활용한 근로능력자 특성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가구일반, 소득 및 자산

제3절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 수급실태

제4절 탈수급 및 노동시장 이력

제5절 정서적 자활: 고용희망과 지각된 고용장벽

제6절 개인 및 사회복지제도 인식

4

실태조사를 활용한 근로능력자 < 특성 <

제1절 조사개요

맞춤형 급여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장기간 남아 있는 수급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급자 중 장기간 수급가구로 머무르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각 가구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탈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연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장기)수급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욕구에 부합되는 급여와 일자리 제공방안, 복지지원 방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1차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그 목적을 두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는 한국리서치와의 협업 하에 진행하였다. 실태조사 수행은 한국리서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표 개발과 분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중심이 되었다.

모집단은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로, 조사대상은 표본으로 추출한 가구 내에 거주하는 수급 신청자(리스트 기준)이며, 근로능력이 가능한 연령인 만 18~64세 이하로 선정하였고, 사전 전화 컨택 시 수급 신청자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자인 경우만 리스트를 선별하였다. 최종적으로 1001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가중치 부여전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1,005명에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이중 남성 52.1%, 여성 47.9%로 이었다. 연령은 만 50~64세가 54.8%로 많았으며, 만 35~49세 24.1%, 만 34세 이하가 21.1% 순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않은 편이 76.8%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과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3.2% 수준이었다. 근로능력에 있어서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한 경우가 48.2%로 역시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단순하지만 근로가 가능한 경우는 29.2% 수준이었다. 가구형태는 단독가구가 44.7%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가구로 33.2%의 순이었다.

〈표 4-1-1〉 근로능력 장기수급자 실태조사 주요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005	100.0
성별	남성	524	52.1
	여성	481	47.9
연령별	만 34세 이하	212	21.1
	만 35~49세	243	24.1
	만 50~64세	550	54.8
교육수준	초졸 이하	249	24.8
	중졸	211	21.0
	고졸	399	39.7
	대졸 이상	145	14.5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 편	772	76.8
	보통	108	10.7
	건강한 편	126	12.5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196	19.5
	단순근로가능	98	9.7
	단순근로미약자	227	22.6
	근로능력없음	484	48.2
가구구성	단독가구	450	44.7
	모/부자가구	149	14.8
	조손가구	71	7.0
	다문화가구	3	0.3
	기타(일반가구)	333	33.2

주: 1) 가중치 부여된 조사대상 특성을 정리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자료수집시간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조사가 진행 되었다.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고, 그 결과를 종이설문지에 기재하는 대면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자활 및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 경험, 탈수급 및 재수급 실태, 탈수급시 노동시장 이력, 고용희망척도, 지각된 고용장벽척도, 개인 및 사회복지제도 인식, 가구일반사항, 생활비, 소득/부채 및 이자, 주거 및 재산이다. 세부 문항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 4-1-2〉와 같다.

〈표 4-1-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조사표 구성

구분	세부 문항
A.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급여 종류, 수급 이유, 맞춤형 급여 수준, 수급 탈피 시기, 급여별 받지 못하는 이유, 지속적으로 받고 싶은 급여
B. 자활 및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 경험	자활사업 참여 경험, 자활사업 중단 경험 및 이유, 자활사업 미참여 이유, 자활사업 참여기간, 정부지원일자리 참여 경험
C. 탈수급 및 재수급 실태	탈수급 경험, 탈수급 사유, 소득변화 원인, 재산변화 원인, 수급사유 관련 행정상 변화의 원인, 탈수급 희망 여부, 탈수급 후 예상 모습
D. 탈수급 시 노동시장 이력	경제활동 참여 여부 및 기간, 경제활동 참여상태, 업종 및 직종, 사업장 규모, 국민연금 가입여부, 산재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건강보험 가입여부, 근무시간, 근무일수, 급여수준, 일을 그만둔 이유
E. 고용희망척도	일에 대한 생각
F. 자각된 고용 장벽 척도	고용장벽 척도
G. 개인 및 사회복지 제도 인식	아동청소년 시절 경험, 생활 전반 만족도, 우울감 측정, 자신이 느끼는 삶의 상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 경험여부, 만족도
H. 가구일반사항	동거 가구원 수, 노인 수, 장애인 수, 만성질환자, 아동 수, 가구유형,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태어난 연도, 교육수준, 혼인상태, 건강상태, 장애종류 및 등급, 근로능력 정도, 근로무능력 사유, 경제활동 참여상태, 비경제활동 사유, 금융채무불이행 여부, 미취학가구원, 취학가구원, 간병 필요 가구원
I. 생활비	월평균 생활비, 월평균 공교육비, 월평균 사교육비, 월평균 의료비, 월평균 세금 및 사회보험료
J. 소득, 부채 및 이자	사전이전소득 경험여부, 근로/사업소득 수급여부, 월평균 총 가구소득, 총 부채액, 월평균 지출 부채 이자
K. 주거 및 재산	주택유형, 방 수, 주택면적, 점유형태, 주택 가격, 월세액,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제2절 가구일반, 소득 및 자산

1. 가구일반

〈표 4-2-1〉은 가구일반 특성별 응답자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지만 다시 보면, 근로능력 장기수급자는 총 1,005명으로, 응답자의 52.1%는 남성, 47.9%는 여성이었다. 만 50~64세의 응답자가 54.8%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만 35~49세 응답자가 24.1%를 차지했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상 응답자가 39.7%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초졸 이하가 24.8%, 중졸 이하가 21.0%를 차지했다. 대졸이상은 14.5%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건강상태의 경우 76.8%의 응답자가 ‘건강하지 않은편’에 응답했다. 근로능력정도는 가장 많은 48.2%가 ‘근로능력없음’에 응답했고, 22.6%가 집안일 수준의 노동만 가능한 경우인 ‘단순근로미약자’에 응답했다. ‘근로가능’과 ‘단순근로가능’의 경우 각 19.5%, 9.7%를 차지했다.

〈표 4-2-1〉 응답자 분포표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전체		1,005	100.0
성별	남성	524	52.1
	여성	481	47.9
연령	만34세 이하	212	21.1
	만35~49세	243	24.1
	만50~64세	550	54.8
교육수준	초졸이하	249	24.8
	중졸	211	21.0
	고졸	399	39.7
	대졸이상	145	14.5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772	76.8
	보통	108	10.7
	건강한 편	126	12.5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196	19.5
	단순근로가능	98	9.7
	단순근로미약자	227	22.6
	근로능력없음	484	48.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2-2〉은 특성별 동거 가구원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근로능력 장기수급자의 동거가구원수는 1명인 경우가 4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2명인 경우가 33.9%를 차지했다. 평균 동거 가구원 수는 1.9명 이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53.8%의 동거 가구원 수가 1명 이었고, 여성의 경우 43%의 동거 가구원 수가 2명이었다. 동거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가장 많은 48.7%가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동거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 60.7%, 45.1%가 단순근로미약자, 근로능력없음에 응답한 반면 동거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 36%와 47.6%가 근로가능, 단순근로가능에 응답했다. 동거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 모·부자가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문화가구의 경우 100% 3인 이상이 동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4-2-2〉 동거 가구원 수

(단위: %)

구분		1명	2명	3명 이상	평균(명)
전체		44.7	33.9	21.3	1.9
성별	남성	53.8	25.6	20.6	1.8
	여성	34.8	43.0	22.2	2.0
연령	만34세 이하	30.8	47.3	21.8	2.0
	만35~49세	28.0	33.5	38.5	2.5
	만50~64세	57.5	29.0	13.6	1.6
교육수준	초졸이하	55.9	28.6	15.5	1.6
	중졸	45.4	37.4	17.1	1.9
	고졸	35.9	35.5	28.6	2.2
	대졸이상	49.0	33.7	17.4	1.8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48.7	32.8	18.5	1.8
	보통	29.8	35.8	34.4	2.6
	건강한 편	33.3	39.4	27.2	2.1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30.1	36.0	33.9	2.4
	단순근로가능	34.8	47.6	17.6	1.9
	단순근로미약자	60.7	20.8	18.5	1.7
	근로능력없음	45.1	36.5	18.3	1.8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100.0	0.0	0.0	1.0
	실업자	0.0	100.0	0.0	2.0
	비경제활동인구	0.0	0.0	100.0	3.7
지역	수도권	7.6	44.7	47.7	3.1
	광역시	51.0	29.8	19.1	1.7
	도	47.2	33.3	19.5	1.8
가구 구성	단독가구	100.0	0.0	0.0	1.0
	모/부자가구	0.0	66.2	33.8	2.6
	조손가구	0.0	59.6	40.4	2.5
	다문화가구	0.0	0.0	100.0	3.3
	기타(일반가구)	0.0	60.1	39.9	2.7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69.8	28.7	1.6	1.3
	51만원~70만원 이하	80.5	15.5	4.0	1.2

	71만원~100만원 이하	36.5	47.7	15.8	1.9
	101만원~150만원 이하	6.5	44.4	49.1	2.8
	151만원 이상	9.7	28.4	61.9	3.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77.4%의 가구의 노인수는 0명이었다. 노인이 없는 가구 중 만 50~64세의 분포가 86.5%로 가장 높았는데, 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34세 이하의 35.8%의 노인가구원수가 1명인 것에 비해 이들은 부모부양을 하고 있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4-5> 는 가구원 중 등록 장애인 수를 나타낸 것이다. 52.8%가 가구원 중 등록 장애인 수가 1명이라고 응답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전체가구 중 절반이 넘는 비율로 가구원 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원 중 등록 장애인이 1명 이상인 경우는 34세 이하의 연령(25.6%)보다 34세 이상의 연령(66.7%, 57.1%)에서 그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가구원 중 장애인 수가 0명인 경우 근로능력 정도에 근로가능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1명 이상일수록 단순근로미약자와 근로능력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표 4-2-3> 가구원 중 노인 및 등록장애인 수

(단위: %)

구분		노인수				등록장애인수			
		0명	1명	2명 이상	평균(명)	0명	1명	2명 이상	평균(명)
전체		77.4	18.5	4.1	0.3	41.6	52.8	5.6	0.7
성별	남성	75.8	19.5	4.7	0.3	36.2	56.9	6.9	0.7
	여성	79.2	17.3	3.5	0.2	47.5	48.3	4.3	0.6
연령	만34세 이하	58.0	35.8	6.2	0.5	71.5	25.6	3.0	0.3
	만35~49세	73.6	18.4	8.0	0.3	28.7	66.7	4.6	0.8
	만50~64세	86.5	11.8	1.6	0.2	35.8	57.1	7.1	0.7
교육수준	초졸이하	79.8	14.8	5.4	0.3	30.2	63.8	6.0	0.8
	중졸	81.9	16.4	1.7	0.2	35.8	58.5	5.7	0.7
	고졸	74.4	20.9	4.8	0.3	43.3	51.5	5.2	0.6
	대졸이상	75.1	21.1	3.8	0.3	65.0	29.0	6.1	0.4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80.2	15.3	4.5	0.2	36.2	57.8	6.0	0.7
	보통	85.7	11.7	2.6	0.2	55.9	37.0	7.2	0.5
	건강한 편	53.1	43.5	3.4	0.5	62.4	35.3	2.3	0.4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70.0	26.6	3.5	0.3	79.3	19.5	1.1	0.2
	단순근로가능	75.2	21.1	3.8	0.3	47.8	47.2	4.9	0.6
	단순근로미약자	85.8	11.2	3.0	0.2	43.6	51.5	4.9	0.6

	근로능력없음	76.9	18.1	5.0	0.3	24.1	67.9	7.9	0.9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70.6	23.1	6.3	0.4	66.0	29.9	4.1	0.4
	실업자	71.5	25.9	2.6	0.3	82.3	16.6	1.1	0.2
	비경제활동인구	78.1	17.8	4.0	0.3	38.0	56.0	5.9	0.7
지역	수도권	79.5	16.7	3.7	0.2	44.7	48.1	7.2	0.6
	광역시	74.4	19.3	6.2	0.3	41.8	54.8	3.4	0.6
	도	77.5	19.5	3.0	0.3	38.5	55.8	5.7	0.7
동거 가구원 수	1명	100.0	0.0	0.0	0.0	43.5	56.5	0.0	0.6
	2명	61.4	38.4	0.2	0.4	40.8	50.5	8.7	0.7
	3명 이상	55.4	25.6	19.1	0.6	38.9	48.6	12.6	0.8
가구 구성	단독가구	100.0	0.0	0.0	0.0	43.5	56.5	0.0	0.6
	모/부자가가구	83.7	11.7	4.7	0.2	36.7	59.0	4.4	0.7
	조손가구	0.0	81.3	18.7	1.2	69.4	30.6	0.0	0.3
	다문화가구	100.0	0.0	0.0	0.0	28.6	71.4	0.0	0.7
	기타(일반가구)	60.3	33.3	6.4	0.5	35.4	49.5	15.0	0.8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81.9	17.5	0.6	0.2	54.4	45.0	0.6	0.5
	51만원~70만원 이하	92.8	6.4	0.8	0.1	45.3	53.4	1.3	0.6
	71만원~100만원 이하	70.8	27.5	1.7	0.3	33.8	57.6	8.6	0.8
	101만원~150만원 이하	69.6	18.1	12.3	0.4	36.9	55.1	8.0	0.7
	151만원 이상	62.0	28.3	9.6	0.5	48.4	40.3	11.4	0.7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장기수급자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1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비율은 만 34세 이하의 연령대보다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의 경우 70%대가 초졸 이하,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졌다. 만성질환자수가 0명인 경우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지만(64.7%), 1명 이상인 경우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74.3%). 1명의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중 81.1%가 단독가구인데, 이들의 경우 독거하는 만성질환자로서 수급자로 장기적으로 머물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표 4-2-4〉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 및 아동 수

(단위: %)

구분		만성질환자 수				아동 수			
		0명	1명	2명 이상	평균(명)	0명	1명	2명 이상	평균(명)
전체		23.6	64.4	11.9	0.9	88.6	7.1	4.4	0.2
성별	남성	19.7	68.1	12.2	1.0	93.6	2.8	3.6	0.1
	여성	27.8	60.5	11.7	0.9	83.1	11.7	5.2	0.2
연령	만34세 이하	54.3	42.7	3.0	0.5	85.2	11.1	3.7	0.2
	만35~49세	19.0	64.1	17.0	1.0	78.9	9.1	12.0	0.4
	만50~64세	13.8	73.0	13.2	1.0	94.1	4.6	1.2	0.1
교육수준	초졸이하	15.4	71.2	13.4	1.0	96.4	2.2	1.4	0.1
	중졸	13.3	74.3	12.5	1.0	89.9	6.4	3.7	0.2
	고졸	28.3	59.1	12.6	0.9	83.1	11.3	5.6	0.3
	대졸이상	39.8	53.3	6.9	0.7	88.2	4.8	7.1	0.2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12.3	74.3	13.4	1.0	91.7	5.5	2.8	0.1
	보통	56.4	34.2	9.4	0.5	62.7	18.5	18.8	0.7
	건강한 편	64.7	30.2	5.1	0.4	91.5	6.7	1.8	0.1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48.8	44.3	6.9	0.6	76.9	10.2	12.9	0.5
	단순근로가능	44.2	50.9	5.0	0.7	92.9	3.9	3.2	0.1
	단순근로미약자	12.0	77.8	10.1	1.0	90.2	7.6	2.2	0.1
	근로능력없음	14.7	69.0	16.2	1.1	91.6	6.2	2.2	0.1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42.3	46.2	11.5	0.8	67.2	7.9	24.9	0.8
	실업자	60.7	39.3	0.0	0.4	92.0	5.2	2.8	0.2
	비경제활동인구	20.6	66.9	12.5	0.9	90.0	7.1	2.9	0.1
지역	수도권	26.3	63.2	10.5	0.9	90.1	5.4	4.5	0.2
	광역시	25.4	60.6	14.0	0.9	87.0	8.4	4.6	0.2
	도	19.7	68.4	11.9	0.9	88.3	7.7	4.0	0.2
동거 가구원 수	1명	18.9	81.1	0.0	0.8	100.0	0.0	0.0	0.0
	2명	28.4	52.7	18.9	0.9	87.8	12.2	0.0	0.1
	3명 이상	25.9	48.2	25.9	1.1	65.8	13.7	20.5	0.7
가구 구성	단독가구	18.9	81.1	0.0	0.8	100.0	0.0	0.0	0.0
	모/부자가구	28.6	61.4	10.0	0.8	68.3	22.6	9.1	0.5
	조손가구	38.3	54.1	7.6	0.7	100.0	0.0	0.0	0.0
	다문화가구	71.4	28.6	0.0	0.3	71.4	0.0	28.6	0.6
	기타(일반가구)	24.3	45.8	29.9	1.1	79.9	11.2	8.9	0.3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24.8	71.2	4.0	0.8	94.3	5.7	0.0	0.1
	51만원~70만원 이하	19.6	76.4	4.0	0.8	99.2	0.4	0.4	0.0
	71만원~100만원 이하	23.8	59.7	16.6	0.9	89.8	8.6	1.6	0.1
	101만원~150만원 이하	27.1	53.9	18.9	1.0	74.5	12.7	12.8	0.4
	151만원 이상	26.0	57.0	17.0	1.0	74.0	12.0	14.0	0.6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가구 구성의 경우 단독가구가 절반에 가까운 44.7% 였고, 그 비율은 50세 이상 연령에서 57.5%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단독가구 중 절반에 달하는 가구(51%)가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로서, 이들은 남성(53.8%), 건강하지 않음(48.7%)과 초졸이하(55.9%)의 특징을 함께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2-5〉 가구 구성

(단위: %)

구분		단독가구	기타 (일반가구)	모·부자가구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 자녀, 단 취학(휴학)시 만 22세 미만)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외국국적 가구 포함)
전체		44.7	33.2	14.8	7.0	0.3
성별	남성	53.8	31.7	6.0	8.0	0.5
	여성	34.8	34.8	24.4	6.0	0.0
연령	만34세 이하	30.8	28.0	8.6	32.5	0.0
	만35~49세	28.0	40.0	31.3	0.4	0.3
	만50~64세	57.5	32.2	9.9	0.1	0.3
교육수준	초졸이하	55.9	31.7	8.6	3.9	0.0
	중졸	45.4	28.2	21.4	5.0	0.0
	고졸	35.9	38.1	17.9	7.4	0.7
	대졸이상	49.0	29.5	7.1	14.4	0.0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48.7	31.9	15.0	4.4	0.1
	보통	29.8	49.7	20.5	0.0	0.0
	건강한 편	33.3	27.2	8.6	29.4	1.5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30.1	32.9	15.2	20.9	1.0
	단순근로가능	34.8	40.1	11.1	14.0	0.0
	단순근로미약자	60.7	25.4	13.0	0.5	0.3
	근로능력없음	45.1	35.5	16.2	3.1	0.0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7.6	47.5	25.7	19.2	0.0
	실업자	51.0	42.6	6.3	0.0	0.0
	비경제활동인구	47.2	31.7	14.4	6.5	0.3
지역	수도권	45.5	29.5	16.6	7.9	0.5
	광역시	46.4	37.2	9.1	7.2	0.0
	도	42.8	33.7	17.2	6.1	0.2
동거 가구원 수	1명	100.0	0.0	0.0	0.0	0.0
	2명	0.0	58.8	28.9	12.4	0.0
	3명 이상	0.0	62.0	23.4	13.3	1.2
가구 구성	단독가구	100.0	0.0	0.0	0.0	0.0
	모/부자가구	0.0	0.0	100.0	0.0	0.0
	조손가구	0.0	0.0	0.0	100.0	0.0
	다문화가구	0.0	0.0	0.0	0.0	100.0
	기타(일반가구)	0.0	100.0	0.0	0.0	0.0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69.8	12.8	6.2	11.2	0.0
	51만원~70만원 이하	80.5	13.0	6.4	0.0	0.0
	71만원~100만원 이하	36.5	43.9	12.0	7.5	0.2
	101만원~150만원 이하	6.5	44.2	34.6	13.7	0.9
	151만원 이상	9.7	65.8	18.4	6.1	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동일하게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이 39.7%로 가장 높았다. 대학 졸업 이상은 14.5%로 다른 학력수준에 비해서는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고등학교 졸업이 46.1%, 여성은 33.8% 수준이었으며, 대학 이상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았다. 건강상태가 건강한 경우 고졸과 대학 이상의 비율이 높았으며, 건강하지 않은 경우는 초졸과 중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6〉 응답자 교육수준

(단위: %)

구분		무학	초등학교 졸	중학교 졸	고등학교 졸	대학 졸 (전문대학 포함)	대학원 이상
전체		7.5	17.2	21.0	39.7	14.0	0.5
성별	남성	8.2	19.1	22.7	33.8	15.4	0.7
	여성	6.8	15.2	19.2	46.1	12.5	0.2
연령	만34세 이하	5.2	1.5	6.4	54.4	32.5	0.0
	만35~49세	6.7	9.4	28.0	44.6	10.3	0.9
	만50~64세	8.8	26.7	23.6	31.9	8.5	0.5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8.4	20.2	25.1	33.6	12.3	0.4
	보통	4.9	8.8	9.6	60.3	15.7	0.7
	건강한 편	4.4	6.1	5.9	60.0	22.9	0.7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2.4	3.5	11.4	50.4	32.2	0.0
	단순근로가능	1.8	9.9	13.2	55.3	18.4	1.3
	단순근로미약자	6.4	21.2	28.6	35.7	7.8	0.3
	근로능력없음	11.3	22.4	22.9	34.2	8.6	0.6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1.0	5.9	20.0	52.6	20.6	0.0
	실업자	1.3	4.8	4.3	60.4	29.2	0.0
	비경제활동동인구	8.3	18.6	21.8	37.9	12.8	0.5
지역	수도권	6.2	18.2	19.7	34.5	21.0	0.5
	광역시	9.5	15.1	14.4	48.0	12.3	0.6
	도	7.5	17.8	27.1	38.7	8.5	0.3
동거 가구원 수	1명	7.4	23.5	21.4	31.9	15.2	0.7
	2명	8.6	12.3	23.2	41.5	14.1	0.3
	3명 이상	6.1	11.9	16.9	53.3	11.3	0.5
가구 구성	단독가구	7.4	23.5	21.4	31.9	15.2	0.7
	모/부자가구	4.8	9.6	30.5	48.1	7.0	0.0
	조손가구	12.6	1.0	14.8	42.0	29.6	0.0
	다문화가구	0.0	0.0	0.0	100.0	0.0	0.0
	기타(일반가구)	7.9	15.7	17.9	45.6	12.3	0.6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4.3	22.8	23.6	36.8	11.6	1.0
	51만원~70만원 이하	7.1	24.2	23.6	37.8	7.3	0.0
	71만원~100만원 이하	10.4	16.3	17.8	33.6	21.1	0.9
	101만원~150만원 이하	6.8	6.5	25.4	46.6	14.8	0.0
	151만원 이상	5.7	14.8	10.1	56.1	12.2	1.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미혼의 비율이 45.5%로 높았다. 이는 미혼의 34세 이하 연령대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혼은 33.5%, 사별이 10.9%의 순이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는 8.8%이었다. 건강상태가 건강하고 근로 가능한 경우에는 미혼이 많았다. 하지만 이들은 주로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미혼 수급자에 대한 노

동시장 참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2-7〉 응답자 혼인상태

(단위: %)

구분		유배우	별거	사별	이혼	미혼(미혼 부, 미혼 모 포함)
전체		8.8	1.2	10.9	33.5	45.5
성별	남성	11.3	1.0	2.6	28.3	56.8
	여성	6.2	1.4	19.9	39.2	33.3
연령	만34세 이하	3.7	0.0	2.3	7.8	86.2
	만35~49세	7.0	0.4	15.0	28.6	49.1
	만50~64세	11.6	2.0	12.4	45.6	28.3
교육수준	초졸이하	8.3	1.4	12.2	36.5	41.7
	중졸	7.5	0.8	21.7	36.1	33.9
	고졸	10.1	1.3	7.0	34.4	47.2
	대졸이상	8.1	1.2	3.9	22.3	64.5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음편	8.3	1.2	12.1	37.1	41.2
	보통	16.7	0.7	9.6	27.3	45.6
	건강한 편	5.0	1.5	4.4	16.7	72.3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11.4	0.2	8.5	23.6	56.3
	단순근로가능	9.6	0.0	7.3	36.9	46.2
	단순근로미약자	6.2	1.8	13.7	42.8	35.4
	근로능력없음	8.8	1.5	11.3	32.5	45.8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19.4	0.7	15.2	40.9	23.9
	실업자	5.4	0.0	0.0	36.0	58.6
	비경제활동인구	8.2	1.3	11.1	32.9	46.6
지역	수도권	8.7	0.7	9.7	33.6	47.4
	광역시	7.0	1.2	7.1	36.9	47.8
	도	10.3	1.7	14.9	31.0	42.2
동거 가구원 수	1명	0.4	1.6	8.2	39.4	50.4
	2명	8.8	0.7	16.4	27.4	46.8
	3명 이상	26.5	1.1	7.9	31.0	33.5
가구 구성	단독가구	0.4	1.6	8.2	39.4	50.4
	모/부자가구	2.6	1.8	24.4	47.6	23.6
	조손가구	0.0	0.0	0.0	2.5	97.5
	다문화가구	100.0	0.0	0.0	0.0	0.0
	기타(일반가구)	24.1	0.6	10.9	26.2	38.2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0.5	0.5	7.8	37.5	53.6
	51만원~70만원 이하	1.5	0.8	11.8	41.2	44.6
	71만원~100만원 이하	8.2	2.0	8.9	30.8	50.1
	101만원~150만원 이하	19.8	1.4	17.2	27.4	34.2
	151만원 이상	21.5	0.0	5.2	26.5	46.9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응답자의 76.8%는 건강하지 않음에 응답했다. 50세 이상 연령의 90.2%가 건강하지 않음에 응답했고, 35세~49세 중에는 79.4%가 건강하지 않음에 응답했다. 일하고있음에 응답한 45.6%가 건강하지 않음에 응답했고, 실업자의 48.4%가 건강함에 응

답했다. 건강상태가 양호한 장기수급자 중에서도 실업자로 머무르고 있는 수급자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2-8〉 응답자 건강상태

(단위: %)

구분		① 건강이 아주 안 좋다	②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①+② 건강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한 편이다	⑤ 아주 건강하다	④+⑤ 건강하다	평균
전체		50.0	26.8	76.8	10.7	9.2	3.3	12.5	1.9
성별	남성	53.4	25.7	79.2	8.7	9.2	3.0	12.2	1.8
	여성	46.2	28.0	74.2	12.9	9.1	3.8	12.9	2.0
연령	만34세 이하	15.1	23.9	39.0	17.5	28.0	15.5	43.5	3.0
	만35~49세	48.7	30.7	79.4	16.0	4.5	0.0	4.5	1.8
	만50~64세	63.9	26.2	90.2	5.8	4.0	0.1	4.1	1.5
교육수준	초졸이하	68.9	19.8	88.8	5.9	5.0	0.3	5.3	1.5
	중졸	57.4	34.2	91.6	4.9	1.5	2.0	3.5	1.6
	고졸	43.0	21.8	64.8	16.2	13.6	5.3	18.9	2.2
	대졸이상	25.7	41.7	67.4	12.2	15.3	5.1	20.4	2.3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65.1	34.9	100.0	0.0	0.0	0.0	0.0	1.3
	보통	0.0	0.0	0.0	100.0	0.0	0.0	0.0	3.0
	건강한 편	0.0	0.0	0.0	0.0	73.3	26.7	100.0	4.3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12.1	20.1	32.1	27.5	28.6	11.8	40.4	3.1
	단순근로가능	24.0	51.4	75.5	4.8	14.0	5.7	19.7	2.3
	단순근로미약자	56.1	29.1	85.1	10.2	2.5	2.2	4.7	1.7
	근로능력없음	67.6	23.5	91.2	5.3	3.5	0.0	3.5	1.4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19.7	25.9	45.6	28.8	25.6	0.0	25.6	2.6
	실업자	11.2	15.8	27.0	24.6	34.2	14.2	48.4	3.2
	비경제활동인구	53.8	27.4	81.2	8.8	6.9	3.1	10.0	1.8
지역	수도권	48.7	29.3	78.0	12.9	7.8	1.3	9.1	1.8
	광역시	54.9	16.6	71.5	13.1	13.4	2.1	15.4	1.9
	도	47.5	31.9	79.4	7.0	7.5	6.2	13.7	1.9
동거 가구원 수	1명	56.9	26.7	83.5	7.1	6.8	2.5	9.3	1.7
	2명	43.2	31.0	74.2	11.3	12.7	1.8	14.5	2.0
	3명 이상	46.2	20.6	66.8	17.3	8.6	7.4	16.0	2.1
가구 구성	단독가구	56.9	26.7	83.5	7.1	6.8	2.5	9.3	1.7
	모/부자가구	44.6	33.3	77.9	14.8	6.8	0.5	7.3	1.9
	조손가구	28.4	19.3	47.7	0.0	35.8	16.4	52.3	2.9
	다문화가구	28.6	0.0	28.6	0.0	71.4	0.0	71.4	3.1
	기타(일반가구)	47.7	26.0	73.7	16.0	7.3	2.9	10.3	1.9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54.1	22.3	76.4	7.0	13.5	3.0	16.6	1.9
	51만원~70만원 이하	59.6	24.1	83.7	10.6	5.4	0.3	5.7	1.6
	71만원~100만원 이하	47.6	34.4	82.0	6.3	3.6	8.1	11.7	1.9
	101만원~150만원 이하	38.6	28.0	66.6	17.4	13.8	2.1	15.9	2.1
	151만원 이상	47.2	12.9	60.1	16.4	23.5	0.0	23.5	2.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2-9〉는 응답자의 장애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장애가 없는 비율이 40.9%로

장애를 가진 경우가 60%에 이르고 있어 다른 가구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종류로는 신체외부 장애가 23.2%, 신체 내부 및 정신장애가 각각 약 17%대로 조사되었다. 연령이 고령일수록 장애를 가진 비율이 많았으며, 장애를 가진 경우 건강상태와 근로능력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활동상태 역시 주로 비경제활동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9〉 응답자 장애종류(복수응답)

(단위: %)

구분		비해당	신체외부 장애	신체내부 장애	정신장애	감각장애
전체		40.9	23.2	17.1	17.0	4.4
성별	남성	35.3	29.2	17.0	17.1	4.4
	여성	47.0	16.7	17.1	16.9	4.4
연령	만34세 이하	75.4	5.7	3.5	13.4	2.0
	만35~49세	30.2	22.6	21.2	25.9	3.5
	만50~64세	32.3	30.2	20.5	14.5	5.7
교육수준	초졸이하	24.3	33.1	17.9	21.3	7.9
	중졸	34.3	23.7	28.3	11.4	4.6
	고졸	46.0	20.9	14.0	18.0	3.2
	대졸이상	64.6	12.0	7.7	15.0	1.3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31.7	27.3	21.5	18.1	4.5
	보통	64.8	15.7	2.9	13.2	5.0
	건강한 편	77.1	4.8	2.1	13.7	3.4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91.8	4.0	2.1	1.2	1.0
	단순근로가능	52.3	12.4	7.4	27.0	3.8
	단순근로미약자	38.0	22.3	19.6	18.8	4.1
	근로능력없음	19.4	33.6	23.9	20.6	6.0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79.0	9.9	4.8	4.1	2.2
	실업자	82.2	7.4	3.4	3.8	3.2
	비경제활동인구	36.3	24.9	18.6	18.5	4.6
지역	수도권	46.3	19.9	15.0	17.2	4.6
	광역시	39.8	29.1	12.4	17.2	3.0
	도	36.5	22.1	22.4	16.7	5.3
동거 가구원 수	1명	34.3	26.7	19.2	17.0	6.0
	2명	42.2	19.4	18.1	18.9	3.6
	3명 이상	52.7	21.9	10.9	14.0	2.4
가구 구성	단독가구	34.3	26.7	19.2	17.0	6.0
	모/부자가구	41.3	16.6	27.8	13.1	3.5
	조손가구	86.4	12.6	1.0	0.0	0.0
	다문화가구	100.0	0.0	0.0	0.0	0.0
	기타(일반가구)	39.5	23.8	12.9	22.5	3.6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45.4	21.1	15.1	17.4	2.6
	51만원~70만원 이하	35.8	24.4	17.5	20.8	4.3
	71만원~100만원 이하	37.3	25.5	17.3	17.7	4.7
	101만원~150만원 이하	47.9	20.4	18.2	10.6	6.7
	151만원 이상	46.8	21.1	15.1	16.8	1.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2-10〉은 응답자의 심신능력상 근로능력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48.2%의 응답자가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령이 증가하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근로가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또한 단독가구인 경우 근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수준도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10〉 응답자 심신능력상 근로능력정도

(단위: %)

구분		근로가능	단순근로가능	단순근로 미약자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음
전체		19.5	9.7	22.6	48.2
성별	남성	18.2	8.2	21.9	51.7
	여성	20.9	11.3	23.4	44.4
연령	만34세 이하	56.3	17.5	5.2	21.0
	만35~49세	13.6	7.6	21.4	57.5
	만50~64세	7.9	7.7	29.9	54.6
교육수준	초졸이하	4.7	4.6	25.2	65.6
	중졸	10.6	6.1	30.8	52.6
	고졸	24.7	13.5	20.3	41.4
	대졸이상	43.4	13.3	12.8	30.6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8.1	9.6	25.1	57.2
	보통	50.0	4.4	21.6	24.0
	건강한 편	62.8	15.3	8.4	13.5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100.0	0.0	0.0	0.0
	단순근로가능	0.0	100.0	0.0	0.0
	단순근로미약자	0.0	0.0	100.0	0.0
	근로능력없음	0.0	0.0	0.0	100.0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77.5	22.5	0.0	0.0
	실업자	40.2	33.3	26.4	0.0
	비경제활동인구	14.3	7.8	24.1	53.8
지역	수도권	24.7	10.3	15.3	49.7
	광역시	15.2	10.1	26.7	47.9
	도	17.6	8.9	26.6	46.9
동거 가구원 수	1명	13.1	7.6	30.7	48.6
	2명	20.7	13.6	13.8	51.8
	3명 이상	30.9	8.0	19.6	41.4
가구 구성	단독가구	13.1	7.6	30.7	48.6
	모/부자가구	20.0	7.3	19.9	52.8
	조손가구	57.8	19.3	1.5	21.3
	다문화가구	71.4	0.0	28.6	0.0
	기타(일반가구)	19.3	11.8	17.3	51.6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18.5	5.4	23.7	52.5
	51만원~70만원 이하	7.6	10.3	32.7	49.4
	71만원~100만원 이하	16.3	12.6	19.6	51.5
	101만원~150만원 이하	34.4	7.6	15.1	42.9
	151만원 이상	35.3	9.5	16.8	38.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2-11〉은 응답자의 근로무능력 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절반인 54.6%의 응답자의 근로무능력 사유가 중증장애였다. 다음으로 41.6%가 질병 또는 부상을 근로무능력 사유로 응답했다. 대부분 비경제활동상태이었다.

〈표 4-2-11〉 응답자 근로무능력 사유

(단위: %)

구분		중증장애	질병 또는 부상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	기타
전체		54.6	41.6	0.3	3.5
성별	남성	62.4	34.7	0.5	2.3
	여성	44.7	50.4	0.0	4.9
연령	만34세 이하	62.2	14.7	0.0	23.1
	만35~49세	54.2	42.7	0.0	3.1
	만50~64세	53.7	45.2	0.5	0.7
교육수준	초졸이하	60.6	38.9	0.0	0.5
	중졸	43.3	55.7	0.3	0.7
	고졸	52.4	38.9	0.4	8.4
	대졸이상	68.8	26.7	1.0	3.4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54.4	44.0	0.3	1.3
	보통	67.2	11.3	0.0	21.6
	건강한 편	41.2	26.6	0.0	32.2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	—	—	—
	단순근로가능	—	—	—	—
	단순근로미약자	—	—	—	—
	근로능력없음	54.6	41.6	0.3	3.5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	—	—	—
	실업자	—	—	—	—
	비경제활동인구	54.6	41.6	0.3	3.5
지역	수도권	58.0	40.6	0.6	0.8
	광역시	54.6	38.9	0.0	6.5
	도	51.1	44.7	0.2	4.0
동거 가구원 수	1명	55.6	44.1	0.4	0.0
	2명	52.0	40.5	0.3	7.2
	3명 이상	57.4	37.9	0.0	4.7
가구 구성	단독가구	55.6	44.1	0.4	0.0
	모/부자가구	42.5	54.7	0.0	2.8
	조손가구	63.8	0.0	0.0	36.2
	다문화가구	—	—	—	—
	기타(일반가구)	58.1	36.3	0.3	5.3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34.3	55.0	0.7	10.0
	51만원~70만원 이하	45.5	50.2	0.3	4.0
	71만원~100만원 이하	70.4	28.2	0.4	1.0
	101만원~150만원 이하	57.2	42.0	0.0	0.8
	151만원 이상	53.3	40.5	0.0	6.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2-12〉는 응답자의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89.6%로 가장 많았으며,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6.5%에 불과하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상태가 다소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가구원수가 많고 모부자가구와 조손가구에서 일을 하는 비중이 높았다.

〈표 4-2-12〉 응답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단위: %)

구분		일을 하고 있음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체		6.5	3.9	89.6
성별	남성	4.6	5.2	90.2
	여성	8.6	2.6	88.8
연령	만34세 이하	5.9	11.2	82.9
	만35~49세	11.0	3.0	86.0
	만50~64세	4.8	1.5	93.7
교육수준	초졸이하	1.8	1.0	97.2
	중졸	6.2	0.8	93.0
	고졸	8.6	6.0	85.4
	대졸이상	9.3	7.9	82.8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3.9	1.4	94.7
	보통	17.5	9.0	73.5
	건강한 편	13.3	15.2	71.6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25.9	8.1	66.0
	단순근로가능	15.1	13.4	71.5
	단순근로미약자	0.0	4.6	95.4
	근로능력없음	0.0	0.0	100.0
지역	수도권	7.6	1.3	91.1
	광역시	6.9	9.3	83.8
	도	5.2	2.5	92.3
동거 가구원 수	1명	1.1	4.5	94.4
	2명	8.6	3.4	88.0
	3명 이상	14.6	3.5	81.9
가구 구성	단독가구	1.1	4.5	94.4
	모/부자가구	11.3	1.7	87.0
	조손가구	17.8	0.0	82.2
	다문화가구	0.0	0.0	100.0
	기타(일반가구)	9.3	5.0	85.6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1.7	1.4	97.0
	51만원~70만원 이하	1.8	4.1	94.1
	71만원~100만원 이하	2.1	3.8	94.0
	101만원~150만원 이하	15.8	0.6	83.6
	151만원 이상	23.0	15.3	61.8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2-13〉 는 응답자의 비경제활동 사유를 나타낸 것이다. 근로무능력이 4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근로의사없음이 29.1%로 높은 비율을 차지

했다. 하지만 구직활동포기(6.3%), 학업(5.7%), 가사(3.9%), 양육(2.5%), 간병(1.9%) 등도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를 어떠한 형태로는 제시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도 함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2-13〉 응답자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구분		근로무 능력	근로의 사 없음	구직활 동포기	정규교 육기관 학업	가사	군복무	양육	간병	진학준 비	취업준 비	기타
전체		41.5	29.1	6.3	5.7	3.9	2.7	2.5	1.9	0.8	0.5	5.2
성별	남성	46.5	29.5	7.6	5.1	0.2	5.1	0.0	1.2	1.5	0.0	3.2
	여성	35.9	28.6	4.9	6.3	7.9	0.2	5.2	2.6	0.0	1.0	7.3
연령	만34세 이하	28.1	5.1	0.0	28.7	6.9	13.6	8.5	0.0	4.1	2.5	2.4
	만35~49세	37.0	37.1	8.4	0.0	3.9	0.0	1.8	3.5	0.0	0.0	8.3
	만50~64세	47.8	34.0	7.7	0.1	2.8	0.1	0.7	1.9	0.0	0.0	4.9
교육수준	초졸이하	49.5	37.0	5.9	0.0	2.5	0.3	0.0	0.0	0.0	0.0	4.8
	중졸	40.7	37.1	7.8	4.8	4.1	0.0	1.3	0.4	0.0	0.0	3.9
	고졸	37.7	23.9	5.6	10.1	2.2	1.4	5.4	3.7	2.1	1.3	6.7
	대졸이상	37.5	14.5	7.0	6.2	11.0	15.9	1.0	3.1	0.0	0.0	3.8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44.9	33.7	7.1	1.3	2.6	2.7	0.8	1.0	0.0	0.0	5.9
	보통	33.3	7.8	5.9	6.3	11.4	6.1	14.2	6.3	0.0	5.5	3.3
	건강한 편	20.5	10.2	0.9	40.9	7.4	0.0	5.9	5.1	8.1	0.0	1.1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8.8	3.3	1.8	35.4	8.0	14.8	10.5	6.9	5.6	3.4	1.4
	단순근로가능	68.0	9.3	6.5	0.0	3.4	0.0	4.5	2.5	0.0	0.0	5.9
	단순근로미약자	39.1	35.2	11.3	0.0	8.2	0.0	0.3	0.2	0.0	0.0	5.7
	근로능력없음	47.4	36.0	5.3	1.1	0.9	1.1	1.0	1.2	0.0	0.0	5.9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	—	—	—	—	—	—	—	—	—	—
	실업자	—	—	—	—	—	—	—	—	—	—	—
	비경제활동인구	41.5	29.1	6.3	5.7	3.9	2.7	2.5	1.9	0.8	0.5	5.2
지역	수도권	44.5	18.6	10.3	3.0	3.4	5.9	3.1	2.3	2.2	0.0	6.6
	광역시	45.8	32.3	4.3	2.4	1.3	0.0	3.5	2.0	0.0	0.0	8.4
	도	35.7	36.8	3.9	10.4	6.0	1.6	1.2	1.5	0.0	1.3	1.7
동거 가구원 수	1명	47.1	29.4	8.3	3.9	0.8	4.7	0.0	0.3	0.0	0.0	5.5
	2명	42.5	27.2	4.3	7.7	3.3	1.6	5.6	1.6	0.0	1.5	4.7
	3명 이상	26.0	31.6	5.2	6.6	12.1	0.0	3.0	6.2	4.2	0.0	5.0
가구 구성	단독가구	47.1	29.4	8.3	3.9	0.8	4.7	0.0	0.3	0.0	0.0	5.5
	모/부자가구	31.9	34.5	7.8	0.5	5.7	0.0	11.9	3.0	0.0	0.0	4.7
	조손가구	26.5	15.4	0.0	45.6	0.0	0.0	0.0	0.0	12.5	0.0	0.0
	다문화가구	0.0	28.6	0.0	0.0	0.0	0.0	0.0	71.4	0.0	0.0	0.0
	기타(일반가구)	40.8	29.0	4.2	2.7	8.3	1.7	2.4	3.5	0.0	1.5	5.9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42.7	23.2	3.9	17.3	0.7	0.0	2.5	0.3	0.0	0.0	9.4
	51만원~70만원 이하	45.2	32.8	9.6	2.1	2.4	1.8	0.0	1.1	0.0	0.0	4.9
	71만원~100만원 이하	47.2	24.1	5.8	5.2	5.3	6.9	1.4	0.8	0.0	0.0	3.3
	101만원~150만원 이하	28.5	32.2	4.1	5.0	6.8	0.0	6.3	5.0	4.3	2.6	5.2
	151만원 이상	30.7	41.1	6.4	0.0	1.6	0.0	7.9	5.7	0.0	0.0	6.7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2. 생활비, 소득 및 자산

근로능력 장기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평균 77.4만원, 중위로는 70만원 수준이었다. 50만원 초과~70만원 이하가 3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7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28.5%로 다음을 이었다. 무엇보다 50만원 이하의 지출을 보여주는 가구도 26.7%로 수급을 하지 않는 비수급빈곤층 가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¹⁾.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가, 연령은 나이가 적을수록 지출수준이 높았다. 만 50~64세 사이가 가장 낮은 지출수준을 보여주었다.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그리고 건강하고 근로가 가능한 가구의 지출수준이 높았다. 일을 할 수 있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지출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가구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2-14〉 월평균 생활비

(단위: %, 만원)

구분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70만원 이하	7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150만원 이하	150만원 초과	평균	중위
전체		26.7	30.8	28.5	10.7	3.4	77.4	70.0
(가구주) 성별	남성	25.6	32.6	39.4	9.8	2.6	76.2	69.0
	여성	28.0	28.6	27.3	11.7	4.4	78.9	70.0
(가구주) 연령	만34세 이하	17.6	24.7	35.1	16.6	6.0	89.6	80.0
	만35~49세	28.8	22.7	28.1	14.8	5.6	83.6	70.0
	만50~64세	27.5	36.4	26.1	7.6	2.4	72.5	62.0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이하	27.1	34.1	26.5	9.6	2.7	74.7	65.0
	중졸	31.1	31.0	27.3	9.6	1.0	71.3	61.0
	고졸	25.6	29.9	26.6	11.9	6.0	83.2	70.0
	대졸이상	20.1	24.4	41.1	12.2	2.3	79.8	80.0
(가구주)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27.2	32.9	28.8	8.4	2.7	74.0	65.0
	보통	30.6	16.6	31.6	16.6	4.6	85.3	80.0
	건강한 편	17.6	30.3	21.8	22.7	7.7	97.0	80.0
(가구주)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11.9	19.1	37.0	25.0	7.0	100.8	90.0
	단순근로가능	20.4	44.6	23.5	8.3	3.2	74.8	70.0
	단순근로미약자	33.5	38.3	19.4	5.5	3.3	68.9	60.0
	근로능력없음	30.1	29.0	31.0	8.0	2.0	72.9	63.0
동거 가구원수	1명	34.9	40.7	21.5	2.3	0.7	63.4	60.0
	2명	18.4	16.8	44.4	15.8	4.7	87.0	80.0
	3명 이상	3.5	8.5	36.2	38.8	13.1	123.3	11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1) 통계청 가계지출 조사로 보면 2018년 기준 1인 가구 포함 전가구 가계지출 수준은 약 333만원 중위값은 약 280만원수준으로 근로능력 장기수급가구의 지출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KOSIS, 자료).

주요 생활비목별 가구 지출수준을 보면,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주로 의료비에 대한 지출이 월평균 5.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공교육비 2.0만원, 세금 및 보험료 1.3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특성별로는 차이가 있어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에서 공사교육비 및 의료비 수준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만 34세 이하의 공교육비가 만 50세 이상은 의료비 수준이 높았다. 교육비측면에서는 건강하거나 근로가 가능한 가구에서 평균 금액이 높았으며, 반면에 의료비에서는 건강하지 않고 근로능력이 미약한 가구에서 의료비가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높았다. 특징적으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의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내 질환 등을 가진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2-15〉 생활비 항목별 지출수준

(단위: 만원/월평균)

구분		공교육비		사교육비		의료비		세금 및 보험료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2.0	0	1.3	0	5.4	1.0	1.3	0
(가구주) 성별	남성	0.8	0	0.8	0	4.7	1.0	1.2	0
	여성	3.5	0	1.9	0	6.1	1.0	1.5	0
(가구주) 연령	만34세 이하	3.8	0	1.5	0	1.8	0	0.2	0
	만35~49세	2.5	0	3.0	0	4.4	1.0	2.6	0
	만50~64세	1.2	0	0.8	0	6.1	2.0	1.0	0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이하	1.3	0	0.1	0	6.1	1.0	1.0	0
	중졸	0.6	0	1.1	0	4.9	1.0	2.5	0
	고졸	4.1	0	2.7	0	5.6	1.0	0.9	0
	대졸이상	1.0	0	0.9	0	3.6	0	1.0	0
(가구주)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1.6	0	1.0	0	5.6	1.0	1.3	0
	보통	4.3	0	3.2	0	5.5	2.0	1.9	0
	건강한 편	3.3	0	1.9	0	3.6	1.0	1.0	0
(가구주)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3.8	0	2.8	0	3.7	1.0	1.4	0
	단순근로가능	2.0	0	1.6	0	3.4	2.0	1.7	0
	단순근로미약자	1.6	0	1.1	0	6.8	2.0	1.0	0
	근로능력없음	1.6	0	0.8	0	5.5	1.0	1.4	0
동거 가구원수	1명	0.1	0	0.2	0	4.4	1.0	0.8	0
	2명	4.0	0	1.6	0	7.0	2.0	2.0	0
	3명 이상	7.4	0	5.8	0	7.0	5.0	2.5	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지출과 비교를 위해 월평균 가구 총소득을 보면 평균 83.7만원, 중위 70만원으로 지출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즉 근로능력 장기수급가구는 생기는 소득 거의 모두를 지출하고 있으며, 만약 위기가 발생시 여유 자금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볼 수 있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주, 가구주 연령이 적고,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하고 근로가 가능할 경우 가구 총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50대 이상에서는 70만원 이하 가구가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가구주 연령이 낮고, 건강하고 근로 가능할 경우 소득과 지출이 높다는 점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장기간 수급에 머무르게 하는 요인을 파악해 이를 해소해 준다면 이들 가구는 탈수급과 탈빈곤이 가능할 수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표 4-2-16〉 월평균 가구 총소득

(단위: %, 만원)

구분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70만원 이하	7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150만원 이하	150만원 초과	평균	중위
전체		15.7	35.4	29.0	13.9	5.9	83.7	70.0
(가구주) 성별	남성	14.5	38.2	30.3	11.3	5.8	82.7	70.0
	여성	17.2	32.0	27.5	17.8	6.2	85.0	75.0
(가구주) 연령	만34세 이하	9.4	23.6	33.2	20.1	13.7	101.8	90.0
	만35~49세	17.7	27.1	30.1	18.2	6.9	89.7	80.0
	만50~64세	16.3	43.7	25.9	10.9	3.3	76.6	65.0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이하	15.3	36.5	35.4	7.0	5.8	79.6	70.0
	중졸	18.2	39.8	20.5	19.0	2.5	78.0	67.0
	고졸	14.5	37.2	23.0	18.5	6.9	88.4	70.0
	대졸이상	15.3	19.5	44.9	10.1	10.3	92.6	80.0
(가구주)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16.0	38.2	30.9	11.2	3.7	78.3	70.0
	보통	11.5	28.8	21.1	30.4	8.2	97.5	87.0
	건강한 편	18.2	19.2	22.3	17.4	22.8	114.1	80.0
(가구주)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9.7	11.7	32.4	29.1	17.1	115.2	100.0
	단순근로가능	11.5	50.1	16.9	17.0	4.5	81.5	70.0
	단순근로미약자	17.1	48.4	23.7	8.8	2.0	72.3	63.0
	근로능력없음	18.1	35.3	32.9	9.9	3.8	77.4	70.0
동거 가구원수	1명	20.5	50.0	27.7	3.1	1.7	67.6	61.0
	2명	11.6	12.2	43.7	25.2	7.4	96.7	87.0
	3명 이상	1.0	5.7	27.2	44.3	21.8	134.1	12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근로능력 가구의 자산(금융자산 등) 및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 일까. 먼저 총자산(= 거주용자산, 금융자산 및 기타 비거주용 자산의 합계)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 총자산액은 약 1,815만원에 불과했으며, 중위자산도 400만원에 불과해 자산 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총자산 규모를 보면, 2018년 평균 42천만원, 2019년 평균 43천만원으로 근로능력가구의 총자산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가구 총자산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36.3%로 가장 많았으며, 자산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1.2%에 불과했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여성가구에 비해 남성가구주가 연령이 낮은 만 34세 이하 가구주, 대졸 이상으로 근로가 가능한 가구의 총자산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자산 규모도 많았다.

〈표 4-2-17〉 가구 총자산

(단위: %, 만원)

구분		전혀없음	0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평균	중위
전체		15.4	7.3	36.3	17.1	12.9	11.2	1,815.5	400
(가구주) 성별	남성	14.6	6.6	36.0	18.1	12.1	12.6	1,885.9	400
	여성	16.3	8.0	36.5	15.8	13.8	9.5	1,760.4	340
(가구주) 연령	만34세 이하	3.4	7.1	23.1	39.2	9.4	17.9	2,155.7	1,000
	만35~49세	16.4	3.3	44.4	16.1	13.8	6.2	1,338.4	350
	만50~64세	16.7	7.0	39.8	14.8	12.0	9.7	1,663.9	300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이하	19.2	11.0	35.8	11.3	14.2	8.5	1,616.8	300
	중졸	19.8	5.7	35.5	12.5	15.1	11.5	1,910.3	300
	고졸	12.2	6.2	41.8	19.3	9.1	11.3	1,642.2	405
	대졸이상	5.3	3.1	23.5	35.0	15.6	17.6	2,642.6	1,000
(가구주)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16.2	7.9	39.4	16.0	12.9	7.7	1,370.5	300
	보통	11.6	1.3	30.1	22.2	9.8	25.0	4,035.7	650
	건강한 편	12.5	8.8	16.9	20.3	16.3	25.2	2,980.3	579
(가구주)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5.0	7.8	20.7	24.8	13.6	28.1	3,651.7	1000
	단순근로가능	14.3	16.4	30.7	26.8	6.5	5.3	1,056.8	400
	단순근로미약자	20.4	4.3	42.3	9.4	15.2	8.4	1,444.0	300
	근로능력없음	17.1	7.0	40.4	16.4	12.4	6.8	1,394.5	300
동거 가구원수	1명	16.9	6.6	41.1	18.0	11.0	6.4	1,168.3	300
	2명	16.6	10.5	30.9	13.6	11.4	17.0	2,397.1	390
	3명 이상	7.3	5.5	23.1	17.9	22.7	23.7	3,754.6	1,7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위기 상황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규모를 보면, 평균적으로 87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조사 대상 가구의 72.3%는 아예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12.5%에 불과해 긴급상황

에 충분히 대응해 나가기 쉽지는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만 34세 이하가 가장 낮았으며, 가구원수는 1인가구의 금융자산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부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 근로능력 가구 평균적으로 13백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자산이 18백만원이란 점을 고려시 약 5백여 만원의 여유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대부분이 자가가구 가격, 거주용 주택의 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유동화 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여성가구주에 비해 남성가구주의 부채 크기가 2배 이상 많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은 고졸인 경우 부채금액이 많았다. 또한 근로가 가능하다고 한 가구가 근로가 미약한 가구에 비해 부채금액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18〉 가구 금융자산

(단위: %, 만원)

구분		전혀없음	0원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평균
전체		72.3	15.2	9.5	3.0	87.1
(가구주) 성별	남성	67.1	18.3	11.1	3.6	90.8
	여성	78.8	11.4	7.5	2.3	82.5
(가구주) 연령	만34세 이하	63.3	36.7	—	—	18.0
	만35~49세	74.9	8.9	12.2	4.0	108.7
	만50~64세	73.5	13.6	10.0	2.9	80.3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이하	72.4	15.1	10.6	2.0	86.9
	중졸	72.7	10.7	9.6	7.0	129.4
	고졸	70.6	18.2	9.3	2.0	62.1
	대졸이상	76.0	16.1	6.7	1.2	77.0
(가구주)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75.5	13.4	9.7	1.4	65.2
	보통	62.1	14.4	10.6	12.9	228.9
	건강한 편	57.1	31.7	6.5	4.7	105.6
(가구주)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71.8	11.8	8.0	8.4	165.5
	단순근로가능	59.6	26.7	10.9	2.8	72.0
	단순근로미약자	75.2	15.1	8.8	0.9	45.2
	근로능력없음	73.1	14.7	10.2	2.0	80.8
동거 가구원수	1명	73.3	16.7	8.8	1.2	57.6
	2명	71.6	16.5	9.1	2.8	94.5
	3명 이상	68.8	7.4	12.8	11.0	201.7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2-19〉 가구 총부채액(명의 기준)

(단위: %, 만원)

구분		전혀없음	0원초과~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평균
전체		71.0	2.4	10.4	11.3	3.9	1.1	1,312.5
(가구주) 성별	남성	69.4	2.6	9.0	12.7	4.9	1.4	1,790.1
	여성	72.9	2.0	12.1	9.7	2.7	0.6	719.3
(가구주) 연령	만34세 이하	68.8	12.2	—	9.4	8.7	1.0	1,020.1
	만35~49세	67.3	0.9	14.8	11.8	3.5	1.7	1,105.3
	만50~64세	70.6	1.3	11.4	12.1	3.5	1.0	1,549.8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이하	80.7	1.5	8.4	7.8	1.4	0.2	412.0
	중졸	67.0	1.3	13.5	14.7	3.6	—	748.0
	고졸	66.2	4.8	11.8	11.2	3.9	2.2	2,401.6
	대졸이상	65.9	—	5.8	14.8	11.4	2.1	1,760.7
(가구주)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71.8	1.1	12.1	11.4	2.6	1.0	1,113.5
	보통	79.3	1.6	4.5	9.2	4.1	1.3	2,438.7
	건강한 편	53.8	14.3	2.3	13.3	15.2	1.1	1,672.8
(가구주)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68.9	2.1	6.1	11.6	9.8	1.5	2,334.7
	단순근로가능	68.3	14.3	5.6	6.0	2.8	3.1	3,532.9
	단순근로미약자	70.6	1.3	10.1	14.2	3.3	0.5	902.5
	근로능력없음	72.6	0.9	13.1	10.6	2.0	0.8	711.9
동거 가구원수	1명	73.5	2.7	8.4	10.6	3.7	1.1	1,463.0
	2명	70.4	2.5	13.7	10.5	2.7	0.3	705.6
	3명 이상	61.1	0.6	14.1	15.8	6.4	2.0	1,506.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3. 주거생활

조사대상 근로능력 수급가구의 주택유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43.7%)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단독주택이 34.7%로 두 주택 유형이 거의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이외에 매우 비정형적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은 0.8%, 오피스텔 및 고시원 0.8%, 판잣집 등이 0.4%로 약 2% 정도의 수급가구가 매우 불안정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만 35세 이상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만 35세 미만은 주로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51%로 가장 많았다. 가구주특성에 따라 거주하는 주택 유형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2-20〉 현재 주택 유형

(단위: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기타
전체		34.7	43.7	18.5	0.8	0.8	0.4	1.2
(가구주) 성별	남성	34.1	43.9	18.0	1.3	1.2	0.1	1.4
	여성	35.5	43.4	19.1	0.1	0.3	0.7	1.0
(가구주) 연령	만34세 이하	8.7	37.0	51.0	—	—	—	3.4
	만35~49세	33.7	42.8	21.5	—	1.3	0.7	—
	만50~64세	27.0	46.2	13.5	1.2	0.9	0.4	0.8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이하	45.0	37.8	13.8	0.8	0.9	0.2	1.4
	중졸	41.0	42.2	13.2	0.8	0.8	—	2.0
	고졸	25.6	53.8	18.2	0.2	0.8	1.0	0.4
	대졸이상	20.3	34.5	41.4	2.1	0.6	—	1.2
(가구주)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37.6	42.5	16.5	0.9	1.0	0.4	1.0
	보통	24.0	52.4	22.9	—	—	0.7	—
	건강한 편	22.6	43.3	29.7	0.4	—	—	4.0
(가구주)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23.8	34.9	41.1	0.2	—	—	—
	단순근로가능	33.2	53.1	11.5	0.4	0.9	0.9	—
	단순근로미약자	41.3	42.6	13.4	0.8	0.9	1.2	—
	근로능력없음	35.8	46.3	13.1	1.1	1.1	—	2.6
동거 가구원수	1명	36.2	42.2	17.6	1.1	1.1	0.6	1.2
	2명	33.0	43.9	20.5	0.4	0.4	—	1.9
	3명 이상	30.7	49.5	19.4	—	—	—	0.4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주택점유형태를 보면, 근로능력 가구 대부분이 주거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보증부 월세가 57.5%로 가장 많았으며, 사글세 등 월세가 10.8%로 월세가가 근로능력 수급가구의 2/3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나마 주거가 안정적인 자가인 경우는 9.6%에 불과하며, 전세는 12.1%로 낮은 수준이었다. 가구주 특성별로 분석해도 크게 변화가 없지만 만 34세 이하 가구에서 전세 비율이 30.7%로 높아지고, 대졸 이상, 근로 가능 가구 등에서 전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하기에 미약하거나 1인 가구 등은 월세 비율이 높았다.

거주하는 주택의 주거환경을 보면, 대부분의 가구가 평균 방수는 2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구원수가 1인인 가구가 1.8개로 적었고 대부분이 1.9~2개 정도의 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사용면적은 평균 46.3㎡(약 14평)정도 이었으며, 50㎡ 이하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원수가 많고 근로가 가능한 가구의 주택사용면적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21〉 주택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사글세 등)	기타
전체		9.6	12.1	57.5	10.8	10.0
(가구주) 성별	남성	10.1	13.1	55.8	8.9	12.2
	여성	9.0	10.9	59.7	13.2	7.2
(가구주) 연령	만34세 이하	3.6	30.7	58.3	3.4	4.0
	만35~49세	2.7	14.2	63.7	7.0	12.4
	만50~64세	8.3	9.7	59.8	12.6	9.6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이하	13.8	5.7	53.2	15.7	11.6
	중졸	14.2	12.5	51.5	9.6	12.2
	고졸	4.9	12.6	64.9	8.6	9.2
	대졸이상	3.0	27.3	60.1	6.1	3.5
(가구주)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8.0	13.0	56.9	11.6	10.6
	보통	20.4	9.4	57.6	8.0	4.7
	건강한 편	11.2	8.3	62.8	7.0	10.7
(가구주)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21.0	20.6	50.1	3.4	5.0
	단순근로가능	3.3	5.0	73.7	10.4	7.7
	단순근로미약자	9.9	10.5	56.6	15.2	7.9
	근로능력없음	5.9	10.8	58.2	11.4	13.6
동거 가구원수	1명	4.4	13.4	60.9	12.4	9.0
	2명	13.6	11.4	51.7	11.7	11.7
	3명 이상	26.4	7.9	51.2	2.9	11.6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2-22〉 주택내 사용 방수

(단위: %, 개)

구분		1개	2개	3개 이상	평균
전체		24.5	56.2	19.3	2.0
(가구주) 성별	남성	28.0	51.7	20.4	1.9
	여성	20.2	61.9	17.9	2.0
(가구주) 연령	만34세 이하	23.3	50.0	26.7	2.0
	만35~49세	28.2	47.9	24.0	2.0
	만50~64세	26.0	59.4	14.7	1.9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이하	27.4	56.2	16.5	1.9
	중졸	22.8	52.3	25.0	2.0
	고졸	20.1	65.8	14.1	1.9
	대졸이상	32.4	37.3	30.3	2.0
(가구주)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25.0	56.9	18.1	1.9
	보통	13.5	55.8	30.7	2.2
	건강한 편	33.5	50.7	15.7	1.8
(가구주)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17.0	39.0	44.0	2.3
	단순근로가능	28.6	53.6	17.8	1.9
	단순근로미약자	25.4	60.8	13.8	1.9
	근로능력없음	26.4	61.3	13.3	1.9
동거 가구원수	1명	33.4	54.8	11.8	1.8
	2명	11.5	65.3	23.3	2.1
	3명 이상	4.8	50.0	45.2	2.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2-23〉 주택 사용 면적

(단위: %, m²)

구분		30m ² 이하	30m ² 초과~50m ² 이하	50m ² 초과~80m ² 이하	80m ² 초과	평균
전체		21.3	47.8	24.7	6.1	46.3
(가구주) 성별	남성	22.1	49.2	22.9	5.8	44.7
	여성	20.3	46.1	27.1	6.5	48.2
(가구주) 연령	만34세 이하	12.8	52.6	34.7	—	45.6
	만35~49세	18.7	52.2	21.0	8.1	46.3
	만50~64세	26.1	46.7	22.5	4.6	44.2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이하	22.5	49.1	22.0	6.4	45.5
	중졸	22.5	47.6	21.4	8.5	47.1
	고졸	18.8	51.4	26.6	3.2	45.9
	대졸이상	23.0	34.9	33.3	8.8	48.0
(가구주)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23.4	46.9	24.8	4.9	44.9
	보통	8.2	44.4	32.6	14.8	57.4
	건강한 편	19.4	59.6	14.6	6.4	45.1
(가구주)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12.0	35.0	39.6	13.4	56.4
	단순근로가능	25.2	45.3	22.7	6.9	45.4
	단순근로미약자	20.5	48.4	25.6	5.6	46.9
	근로능력없음	25.0	53.3	18.4	3.2	41.8
동거 가구원수	1명	28.1	51.1	19.1	1.8	40.6
	2명	14.1	54.2	24.0	7.8	50.1
	3명 이상	2.7	25.5	49.7	22.2	65.4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제3절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 수급실태

1. 기초생활보장 수급실태

〈표 4-3-1〉은 4가지 급여 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응답자들 거의 대부분이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다. 교육급여를 받는 비율은 11.8%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생계, 의료, 주거급여의 경우 남성 수급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교육급여의 경우 여성 수급자가 72.3%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자녀를 혼자 키우는 저소득층 여성들이 교육급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모두 만50~64세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초중고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35~49세 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4가지 급여 모두 고졸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4가지 급여 모두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좋지 않은 건강상태로 인해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근로능력의 경우, 4가지 급여 모두 근로능력이 없는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근로가능 집단의 수급 비율이 3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육급여 수급자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고, 건강상태도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이다.

경제활동 참여 상태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약 90%를 차지하였다. 해당 수급자 중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6.6% 수준에 머물렀다.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일하는 비율은 25.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원 수는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1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3명 이상이 63.5%로 가장 높았다. 가구 구성은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육급여의 경우, 모/부자 가구가 45.2%로 가장 높았다. 이들은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이다.

〈표 4-3-1〉 급여별 응답자 특성에 따른 수급자 비율(중복응답)

(단위:%)

구분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수급		98.9 (994)	99.4 (1,001)	94.4 (953)	11.8 (105)
비수급		0.11 (11)	0.06 (4)	0.56 (52)	88.2 (900)
성별	남성	52.4	52.4	52.3	27.2
	여성	47.6	47.6	47.7	72.8
연령	만34세 이하	21.3	20.8	20.5	17.1
	만35~49세	24.0	24.2	24.6	49.7
	만50~64세	54.7	55.0	54.9	33.3
교육수준	초졸이하	24.9	24.9	24.6	5.4
	중졸	21.3	21.1	21.5	21.4
	고졸	39.5	39.4	40.3	64.5
	대졸이상	14.3	14.5	13.6	8.8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76.9	77.0	76.1	67.2
	보통	10.5	10.8	11.2	21.7
	건강한 편	12.7	12.2	12.7	11.1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19.0	19.2	19.9	36.0
	단순근로가능	9.7	9.8	8.6	11.9
	단순근로미약자	22.8	22.8	22.8	14.7
	근로능력없음	48.5	48.3	48.8	37.5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5.8	6.6	6.6	25.4
	실업자	3.9	4.0	3.5	2.5
	비경제활동인구	90.3	89.5	89.9	72.0
가구원 수	1명	45.1	44.9	45.5	1.1
	2명	33.7	33.7	33.2	35.4
	3명 이상	21.3	21.3	21.3	63.5
가구 구성	단독가구	45.1	44.9	45.5	1.1
	모/부자가구	14.2	14.9	15.5	45.2
	조손가구	7.1	7.1	6.0	3.6
	다문화가구	0.3	0.3	0.3	0.0
	기타(일반가구)	33.3	32.8	32.7	50.1

주: 사례수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수치이며, 비율은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급여는 중복급여를 포함한 값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3-2〉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는 주된 이유를 나타낸 것이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활동을 그만두게 된 점이 약 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서가 약 20% 정도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점도 약 15%를 차지하였다. 교육급여의 경우 수급 이유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혼, 분가 등으로 소득원이 감소한 것이 2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소득활동을 그만두거나, 소득원이 사망한 점을 수급 이유로 꼽았다.

〈표 4-3-2〉 현재 수급중인 급여 수급 이유_1순위

(단위:%)

구 분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일없고 있으나 수입이 줄어들어서	5.5	5.8	6.0	11.9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28.5	28.4	28.6	18.4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4.5	4.0	4.5	6.1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13.5	13.8	13.9	27.5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8.4	8.3	8.7	13.8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1.2	1.2	1.3	2.0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15.1	15.2	14.7	8.0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0.2	0.2	0.2	0.0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서	20.3	20.3	19.4	12.4
근로 능력이 없어서	0.5	0.5	0.4	0.0
기타	2.3	2.3	2.4	0.0
전체	100	100	100	1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급여는 중복급여를 포함한 값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3-3〉 ~ 〈표 4-3-4〉는 급여형태 별로 수급자에서 벗어날 가능성과 예상 기간을 나타낸다. 먼저 〈표 4-3-3〉은 생계급여에서 벗어날 가능성과 예상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생계급여의 경우 응답자의 70% 이상이 수급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수급 탈출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수급 탈출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남성은 1~3년 이내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3년 이후가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수급 탈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만34세 이하의 경우 1~3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1%를 차지하였다. 수급탈출 기대와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가 낮은 수급자 집단을 대상으로 장기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대졸이상 집단의 경우에는 1~3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1~3년 이내 라고 응답한 비율이 3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근로능력 정도가 낮을수록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가능 집단의 경우 1~3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로 가장 높았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수급탈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근로집단의 경우 1~3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3%, 실업자의 경우 6개월~1년 이내로 응답한 비율이 21.2%로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 수급탈출에 부정적인 비율이 82.3%로 가장 높았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수급탈출에 부정적인 비율이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모/부자가구의 경우 3년 이후로 응답한 비율이 24.9%, 조손가구의 경우 1~3년 이내로 응답한 비율이 38.4%로 나타났다.

〈표 4-3-3〉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나날 예상 기간: 생계급여

(단위 : %)

구분		6개월 이내	6개월 후 ~1년 이내	1년 후 ~3년 이내	3년 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n=994)		0.6	1.3	8.1	6.2	74.3	9.6
성별	남성	0.7	1.6	11.1	1.1	76.4	9.2
	여성	0.4	0.9	4.8	11.7	72.1	10.1
연령	만34세 이하	0.0	3.4	31.3	8.3	36.0	21.1
	만35~49세	0.5	1.5	0.8	14.3	75.0	8.0
	만50~64세	0.8	0.3	2.2	1.8	89.0	5.9
교육수준	초졸이하	0.2	0.3	0.8	0.8	95.1	2.8
	중졸	0.4	0.0	1.7	11.0	76.9	10.1
	고졸	1.0	0.9	9.6	6.6	70.2	11.7
	대졸이상	0.0	5.8	25.9	7.2	46.0	15.1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0.4	0.5	3.8	4.5	83.3	7.5
	보통	2.1	0.8	5.6	8.1	62.2	21.2
	건강한 편	0.0	6.5	36.0	15.0	29.8	12.7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1.1	4.8	37.1	10.8	31.5	14.8
	단순근로가능	1.1	1.6	2.3	8.5	57.5	29.0
	단순근로미약자	0.3	0.7	1.6	4.0	86.8	6.6
	근로능력없음	0.3	0.1	0.9	4.9	88.6	5.2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1.3	1.5	23.3	8.0	57.1	8.8
	실업자	3.3	21.2	10.7	14.4	41.7	8.8
	비경제활동인구	0.4	0.4	7.0	5.7	76.9	9.7
가구원 수	1명	0.7	1.8	7.9	1.0	82.3	6.4
	2명	0.2	1.0	6.4	12.0	65.9	14.5
	3명 이상	0.8	0.6	11.1	7.9	70.8	8.8
가구 구성	단독가구	0.7	1.8	7.9	1.0	82.3	6.4
	모/부자가구	0.5	2.0	3.1	24.9	62.0	7.6
	조손가구	0.0	0.0	38.4	6.1	22.9	32.6
	다문화가구	0.0	0.0	0.0	0.0	28.6	71.4
	기타(일반가구)	0.5	0.6	4.0	5.2	80.1	9.5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급여는 중복급여를 포함한 값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3-4〉는 인구학적 범주 별로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가능성과 예상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약 77% 정도가 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수급 탈출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남성은 1~3년 이내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3년 이후가 가장 많았다.

연령이 많을수록 의료급여 수급 탈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만34세 이하의 경우 1~3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9%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대졸이상 집단의 경우에는 1~3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5%로 나타났다.

〈표 4-3-4〉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예상 기간 의료급여

(단위 : %)

구분		6개월 이내	6개월 후 ~1년 이내	1년 후 ~3년 이내	3년 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n=1000)		0.3	1.1	7.6	3.3	77.3	10.4
성별	남성	0.5	1.5	10.5	0.7	77.6	9.2
	여성	0.2	0.7	4.4	6.1	76.9	11.7
연령	만34세 이하	0.0	3.5	31.9	6.4	34.1	24.1
	만35~49세	0.4	1.4	0.8	5.8	83.6	8.0
	만50~64세	0.4	0.1	1.4	1.0	90.8	6.2
교육수준	초졸이하	0.0	0.3	0.6	0.8	95.6	2.8
	중졸	0.4	0.0	0.2	1.6	87.5	10.3
	고졸	0.6	0.6	9.4	5.0	70.8	13.6
	대졸이상	0.0	5.7	25.5	5.5	48.5	14.9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0.1	0.3	3.2	1.7	87.0	7.7
	보통	2.2	0.8	5.4	5.9	64.1	21.6
	건강한 편	0.0	6.8	37.3	11.0	27.4	17.6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0.9	4.7	36.9	7.4	35.0	15.1
	단순근로가능	0.0	0.6	0.7	8.4	60.7	29.6
	단순근로미약자	0.3	0.7	0.8	3.7	87.4	7.1
	근로능력없음	0.2	0.0	0.5	0.4	92.7	6.2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1.4	0.0	20.8	8.4	60.1	9.4
	실업자	1.9	20.9	10.6	14.2	43.9	8.6
	비경제활동인구	0.2	0.3	6.5	2.4	80.0	10.5
동거 가구원 수	1명	0.5	1.7	7.5	0.7	82.9	6.6
	2명	0.0	0.8	6.1	3.8	72.7	16.6
	3명 이상	0.4	0.4	10.2	8.0	72.5	8.5
가구 구성	단독가구	0.5	1.7	7.5	0.7	82.9	6.6
	모/부자가구	0.6	1.3	2.2	9.1	79.8	7.0
	조손가구	0.0	0.0	38.4	6.1	15.1	40.3
	다문화가구	0.0	0.0	0.0	0.0	28.6	71.4
	기타(일반가구)	0.0	0.5	3.5	3.7	82.2	10.2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급여는 중복급여를 포함한 값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1~3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근로능력 정도가 낮을수록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가능 집단의 경우 1~3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9%로 가장 높았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수급탈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근로집단의 경우 1~3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8%, 실업자의 경우 6개월~1년 이내로 응답한 비율이 20.9%로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 수급탈출에 부정적인 비율이 82.9%로 가장 높았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수급탈출에 부정적인 비율이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모/부자가구의 경우 3년 이후로 응답한 비율이 9.1%, 조손가구의 경우 1~3년 이내로 응답한 비율이 38.4%로 나타났다.

〈표 4-3-5〉는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가능성과 예상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약 75% 정도가 주거급여 수급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수급 탈출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 1~3년 이내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3년 이후가 가장 많았다.

연령이 많을수록 주거급여 수급 탈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만34세 이하의 경우 1~3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0%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대졸이상 집단의 경우에는 1~3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3%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1~3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근로능력 정도가 낮을수록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근로가능 집단의 경우 1~3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1%로 가장 높았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수급탈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근로집단의 경우 1~3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1%, 실업자의 경우 6개월~1년 이내로 응답한 비율이 24.5%로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 수급탈출에 부정적인 비율이 82.9%로 가장 높았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수급탈출에 부정적인 비율이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모/부자가구의 경우 3년 이후로 응답한 비율이 10.6%, 조손가구의 경우 1~3년 이내로 응답한 비율이 47.6%로 나타났다.

〈표 4-3-5〉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예상 기간_3) 주거급여

(단위 : %)

구분		6개월 이내	6개월 후 ~1년 이내	1년 후 ~3년 이내	3년 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n=952)		0.2	1.2	7.6	4.1	75.5	11.4
성별	남성	0.2	1.6	10.0	0.9	77.6	9.8
	여성	0.3	0.8	4.9	7.7	73.2	13.1
연령	만34세 이하	0.0	3.7	32.0	9.0	36.5	18.8
	만35~49세	0.0	1.5	1.3	5.7	75.4	16.2
	만50~64세	0.4	0.1	1.3	1.6	90.1	6.5
교육수준	초졸이하	0.6	0.3	0.6	0.9	94.9	2.8
	중졸	0.0	0.0	0.0	1.3	78.0	20.7
	고졸	0.2	0.6	8.9	7.0	69.7	13.7
	대졸이상	0.0	6.4	28.3	6.1	53.7	5.6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0.2	0.3	3.4	2.0	85.2	8.9
	보통	0.7	0.8	5.5	6.6	65.2	21.2
	건강한 편	0.0	6.8	34.1	14.5	26.8	17.8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0.0	4.8	35.1	10.2	35.0	15.0
	단순근로가능	0.0	0.8	1.3	11.2	68.2	18.6
	단순근로미약자	1.1	0.7	1.2	3.9	86.4	6.8
	근로능력없음	0.0	0.0	0.4	0.5	88.2	10.9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0.0	0.0	21.1	10.1	59.0	9.8
	실업자	0.0	24.5	0.0	18.8	46.6	10.1
	비경제활동인구	0.3	0.4	6.9	3.1	77.9	11.6
가구원 수	1명	0.2	1.8	7.6	0.9	82.9	6.6
	2명	0.5	0.8	6.3	5.8	66.8	19.9
	3명 이상	0.0	0.4	9.5	8.4	73.2	8.4
가구 구성	단독가구	0.2	1.8	7.6	0.9	82.9	6.6
	모/부자가구	0.0	1.3	2.3	10.6	64.6	21.3
	조손가구	0.0	0.0	47.6	7.6	18.8	26.1
	다문화가구	0.0	0.0	0.0	0.0	28.6	71.4
	기타(일반가구)	0.5	0.5	2.7	5.0	81.1	10.2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급여는 중복급여를 포함한 값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3-6〉은 마지막으로 교육급여 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날 가능성과 예상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교육급여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수급 탈출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이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3년 이후라고 응답한 비율이 26.0%를 차지하였다.

연령의 경우, 교육급여 수급 탈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만35~49세가 56.6%로 가장 높았다. 3년 이후라고 응답한 비율은 만34세 이하 집단이 42.1%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대졸이상 집단의 경우에는 3년 이후라고 응답한 비율이 33.4%로 가장 높았다. 건강상

태가 좋지 않을수록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3년 이후라고 응답한 비율이 7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반적으로 3년 이후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자녀의 연령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학령기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까지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 교육급여를 수급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동안에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머물러 있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4-3-6〉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나날 예상 기간_4] 교육급여

(단위 : %)

구분		6개월 이내	6개월 후 ~1년 이내	1년 후 ~3년 이내	3년 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n=104)		0.9	3.0	13.0	22.3	49.9	10.9
성별	남성	0.0	2.2	4.5	12.6	79.0	1.8
	여성	1.3	3.3	16.2	26.0	39.0	14.3
연령	만34세 이하	0.0	0.0	0.0	42.1	36.4	21.6
	만35~49세	1.8	3.0	12.4	18.8	56.6	7.5
	만50~64세	0.0	4.5	20.6	17.5	46.8	10.7
교육수준	초졸이하	0.0	11.3	14.1	5.9	68.8	0.0
	중졸	0.0	3.5	11.5	11.1	68.6	5.2
	고졸	1.4	2.5	11.2	25.9	47.1	11.9
	대졸이상	0.0	0.0	29.3	33.4	12.7	24.6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1.4	3.3	15.2	17.0	55.7	7.4
	보통	0.0	3.3	8.8	14.3	46.0	27.6
	건강한 편	0.0	0.0	7.7	70.4	21.9	0.0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0.0	2.0	12.0	33.4	38.6	14.0
	단순근로가능	7.7	0.0	22.7	24.6	45.0	0.0
	단순근로미약자	0.0	0.0	11.4	36.1	36.2	16.3
	근로능력없음	0.0	6.0	11.5	5.6	67.6	9.3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0.0	0.0	14.8	23.3	56.6	5.3
	실업자	0.0	0.0	33.9	44.0	22.1	0.0
	비경제활동인구	1.3	4.1	11.6	21.2	48.5	13.3
동거 가구원 수	1명	0.0	0.0	100.0	0.0	0.0	0.0
	2명	0.0	1.7	13.4	17.6	48.6	18.6
	3명 이상	1.4	3.7	11.2	25.4	51.5	6.8
가구 구성	단독가구	0.0	0.0	100.0	0.0	0.0	0.0
	모/부자가구	0.0	4.6	15.9	15.5	57.4	6.7
	조손가구	0.0	0.0	0.0	0.0	0.0	0.0
	다문화가구	0.0	0.0	0.0	0.0	0.0	0.0
	기타(일반가구)	1.8	1.8	9.4	23.4	47.8	15.8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급여는 중복급여를 포함한 값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근로능력 정도가 낮을수록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단순근로미약자 집단의 경우 3년 이후라고 응답한 비율이 36.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근로집단의 경우 수급탈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56.6%로 가장 높았다. 이는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다른 양상이다. 실업집단의 경우에도 3년 이후라고 응답한 비율이 44.0%로 가장 높았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수급탈출에 부정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구성 별로는 모/부자가구의 경우 수급탈출에 부정적인 비율이 57.4%로 가장 높았다. 이들은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급여 혜택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집단이기 때문이다.

〈표 4-3-7〉은 수급에서 벗어나도 계속 받고 싶은 급여를 조사한 결과이다. 의료비 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교육비 지원이었다. 이러한 지원 필요성은 성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자활관련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의료비 지원에 대한 필요가 컸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큰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원 욕구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연령과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고, 이들은 교육급여 등 교육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의료비 지원 욕구가 큰 반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교육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이는 마찬가지로 연령과 건강상태가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근로능력 별로 살펴보면, 단순근로미약자의 의료비 지원 희망 비율이 7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근로능력 없음, 근로가능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지원의 경우, 근로가능 집단의 지원 희망 비율이 높았다. 비경제활동집단의 의료비 지원 희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육비 지원의 경우 경제활동집단의 희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수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 희망은 큰 차이가 없었다. 가구구성 별로는 다문화 가구, 일반가구의 의료비 지원 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비 지원의 경우, 모/부자가구의 희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3-7〉 수급가구에서 벗어나도 계속 받고 싶은 급여

(단위 : %)

구분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교육비 지원	자활관련 지원	없다	기타
전체(n=993)		63.7	4.1	28.5	1.7	1.8	0.2
성별	남성	63.7	2.0	28.8	2.8	2.6	0.1
	여성	63.7	6.4	28.2	0.6	0.9	0.2
연령	만34세 이하	43.8	8.8	40.0	4.0	3.5	0.0
	만35~49세	55.8	5.3	35.1	2.4	1.5	0.0
	만50~64세	74.9	1.7	21.2	0.6	1.3	0.3
교육수준	초졸이하	74.2	1.3	22.6	0.4	0.8	0.7
	중졸	63.6	4.5	30.2	1.1	0.7	0.0
	고졸	60.9	5.6	27.3	2.8	3.5	0.0
	대졸이상	53.3	4.2	39.9	2.2	0.5	0.0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69.1	2.8	25.9	0.8	1.2	0.2
	보통	60.2	2.6	34.9	0.9	1.5	0.0
	건강한 편	33.5	13.0	39.5	8.2	5.8	0.0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47.7	8.8	38.5	0.4	4.6	0.0
	단순근로가능	58.3	0.9	29.2	9.8	0.7	1.1
	단순근로미약자	71.2	3.8	21.6	1.1	2.3	0.0
	근로능력없음	67.5	3.0	27.8	0.9	0.7	0.1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52.1	6.4	39.7	0.0	0.0	1.8
	실업자	51.4	4.7	40.1	0.0	3.7	0.0
	비경제활동인구	65.0	3.9	27.3	1.9	1.8	0.1
동거 가구원 수	1명	64.2	0.3	30.3	3.1	2.0	0.2
	2명	63.9	5.0	29.5	0.9	0.5	0.3
	3명 이상	62.4	10.6	23.4	0.2	3.5	0.0
가구 구성	단독가구	64.2	0.3	30.3	3.1	2.0	0.2
	모/부자가구	47.4	8.5	43.8	0.3	0.0	0.0
	조손가구	65.5	6.1	18.1	0.0	10.3	0.0
	다문화가구	71.4	0.0	28.6	0.0	0.0	0.0
	기타(일반가구)	69.6	6.8	22.0	0.9	0.5	0.3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급여는 중복급여를 포함한 값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2. 자활사업 참여 실태

〈표 4-3-8〉은 자활사업 참여경험을 인구학적 특성 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자활사업 참여경험 비율은 5.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 경험 비율은 여성이 5.7%로 남성에 조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만50~64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고졸학력 집단, 건강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단순근로가능 집단, 일하는 집단의 참여율이 각각 16.9%, 21.2%로 가장 높았다. 가구원수의 경우 3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구구성의 경우 일반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4-3-8〉 자활사업 참여경험

(단위: %)

구 분		있음	없음
전체(n=1,004)		5.5	94.5
성별	남성	5.2	94.8
	여성	5.7	94.3
연령	만34세 이하	4.0	96.0
	만35~49세	4.9	95.1
	만50~64세	6.3	93.7
교육수준	초졸이하	5.0	95.0
	중졸	4.0	96.0
	고졸	7.4	92.6
	대졸이상	2.9	97.1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4.4	95.6
	보통	6.2	93.8
	건강한 편	11.3	88.7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7.3	92.7
	단순근로가능	16.9	83.1
	단순근로미약자	3.1	96.9
	근로능력없음	3.5	96.5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21.2	78.8
	실업자	7.0	93.0
	비경제활동인구	4.3	95.8
가구원 수	1명	5.8	94.3
	2명	3.2	96.8
	3명 이상	8.4	91.6
가구 구성	단독가구	5.8	94.3
	모/부자가구	5.8	94.2
	조손가구	0.0	100.0
	다문화가구	0.0	100.0
	기타(일반가구)	6.1	93.9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3-9〉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나타낸 것이다. 남녀 모두 장애, 질병 등으로 몸이 아픈 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남성의 경우 사회복지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성은 학업이나 집에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가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만35~49세 연령대에서는 몸이 아픈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만34세 이하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력이 낮을수록 몸이 아픈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학력이 연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대졸이상의 경우, 사회복지를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건강하지 않을수록 몸이 아픈 점을 많이 언급하였다. 건강한 편인 경우에

는 학업을 이유로 든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근로능력이 없을수록 몸이 아픈 점을 이유로 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 가능한 경우 사회복지부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몸이 아픈 점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일을 하는 경우에는 자활사업 소득이 적은 점, 다른 곳에 취업 등의 순서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들었다.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몸이 아픈 점을 언급한 비율이 높았다. 가구구성 별로 살펴보면, 다문화가구, 단독가구에서 몸이 아픈 점을 언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3-9〉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

(단위: %)

구분		장애, 질병 등으로 몸이 아파서	집에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학업 등으로	다른 곳에 취업	자활사업 을 통해 버는 소득이 적어서	주거지와 자활사업 참여자와 거리가 멀어서	음주, 정신질환 등으로	자활사업이 탈수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사회복무
전체(n=153)		69.0	5.7	6.4	1.1	2.4	1.4	0.4	1.2	12.4
성별	남성	70.0	1.5	0.0	0.0	2.3	0.8	0.8	0.9	23.9
	여성	67.9	10.3	13.4	2.3	2.6	2.1	0.0	1.5	0.0
연령	만34세 이하	11.4	11.6	24.4	0.0	0.0	0.0	0.0	0.0	52.7
	만35~49세	79.0	5.5	2.8	0.0	8.3	2.4	0.0	1.9	0.0
	만50~64세	90.2	3.2	0.0	2.0	0.9	1.6	0.8	1.3	0.0
교육수준	초졸이하	95.0	1.6	0.0	0.0	0.0	1.6	0.0	1.8	0.0
	중졸	73.1	19.9	0.0	0.0	7.0	0.0	0.0	0.0	0.0
	고졸	69.2	5.1	16.3	0.0	3.4	2.9	1.1	2.0	0.0
	대졸이상	35.5	0.0	3.0	4.9	0.0	0.0	0.0	0.0	56.6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75.9	3.0	0.0	1.3	1.5	1.1	0.5	1.4	15.2
	보통	64.4	7.7	0.0	0.0	19.0	8.9	0.0	0.0	0.0
	건강한 편	24.4	22.6	53.0	0.0	0.0	0.0	0.0	0.0	0.0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6.8	2.3	13.5	5.1	11.4	2.6	0.0	0.0	58.4
	단순근로가능	58.4	41.6	0.0	0.0	0.0	0.0	0.0	0.0	0.0
	단순근로미약자	81.4	11.4	0.0	0.0	0.0	3.2	1.5	2.6	0.0
	근로능력없음	90.7	0.9	7.5	0.0	0.0	0.0	0.0	1.0	0.0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31.4	0.0	0.0	32.2	36.5	0.0	0.0	0.0	0.0
	실업자	49.8	0.0	17.8	0.0	32.3	0.0	0.0	0.0	0.0
	비경제활동인구	71.1	6.1	6.2	0.0	0.0	1.5	0.4	1.3	13.4
가구원 수	1명	74.1	0.0	0.0	0.0	0.9	0.7	0.0	1.3	23.0
	2명	66.3	3.9	26.2	1.9	0.0	0.0	1.6	0.0	0.0
	3명 이상	58.9	22.2	0.0	2.9	9.1	4.8	0.0	2.1	0.0
가구 구성	단독가구	74.1	0.0	0.0	0.0	0.9	0.7	0.0	1.3	23.0
	모/부자가구	66.3	10.6	4.1	2.9	7.5	6.3	2.5	0.0	0.0
	조손가구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다문화가구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일반가구)	68.7	15.6	8.7	2.4	2.8	0.0	0.0	1.8	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3-10〉은 첫 번째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1년 이하가 참여가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1년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성도 1년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만34세 이하 응답자는 모두 1년 이하 기간 동안 참여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만35~49세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 기간에서 양극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5년 이상 참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1년 이하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만50~64세의 경우, 1년 이하, 2년 이하의 순으로 참여기간이 높게 나타났다.

〈표 4-3-10〉 첫 번째 자활근로 참여기간

(단위: 년)

구분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상
전체(n=59)		46.8	16.9	6.9	7.6	21.8
성별	남성	60.8	17.1	5.9	3.6	12.5
	여성	32.9	16.7	7.9	11.5	31.1
연령	만34세 이하	100.0	0.0	0.0	0.0	0.0
	만35~49세	25.9	9.1	9.4	6.2	49.3
	만50~64세	41.0	23.8	7.7	9.9	17.7
교육수준	초졸이하	29.0	29.7	3.0	8.8	29.5
	중졸	38.2	10.2	14.5	28.1	9.1
	고졸	57.3	11.5	3.6	2.3	25.4
	대졸이상	43.1	30.5	26.3	0.0	0.0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34.7	25.1	7.8	12.2	20.2
	보통	29.8	11.6	16.8	0.0	41.8
	건강한 편	83.5	0.0	0.0	0.0	16.5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35.1	5.4	7.9	11.1	40.5
	단순근로가능	57.5	18.3	7.4	0.0	16.8
	단순근로미약자	32.3	17.5	5.3	8.9	36.0
	근로능력없음	52.2	25.0	6.2	11.4	5.2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27.4	5.6	8.1	11.4	47.6
	실업자	55.5	0.0	44.5	0.0	0.0
	비경제활동인구	53.2	22.3	3.7	6.7	14.1
동거 가구원 수	1명	58.2	27.1	0.0	8.9	5.8
	2명	51.8	4.9	0.0	10.3	33.0
	3명 이상	27.4	9.7	20.9	4.1	38.0
가구 구성	단독가구	58.2	27.1	0.0	8.9	5.8
	모/부자가구	31.7	0.0	13.0	0.0	55.4
	조손가구	0.0	0.0	0.0	0.0	0.0
	다문화가구	0.0	0.0	0.0	0.0	0.0
	기타(일반가구)	38.7	11.2	13.1	9.1	28.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1년 이하의 경우, 고졸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초졸 이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저학력, 고연령 집단이 상대적으로 자활근로에 오랜 기간 동안 참여하는 양상을 보였다. 건강한 집단이 1년 이하 참여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5년 이상의 경우 건강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능력과 관련하여 1년 이하 참여 비율은 단순근로가능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5년 이상의 경우 근로가능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실업자, 비경제활동집단이 1년 이하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년 이상 참여 비율은 근로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1년 이하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년 이상인 경우 가구원 수 3명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구 구성별로는 1년 이하 참여 비율은 단독가구가 가장 높았다. 5년 이상 참여비율은 모/부자 가구가 가장 높았다.

〈표 4-3-11〉은 첫 번째 자활근로 유형을 살펴 본 것이다. 자활근로 유형을 간병, 재활용, 청소, 기타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청소와, 기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청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여성은 기타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만49세 이하의 경우 청소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만50~64세의 경우 기타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력별로는 청소의 경우 고졸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기타 유형은 대졸 이상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청소의 경우 건강한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타 유형의 경우 보통 또는 건강하지 않은 집단의 비율이 높았다. 단순근로가능 집단의 경우 청소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청소 유형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실업자, 비경제활동 집단의 경우 기타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거가구원 수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청소, 기타 유형이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가구 구성 별로는 기타 유형에서 모/부자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가구는 청소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4-3-11〉 첫 번째 자활근로 유형

(단위: %)

구 분		간병	재활용	청소	기타
전체(n=59)		7.0	7.7	43.3	42.0
성별	남성	2.4	11.3	58.3	28.0
	여성	11.6	4.1	28.4	55.9
연령	만34세 이하	0	0	100	0
	만35~49세	0	11.5	51	37.5
	만50~64세	11.2	8.2	26.8	53.8
교육수준	초졸이하	5	22.7	43.1	29.2
	중졸	17.5	16.1	36.3	30.0
	고졸	1.8	0	51.6	46.6
	대졸이상	28.5	0	0	71.5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7.5	6.4	38.3	47.8
	보통	0	9.8	10.9	79.3
	건강한 편	9.2	9.6	70.4	10.9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9.2	14.2	31.8	44.9
	단순근로가능	0	0	73.0	27.0
	단순근로미약자	10.2	5.3	30.6	54.0
	근로능력없음	10.7	10.7	29.4	49.2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5.5	14.6	46.5	33.4
	실업자	0	0	44.5	55.5
	비경제활동인구	8.1	5.7	42	44.2
가구원 수	1명	5.2	8.4	43.9	42.4
	2명	11.9	0	45.4	42.7
	3명 이상	6.7	11.2	41.1	41.0
가구 구성	단독가구	5.2	8.4	43.9	42.4
	모/부자가구	8.9	0.0	10	81.1
	조손가구	0.0	0.0	0.0	0.0
	다문화가구	0.0	0.0	0.0	0.0
	기타(일반가구)	8.5	9.9	56.6	24.9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3-12〉는 자활장려금 수급 경험을 나타낸 것이다. 자활장려금은 자활사업 참여 기간 동안 얻은 소득의 일부를 장려금의 형태로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활장려금을 받은 경험이 높았다. 자활장려금 수급경험은 만35~49세 집단이 가장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71.7%로 가장 높았다. 다른 학력집단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자활장려금 수급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건강하지 않은 집단이 49.5%로 자활장려금 수급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근로능력정도와 관련하여 역설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자활장려금 수급경험비율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업자 집단의 경우에도 83.2%로 자활장려금 수급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수급경험이 높았다. 일반가구에 비해 단독, 모/부자 가구의 자활장려금 수급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4-3-12〉 자활장려금 경험여부

(단위: %)

구 분		있다	없다
전체(n=59)		39.8	60.2
성별	남성	31.7	68.3
	여성	47.7	52.3
연령	만34세 이하	0	100
	만35~49세	62.3	37.7
	만50~64세	41.7	58.3
교육수준	초졸이하	50.6	49.4
	중졸	40.7	59.3
	고졸	30.3	69.7
	대졸이상	71.7	28.3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49.5	50.5
	보통	26.6	73.4
	건강한 편	22.7	77.3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36.6	63.4
	단순근로가능	40.1	59.9
	단순근로미약자	24.9	75.1
	근로능력없음	48.2	51.8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51.5	48.5
	실업자	83.2	16.8
	비경제활동인구	32.4	67.6
동거 가구원 수	1명	32.0	68.0
	2명	39.6	60.4
	3명 이상	50.9	49.1
가구 구성	단독가구	32.0	68.0
	모/부자가구	31.9	68.1
	조손가구	0.0	0.0
	다문화가구	0.0	0.0
	기타(일반가구)	52.9	47.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3-13〉은 자활장려금의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7%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부족하다와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7.8%와 26.7%로 다음으로 높았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활장려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만35~49세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이 집단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가장 높았다. 만50~64세 집단의 경우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응답자들이 부족,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3-13〉 자활장려금의 충분성

(단위: %)

구 분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전체(n=25)		0.0	26.7	28.7	16.8	27.8
성별	남성	0.0	5.2	7.5	29.9	57.4
	여성	0.0	40.9	42.7	8.1	8.3
연령	만34세 이하	0.0	0.0	0.0	0.0	0.0
	만35~49세	0.0	36.0	25.1	0.0	38.8
	만50~64세	0.0	21.9	30.6	25.4	22.2
교육수준	초졸이하	0.0	20.6	47.7	11.0	20.6
	중졸	0.0	22.2	42.2	35.5	0.0
	고졸	0.0	34.6	7.4	4.9	53.1
	대졸이상	0.0	20.7	36.7	42.6	0.0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0.0	18.0	26.7	19.2	36.1
	보통	0.0	0.0	100.0	0.0	0.0
	건강한 편	0.0	86.5	0.0	13.5	0.0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0.0	66.0	34.0	0.0	0.0
	단순근로가능	0.0	25.8	0.0	45.1	29.2
	단순근로미약자	0.0	38.0	40.9	0.0	21.1
	근로능력없음	0.0	0.0	46.0	8.1	45.9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0.0	48.1	24.8	0.0	27.1
	실업자	0.0	0.0	0.0	100.0	0.0
	비경제활동인구	0.0	19.3	36.3	11.0	33.4
동거 가구원 수	1명	0.0	21.1	45.3	16.0	17.6
	2명	0.0	49.3	0.0	10.2	40.5
	3명 이상	0.0	21.1	27.2	20.6	31.1
가구 구성	단독가구	0.0	21.1	45.3	16.0	17.6
	모/부자가구	0.0	59.3	40.7	0.0	0.0
	조손가구	0.0	0.0	0.0	0.0	0.0
	다문화가구	0.0	0.0	0.0	0.0	0.0
	기타(일반가구)	0.0	22.6	12.9	21.7	42.8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학력별로는 부족,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졸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고졸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부족,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건강하지 않은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건강한 집단의 경우 86.5%에 달하였다.

근로능력 별로는 부족,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단순근로가능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근로능력없음 집단이 가장 높았다.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근로가능 집단에서 66.0%로 가장 높았다. 경제활동상태와 관련하여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실업자 집단이 가장 높았다.

동거가구원 수와 관련하여 부족,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명, 3명 이상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동거 가구원수 2명 가구에서 가장 높았다. 가구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가구에서 가장 높았다.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부자 가구가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3-14〉는 자활사업이 경제적으로 도움 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35.2%이며 도움이 된다고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33.7%로 자활사업이 경제적으로 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도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만35~49세 집단에서 도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만50세~64세 집단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졸 이상 집단에서 높았다. 부정적인 평가는 초졸 이하 집단과 중졸 집단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건강이 보통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건강하지 않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근로능력과 관련하여 근로가능 집단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았다. 근로능력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근로능력이 적을수록 자활사업을 통한 취업, 창업 등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마찬가지로 긍정적 평가는 근로활동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는 실업자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 수 별로 살펴보면,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모두 높았다. 3명 이상인 경우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 구성별로 긍정

적인 평가는 모/부자 가구에서 가장 높았다. 부정적인 평가도 모/부자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4-3-14〉 자활사업의 경제적 도움 정도

(단위: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n=59)		11.0	21.1	35.2	24.7	8.0
성별	남성	14.4	17.3	42.0	26.3	0.0
	여성	7.7	24.9	28.3	23.1	16.0
연령	만34세 이하	0.0	0.0	100.0	0.0	0.0
	만35~49세	6.6	27.5	15.7	44.2	6.1
	만50~64세	15.2	24.1	26.0	24.1	10.7
교육수준	초졸이하	14.8	25.1	38.6	16.4	5.1
	중졸	14.5	24.9	16.8	34.7	9.1
	고졸	10.0	16.9	38.4	24.6	10.1
	대졸이상	0.0	31.2	39.1	29.7	0.0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16.5	27.2	25.1	26.3	4.9
	보통	0.0	22.1	26.7	32.3	18.9
	건강한 편	3.1	6.0	63.1	17.4	10.4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0.0	16.4	16.3	43.6	23.7
	단순근로가능	10.1	6.5	57.6	25.9	0.0
	단순근로미약자	5.3	38.0	32.7	24.1	0.0
	근로능력없음	23.5	32.3	30.1	8.1	6.1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0.0	8.9	12.8	53.9	24.4
	실업자	60.4	0.0	0.0	39.6	0.0
	비경제활동인구	11.4	27.1	45.8	13.0	2.7
동거 가구원 수	1명	3.7	20.9	56.1	15.3	4.0
	2명	20.1	18.4	0.0	30.5	31.1
	3명 이상	16.0	23.1	26.3	34.7	0.0
가구 구성	단독가구	3.7	20.9	56.1	15.3	4.0
	모/부자가구	0.0	27.1	32.4	17.1	23.5
	조손가구	0.0	0.0	0.0	0.0	0.0
	다문화가구	0.0	0.0	0.0	0.0	0.0
	기타(일반가구)	25.0	18.9	9.7	39.9	6.7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3-15〉는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도움 정도가 주로 경제적 이익을 평가한 설문이라면, 만족도는 자활사업 전반에 걸친 인지적, 정서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족도 응답은 도움 정도에 대한 응답과 일부 차이를 보인다.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의 비율을 합하면 29.5%로 불만족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한 비율 또한 30.7%로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비

교적 높게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만족, 불만족하는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34세 이하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학력 별로 만족하는 비율은 고졸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불만족은 중졸, 대졸이상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건강할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근로능력이 높을수록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근로활동 집단의 만족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실업자의 경우 불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단독가구의 경우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하는 비율은 일반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4-3-15〉 자활사업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n=59)		10.4	19.1	39.9	26.8	3.9
성별	남성	14.2	20.5	28.3	37.0	0.0
	여성	6.6	17.7	51.4	16.6	7.7
연령	만34세 이하	0.0	0.0	0.0	100.0	0.0
	만35~49세	6.6	21.3	49.7	16.4	6.1
	만50~64세	14.2	23.1	46.2	12.5	4.1
교육수준	초졸이하	3.0	31.0	55.4	5.6	5.1
	중졸	20.7	27.4	24.2	18.6	9.1
	고졸	12.0	7.9	35.7	41.9	2.4
	대졸이상	0.0	46.0	54.0	0.0	0.0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16.7	29.6	39.5	12.3	1.9
	보통	0.0	0.0	88.4	11.6	0.0
	건강한 편	0.0	3.1	18.0	68.5	10.4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0.0	0.0	3.3	59.4	22.5
	단순근로가능	0.0	7.4	8.7	26.3	57.6
	단순근로미약자	0.0	5.3	55.4	32.7	6.6
	근로능력없음	0.0	24.0	27.5	39.7	8.9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0.0	6.1	55.6	23.1	15.3
	실업자	44.5	38.7	0.0	16.8	0.0
	비경제활동인구	11.7	22.5	37.0	28.9	0.0
동거 가구원 수	1명	7.5	18.5	32.3	41.8	0.0
	2명	16.0	4.0	42.7	17.8	19.5
	3명 이상	11.1	29.2	49.0	10.7	0.0
가구 구성	단독가구	7.5	18.5	32.3	41.8	0.0
	모/부자가구	0.0	0.0	71.6	19.5	8.9
	조손가구	0.0	0.0	0.0	0.0	0.0
	다문화가구	0.0	0.0	0.0	0.0	0.0
	기타(일반가구)	18.4	28.1	36.0	10.8	6.7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제4절 탈수급 및 노동시장 이력

1. 탈수급 실태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중 18~64세 이하의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현재 수급자인 이들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생계급여 ‘탈수급’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본 조사에서 탈수급은 ‘생계급여를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받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7.3%가 탈수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2.7%는 탈수급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수급자중에서 반복 수급자의 비율이 7.3%인 것이다. 응답자 중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다른 연령대보다 만34세 이하의 연령대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로능력이 높을수록,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생계급여 탈수급 경험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1〉 생계급여 탈수급 경험여부

(단위: 명, %)

기준 : 전체		있다	없다
전체 (n=1,005)		7.3	92.7
성별	남자	6.5	93.5
	여자	8.1	91.9
연령	만34세 이하	11.8	88.2
	만35~49세	5.6	94.4
	만50~64세	6.3	93.7
교육수준	초졸이하	4.3	95.7
	중졸	4.7	95.3
	고졸	9.3	90.7
	대졸이상	10.5	89.5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17.6	82.4
	단순근로가능	14.4	85.6
	단순근로미약자	4.0	96.0
	근로능력없음	3.2	96.8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18.7	81.3
	실업자	5.9	94.1
	비경제활동인구	6.5	93.5
가구원 수	1명	4.7	95.3
	2명	7.0	93.0
	3명 이상	13.1	86.9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생계급여에 대한 탈수급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탈수급 사유를 조사한 결과 ‘소득이 늘어서’로 응답한 비율이 67.4%로 가장 높았으며, ‘행정상의 이유’와 ‘재산이 늘어서’가 각각 23.6%와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소득이 늘어서’로 응답한 비율이 61.9%인 반면, 여성의 경우 72.3%로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이 탈수급 사유에 있어 소득 증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행정상의 이유’로 탈수급하는 경우가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대별 특성을 살펴보면, ‘소득이 늘어서’로 응답한 비중이 만34세 이하는 57%, 만35~49세는 66.3%, 만50~64세의 경우는 75.5%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이 늘어서’ 탈수급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상의 이유’로 응답한 비율은 만34세 이하에서 가장 높았으며 만35~49세의 연령대의 응답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이 늘어서’로 응답한 비율은 만35~49세에서 가장 높았는데(25.8%), 만34세 이하의 경우 응답자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탈수급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력에서 ‘소득이 늘어서’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늘어서’ 탈수급하였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자의 경우 ‘소득이 늘어서’로 응답한 비율이 95.9%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와 중졸의 경우 해당 응답비율이 60%에 미치지 못하였다(초등학교 졸업이하 56.8%, 중졸 53%).

근로능력에 따른 탈수급 사유의 특성을 살펴보면, 근로가능의 경우만 제외하고 근로능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늘어서’로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가능’의 경우 다른 경우보다 ‘행정상의 이유’로 탈수급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늘어서’로 응답한 대상은 근로능력이 없는 집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수별로 살펴보면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 ‘소득이 늘어서’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응답보다 높았지만,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보다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는 가구원수가 3명이 경우보다도 ‘소득이 늘어서’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 생계급여 탈수급 사유

(단위: 명, %)

기준 : 생계급여 탈수급 경험자		소득이 늘어서	행정상의 이유	재산이 늘어서	기타
전체 (n=73)		67.4	23.6	6.7	2.3
성별	남자	61.9	30.0	7.0	1.1
	여자	72.3	18.0	6.4	3.4
연령	만34세 이하	57.0	43.0	0.0	0.0
	만35~49세	66.3	8.0	25.8	0.0
	만50~64세	75.5	15.7	4.0	4.9
교육수준	초졸이하	56.8	18.0	21.6	3.5
	중졸	53.0	30.8	16.2	0.0
	고졸	62.6	32.9	2.6	1.8
	대졸이상	95.9	0.0	0.0	4.1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64.3	31.1	4.6	0.0
	단순근로가능	79.0	9.6	7.0	4.5
	단순근로미약자	74.0	18.7	0.0	7.3
	근로능력없음	60.0	22.5	15.0	2.5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87.0	0.0	13.0	0.0
	실업자	73.0	0.0	0.0	27.0
	비경제활동인구	63.1	29.5	5.6	1.8
가구원수	1명	62.1	18.8	11.1	7.9
	2명	75.1	24.9	0.0	0.0
	3명 이상	65.0	26.0	9.0	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생계급여 탈수급의 사유로 소득증가(‘소득이 늘어서’)로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소득 변화의 주요 요인을 조사한 결과 ‘가구주의 소득이 늘어서’로 응답한 비율이 55.8%로 가장 높았으며, ‘가구원의 소득이 늘어서’는 19.8%로 응답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소득이 늘어서’는 16.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는 해당 가구의 주된 소득원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구주가 아닌 다른 가구원(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늘어서인 경우는 전체 응답의 약 3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경우는 행정상의 변화 또는 사적이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응답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경우 ‘가구주의 소득이 늘어서’로 응답한 비율이 여성 응답자 보다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의 소득이 늘어서’의 경우 여성 응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가구주인 경우가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보다 높기 때문이며, ‘배우자의 소득이 늘어서’로 응답한 비중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

〈표 4-4-3〉 소득증가의 주요 요인

(단위: 명, %)

기준 : 소득증가로 인한 탈수급		가구의 소득이 늘어서	가구의 소득이 늘어서	배우자의 소득이 늘어서	친인척이나 주변사람들이 도와줘서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수 감소
전체 (n=49)		55.8	19.8	16.1	6.4	1.9
성별	남자	75.3	17.0	0.0	3.5	4.3
	여자	41.1	21.9	28.3	8.7	0.0
연령	만34세 이하	44.2	0.0	55.8	0.0	0.0
	만35~49세	90.5	9.5	0.0	0.0	0.0
	만50~64세	50.1	34.2	0.0	12.2	3.5
교육수준	초졸이하	79.1	20.9	0.0	0.0	0.0
	중졸	38.5	43.9	0.0	0.0	17.6
	고졸	74.4	22.5	0.0	3.1	0.0
	대졸이상	22.6	6.5	54.2	16.7	0.0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46.9	3.0	35.8	14.3	0.0
	단순근로가능	85.5	14.5	0.0	0.0	0.0
	단순근로미약자	27.6	72.4	0.0	0.0	0.0
	근로능력없음	61.9	28.1	0.0	0.0	10.0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84.3	15.7	0.0	0.0	0.0
	실업자	57.0	0.0	0.0	43.0	0.0
	비경제활동인구	47.5	21.9	21.5	6.6	2.5
가구원수	1명	64.7	22.8	0.0	5.6	7.0
	2명	56.3	30.0	0.0	13.7	0.0
	3명 이상	48.8	7.6	43.6	0.0	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행정상의 이유로 탈수급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수급사유와 관련된 행정상의 주요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가구여건 변화는 없으나 수급자 판정결과가 달라져서’로 응답한 비중이 22.5%로 나타났다. ‘사망, 이혼, 분가 등으로 가구원수가 줄어서’는 3.4%의 응답비율을 나타내었다. ‘가구여건 변화는 없으나 수급자 판정결과가 달라져서’로 응답한 대상자들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중졸이하의 학력자의 응답비율이 다른 학력의 응답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의 경우 1인 가구보다 2인 가구에서의 응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참여상태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에서만 응답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4〉 행정상의 주요 변화 요인

(단위: 명, %)

기준 : 행정상 변화로 인한 탈수급		가구여건 변화는 없으나 수급자 관정결과가 달라짐	사망, 이혼, 분가 등으로 가구원수가 줄어서	기타
전체		22.5	3.4	74.1
성별	남자	13.3	0.0	86.7
	여자	36.0	8.5	55.5
연령	만34세 이하	0.0	0.0	100.0
	만35~49세	100.0	0.0	0.0
	만50~64세	51.5	11.0	37.6
교육수준	초졸이하	46.1	31.0	22.9
	중졸	47.4	0.0	52.6
	고졸	12.6	0.0	87.4
	대졸이상	—	—	—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0.0	0.0	100.0
	단순근로가능	100.0	0.0	0.0
	단순근로미약자	31.8	0.0	68.2
	근로능력없음	57.5	17.2	25.3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	—	—
	실업자	—	—	—
	비경제활동인구	22.5	3.4	74.1
가구원수	1명	34.1	14.9	51.0
	2명	42.2	0.0	57.8
	3명 이상	0.0	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응답자가 속한 가구가 기초보장제도로부터 ‘탈수급’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26.6%가 ‘원한다’로 응답하였으며, ‘원하지 않는다’로 응답한 비율은 7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가구의 비율이 제도에서 벗어나려는 가구에 비해 약 2.8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를 주요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만34세 이하의 경우 탈수급을 원하는 비율이 6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상의 연령대의 경우 탈수급을 원하는 비율이 1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탈수급을 원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능력의 경우도 근로능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탈수급을 원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상태별로 살펴보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탈수급을 원하는 비율이 38.2%에 불과 했지만 오히려 실업자의 경우에는 61.7%가 탈수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의사가 있는 실업자가 현재 조건의 수급 등으로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에 비해 탈수급 의지가 높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4-4-5〉 탈수급 희망여부

(단위: 명, %)

기준 : 수급자 전체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전체		26.6	73.4
성별	남자	26.5	73.5
	여자	26.7	73.3
연령	만34세 이하	63.5	36.5
	만35~49세	16.4	83.6
	만50~64세	16.8	83.2
교육수준	초졸이하	9.9	90.1
	중졸	17.4	82.6
	고졸	29.7	70.3
	대졸이상	59.7	40.3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60.4	39.6
	단순근로가능	49.4	50.6
	단순근로미약자	20.5	79.5
	근로능력없음	11.2	88.8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38.2	61.8
	실업자	61.7	38.3
	비경제활동인구	24.2	75.8
가구원수	1명	24.7	75.3
	2명	29.5	70.5
	3명 이상	25.8	74.2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2. 탈수급 시 노동시장 이력

현재 수급가구 중에서 탈수급 경험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취업 경험 여부를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41.8%가 2011년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취업경험자의 비율이 남성(33.7%) 보다 여성(49%)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취업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졸이상의 경우 취업경험이 비율이 다른 학력수준의 집단보다 취업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졸의 경우 그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를 제외하고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취업경험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능력의 경우 근로능력이 높을수록 취업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상태별로 살펴

면, 현재 취업자의 경우 취업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자의 경우 그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6〉 탈수급 시 노동시장 경험 여부

(단위: 명, %)

기준 : 생계급여 탈수급 경험자		예	아니오
전체 (n=73)		41.8	58.2
성별	남자	33.7	66.3
	여자	49.0	51.0
연령	만34세 이하	57.0	43.0
	만35~49세	44.5	55.5
	만50~64세	29.8	70.2
교육수준	초졸이하	34.0	66.0
	중졸	6.4	93.6
	고졸	43.0	57.0
	대졸이상	67.3	32.7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49.9	50.1
	단순근로가능	49.1	50.9
	단순근로미약자	35.1	64.9
	근로능력없음	21.0	79.0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66.4	33.6
	실업자	22.7	77.3
	비경제활동인구	37.5	62.5
가구원수	1명	28.4	71.6
	2명	44.3	55.7
	3명 이상	49.9	5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탈수급 시 취업경험자에게 취업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지상에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취업기간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만, 취업경험이 2회 이상인 응답자는 2명(2회가 1명, 3회가 1명)에 불과하여 본 연구에서는 취업경험이 1회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탈수급시 노동시장 경험자의 취업기간은 평균 21.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취업기간이 1년 이하인 비율은 응답자의 약 6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3~6년 이하인 경우(15.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간의 평균 취업기간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1.7개월, 여성은 21.9개월로 여성이 다소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만35~49세의 취

업기간이 평균 62.9개월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긴 취업기간을 나타내었으며, 만 34세 이하의 경우 평균 취업기간이 3.6개월에 불과하였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인 경우의 취업기간이 가장 길었으며(34.1개월), 그 다음은 초졸 이하(12.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능력에 따른 취업기간을 살펴보면, 근로가능인 경우의 평균취업기간이 30.2개월, ‘근로능력없음’인 경우의 평균취업기간은 30.5개월로 나타났는데 이는 근로능력이 비교적 높은 집단인 ‘근로가능’으로 응답된 집단은 다른 집단(단순근로가능, 단순근로미약자)보다 취업기간이 더 길지만 근로능력이 없는 집단보다는 다소 그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러한 집단의 수급결정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과거에 탈수급한 가구들이 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다시 수급자가 되었을 확률이 높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4-4-7〉 탈수급 시 노동시장 경험자의 노동시장 참여 기간 : 첫 번째 기간

(단위: 명, %)

기준 : 탈수급시 노동시장 경험자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6년 이하	6년 초과	평균 (개월)
전체 (n=31)		68.8	7.1	15.7	8.5	21.8
성별	남자	83.3	0.0	0.0	16.7	21.7
	여자	59.9	11.4	25.3	3.5	21.9
연령	만34세 이하	100.0	0.0	0.0	0.0	3.6
	만35~49세	0.0	14.2	54.0	31.8	62.9
	만50~64세	66.0	12.6	15.0	6.4	22.9
교육수준	초졸이하	82.5	17.5	0.0	0.0	12.3
	중졸	100.0	0.0	0.0	0.0	10.0
	고졸	48.9	9.5	25.5	16.1	34.1
	대졸이상	93.0	0.0	7.0	0.0	6.8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61.8	0.0	23.2	15.0	30.2
	단순근로가능	100.0	0.0	0.0	0.0	3.6
	단순근로미약자	73.2	26.8	0.0	0.0	7.3
	근로능력없음	34.1	40.5	25.4	0.0	30.5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19.1	0.0	49.1	31.8	58.9
	실업자	100.0	0.0	0.0	0.0	8.0
	비경제활동인구	86.4	9.9	3.7	0.0	8.4
가구원수	1명	78.4	21.6	0.0	0.0	11.8
	2명	79.2	0.0	14.6	6.2	17.4
	3명 이상	56.7	6.1	23.4	13.7	29.5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탈수급 시 노동시장 경험자의 첫 번째 기간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48.3%가 임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38.9%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였던 것으로, 12.9%는 일용직 임금근로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사상의 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보다는 임시직과 상용직이 탈수급을 촉진시키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대부분 임시직 임금근로자(85.1%)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상용직임금근로자(62.5%)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 대별로 살펴보면, 만34세 이하와 만35~49세의 경우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만50~64세 이후의 경우 임시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8〉 탈수급 시 노동시장 경험자의 첫 번째 기간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기준 : 탈수급시 노동시장 경험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상용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전체 (n=31)		48.3	38.9	12.9
성별	남자	85.1	0.0	14.9
	여자	25.9	62.5	11.6
연령	만34세 이하	44.2	55.8	0.0
	만35~49세	46.0	54.0	0.0
	만50~64세	55.2	6.5	38.3
교육수준	초졸이하	49.3	0.0	50.7
	중졸	0.0	0.0	100.0
	고졸	66.3	24.6	9.2
	대졸이상	22.7	77.3	0.0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27.4	65.1	7.5
	단순근로가능	100.0	0.0	0.0
	단순근로미약자	77.1	0.0	22.9
	근로능력없음	19.7	20.8	59.5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51.6	40.3	8.1
	실업자	100.0	0.0	0.0
	비경제활동인구	45.8	39.3	14.9
가구원수	1명	48.1	11.1	40.8
	2명	86.0	0.0	14.0
	3명 이상	19.9	80.1	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근로능력이 ‘근로가능’인 경우 상용직 임금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65.1%), ‘단순근로가능’과 ‘단순근로미약’인 응답자의 경우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일용직임근로자’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상태별로 살펴보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과거 탈수급시 종사상 지위는 임시직 임금근로자였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51.6%), 그 다음은 상용직 임금근로자였다(40.3%)

탈수급 시 노동시장 경험자의 첫 번째 기간의 직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65.9%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서비스종사자(26.7%), 사무종사자(3.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86.1%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53.6%로 나타나, 대부분의 탈수급 남성이 단순노무 종사자에 종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에 있어 단순노무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의 종사 비율이 가장 높지만 남성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연령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만34세 이하의 경우 응답자의 전부가 단순노무 종사자에 종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만35~49세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단순노무 종사자는 46%로 나타나 두 번째로 응답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살펴보면 상대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든 학력에서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응답자가 단순노무종사자인 중졸 학력을 제외하고 서비스종사자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상태별로 살펴보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서비스종사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54.7%), 실업자의 경우 전제 응답자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8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한 대상자의 직종의 상당부분이 단순노무 종사자라는 것은 이들에 대한 노동 수요가 매우 탄력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용직 또는 임시직이면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4-4-9〉 탈수급 시 노동시장 경험자의 첫 번째 기간 직종

(단위: 명, %)

기준 : 탈수급 시 노동시장 경험자		단순노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사무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전체 (n=31)		65.9	26.7	3.6	2.1	1.7
성별	남자	86.1	9.3	0.0	0.0	4.6
	여자	53.6	37.3	5.8	3.3	0.0
연령	만34세 이하	100.0	0.0	0.0	0.0	0.0
	만35~49세	46.0	54.0	0.0	0.0	0.0
	만50~64세	30.3	47.6	10.7	6.1	5.2
교육수준	초졸이하	50.7	17.2	0.0	17.5	14.7
	중졸	100.0	0.0	0.0	0.0	0.0
	고졸	60.7	32.5	6.9	0.0	0.0
	대졸이상	77.3	22.7	0.0	0.0	0.0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64.7	25.8	6.4	0.0	3.1
	단순근로가능	91.0	9.0	0.0	0.0	0.0
	단순근로미약자	49.7	50.3	0.0	0.0	0.0
	근로능력없음	34.1	46.2	0.0	19.7	0.0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31.8	54.7	13.5	0.0	0.0
	실업자	0.0	0.0	0.0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80.1	17.0	0.0	2.9	0.0
가구원수	1명	40.8	39.9	0.0	10.5	8.8
	2명	66.0	23.6	10.4	0.0	0.0
	3명 이상	76.6	23.4	0.0	0.0	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탈수급 시 노동시장 경험자(첫번째 기간)가 일을 그만두게 한 사유로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가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나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이 꼽혔다. 소득 보수가 적어서는 5.2%에 불과하였다.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는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해당'과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를 제외하고는 대상자가 비자발적으로 해당 일자리를 떠나게 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성별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일라지를 그만두게 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4세 이하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는 만34이하의 경우 건강상 등의 이유로 일을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교육수준별 특성을 살펴보면, 대졸이상인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83.8%)가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졸이하와 고졸의 경우 이러한 이유가 각각 62.7%, 5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상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실업자의 경우 응답자 모두가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로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도 그 비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로 응답한 비율이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10〉 탈수급 시 노동시장 경험자(첫번째 기간)의 일을 그만둔 사유

(단위: 명, %)

기준 : 탈수급시 노동시장 경험자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비해당 (현재 일을 계속하고 있음)	일자리(직장)나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일거리가 없거 나 적어서(장사 가 잘 되지 않 아서)
전체 (n=31)		63.1	21.5	5.6	5.2	4.6
성별	남자	72.6	16.7	5.3	5.4	0.0
	여자	57.4	24.4	5.8	5.0	7.4
연령	만34세 이하	100.0	0.0	0.0	0.0	0.0
	만35~49세	14.2	85.8	0.0	0.0	0.0
	만50~64세	40.9	13.4	16.7	15.3	13.7
교육수준	초졸이하	62.7	0.0	16.9	0.0	20.4
	중졸	0.0	0.0	0.0	100.0	0.0
	고졸	52.5	36.5	6.9	0.0	4.2
	대졸이상	83.8	7.0	0.0	9.2	0.0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51.8	38.2	6.4	3.6	0.0
	단순근로가능	100.0	0.0	0.0	0.0	0.0
	단순근로미약자	47.5	0.0	0.0	29.5	22.9
	근로능력없음	60.2	0.0	19.0	0.0	20.8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5.5	80.9	13.5	0.0	0.0
	실업자	100.0	0.0	0.0	0.0	0.0
	비경제활동인구	83.6	0.0	2.8	7.2	6.4
가구원수	1명	56.2	0.0	10.1	10.4	23.3
	2명	67.5	13.1	10.4	9.0	0.0
	3명 이상	62.9	37.1	0.0	0.0	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제5절 정서적 자활: 고용희망과 지각된 고용장벽

경제적 자활을 위해서는 정서적 자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예: Hong et al., 2018; 최상미, 2019) 자활의 과정적 측면을 중요시하여, 정서적 자활이 자활행동에 미치는 영향(최상미, 홍영표, 김한성, 2017)이나, 자활의 과정에 대한 이해에 대한 심층 분석(최상미, 2019),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개발(최상미, 2018)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리고 정서적 자활 척도인 고용희망척도와 지각된 고용장벽 척도를 활용하여, 고용희망이 자활행동과 경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친다거나(최상미, 2019), 고용장벽이 감소할수록 고용희망이 증가하며, 고용희망은 경제적 자활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Hong, Choi, and Key, 2018) 정서적 자활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연구에서는 근로능력 장기수급자의 다차원적 실태를 파악하고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고용희망과 지각된 고용장벽 정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기 보고된 근로능력에 따른 고용희망과 고용장벽 정도와 일 경험 즉, 자활사업과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경험, 노동시장 이력에 따른 고용희망과 고용장벽 정도를 교차표를 통해 분석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정서적 자활이 경제적 자활에 선행함을 밝히는 인과관계 분석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 조사에서는 고용희망과 지각된 고용장벽은 조사시점 기준의 응답이며, 자활과 정부 지원 일자리, 노동시장 이력은 더 이전의 과거 경험까지 포함함에 따라 인과관계 파악은 어렵다. 개인에 따라 역인과의 가능성 또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 이력 구분에 따라 정서적 자활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근로능력 장기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해서는 정서적 자활이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근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고용장벽 즉, 학력, 건강, 부족한 직무기술, 부족한 일자리에 있어,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 더 크게 고용장벽으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추가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활용한 척도는 최상미(2017)에 의해 개발된 한국형 고용희망척도(K-EHS, Korean Employment Hope Scale)와 Hong·Polanin, Key.& Choi(2014)가 개발한 27개문항의 지각된 고용장벽 척도(PEBS, Perceived Employment Barrier Scale) 중 20개이다(표 4-5-1, 4-5-2 참고).

〈표 4-5-1〉 고용희망척도 문항

	문항
고용 희망 척도	1) 나는 일을 시작한다면, 잘 해낼 수 있다.
	2) 나는 무슨 일이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일하거나 직장을 찾을 때, 나는 지금의 나의 모습에 만족한다.
	4) 나는 일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장벽도 극복할 수 있다.
	5)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6)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잘한다.
	7) 나는 미래에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일 거라고 확신한다.
	8) 나는 일과 관련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한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다.
	9) 나는 내가 미래에 내 직업으로부터 얻을 성취를 생각하면 힘이 난다.
	10) 나는 일과 관련한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마음이 있다.
	11) 나는 나의 직업과 관련된 목표를 위한 길 위에 있다.
	12) 나는 내 삶의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13) 나는 비록 지금 당장 나의 재정적 목적을 성취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성취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14)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도록 도울 것이다.
	15) 나는 내가 가진 기술이 어떻게 직장/직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16) 나는 내가 가진 자원이 어떻게 직장/직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17)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경력)커리어를 쌓기 위해 나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조사표

〈표 4-5-2〉 Hong·Polanin·Key, & Choi(2014), 최상미(201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의 지각된 고용장벽 척도 문항 비교

	지각된 고용장벽 척도 문항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 사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11) 일하는데 필요한 옷이 부족함
	2) 일하는데 제약이 되는 건강상태(질병/부상)	12) 지역사회 내에 일자리가 부족함
	3) 적절한 직무 기술의 부족함	13) 나의 기술이나 훈련받은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함
	4) 직장경험이 부족함	14) 한부모가 됨
	5) 육아	15) 어린자녀를 돌봐야함
	6)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	16) 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데 문제가 있음
	7) 약물/알코올 중독	17) 자신감이 부족함
	8) 가정폭력	18) 지지체계가 부족함
	9) 신체장애	19) 매일 겪는 고충에 대처할 기술이 부족함
	10) 정신장애	20) 분노조절
Hong, Polanin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14) 거절의 두려움
	2) 일하는데 제약이 되는 건강상태(질병/부상)	15) 일하는데 필요한 옷이 부족함
	3) 적절한 직무 기술의 부족함	16) 지역사회 내에 일자리가 부족함
	4) 직장경험이 부족함	17) 나의 기술이나 훈련받은 수준에 맞는 일자리

지각된 고용장벽 척도 문항		
, Key, & Choi (2014)	5) 이동수단	가 부족함
	6) 육아	18) 한부모가 됨
	7) 인종차별	19) 어린자녀를 돌봐야함
	8)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	20) 영어로 매우 잘 말하지 못함
	9) 안정적 주거의 부족	21) 영어로 매우 잘 쓰거나 읽지 못함
	10) 약물/알코올 중독	22) 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데 문제가 있음
	11) 가정폭력	23) 자신감이 부족함
	12) 신체장애	24) 지지체계가 부족함
	13) 정신장애	25) 매일 겪는 고충에 대처할 기술이 부족함
		26) 분노조절
		27) 과거의 범죄 기록
최상미 (2019)	1)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함	15) 직업정보의 부족
	2) 직업관련 경력이 부족함	16)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 부족
	3) 사회생활경험이 부족함	17)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주변에 없음
	4) 출퇴근 시간 준수의 어려움	18) 기쁨과 슬픔을 나눌 사람이 주변에 없음
	5) 자신감 부족	19) 언제라도 함께하면 편안한 사람이 주변에 없음
	6) 가족지지의 부족	20)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음
	7) 일상의 문제에 대처하는 기술 부족	21) 무언가를 결정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음
	8)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함	22) 술을 잘 조절하지 못해 과도하거나 빈번한 음주를 함
	9) 충동구매, 과도한 지출 등 재정적 문제	23) 가정폭력의 경험
	10) 파산, 신용회복, 사채와 같은 법적 문제	24) 신체상의 부상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
	11) 범죄나 민사사건 등의 법적 문제	25) 정신장애 질환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음
	12) 배우자 돌봄	
	13) 부모 돌봄	
	14) 직업훈련 및 교육관련 정보의 부족	

자료: Hong·Polanin, Key·& Choi(2014). Development of the perceived employment barrier scale (PEBS): Measuring psychological self-sufficienc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2(6), 689-706.

최상미, 고가영(2019). 자활사업 참여 저소득 구직자의 고용장벽 탐색과 한국형 고용장벽 척도 개발. 사회복지연구, 50(2), 29-5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조사표

지각된 고용장벽척도는 인적자본, 신체 및 정신건강, 개인적 삶의 균형, 아이 양육, 노동 시장 배제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4-5-3 참고). 인적자본 요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일하는데 제약이 되는 건강상태, 적절한 직무 기술의 부족, 직장경험의 부족,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 및 정신건강 요인은 약물/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신체장애, 정신장애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적 삶의 균형은 시간에 맞춰 출근하는데 문제가 있음, 자신감이 부족함, 지지체계가 부족함, 매일 겪는 고충에 대처할 기술이 부족함 분노조절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 양육은 육아, 한부모가 됨, 어린자녀를 돌봐야 함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 시장 배제는 일하는데 필요한 옷이 부족함, 지역사회 내에 일자리가 부족함, 나의 기술이나 훈련받은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5-3〉 지각된 고용장벽의 요인별 문항 구성

요인	문항	척도 내 문항번호
인적자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문항번호 1
	- 일하는데 제약이 되는 건강상태(질병/부상)	문항번호 2
	- 적절한 직무 기술의 부족함	문항번호 3
	- 직장경험이 부족함	문항번호 4
	-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	문항번호 6
신체 및 정신건강	- 약물/알코올 중독	문항번호 7
	- 가정폭력	문항번호 8
	- 신체장애	문항번호 9
	- 정신장애	문항번호 10
개인적 삶의 균형	- 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데 문제가 있음	문항번호 16
	- 자신감이 부족함	문항번호 17
	- 지지체계가 부족함	문항번호 18
	- 매일 겪는 고충에 대처할 기술이 부족함	문항번호 19
	- 분노조절	문항번호 20
아이 양육	- 육아	문항번호 5
	- 한부모가 됨	문항번호 14
	- 어린자녀를 돌봐야함	문항번호 15
노동 시장 배제	- 일하는데 필요한 옷이 부족함	문항번호 11
	- 지역사회 내에 일자리가 부족함	문항번호 12
	- 나의 기술이나 훈련받은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함	문항번호 13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조사표

1. 자기 보고된 근로능력과 정서적 자활²⁾

가. 고용희망

고용희망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을 나타내며, 자기가 보고하는 근로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분석에 따르면, 근로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고용희망 점수가 가장 높았고(3.5점), 단순근로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2.6점), 단순근로미약이라고 응답한 경우(1.9점),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1.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5-4, 그림 4-5-1참고).

2) 고용희망과 지각된 고용장벽은 가구단위가 아닌 응답자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표 4-5-4〉 자기 보고된 근로능력별 고용희망(응답자 기준)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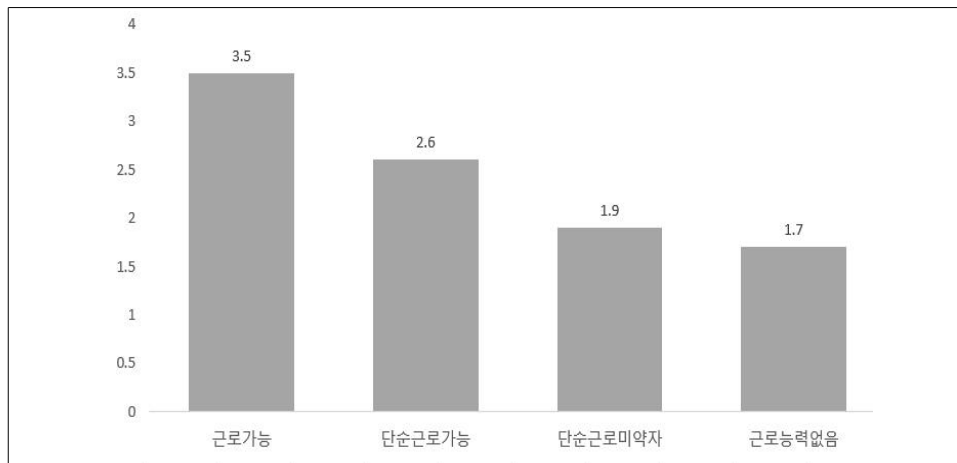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고용희망	
		평균	s.d.
근로가능	(101)	3.5	.90
단순근로가능	(78)	2.6	.89
단순근로미약자	(284)	1.9	.81
근로능력없음	(542)	1.7	.82
계	(1,005)	2.2	1.10

주: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가중치 적용 값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5-1] 자기 보고된 근로능력별 고용희망

(단위: 점)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고용희망척도의 문항별 평균은 아래 표와 같다. 17개의 문항 모두 평균 2점대로 분석되었으며, ‘7) 나는 미래에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일 거라고 확신한다.’는 문항이 다른 문항에 비해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2.4점), 그 다음은 ‘13) 나는 비록 지금 당장 나의 재정적 목적을 성취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성취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로 나타났다. 평균이 가장 낮은 문항은 ‘4) 나는 일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장벽도 극복할 수 있다.’로 2.0점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문항 간 평균의 차는 최대 0.4점으로 크지 않았다.

〈표 4-5-5〉 고용희망척도 문항별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고용희망	
		평균	s.d.
1) 나는 일을 시작한다면, 잘 해낼 수 있다.	(1,005)	2.2	1.25
2) 나는 무슨 일이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05)	2.2	1.20
3) 나는 일하거나 직장을 찾을 때, 나는 지금의 나의 모습에 만족한다.	(1,005)	2.1	1.20
4) 나는 일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장벽도 극복할 수 있다.	(1,005)	2.0	1.09
5)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1,005)	2.2	1.20
6)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잘한다.	(1,005)	2.2	1.17
7) 나는 미래에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일 거라고 확신한다.	(1,005)	2.4	1.32
8) 나는 일과 관련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한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다.	(1,005)	2.2	1.18
9) 나는 내가 미래에 내 직업으로부터 얻을 성취를 생각하면 힘이 난다.	(1,005)	2.2	1.23
10) 나는 일과 관련한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마음이 있다.	(1,005)	2.5	1.35
11) 나는 나의 직업과 관련된 목표를 위한 길 위에 있다.	(1,005)	2.1	1.16
12) 나는 내 삶의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1,005)	2.2	1.21
13) 나는 비록 지금 당장 나의 재정적 목적을 성취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성취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1,005)	2.3	1.28
14)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도록 도울 것이다.	(1,005)	2.1	1.16
15) 나는 내가 가진 기술이 어떻게 직장/직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1,005)	2.2	1.20
16) 나는 내가 가진 자원이 어떻게 직장/직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1,005)	2.1	1.20
17)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경력)커리어를 쌓기 위해 나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1,005)	2.1	1.18
계	(1,005)	2.2	1.10

주: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가중치 적용 값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나. 지각된 고용장벽

고용장벽은 예상 가능하듯,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3점으로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단순근로미약인 경우(3.2점), 단순근로가능(3.0점), 근로가능(2.7점)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향성은 고용장벽의 하위요인 인 인적자본, 신체 및 정신건강, 개인적 삶의 균형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아이 양육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가구 특성이 또는 개인 특성(연령 등)이 반영됨에 따른 결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시장배제의 경우에는 단순근로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6점으로 근로가능하다는 응답에 비해 고용장벽을 0.2점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인적자본(3.0점)을 가장 높은 고용장벽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 뒤로는 노동시장배제(2.8점), 개인적 삶의 균형(2.7점), 아이 양육(2.7점), 신체 및 정신건강(2.4점)이 순서를 이었다. 단순근로가 가능하다는 응답자들은 인적자본(3.2점), 신체 및 정신건강(3.2점), 개인적 삶의 균형(2.9점), 아이 양육(2.6점), 노동시장배제(2.6점)의 순으로 고용장벽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순근로미약자는 인적자본(3.5점), 신체 및 정신건강(3.4점), 개인적 삶의 균형(3.3점), 노동시장배제(2.9점), 아이 양육(2.6점)으로 분석되었으며,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인적자본(3.6점), 신체 및 정신건강(3.6점), 개인적 삶의 균형(3.5점), 노동시장배제(2.9점), 아이 양육(2.8점)의 순이었다.

공통적으로 응답자들은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인적자본을 가장 큰 고용장벽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근로능력이 미약할수록 인적자본의 부족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는 장기수급자들의 인적자본 강화 방안의 모색, 둘째는 근로능력에 따른 인적자본의 차이에 대한 정교한 원인 파악의 필요성이다.

〈표 4-5-6〉 자기 보고된 근로능력별 지각된 고용장벽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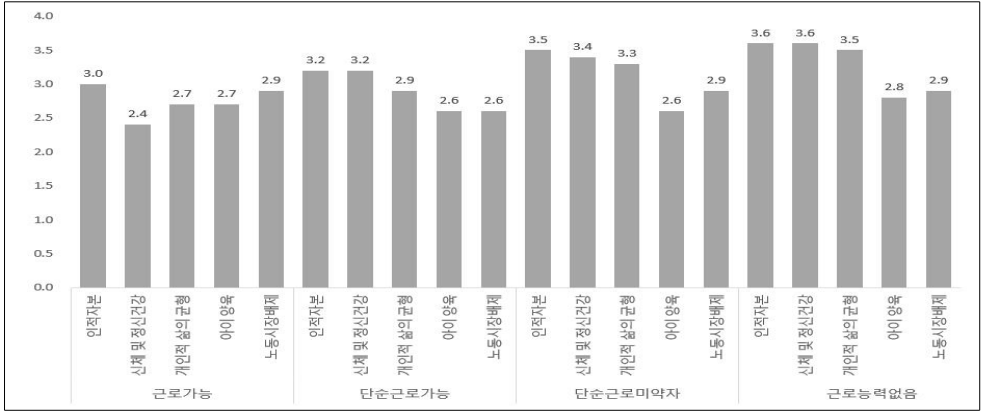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고용장벽	
			평균	s.d.
계	인적자본	(1,005)	3.4	.88
	신체 및 정신건강		3.3	1.33
	개인적 삶의 균형		3.2	1.02
	아이 양육		2.7	1.35
	노동시장배제		2.9	1.04
	전체		3.1	.80
근로가능	인적자본	(101)	3.0	.88
	신체 및 정신건강		2.4	1.59
	개인적 삶의 균형		2.7	.99
	아이 양육		2.7	1.42
	노동시장배제		2.8	.93
	전체		2.7	.89
단순근로가능	인적자본	(78)	3.2	.73
	신체 및 정신건강		3.2	1.28
	개인적 삶의 균형		2.9	.92
	아이 양육		2.6	1.34
	노동시장배제		2.6	.98
	전체		3.0	.62
단순근로미약자	인적자본	(284)	3.5	.85
	신체 및 정신건강		3.4	1.22

구분		사례수	고용장벽	
			평균	s.d.
	개인적 삶의 균형		3.3	.96
	아이 양육		2.6	1.34
	노동시장배제		2.9	1.02
	전체		3.2	.73
	인적자본		3.6	.86
근로능력없음	신체 및 정신건강	(542)	3.6	1.12
	개인적 삶의 균형		3.5	.99
	아이 양육		2.8	1.33
	노동시장배제		2.9	1.09
	전체		3.3	.74

주: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가중치 적용 값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5-2] 자기 보고된 근로능력별 지각된 고용장벽의 하위요인

(단위: 점)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고용장벽척도를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4-5-7> 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응답자들은 인적 자본 중 건강상태를 가장 높은 고용장벽으로 인지하였고(4.2 점), 적절한 직무 기술의 부족함(3.5점), 직장경험이 부족함(3.4점),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3.1점),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2.8점)이 그 뒤를 이었다. 신체 및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신체장애(3.9점)와 정신장애(3.6점)의 평균이 높았고, 약물/알코올중독(2.9점)과 가정폭력(2.7점)이 다음을 차지했다. 개인적 삶의 균형 영역에서는 자신감의 부족함과 지지체계가 부족함, 매일 겪는 고충에 대처할 기술이 부족함은 3.3점으로 평균이 동일하였다. 그 외에 분노조절과 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데 문제가 있음은 각각 3.2점과 3.0점으로 나타났다. 아이 양육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 문항에

비해 장벽인지 수준은 낮은 편인데, 이는 연령이 높은 장기수급가구의 가구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항별 평균은 어린자녀를 돌봐야함이 2.8점이었으며, 육아 2.7점, 한부모가 됨이 2.5점이었다. 끝으로 노동시장 배제 영역에서는 나의 기술이나 훈련받은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함이 3.2점이었고, 지역사회 내에 일자리가 부족함이 3.1점이었다. 일하는데 필요한 옷이 부족하다는 문항은 전 문항 중 가장 평균이 낮은 2.3점으로 나타났다.

〈표 4-5-7〉 고용장벽 문항별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고용장벽	
			평균	s.d.
인적자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1,005)	2.8	1.28
	- 일하는데 제약이 되는 건강상태(질병/부상)		4.2	1.10
	- 적절한 직무 기술의 부족함		3.5	1.20
	- 직장경험이 부족함		3.4	1.23
	-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		3.1	1.26
	계		3.4	.88
신체 및 정신건강	- 약물/알코올 중독	(1,005)	2.9	1.69
	- 가정폭력		2.7	1.60
	- 신체장애		3.9	1.46
	- 정신장애		3.6	1.58
	계		3.3	1.33
개인적 삶의 균형	- 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데 문제가 있음	(1,005)	3.0	1.36
	- 자신감이 부족함		3.3	1.24
	- 지지체계가 부족함		3.3	1.20
	- 매일 겪는 고충에 대처할 기술이 부족함		3.3	1.23
	- 분노조절		3.2	1.48
	계		3.2	1.02
아이 양육	- 육아	(1,005)	2.7	1.53
	- 한부모가 됨		2.5	1.40
	- 어린자녀를 돌봐야함		2.8	1.60
	계		2.7	1.35
노동시장 배제	- 일하는데 필요한 옷이 부족함	(1,005)	2.3	1.21
	- 지역사회 내에 일자리가 부족함		3.1	1.20
	- 나의 기술이나 훈련받은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함		3.2	1.21
	계		2.9	1.04

주: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가중치 적용 값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2. 일 경험과 정서적 자활

가. 고용희망

자활사업과 정부 일자리 사업, 탈수급시 일을 한 경험 여부에 따른 고용희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어떠한 일 경험이든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고용희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희망 점수가 높은 순서는 정부일자리 사업 참여(3.5점), 탈수급시 일을 한 경험(3.2점), 자활사업 참여(2.7점)의 순이었다. 탈수급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고용희망이 2.1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자활사업과 정부일자리 사업, 탈수급시 일을 한 경험이 고용희망 정도에 차이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일 경험을 하는 대상의 인적 구성과 보다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5-8〉 일 경험별 고용희망(응답자 기준)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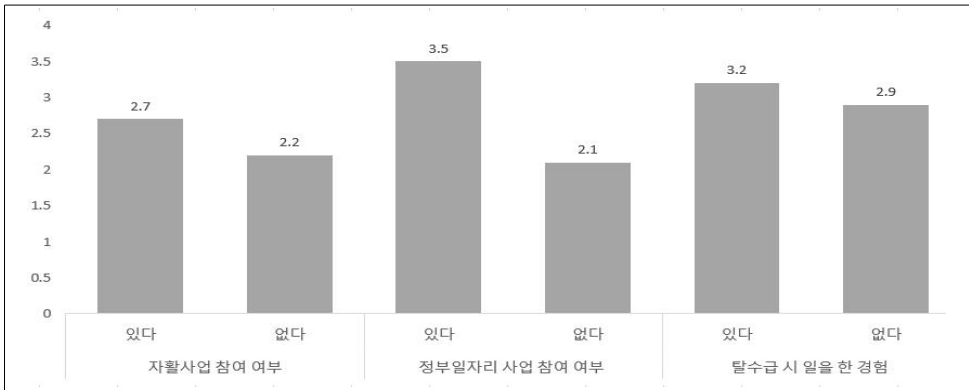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고용희망	
			평균	s.d.
계		(1,005)	2.2	1.10
자활사업 참여 여부	있다	(60)	2.7	.91
	없다	(945)	2.2	1.10
정부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있다	(29)	3.5	.83
	없다	(976)	2.1	1.05
탈수급 시 일을 한 경험 여부	있다	(20)	3.2	.76
	없다	(45)	2.9	1.14
탈수급 경험 없음		(940)	2.1	1.06

주: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가중치 적용 값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5-3] 일 경험별 고용희망

(단위: 점)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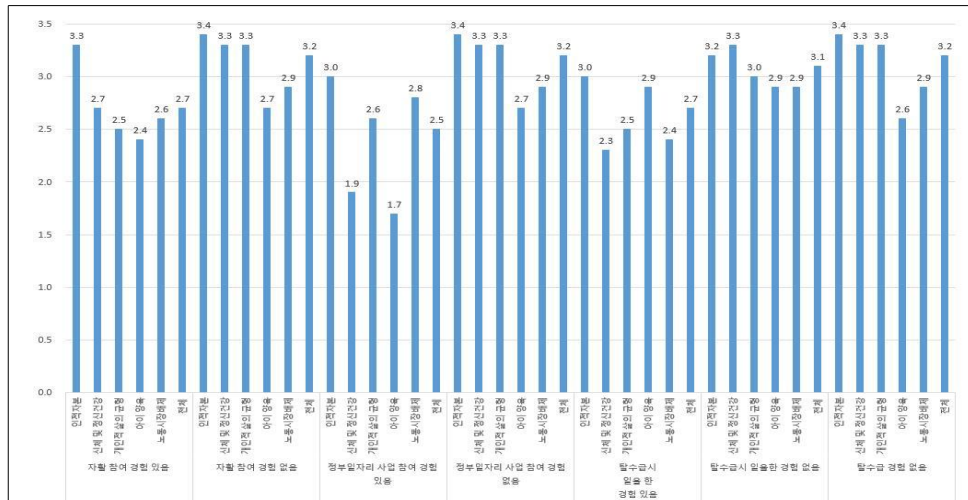
나. 지각된 고용장벽

지각된 고용장벽은 고용희망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자활사업 참여 경험,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 탈수급시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 각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고용장벽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위 요인별로는 일 경험과 관계없이 모두 인적자본을 가장 높은 고용장벽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일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일자리 사업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고용장벽을 가장 낮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2.5점), 자활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2.7점)와 탈수급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2.7점)에는 동일하였다. 또한, 자활참여 경험 여부와 정부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에 있어서는 경험이 있는 경우에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인적자본, 신체 및 정신건강, 개인적 삶의 균형, 아이 양육, 노동시장 배제 모두에 있어 고용장벽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탈수급시 일을 한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탈수급 경험이 없는 경우에 아이 양육 영역을 제외하고 가장 고용장벽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탈수급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탈수급시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인적자본, 신체 및 정신건강, 아이 양육영역에서 고용장벽을 낮게 인지하였고, 노동시장배제는 평균이 같게 나타났다.

[그림 4-5-4] 일 경험과 고용장벽

(단위: 점)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5-9〉 자활참여 경험 여부와 고용장벽(응답자 기준)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고용장벽	
			평균	s.d.
계		(1,005)	3.1	.80
자활 참여 경험 있음	인적자본	(60)	3.3	.93
	신체 및 정신건강		2.7	1.20
	개인적 삶의 균형		2.5	1.14
	아이 양육		2.4	1.16
	노동시장배제		2.6	1.03
	전체		2.7	.86
자활 참여 경험 없음	인적자본	(945)	3.4	.88
	신체 및 정신건강		3.3	1.33
	개인적 삶의 균형		3.3	.99
	아이 양육		2.7	1.36
	노동시장배제		2.9	1.04
	전체		3.2	.79

주: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가중치 적용 값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5-10〉 정부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와 고용장벽(응답자 기준)

(단위: 명, 점)

구분			고용장벽	
			평균	s.d.
계		(1,005)	3.1	.80
정부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 있음	인적자본	(29)	3.0	.73
	신체 및 정신건강		1.9	1.12
	개인적 삶의 균형		2.6	.88
	아이 양육		1.7	1.03
	노동시장배제		2.8	1.12
	전체		2.5	.67
정부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 없음	인적자본	(976)	3.4	.88
	신체 및 정신건강		3.3	1.30
	개인적 삶의 균형		3.3	1.01
	아이 양육		2.7	1.35
	노동시장배제		2.9	1.04
	전체		3.2	.79

주: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가중치 적용 값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5-11〉 탈수급시 일을 한 경험 여부와 고용장벽(응답자 기준)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고용장벽	
			평균	s.d.
계		(1,005)	3.1	.80
탈수급시 일을 한 경험 있음	인적자본	(20)	3.0	.69
	신체 및 정신건강		2.3	1.51
	개인적 삶의 균형		2.5	.90
	아이 양육		2.9	.98
	노동시장배제		2.4	1.30
	전체		2.7	.70
탈수급시 일을 한 경험 없음	인적자본	(45)	3.2	.99
	신체 및 정신건강		3.3	1.33
	개인적 삶의 균형		3.0	1.02
	아이 양육		2.9	1.22
	노동시장배제		2.9	1.11
	전체		3.1	.91
탈수급 경험 없음	인적자본	(940)	3.4	.88
	신체 및 정신건강		3.3	1.31
	개인적 삶의 균형		3.3	1.01
	아이 양육		2.6	1.37
	노동시장배제		2.9	1.02
	전체		3.2	.79

주: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가중치 적용 값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3. 주요 고용장벽에 대한 추가분석

여기서는 고용장벽 문항 중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일하는데 제약이 되는 건강상태, 적절한 직무 기술의 부족함, 지역사회 내에 일자리가 부족함에 대하여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 더 크게 고용장벽으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문항별로 제시하였다. 단,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세분함에 따라 해당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일자리를 유지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령-교육수준별 세부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매우 강한 장애물이 된다는 응답은 만 35~49세의 초졸 이하인 경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30.5%). 또한, 장애물이 된다는 매우 강한 장애물이 된다는 응답을 합칠 경우에는 만 35~49세의 중졸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64.5%). 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만34세 이하의 대졸 이상인 경우(40.8%)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만34세 이하의 대졸 이상은 응답자가 7명에 불과하여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4-5-12〉 연령-교육수준별 고용장벽: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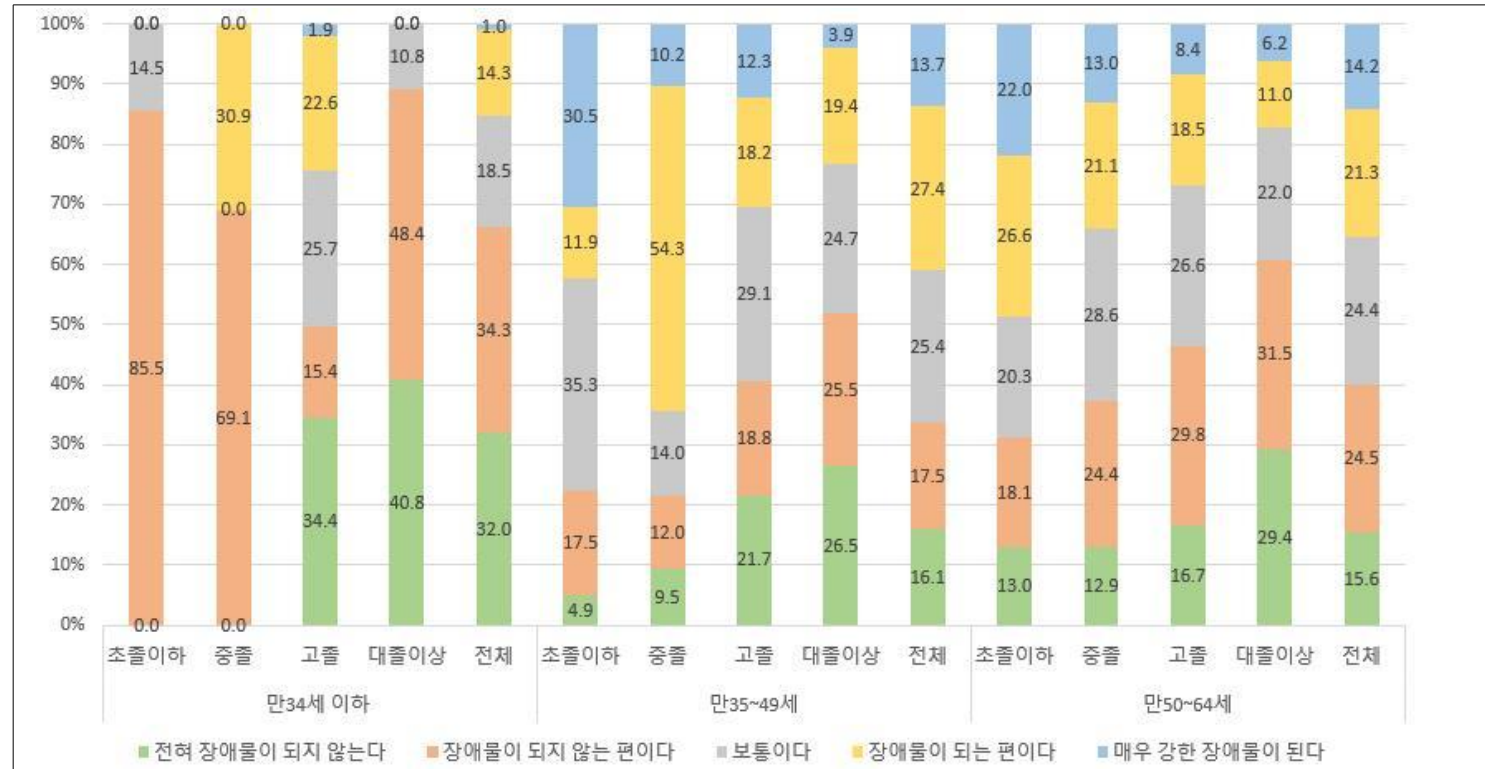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장애물이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장애물이 되는 편이다	매우 강한 장애물이 된다	계	평균
전체		(1005)	19.2	24.9	23.4	21.3	11.3	100	2.81
만34세 이하	초졸이하	(3)	—	85.5	14.49	—	—	100	2.1
	중졸	(2)	—	69.1	—	30.9	—	100	2.6
	고졸	(24)	34.4	15.4	25.7	22.6	1.9	100	2.4
	대졸이상	(7)	40.8	48.4	10.8	—	—	100	1.7
	전체	(36)	32.0	34.3	18.5	14.3	1.0	100	2.2
만35~49세	초졸이하	(35)	4.9	17.5	35.3	11.9	30.5	100	3.5
	중졸	(45)	9.5	12.0	14.0	54.3	10.2	100	3.4
	고졸	(101)	21.7	18.8	29.1	18.2	12.3	100	2.8
	대졸이상	(27)	26.5	25.5	24.7	19.4	3.9	100	2.5
	전체	(208)	16.1	17.5	25.4	27.4	13.7	100	3.1
만50~64세	초졸이하	(282)	13.0	18.1	20.3	26.6	22.0	100	3.3
	중졸	(180)	12.9	24.4	28.6	21.1	13.0	100	3.0
	고졸	(238)	16.7	29.8	26.6	18.5	8.4	100	2.7
	대졸이상	(61)	29.4	31.5	22.0	11.0	6.2	100	2.3
	전체	(761)	15.6	24.5	24.4	21.3	14.2	100	2.9

주: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과 평균은 가중치 적용 값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5-5] 연령-교육수준별 고용장벽: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교육수준-근로능력정도별로 세부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경우를 매우 강한 고용장벽으로 지각한다는 비율과 장애물이 되는 편이라는 응답은 초졸 이하의 단순 근로 가능한 응답자인 경우 각각 26.6%, 4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대졸 이상 단순근로가능(80.4%)인 경우 가장 많았으나, 대졸 이상 단순근로가능한 응답자는 8명임에 따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4-5-13〉 교육수준-근로능력정도별 고용장벽: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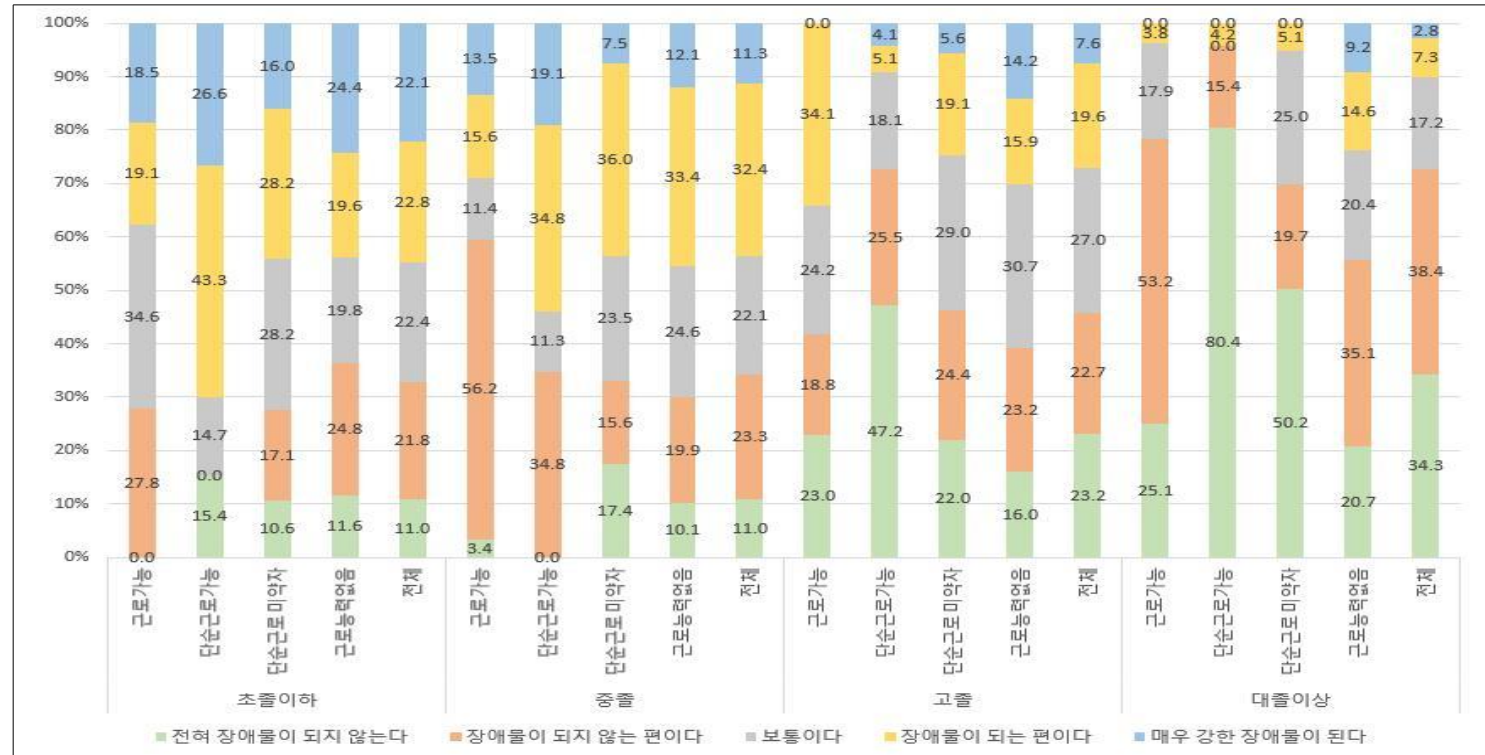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장애물이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장애물이 되는 편이다	매우 강한 장애물이 된다	계	평균
전체		(1005)	19.2	24.9	23.4	21.3	11.3	100	2.81
초졸이하	근로가능	(17)	—	27.8	34.6	19.1	18.5	100	3.3
	단순근로가능	(13)	—	—	14.7	43.3	26.6	100	3.7
	단순근로 미약자	(88)	10.6	17.1	28.2	28.2	16.0	100	3.2
	근로능력없음	(202)	11.6	24.8	19.8	19.6	24.4	100	3.2
	전체	(320)	11.0	21.8	22.4	22.8	22.1	100	3.2
중졸	근로가능	(14)	3.4	56.2	11.4	15.6	13.5	100	2.8
	단순근로가능	(19)	—	34.8	11.3	34.8	19.1	100	3.4
	단순근로 미약자	(79)	17.4	15.6	23.5	36.0	7.5	100	3.0
	근로능력없음	(115)	10.1	19.9	24.6	33.4	12.1	100	3.2
	전체	(227)	11.0	23.3	22.1	32.4	11.3	100	3.1
고졸	근로가능	(51)	23.0	18.8	24.2	34.1	—	100	2.7
	단순근로가능	(38)	47.2	25.5	18.1	5.1	4.1	100	1.9
	단순근로 미약자	(95)	22.0	24.4	29.0	19.1	5.6	100	2.6
	근로능력없음	(179)	16.00	23.2	30.7	15.9	14.2	100	2.9
	전체	(363)	23.2	22.7	27.0	19.6	7.6	100	2.7
대졸이상	근로가능	(19)	25.1	53.2	17.9	3.8	—	100	2.00
	단순근로가능	(8)	80.4	15.4	—	4.2	—	100	1.28
	단순근로 미약자	(22)	50.2	19.7	25.0	5.1	—	100	1.84
	근로능력없음	(46)	20.7	35.1	20.4	14.6	9.2	100	2.56
	전체	(95)	34.3	38.4	17.2	7.3	2.8	100	2.1

주: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과 평균은 가중치 적용 값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5-6] 교육수준-근로능력정도별 고용장벽: 1)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교육수준-건강상태별로 세부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경우’를 매우 강한 고용장벽으로 지각한다는 비율은 초졸 이하의 건강이 아주 안좋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높았다(23.4%). 고졸 이하의 학력을 고용장벽으로 여기고 있는 경우는 주로 중졸 이하의 학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대학 이상에서는 높지는 않았다.

〈표 4-5-14〉 교육수준-건강상태별 고용장벽: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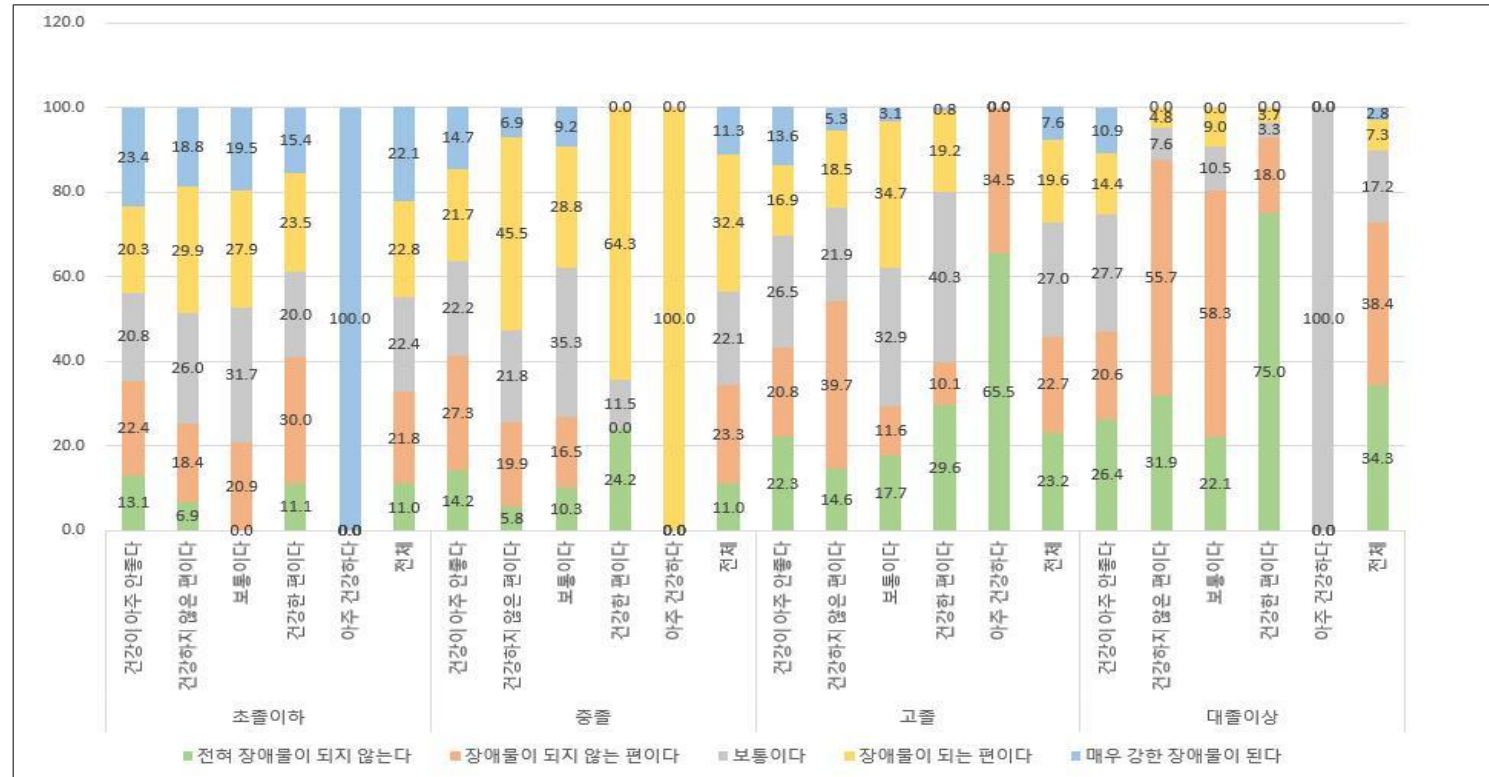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장애물이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장애물이 되는 편이다	매우 강한 장애물이 된다	계	평균
전체		(1005)	19.2	24.9	23.4	21.3	11.3	100	2.8
초졸 이하	건강이 아주 안좋다	(220)	13.1	22.4	20.8	20.3	23.4	100	3.2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71)	6.9	18.4	26.0	29.9	18.8	100	3.4
	보통이다	(17)	—	20.9	31.7	27.9	19.5	100	3.5
	건강한 편이다	(11)	11.1	30.0	20.0	23.5	15.4	100	3.0
	아주 건강하다	(1)	—	—	—	—	—	—	—
	전체	(320)	11.0	21.8	22.4	22.8	22.1	100	3.2
중졸	건강이 아주 안좋다	(142)	14.2	27.3	22.2	21.7	14.7	100	3.0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68)	5.8	19.9	21.8	45.5	6.9	100	3.3
	보통이다	(12)	10.3	16.5	35.3	28.8	9.2	100	3.1
	건강한 편이다	(4)	24.2	—	11.5	64.3	—	100	3.2
	아주 건강하다	(1)	—	—	—	—	—	—	—
	전체	(227)	11.0	23.3	22.1	32.4	11.3	100	3.1
고졸	건강이 아주 안좋다	(201)	22.3	20.8	26.5	16.9	13.6	100	2.8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93)	14.6	39.7	21.9	18.5	5.3	100	2.6
	보통이다	(42)	17.7	11.6	32.9	34.7	3.10	100	2.9
	건강한 편이다	(23)	29.6	10.1	40.3	19.2	0.81	100	2.5
	아주 건강하다	(4)	65.5	34.5	—	—	—	100	1.3
	전체	(363)	23.2	22.7	27.0	19.6	7.6	100	2.7
대졸 이상	건강이 아주 안좋다	(43)	26.4	20.6	27.7	14.4	10.9	100	2.6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0)	31.9	55.7	7.6	4.8	—	100	1.9
	보통이다	(12)	22.1	58.3	10.5	9.0	—	100	2.1
	건강한 편이다	(9)	75.0	18.0	3.3	3.71	—	100	1.4
	아주 건강하다	(1)	—	—	—	—	—	—	—
	전체	(95)	34.3	38.4	17.2	7.3	2.8	100	2.1

주: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과 평균은 가중치 적용 값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5-7] 교육수준-건강상태별 고용장벽: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나. 일하는데 제약이 되는 건강상태

일하는데 제약이 되는 건강상태가 일자리를 유지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건강상태-근로능력별 세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건강한 편이다와 아주 건강하다는 응답자는 각 47명, 7명임에 따라 건강이 아주 안좋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로 응답한 경우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장애물이 되는 편이다와 매우 강한 장애물이 된다는 응답을 했을 때,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자 중 단순근로가 가능하다는 경우(95.2%)와 건강이 아주 안좋지만 근로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 비율이 가장 높은 것(95.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건강상태에 따른 근로의 성격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건강보다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근로능력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4-5-15〉 건강상태-근로능력별 고용장벽: 2) 일하는데 제약이 되는 건강상태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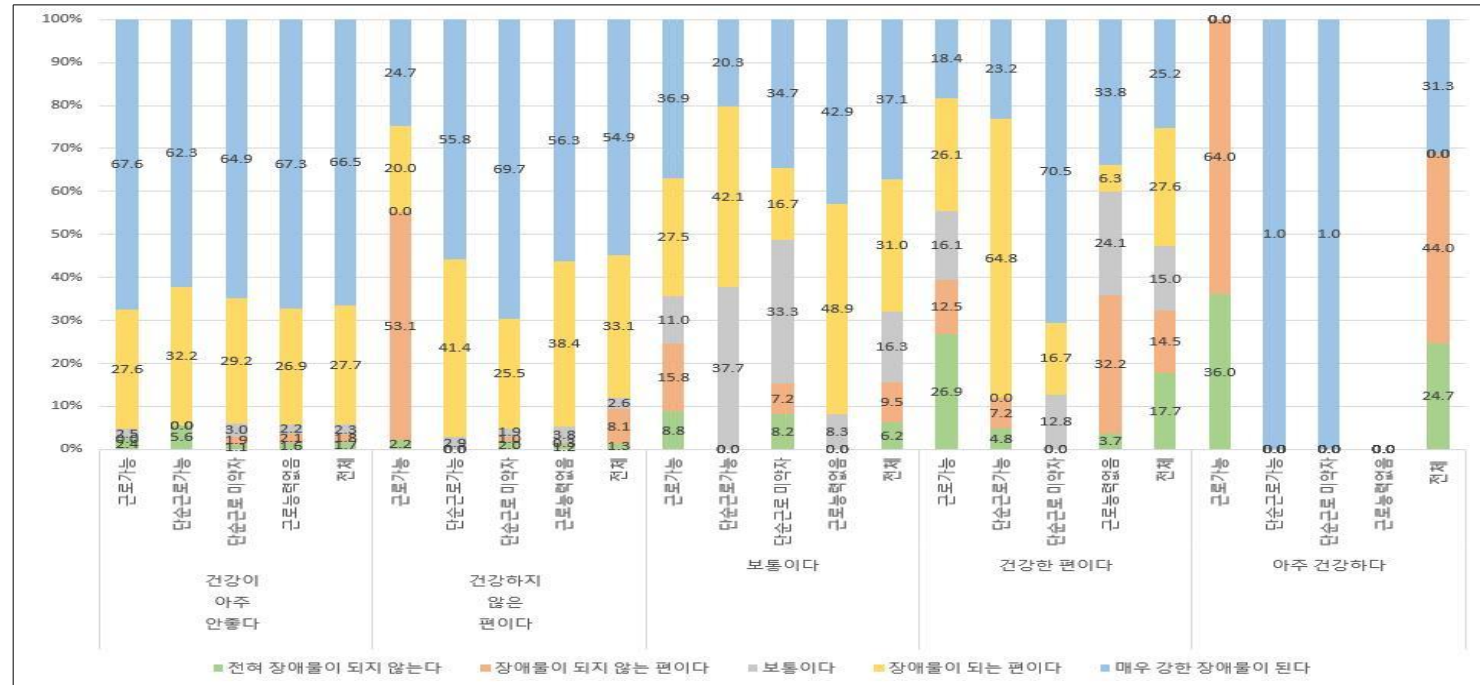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장애물이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장애물이 되는 편이다	매우 강한 장애물이 된다	계	평균
전체		(1,005)	4.3	6.9	5.0	28.6	55.3	100	4.2
건강이 아주 안좋다	근로가능	(18)	2.4	—	2.5	27.6	67.6	100	4.6
	단순근로가능	(25)	5.6	—	—	32.2	62.3	100	4.5
	단순근로 미약자	(168)	1.1	1.9	3.0	29.2	64.9	100	4.5
	근로능력없음	(395)	1.6	2.1	2.2	26.9	67.3	100	4.6
	전체	(606)	1.7	1.8	2.3	27.7	66.5	100	4.6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근로가능	(24)	2.2	53.1	—	20.0	24.7	100	3.1
	단순근로가능	(41)	—	—	2.9	41.4	55.8	100	4.5
	단순근로 미약자	(88)	2.0	1.0	1.9	25.5	69.7	100	4.6
	근로능력없음	(109)	1.2	0.3	3.8	38.4	56.3	100	4.5
	전체	(262)	1.3	8.1	2.6	33.1	54.9	100	4.3
보통이다	근로가능	(34)	8.8	15.8	11.0	27.5	36.9	100	3.7
	단순근로가능	(5)	—	—	37.7	42.1	20.3	100	3.8
	단순근로 미약자	(20)	8.2	7.2	33.3	16.7	34.7	100	3.6
	근로능력없음	(24)	—	—	8.3	48.9	42.9	100	4.3
	전체	(83)	6.2	9.5	16.3	31.0	37.1	100	3.8
건강한 편이다	근로가능	(21)	26.9	12.5	16.1	26.1	18.4	100	3.0
	단순근로가능	(6)	4.8	7.2	—	64.8	23.2	100	3.9
	단순근로 미약자	(6)	—	—	12.8	16.7	70.5	100	4.6
	근로능력없음	(14)	3.7	32.2	24.1	6.3	33.8	100	3.3
	전체	(47)	17.7	14.5	15.0	27.6	25.2	100	3.3
아주 건강하다	근로가능	(4)	36.0	64.0	—	—	—	100	1.6
	단순근로가능	(1)	—	—	—	—	1	100	5.0
	단순근로 미약자	(2)	—	—	—	—	1	100	5.0
	근로능력없음	—	—	—	—	—	—	—	—
	전체	(7)	24.7	44.0	—	—	31.3	100	2.7

주: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과 평균은 가중치 적용 값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5-8] 건강상태-근로능력별 고용장벽: 2) 일하는데 제약이 되는 건강상태

(단위: %)



주: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가중치 적용 값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다. 적절한 직무 기술의 부족함

적절한 직무기술의 부족이 일자리를 유지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령-교육수준별 세부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매우 강한 장애물이 된다는 응답은 만35~40세의 초졸 이하가 39.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34세 이하의 초졸, 중졸, 대졸이상의 사례수가 10인 이하임에 따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만35~49세 고졸(14.0%)의 경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16〉 연령-교육수준별 고용장벽: 3) 적절한 직무 기술의 부족함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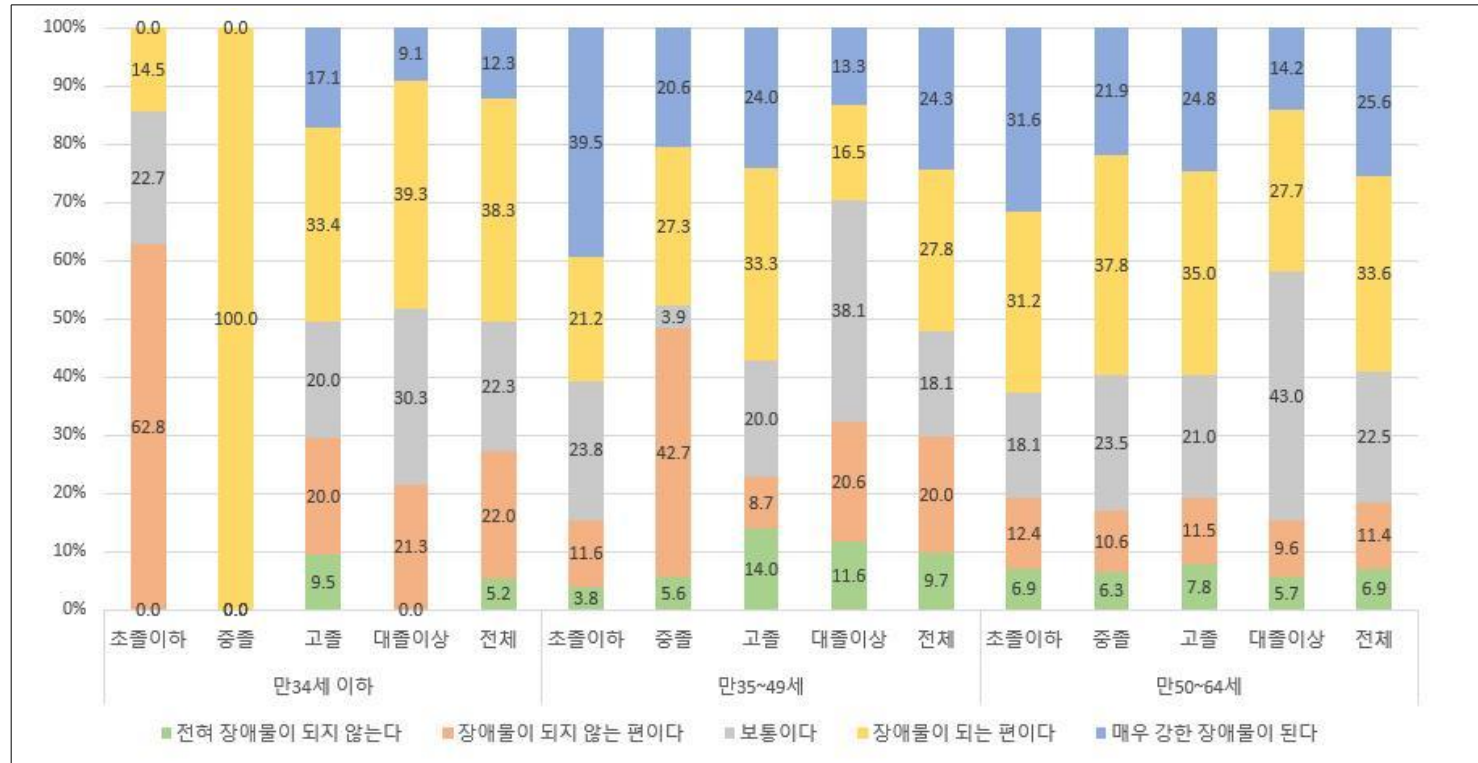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장애물이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장애물이 되는 편이다	매우 강한 장애물이 된다	계	평균
전체		(1,005)	7.2	15.7	21.4	33.2	22.5	100	3.5
만34세 이하	초졸이하	(3)	—	62.8	22.7	14.5	—	100	2.5
	중졸	(2)	—	—	—	100	—	100	4.0
	고졸	(24)	9.5	20.0	20.0	33.4	17.1	100	3.3
	대졸이상	(7)	—	21.3	30.3	39.3	9.1	100	3.4
	전체	(36)	5.2	22.0	22.3	38.3	12.3	100	3.3
만35~49세	초졸이하	(35)	3.8	11.6	23.8	21.2	39.5	100	3.8
	중졸	(45)	5.6	42.7	3.9	27.3	20.6	100	3.1
	고졸	(101)	14.0	8.7	20.0	33.3	24.0	100	3.4
	대졸이상	(27)	11.6	20.6	38.1	16.5	13.3	100	3.0
	전체	(208)	9.7	20.0	18.1	27.8	24.3	100	3.4
만50~64세	초졸이하	(282)	6.9	12.4	18.1	31.2	31.6	100	3.7
	중졸	(180)	6.3	10.6	23.5	37.8	21.9	100	3.6
	고졸	(238)	7.8	11.5	21.0	35.0	24.8	100	3.6
	대졸이상	(61)	5.7	9.6	43.0	27.7	14.2	100	3.4
	전체	(761)	6.9	11.4	22.5	33.6	25.6	100	3.6

주: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과 평균은 가중치 적용 값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5-9] 연령-교육수준별 고용장벽: 3) 적절한 직무 기술의 부족함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적절한 직무기술의 부족이 일자리를 유지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령-근로능력별 세부 분석 결과는 사례수를 고려하여 만35~49세와 만50~64세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장애물이 된다는 매우 강한 장애물이 된다는 더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은 만50~64세의 단순근로미약자(64.1%)였으며, 만50~64세 근로능력없음(59.2%)과 만35~49세 단순근로미약자(57.5%)인 경우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절한 직무기술의 부족이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5-17〉 연령-근로능력정도별 고용장벽: 3) 적절한 직무 기술의 부족함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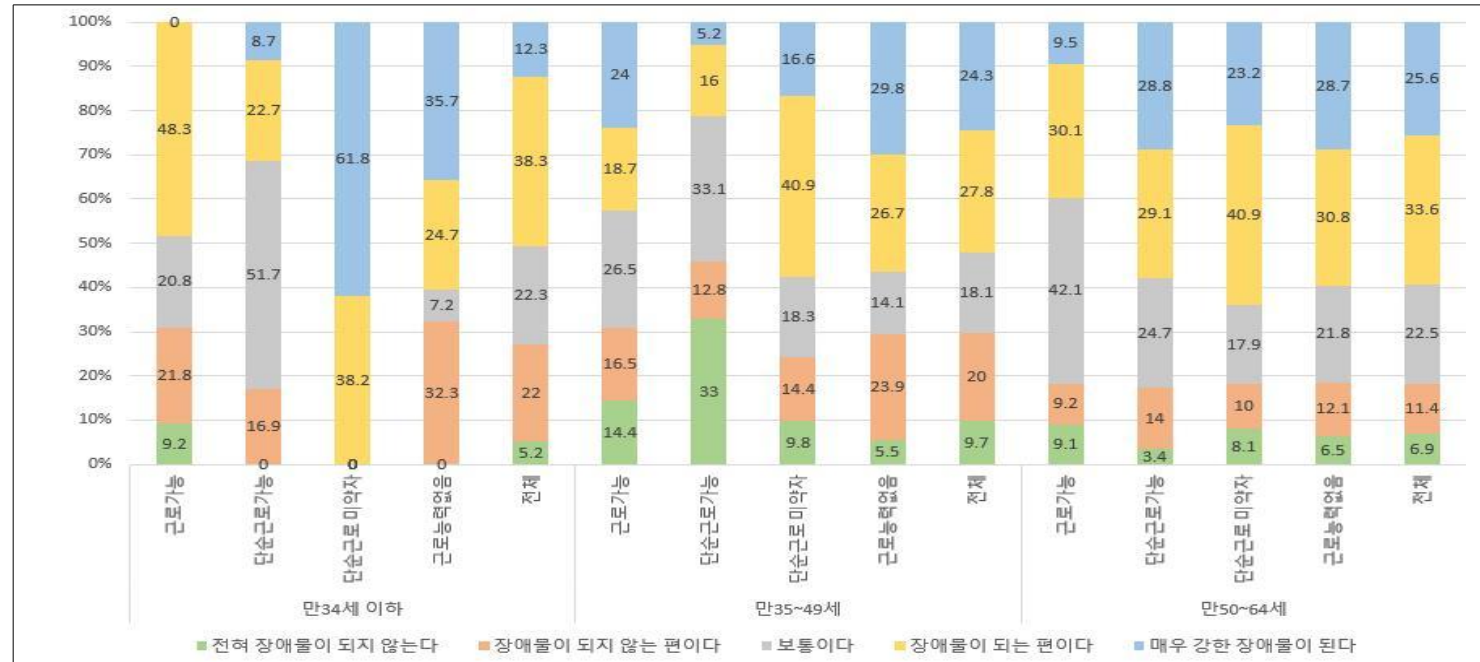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장애물이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장애물이 되는 편이다	매우 강한 장애물이 된다	계	평균
전체		(1,005)	7.2	15.7	21.4	33.2	22.5	100	3.5
만34세 이하	근로가능	(19)	9.2	21.8	20.8	48.3	—	100	3.1
	단순근로가능	(5)	—	16.9	51.7	22.7	8.7	100	3.2
	단순근로 미약자	(2)	—	—	—	38.2	61.8	100	4.6
	근로능력없음	(10)	—	32.3	7.2	24.7	35.7	100	3.6
	전체	(36)	5.2	22.0	22.3	38.3	12.3	100	3.3
만 35~49세	근로가능	(29)	14.4	16.5	26.5	18.7	24.0	100	3.2
	단순근로가능	(17)	33.0	12.8	33.1	16.0	5.2	100	2.5
	단순근로 미약자	(48)	9.8	14.4	18.3	40.9	16.6	100	3.4
	근로능력없음	(114)	5.5	23.9	14.1	26.7	29.8	100	3.5
	전체	(208)	9.7	20.0	18.1	27.8	24.3	100	3.4
만 50~64세	근로가능	(53)	9.1	9.2	42.1	30.1	9.5	100	3.2
	단순근로가능	(56)	3.4	14.0	24.7	29.1	28.8	100	3.7
	단순근로 미약자	(234)	8.1	10.0	17.9	40.9	23.2	100	3.6
	근로능력없음	(418)	6.5	12.1	21.8	30.8	28.7	100	3.6
	전체	(761)	6.9	11.4	22.5	33.6	25.6	100	3.6

주: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과 평균은 가중치 적용 값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5-10] 연령-근로능력정도별 고용장벽: 3) 적절한 직무 기술의 부족함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라. 지역사회 내에 일자리가 부족함

지역사회 내에 일자리가 부족함이 일자리를 유지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세부 분석은 연령-교육수준별, 연령-건강상태별로 실시하였음에 따라, 만 34세 이하의 사례수(36)를 고려하여 만35~49세와 만50~64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령-교육수준별 세부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50~64세가 만35~49세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장애물이 되는 편이다와 매우 강한 장애물이 된 다를 더할 경우, 만50~64세는 대졸이상(48.3%), 고졸(43.3%), 초졸 이하(43.8%), 중졸(3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만35~49세의 경우에는 고졸(41.5%), 초졸이하(34.2%), 중졸(30.4%), 대졸이상(25.8%)의 순이었다.

〈표 4-5-18〉 연령-교육수준별 고용장벽: 12) 지역사회 내에 일자리가 부족함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장애물이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장애물이 되는 편이다	매우 강한 장애물이 된다	계	평균
전체		(1,005)	13.1	17.3	26.7	31.8	11.0	100	3.1
만34세 이하	초졸이하	(3)	—	85.5	14.5	—	—	100	2.1
	중졸	(2)	—	—	—	100	—	100	4.0
	고졸	(24)	18.6	3.5	28.2	42.2	7.6	100	3.2
	대졸이상	(7)	—	21.3	9.1	69.6	—	100	3.5
	전체	(36)	10.1	14.5	19.3	52.0	4.1	100	3.3
만35~49세	초졸이하	(35)	8.2	25.9	31.7	14.6	19.6	100	3.1
	중졸	(45)	10.4	43.3	15.9	22.4	8.0	100	2.7
	고졸	(101)	18.3	9.5	30.8	30.5	11.0	100	3.1
	대졸이상	(27)	14.0	23.6	36.6	13.0	12.8	100	2.9
	전체	(208)	14.0	23.2	27.4	23.7	11.8	100	3.0
만50~64세	초졸이하	(282)	15.1	14.6	26.5	26.2	17.6	100	3.2
	중졸	(180)	12.7	21.3	35.2	21.4	9.5	100	2.9
	고졸	(238)	14.2	14.0	28.5	30.4	12.9	100	3.1
	대졸이상	(61)	11.9	11.5	28.3	39.4	8.9	100	3.2
	전체	(761)	14.0	15.7	29.3	27.6	13.4	100	3.1

주: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과 평균은 가중치 적용 값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5-11] 연령-교육수준별 고용장벽: 12) 지역사회 내에 일자리가 부족함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연령-건강상태별 세부분석결과를 장애물이 되는 편이다와 매우 강한 장애물이 된다는 경우 다음과 같다. 만35~49세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는 응답자는 38.1%,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자는 29.3%, 보통이다는 34.5%, 건강한 편이다는 52.3%였다. 만 50~64세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는 응답이 43.8%,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이 35.3%, 보통이다 43.8%, 건강한 편이다 28.8%, 아주 건강하다 100%였다. 단, 만 50~64세의 아주 건강하다는 응답 사례수는 1인이다.

〈표 4-5-19〉 연령-건강상태별 고용장벽: 12) 지역사회 내에 일자리가 부족함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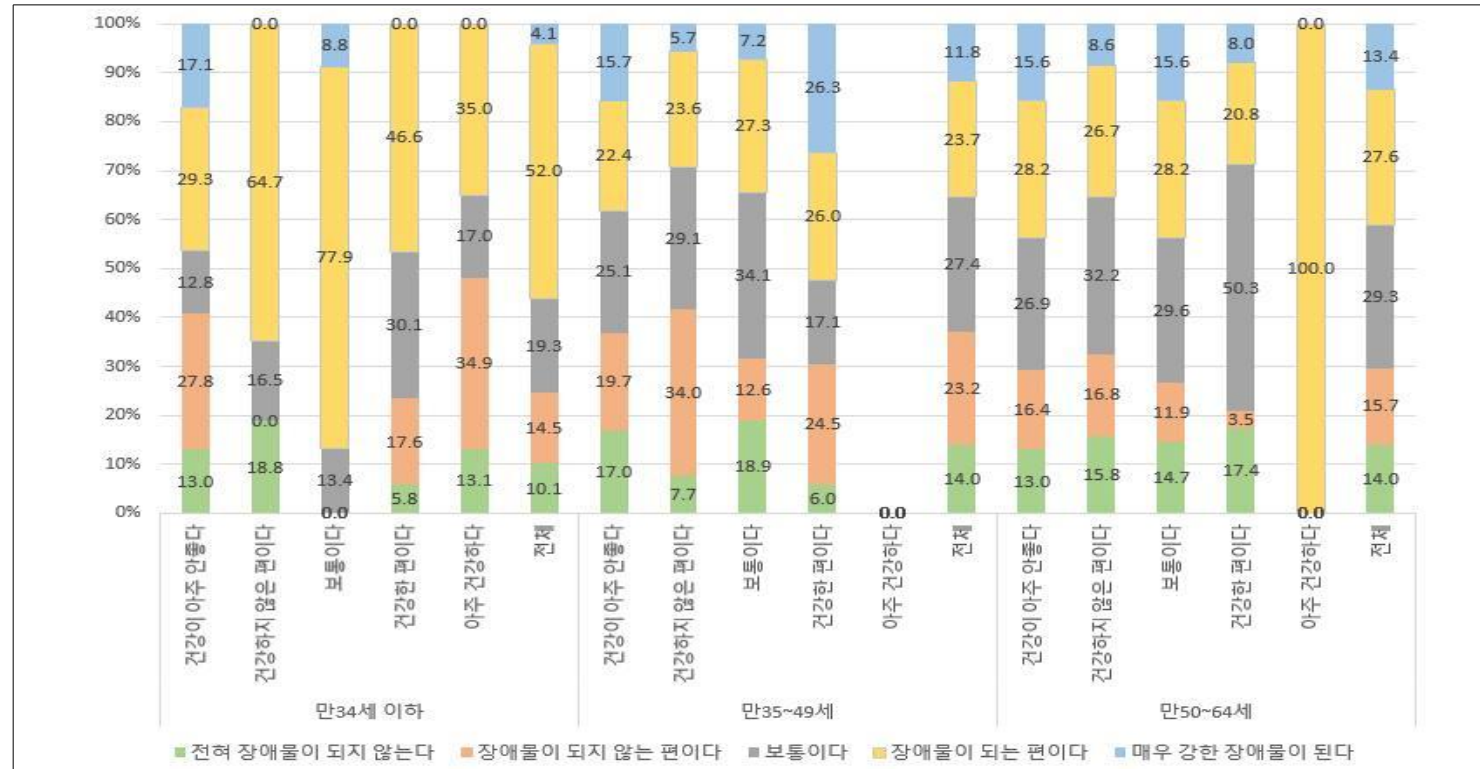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장애물 이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 다	장애물 이 되는 편이다	매우 강한 장애물이 된다	계	평균
전체		(1,005)	13.1	17.3	26.7	31.8	11.0	100	3.1
만34세 이하	건강이 아주 안좋다	(6)	13.0	27.8	12.8	29.3	17.1	100	3.1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6)	18.8	—	16.5	64.7	—	100	3.3
	보통이다	(7)	—	—	13.4	77.9	8.8	100	4.0
	건강한 편이다	(11)	5.8	17.6	30.1	46.6	—	100	3.2
	아주 건강하다	(6)	13.1	34.9	17.0	35.0	—	100	2.7
	전체	(36)	10.1	14.5	19.3	52.0	4.1	100	3.3
만 35~49세	건강이 아주 안좋다	(111)	17.0	19.7	25.12	22.4	15.7	100	3.0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53)	7.7	34.0	29.1	23.6	5.7	100	2.9
	보통이다	(33)	18.9	12.6	34.1	27.3	7.2	100	2.9
	건강한 편이다	(11)	6.0	24.5	17.1	26.0	26.3	100	3.4
	아주 건강하다	—	—	—	—	—	—	—	—
	전체	(208)	14.0	23.2	27.4	23.7	11.8	100	3.0
만 50~64세	건강이 아주 안좋다	(489)	13.0	16.4	26.9	28.2	15.6	100	3.2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203)	15.8	16.8	32.2	26.7	8.6	100	3.0
	보통이다	(43)	14.7	11.9	29.6	28.2	15.6	100	3.2
	건강한 편이다	(25)	17.4	3.5	50.3	20.8	8.0	100	3.0
	아주 건강하다	(1)	—	—	—	100	—	100	4.0
	전체	(761)	14.0	15.7	29.3	27.6	13.4	100	3.1

주: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과 평균은 가중치 적용 값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5-12] 연령-건강상태별 고용장벽: 12) 지역사회 내에 일자리가 부족함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4.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이 절에서는 근로능력 장기수급자의 다차원적 실태를 파악하고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서적 자활을 측정하는 고용희망과 지각된 고용장벽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최상미(2017)에 의해 개발된 한국형 고용희망척도(K-EHS)와 Hong·Polanin, Key·& Choi(2014)가 개발한 27개문항의 지각된 고용장벽 척도(PEBS) 중 20개를 활용하였다. 분석내용은 자기 보고된 근로능력과 정서적 자활, 일 경험과 정서적 자활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고용장벽 문항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우선, 자기 보고된 근로능력과 정서적 자활을 살펴본 결과, 고용희망은 자기가 보고하는 근로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근로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고용희망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단순근로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 단순근로미약이라고 응답한 경우,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의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유사하게, 고용장벽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단순근로미약인 경우, 단순근로가능, 근로가능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고용장벽의 하위요인인 인적자본, 신체 및 정신건강, 개인적 삶의 균형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인적자본을 가장 큰 고용장벽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근로능력이 미약할수록 인적자본의 부족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영역에서는 일하는데 제약이 되는 건강상태(질병/부상)를 가장 높은 장벽으로 인지하고 있었고(4.2점), 적절한 직무 기술의 부족함(3.5점), 직장경험이 부족함(3.4점),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3.1점),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2.8점)의 순이었다. 일 경험에 따른 정서적 자활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활사업, 정부 일자리 사업, 탈수급시 일 경험 중, 어떠한 경험이든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고용희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각된 고용장벽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첫째, 장기수급자들의 인적자본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근로능력에 따른 인적자본의 차이에 대한 정교한 원인 파악과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모색 또한 필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언급했듯, 우리 조사에서는 고용희망과 지각된 고용장벽은 조사시점 기준의 응답이며, 자활과 정부 지원 일자리, 노

동시장 이력은 더 이전의 과거 경험까지 포함함에 따라 인과관계 파악은 어렵다. 그러나 일 경험이 있는 집단의 정서적 자활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장기수급자에 대한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의 수행과 참여 유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일자리 확충과 조직의 재구조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는 자활 인프라 개편이 내용적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활의지의 촉진은 자산형성 지원이나 국민연금 가입지원 뿐 아니라 직무 기술과 직장 경험의 제공을 통해서도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직업훈련과 실질적 사례관리가 연계된 프로그램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제6절 개인 및 사회복지제도 인식

이 절에서는 장기수급자의 아동·청소년 시절 여러 경험, 건강, 주거 환경, 가족 관계 등 다양한 생활 영역 전반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우울 정도,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인지여부, 경험여부, 만족도, 사회 및 사람들에 대한 신뢰 등을 살펴보았다.

1. 아동·청소년 시절 경험

먼저 아동·청소년 시절의 여러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래 〈표 4-6-1〉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경험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여준다. 전체의 27.2%가 아동·청소년 시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경험을 하였다. 65.6%는 이러한 경험이 없었다. 이러한 경험을 응답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근로능력정도, 경제활동 참여상태, 동거 가구원의 수, 가구 구성, 가구 소득 등 주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크게 주목할 만한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시절 부모님의 이혼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아래 〈표 4-6-2〉 참조), 전체 응답자의 13.6%가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응답자의 연령이 어린 경우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만 34세 이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평균(13.6%)보다 월등히 높은 42.8%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였다. 반면 만 35세에서 49세 집단의 경우 8.7%, 만 50세에서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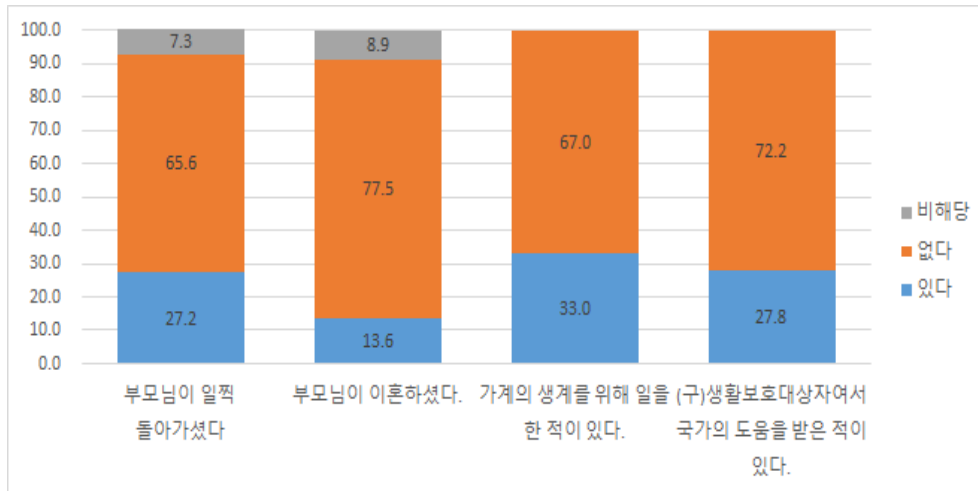
세의 경우 4.5%만이 아동·청소년 시절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였다. 또한 가구 구성 중 조손가구의 경우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경우가 47.8%로 그렇지 않은 경우인 44.8%보다 높았다.

셋째, 〈표 4-6-3〉은 아동·청소년기 가계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한 경험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여준다. 아동·청소년기 가계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3.0%에 달하였다. 남성의 경우 이러한 비율이 37.0%로 여성(28.7%)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도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만 50세에서 64세로 연령이 높은 집단의 경우 가계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한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38.8%였다.

마지막으로 (구)생활보호대상자로서 국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4-6-4〉). 27.8%가 (구)생활보호대상자로서 국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34세 이하 집단의 경우 이러한 비율이 7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1961년 생활보호법이 시행된 이래로 국가의 기초보장이 차츰 확대됨에 따라 젊은 연령일수록 이를 수혜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어렸을 적의 빈곤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이 장기수급자 수급으로 상당부분 이어지는 이 결과는,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으며 이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6-1] 아동·청소년 시절 경험_전체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6-1〉 아동·청소년 시절 경험: 1)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단위: 수, %)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비해당
전체		27.2	65.6	7.3
응답자 성별	남성	24.6	65.7	9.7
	여성	29.9	65.5	4.6
응답자 연령	만34세 이하	29.0	53.6	17.4
	만35~49세	21.7	73.9	4.4
	만50~64세	28.9	66.5	4.6
응답자 교육수준	초졸이하	29.5	64.8	5.7
	중졸	24.7	71.6	3.6
	고졸	27.8	60.3	11.9
	대졸이상	25.0	72.7	2.4
응답자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26.7	69.1	4.2
	보통	22.0	65.0	13.0
	건강한 편	34.8	44.4	20.9
응답자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25.3	65.1	9.6
	단순근로가능	42.6	47.6	9.8
	단순근로미약자	21.3	71.9	6.9
	근로능력없음	27.6	66.5	6.0
응답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25.8	63.7	10.5
	실업자	40.5	38.9	20.5
	비경제활동인구	26.7	66.9	6.4
동거 가구원 수	1명	30.2	62.4	7.4
	2명	25.8	67.5	6.7
	3명 이상	23.0	69.1	8.0
가구 구성	단독가구	30.2	62.4	7.4
	모/부자가가구	25.0	72.5	2.5
	조손가구	38.4	37.8	23.9
	다문화가구	0	100.0	0
	기타(일반가구)	21.9	72.3	5.7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32.3	60.1	7.7
	51만원~70만원 이하	28.6	61.6	9.8
	71만원~100만원 이하	28.7	67.2	4.1
	101만원~150만원 이하	16.6	75.7	7.7
	151만원 이상	34.3	57.3	8.5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6-2〉 아동·청소년 시절 경험: 2)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단위: %)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비해당
전체		13.6	77.5	8.9
응답자 성별	남성	13.6	75.8	10.6
	여성	13.6	79.3	7.2
응답자 연령	만34세 이하	42.8	50.8	6.5
	만35~49세	8.7	85.3	9.1

	만50~64세	4.5	85.7	9.8
응답자 교육수준	초졸이하	6.9	82.9	10.3
	중졸	9.5	85.1	5.5
	고졸	14.9	74.5	10.7
	대졸이상	27.4	65.6	7.0
응답자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9.8	81.4	8.8
	보통	22.2	73.6	4.3
	건강한 편	29.4	57.1	13.5
응답자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40.8	53.6	5.6
	단순근로가능	4.9	81.2	13.9
	단순근로미약자	7.5	85.3	7.3
	근로능력없음	7.2	82.8	10.1
응답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19.0	66.5	14.5
	실업자	10.6	81.7	7.7
	비경제활동인구	13.3	78.1	8.6
동거 가구원 수	1명	10.2	79.3	10.5
	2명	14.9	75.8	9.3
	3명 이상	18.5	76.5	5.0
가구 구성	단독가구	10.2	79.3	10.5
	모/부자가구	5.1	89.9	5.1
	조손가구	47.8	44.8	7.5
	다문화가구	0	100.0	0
	기타(일반가구)	14.8	76.3	8.9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15.7	73.8	10.5
	51만원~70만원 이하	7.2	81.2	11.6
	71만원~100만원 이하	14.5	78.4	7.1
	101만원~150만원 이하	21.9	74.7	3.4
	151만원 이상	8.1	74.8	17.2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6-3〉 아동·청소년 시절 경험: 3) 가계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한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33.0	67.0
응답자 성별	남성	37.0	63.0
	여성	28.7	71.3
응답자 연령	만34세 이하	31.9	68.1
	만35~49세	20.9	79.1
	만50~64세	38.8	61.2
응답자	초졸이하	38.1	61.9

교육수준	중졸	25.9	74.1
	고졸	35.8	64.2
	대졸이상	27.0	73.0
응답자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35.5	64.5
	보통	28.4	71.6
	건강한 편	21.6	78.5
응답자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32.8	67.2
	단순근로가능	39.0	61.0
	단순근로미약자	35.0	65.0
	근로능력없음	31.0	69.1
응답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37.6	62.4
	실업자	40.5	59.5
	비경제활동인구	32.4	67.6
동거 가구원 수	1명	42.6	57.4
	2명	26.4	73.6
	3명 이상	23.5	76.5
가구 구성	단독가구	42.6	57.4
	모/부자가구	24.8	75.2
	조손가구	7.5	92.5
	다문화가구	0	100.0
	기타(일반가구)	29.4	70.6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26.9	73.1
	51만원~70만원 이하	40.1	59.9
	71만원~100만원 이하	36.2	63.8
	101만원~150만원 이하	20.6	79.5
	151만원 이상	37.8	62.2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6-4〉 아동·청소년 시절 경험: 4) (구)생활보호대상자여서 국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27.8	72.2
응답자 성별	남성	30.8	69.2
	여성	24.5	75.5
응답자 연령	만34세 이하	70.2	29.8
	만35~49세	16.6	83.4
	만50~64세	16.4	83.6
응답자 교육수준	초졸이하	16.9	83.1
	중졸	20.5	79.5

	고졸	32.8	67.2
	대졸이상	43.4	56.7
응답자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20.9	79.1
	보통	46.2	53.8
	건강한 편	54.5	45.5
응답자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51.5	48.5
	단순근로가능	39.3	60.7
	단순근로미약자	20.8	79.3
	근로능력없음	19.2	80.8
응답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35.7	64.3
	실업자	69.0	31.0
	비경제활동인구	25.4	74.6
동거 가구원 수	1명	27.6	72.4
	2명	31.3	68.7
	3명 이상	22.6	77.4
가구 구성	단독가구	27.6	72.4
	모/부자가구	14.9	85.1
	조손가구	78.8	21.2
	다문화가구	0	100.0
	기타(일반가구)	23.2	76.8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30.1	69.9
	51만원~70만원 이하	25.6	74.4
	71만원~100만원 이하	28.5	71.5
	101만원~150만원 이하	28.9	71.1
	151만원 이상	26.2	73.8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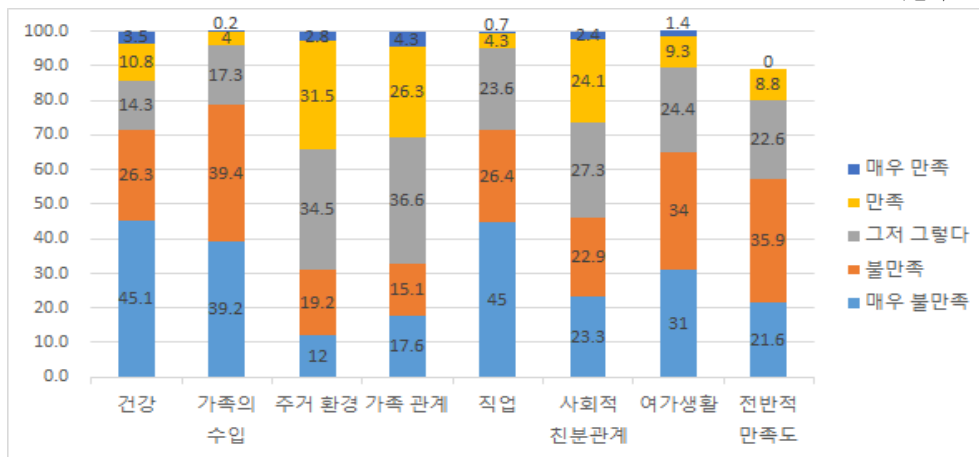
2.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다음은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사회적 친분 관계, 여가생활 등 세 부 영역에서부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까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삶의 만족도는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소득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가 잘 드러내 주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Diener & Seligman, 2004).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수급자의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소득 증대 등을 보는 것 못지않게 장기수급자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아래 [그림 4-6-2] 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영역 간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지만, 주거 환경이나 가족 관계 영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

[그림 4-6-2]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_전체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이를 세부 영역별로 각각 살펴보면, 건강의 경우에는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으며,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26.3%로 그 뒤를 이었다. 즉, 장기수급자들은 건강에 대해 상당히 불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건강에 대한 불만족은 특히 고연령층(만 50~64세)에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또한 교육수준이 초졸이하로 낮은 응답자의 61%가 건강에 대해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이러한 불만족 비율은 점차 줄어든다. 응답자의 근로능력에 따라서도 건강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집단일수록 건강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도 엿볼 수 있는데,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건강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표 4-6-5〉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1) 건강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전체		45.1	26.3	14.3	10.8	3.5
응답자 성별	남성	47.4	24.4	13.4	10.6	4.1
	여성	42.7	28.4	15.3	10.9	2.8
응답자 연령	만34세 이하	21.1	13.6	25.4	26.4	13.4
	만35~49세	40.7	31.3	17.0	9.8	1.3
	만50~64세	56.3	29.0	8.8	5.2	0.7
응답자 교육수준	초졸이하	61.0	23.1	13.4	2.2	0.3
	중졸	47.2	41.1	6.7	5.0	0
	고졸	39.2	20.2	19.9	14.4	6.4
	대졸이상	31.2	27.1	11.5	24.2	6.0
응답자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57.7	31.2	7.9	2.9	0.3
	보통	5.2	13.8	63.1	16.1	1.8
	건강한 편	2.4	7.0	11.7	54.7	24.2
응답자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11.4	21.0	25.4	30.8	11.5
	단순근로가능	38.7	27.2	16.0	9.6	8.6
	단순근로미약자	52.6	31.0	10.9	4.8	0.7
	근로능력없음	56.5	26.1	11.1	5.8	0.5
응답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22.2	19.2	30.7	26.2	1.8
	실업자	9.9	29.4	25.3	24.8	10.6
	비경제활동인구	48.3	26.7	12.6	9.1	3.3
동거 가구원 수	1명	53.0	26.7	8.8	6.2	5.4
	2명	39.9	27.4	19.1	13.3	0.4
	3명 이상	36.9	23.9	18.2	16.6	4.5
가구 구성	단독가구	53.0	26.7	8.8	6.2	5.4
	모/부자가구	35.0	38.2	16.2	10.0	0.8
	조손가구	47.7	0	7.5	38.7	6.1
	다문화가구	28.6	0	0	71.4	0
	기타(일반가구)	38.6	26.4	22.4	11.0	1.6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55.6	17.2	10.9	13.3	3.0
	51만원~70만원 이하	48.9	27.5	14.6	5.5	3.6
	71만원~100만원 이하	47.1	30.0	9.8	9.8	3.3
	101만원~150만원 이하	32.5	29.3	19.5	15.4	3.4
	151만원 이상	39.5	16.6	22.4	16.7	4.8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가족의 수입 또한 이에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근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경우, 학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건강하지 않은 집단일수록 가족의 수입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표 4-6-6〉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2) 가족의 수입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전체		39.2	39.4	17.3	4.0	0.2
응답자 성별	남성	35.1	41.2	18.6	5.0	0.2
	여성	43.6	37.5	15.9	2.9	0.2
응답자 연령	만34세 이하	28.3	41.5	17.6	12.6	0
	만35~49세	36.8	44.0	15.0	3.9	0.3
	만50~64세	44.4	36.6	18.2	0.7	0.1
응답자 교육수준	초졸이하	46.1	33.0	19.8	1.1	0
	중졸	34.5	48.9	16.2	0.4	0
	고졸	39.1	35.9	17.9	6.7	0.4
	대졸이상	34.2	46.2	12.8	6.8	0
응답자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44.2	40.1	15.0	0.7	0
	보통	30.4	36.4	17.4	15.0	0.7
	건강한 편	16.0	38.1	30.8	14.5	0.6
응답자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22.0	46.3	19.7	11.6	0.4
	단순근로가능	43.5	41.7	14.9	0	0
	단순근로미약자	37.2	36.9	20.6	4.9	0.3
	근로능력없음	46.2	37.4	15.2	1.3	0
응답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26.1	54.9	15.0	4.0	0
	실업자	11.0	52.3	8.9	27.8	0
	비경제활동인구	41.4	37.7	17.8	2.9	0.2
동거 가구원 수	1명	40.5	36.0	18.3	5.0	0.4
	2명	38.9	43.9	14.5	2.7	0
	3명 이상	36.9	39.5	19.6	4.0	0
가구 구성	단독가구	40.5	36.0	18.3	5.0	0.4
	모/부자가구	39.7	48.5	9.1	2.7	0
	조손가구	20.3	45.2	34.5	0	0
	다문화가구	28.6	71.4	0	0	0
	기타(일반가구)	41.3	38.5	16.1	4.2	0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44.3	30.9	20.2	4.5	0
	51만원~70만원 이하	42.5	36.4	16.7	4.2	0.3
	71만원~100만원 이하	40.8	38.6	17.5	2.9	0.3
	101만원~150만원 이하	33.4	48.0	15.8	2.8	0
	151만원 이상	28.3	45.2	17.1	9.4	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앞서 살펴본 건강이나 가족의 수입에 비해, 주거 환경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가 34.5%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31.5%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6-7〉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3) 주거 환경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전체		12.0	19.2	34.5	31.5	2.8
응답자 성별	남성	10.5	21.6	36.5	29.3	2.1
	여성	13.7	16.6	32.4	33.9	3.5
응답자 연령	만34세 이하	9.6	18.4	36.4	33.7	1.9
	만35~49세	7.9	24.2	30.3	35.3	2.3
	만50~64세	14.8	17.3	35.7	28.9	3.3
응답자 교육수준	초졸이하	12.8	18.0	35.7	30.8	2.7
	중졸	10.8	22.4	29.7	36.1	1.0
	고졸	14.1	18.4	32.1	31.1	4.2
	대졸이상	6.9	18.6	46.2	26.9	1.4
응답자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14.4	21.0	32.9	29.3	2.4
	보통	6.5	20.4	40.5	31.4	1.3
	건강한 편	2.4	7.1	39.4	44.7	6.5
응답자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6.0	15.6	44.3	30.4	3.6
	단순근로가능	8.6	33.7	21.6	33.6	2.6
	단순근로미약자	8.0	19.0	42.8	25.8	4.4
	근로능력없음	17.1	17.8	29.4	34.1	1.7
응답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7.4	14.2	50.8	22.1	5.5
	실업자	1.1	12.9	56.7	29.4	0
	비경제활동인구	12.9	19.8	32.4	32.3	2.7
동거 가구원 수	1명	14.1	16.1	36.9	29.2	3.7
	2명	12.7	24.7	30.4	30.4	1.8
	3명 이상	6.7	16.9	36.2	38.0	2.2
가구 구성	단독가구	14.1	16.1	36.9	29.2	3.7
	모/부자가구	14.8	16.7	26.4	39.4	2.8
	조손가구	0	34.1	36.8	29.1	0
	다문화가구	0	71.4	28.6	0	0
	기타(일반가구)	10.7	20.9	34.6	31.8	2.1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14.4	21.2	42.0	18.5	3.9
	51만원~70만원 이하	14.6	19.6	31.9	30.1	3.8
	71만원~100만원 이하	10.3	24.3	33.8	30.1	1.5
	101만원~150만원 이하	11.3	11.0	30.7	45.5	1.5
	151만원 이상	7.9	16.0	43.4	27.6	5.1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가족 관계 또한 만족한다는 응답이 불만족한다라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그저 그렇다는 비율이 36.6%로 가장 많았고, 만족스럽다는 비율이 26.3%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중년층(만35~49세)의 경우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높았다. 또한 건강 상태가 좋은 집단인 경우에도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가구 구성에 따라서 가족 관계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동거하는 가구원의 수가 많은 경우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동거 가구

원이 3명 이상인 경우 절반에 가까운 48.1%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단독가구의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또한 모/부자가구로 이루어진 경우,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조손가구, 단독가구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8〉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4) 가족 관계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전체		17.6	15.1	36.6	26.3	4.3
응답자 성별	남성	18.0	18.1	38.0	21.9	4.0
	여성	17.2	11.9	35.1	31.0	4.7
응답자 연령	만34세 이하	13.6	14.9	41.8	24.5	5.2
	만35~49세	10.6	11.3	33.0	38.3	6.7
	만50~64세	22.3	16.9	36.3	21.7	2.9
응답자 교육수준	초졸이하	23.2	21.5	65.6	16.0	3.7
	중졸	15.8	14.9	37.7	29.6	2.1
	고졸	18.6	12.6	29.9	32.7	6.2
	대졸이상	8.2	11.7	55.3	21.3	3.5
응답자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19.7	15.6	39.7	22.2	2.8
	보통	8.8	13.2	28.1	37.6	12.4
	건강한 편	12.4	14.2	25.5	41.5	6.5
응답자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6.1	10.4	41.2	37.2	5.2
	단순근로가능	17.7	12.1	44.4	21.5	4.3
	단순근로미약자	13.0	17.3	41.0	23.0	5.8
	근로능력없음	24.5	16.7	31.2	24.4	3.7
응답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5.4	18.0	30.2	40.1	6.4
	실업자	4.7	18.7	49.7	8.5	18.5
	비경제활동인구	19.1	14.8	36.5	26.0	3.5
동거 가구원 수	1명	27.3	19.8	38.2	12.2	2.5
	2명	13.7	12.9	37.5	31.1	4.8
	3명 이상	3.7	8.9	31.9	48.1	7.4
가구 구성	단독가구	27.3	19.8	38.2	12.2	2.5
	모/부자가구	18.3	9.9	23.2	44.1	4.6
	조손가구	1.0	23.0	41.6	28.4	6.1
	다문화가구	0	0	28.6	71.4	0
	기타(일반가구)	8.0	9.7	39.6	36.5	6.3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22.7	19.8	38.3	18.1	1.1
	51만원~70만원 이하	29.9	18.3	35.5	12.5	3.8
	71만원~100만원 이하	12.7	16.3	41.0	28.3	1.6
	101만원~150만원 이하	9.2	11.6	28.0	43.5	7.7
	151만원 이상	7.2	2.1	42.7	35.7	12.4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응답자들은 대체로 직업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4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연령이 높은 경우

직업에 대해 불만족했다. 만 50~64세의 경의 절반이 넘는 응답자(52.4%)가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력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학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직업에 대해 불만족하였다.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응답자의 57.4%가 ‘매우 불만족’ 하였으나 이러한 비율은 대졸 이상의 경우 28.7%로 크게 줄었다.

〈표 4-6-9〉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5) 직업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전체		45.0	26.4	23.6	4.3	0.7
응답자 성별	남성	49.0	24.9	22.4	3.5	0.3
	여성	40.8	28.0	25.0	5.1	1.1
응답자 연령	만34세 이하	22.2	14.5	49.8	11.6	1.9
	만35~49세	48.3	31.2	15.7	4.5	0.3
	만50~64세	52.4	28.8	17.1	1.4	0.4
응답자 교육수준	초졸이하	57.4	27.1	14.0	1.5	0
	중졸	47.3	34.4	16.9	1.4	0
	고졸	42.1	22.5	26.6	7.0	1.8
	대졸이상	28.7	23.9	41.7	5.8	0
응답자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52.1	28.9	18.3	0.7	0.1
	보통	25.0	28.8	34.2	10.6	1.4
	건강한 편	18.9	9.0	47.2	21.1	3.8
응답자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14.6	12.1	53.9	16.7	2.8
	단순근로가능	31.7	35.3	33.0	0	0
	단순근로미약자	52.5	27.4	18.0	1.7	0.3
	근로능력없음	56.5	29.8	12.2	1.3	0.2
응답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23.4	22.5	33.3	19.6	1.2
	실업자	19.7	28.8	51.6	0	0
	비경제활동인구	47.7	26.5	21.7	3.4	0.7
동거 가구원 수	1명	48.0	24.6	23.5	2.5	1.4
	2명	41.5	31.3	23.2	3.8	0.2
	3명 이상	44.4	22.2	24.7	8.8	0
가구 구성	단독가구	48.0	24.6	23.5	2.5	1.4
	모/부자가구	41.5	35.5	18.9	3.5	0.6
	조손가구	23.9	20.8	37.2	18.1	0
	다문화가구	28.6	0	71.4	0	0
	기타(일반가구)	47.1	26.1	22.7	4.1	0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36.5	30.9	23.0	5.3	4.2
	51만원~70만원 이하	50.4	27.4	20.9	0.9	0.3
	71만원~100만원 이하	45.0	27.5	24.7	2.6	0.3
	101만원~150만원 이하	43.1	25.0	22.5	9.4	0
	151만원 이상	45.1	15.0	32.4	7.4	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사회적 친분관계를 살펴보면,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이 만족스럽다는 비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다소 나타났다. 먼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사회적 친분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만34세 이하로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는 사회적 친분관계가 만족스럽다(대체로 만족/매우 만족 포함)로 53.5%로 절반 이상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이러한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점차 감소한다. 또한 대졸이상인 경우(41.0%), 건강한 편인 경우(66.3%) 근로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64.1%),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51.7%)에도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해 만족(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포함)하는 비율이 높다.

〈표 4-6-10〉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6) 사회적 친분관계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전체		23.3	22.9	27.3	24.1	2.4
응답자 성별	남성	24.9	26.7	25.8	20.9	1.6
	여성	21.6	18.8	28.9	27.6	3.17
응답자 연령	만34세 이하	15.9	7.7	22.9	48.5	5.0
	만35~49세	24.9	24.4	24.0	24.8	1.9
	만50~64세	25.5	28.1	30.4	14.4	1.5
응답자 교육수준	초졸이하	32.3	30.3	25.5	11.6	0.3
	중졸	18.5	27.8	30.9	21.1	1.6
	고졸	24.9	17.1	25.8	28.1	4.0
	대졸이상	10.6	19.1	29.2	38.8	2.2
응답자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27.9	26.9	28.5	15.7	1.1
	보통	8.8	16.3	25.5	43.3	6.2
	건강한 편	8.0	4.3	21.5	59.6	6.7
응답자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4.9	5.8	25.1	58.6	5.5
	단순근로가능	21.5	14.3	38.3	19.6	6.4
	단순근로미약자	19.5	26.7	39.1	14.4	0.3
	근로능력없음	32.9	29.8	20.4	15.7	1.2
응답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8.1	9.6	30.7	50.2	1.5
	실업자	17.0	15.6	45.3	20.3	1.9
	비경제활동인구	24.7	24.2	26.3	22.4	2.4
동거 가구원 수	1명	23.0	27.8	27.6	19.6	2.1
	2명	24.1	19.1	27.8	25.8	3.3
	3명 이상	22.9	18.8	25.8	31.1	1.5
가구 구성	단독가구	23.0	27.8	27.6	19.6	2.1
	모/부자가가구	22.6	18.9	26.9	29.3	2.3
	조손가구	13.6	1.5	42.9	41.9	0
	다문화가구	28.6	0	0	71.4	0
	기타(일반가구)	26.1	22.9	23.9	23.8	3.3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21.9	24.3	34.2	15.0	4.6
	51만원~70만원 이하	26.4	28.5	28.5	15.8	0.8
	71만원~100만원 이하	23.5	26.5	23.9	23.1	3.1

	101만원~150만원 이하	18.5	13.5	22.9	42.7	2.4
	151만원 이상	26.3	12.2	34.9	25.1	1.5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여가생활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여가생활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일반국민 대상 조사랑 비교할 수 있는데, 2014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53.2%가 여가생활에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장기수급자 10.7%만이 여가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연령이 낮은 경우, 학력이 높은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건강한 경우에는 이러한 여가생활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다소 줄어들었다.

〈표 4-6-11〉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7) 여가생활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전체		31.0	34.0	24.4	9.3	1.4
응답자 성별	남성	30.3	34.2	26.2	7.2	2.1
	여성	31.8	33.7	22.5	11.5	0.6
응답자 연령	만34세 이하	17.5	23.0	41.5	14.0	4.0
	만35~49세	34.1	39.0	18.7	7.1	1.0
	만50~64세	34.9	35.9	20.3	8.4	0.5
응답자 교육수준	초졸이하	43.6	34.3	16.2	5.6	0.3
	중졸	28.3	48.2	15.3	7.9	0.3
	고졸	29.1	32.4	22.8	13.1	2.7
	대졸이상	18.9	16.8	56.1	7.1	1.0
응답자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36.0	37.2	20.9	5.4	0.4
	보통	23.3	27.0	30.9	18.1	0.7
	건강한 편	7.2	20.0	40.1	25.2	7.5
응답자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14.2	23.3	40.0	22.6	0
	단순근로가능	18.7	32.0	32.2	7.5	9.6
	단순근로미약자	24.7	41.3	26.3	6.7	1.0
	근로능력없음	43.4	35.2	15.6	5.4	0.4
응답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21.5	24.9	39.1	14.5	0
	실업자	10.7	40.3	41.8	7.1	0
	비경제활동인구	32.6	34.3	22.6	9.0	1.5
동거 가구원 수	1명	31.3	33.1	25.8	7.0	2.9
	2명	26.2	37.5	25.9	10.3	0.2
	3명 이상	38.3	30.2	19.1	12.4	0
가구 구성	단독가구	31.3	33.1	25.8	7.0	2.9
	모/부자가구	31.2	44.3	17.7	6.8	0
	조손가구	13.6	14.8	47.7	23.9	0
	다문화가구	28.6	0	0	71.4	0
	기타(일반가구)	34.4	34.8	20.8	9.9	0.2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29.0	34.2	27.9	6.5	2.4

51만원~70만원 이하	34.3	39.4	16.5	6.8	3.0
71만원~100만원 이하	26.6	32.7	33.2	6.9	0.5
101만원~150만원 이하	32.4	32.5	18.4	16.8	0
151만원 이상	36.2	23.6	27.56	12.1	0.6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위에서 본 여러 사항을 고려시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물었다. 아래 <표 4-6-12>를 보면, 장기수급자는 전반적으로 삶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다. 위의 세부문항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유사하게, 연령이 높은 경우, 학력이 낮은 경우, 건강하지 않은 경우,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 삶에 대한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4-6-12>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8) 전반적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전체		21.6	35.9	22.6	8.8	0
응답자 성별	남성	22.43	38.07	32.2	7.15	0.15
	여성	20.77	33.51	35.06	10.66	0
응답자 연령	만34세 이하	11.81	20.37	43.78	24.04	0
	만35~49세	19.87	40.36	33.41	6.36	0
	만50~64세	26.2	39.9	29.7	4.05	1.4
응답자 교육수준	초졸이하	34.12	37.37	26.07	2.44	0
	중졸	19.54	47.56	30.4	2.49	0
	고졸	20.54	33.37	29.95	15.94	0.2
	대졸이상	6.33	23.3	60.92	9.45	0
응답자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26.5	40.38	31.38	1.74	0
	보통	9.75	19.89	48.39	21.24	0.73
	건강한 편	1.99	22.01	34.29	41.71	0
응답자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4.72	19.83	47.42	28.03	0
	단순근로가능	14.3	36.03	36.66	13.01	0
	단순근로미약자	16.9	47.71	32.85	2.2	0.34
	근로능력없음	32.18	36.8	27.69	3.34	0
응답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10.98	24.28	41.15	23.59	0
	실업자	4.6	33.44	61.96	0	0
	비경제활동인구	23.16	36.84	31.78	8.14	0
동거 가구원 수	1명	23.78	36.83	33.59	5.63	0.17
	2명	19.11	35.05	35.37	10.47	0
	3명 이상	21.16	35.25	30.66	12.93	0
가구 구성	단독가구	23.78	36.83	33.59	5.63	0.17
	모/부자가구	22.95	34.66	34.16	8.23	0
	조손가구	13.61	14.82	39.96	31.61	0
	다문화가구	28.6	0	0	71.4	0
	기타(일반가구)	19.81	39.91	32.19	8.09	0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19.34	43.54	30.15	6.97	0
	51만원~70만원 이하	26.2	38.58	29.04	6.18	0
	71만원~100만원 이하	19.61	38.76	35.45	5.92	0.26
	101만원~150만원 이하	19.91	27.15	37.3	15.64	0
	151만원 이상	21.64	25.8	38.03	14.53	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3. 우울 정도

장기수급자의 우울 정도는 미국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CES)의 CESD 축약형 11문항 척도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이 11문항 축약형 척도는 한국복지패널 등에서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척도이다.

먼저 다음 〈표 4-6-13〉은 11개 문항별 분포를 나타낸다. 아래 문항 중 ‘2) 비교적 잘 지냈다’와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를 역코딩하여 11개 문항의 합을 구하고(총점 0~33점)에 20/11을 곱하여 계산된 값이 16점보다 높으면 우울하다고 정의할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먼저 이 결과 평균값은 24.7(sd=0.68, 총점 0~33점)로 다소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울 유무를 나타내는 변수(0=우울하지 않음, 1=우울함)를 구성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7%가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수급자의 우울감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4-6-13〉 우울 측정 CESD 11문항별 분포

(단위: %)

구분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38.58	30.00	23.41	8.00
2) 비교적 잘 지냈다.	16.80	29.78	27.52	25.90
3) 상당히 우울했다.	25.77	33.00	25.05	16.18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20.39	30.44	30.91	18.26
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26.70	29.46	24.36	19.48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23.25	30.88	29.45	16.43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20.61	34.76	29.58	15.04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46.33	32.27	16.80	4.59
9) 마음이 슬펐다.	25.95	34.90	27.19	11.96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53.47	27.39	14.45	4.69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27.59	29.23	28.29	14.89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장기수급자의 우울 정도를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여성의 경우 근로하
게나마 남성의 경우보다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만 34세 이하로 젊은 연령의 경우,
대졸 이상인 경우, 건강한 편인 경우, 근로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재 일을
하는 경우, 동거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가구 소득이 높은 경우에 우울감이 낮은 특징
을 보였다. 이는 다시 말해 학력이 낮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
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같이 거주하는 가구원이 없는 단독 가구인 경우, 가구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우울함에 더욱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
을 가진 장기수급자의 정신 건강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4-6-14〉 우울 측정 CESD

(단위: 점수, %)

구분		CESD 척도 평균값	우울하지 않음	우울함
전체		24.7	28.3	71.7
응답자 성별	남성	24.0	30.6	69.4
	여성	25.5	25.7	74.3
응답자 연령	만34세 이하	18.0	44.0	56.0
	만35~49세	26.0	24.1	75.9
	만50~64세	26.8	24.0	76.0
응답자 교육수준	초졸이하	26.9	23.4	76.7
	중졸	26.5	23.0	77.0
	고졸	24.2	30.8	69.2
	대졸이상	19.9	37.3	62.8
응답자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27.9	19.3	80.7
	보통	17.0	44.9	55.1
	건강한 편	11.8	69.1	30.9
응답자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15.6	54.5	45.5
	단순근로가능	23.5	26.6	73.4
	단순근로미약자	26.3	23.3	76.7
	근로능력없음	27.9	20.3	79.7
응답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16.1	52.7	47.4
	실업자	23.2	23.7	76.3
	비경제활동인구	25.4	26.7	73.3
동거 가구원 수	1명	27.2	21.2	78.8
	2명	23.0	31.0	69.0
	3명 이상	22.2	38.7	61.3
가구 구성	단독가구	27.2	21.2	78.8
	모/부자가구	28.7	16.4	83.6
	조손가구	13.3	67.1	32.9
	다문화가구	19.0	71.4	28.6
	기타(일반가구)	22.1	34.5	65.5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25.0	32.3	67.7
	51만원~70만원 이하	27.8	19.6	80.4
	71만원~100만원 이하	24.5	26.3	73.7
	101만원~150만원 이하	22.8	37.1	62.9

	151만원 이상	19.7	36.2	63.8
--	----------	------	------	------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4. 삶의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다음은 현재 삶의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0)은 삶에서 최악의 상태, 꼭대기(10)은 최선의 상태를 나타낸다. 아래에서는 이를 부정적(0에서 4), 보통(5), 긍정적(6-10)으로 재구성하였다. 현재 삶의 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69.9%로 삶에 대해 긍정적(6에서 10)으로 생각하는 비율인 16.73%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4-6-15〉와 같다. 두드러지는 특징은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이다. 연령이 어린 경우, 현재 삶의 상태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은 집단의 경우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건강 상태에 따른 변화도 크게 나타난다. 본인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현재 삶의 상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삶의 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동거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가구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삶의 상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찾아볼 수 있었다.

〈표 4-6-15〉 현재 삶의 상태

(단위: %)

구분		부정적 (0-4)	보통 (5)	긍정적 (6-10)
전체		69.9	13.4	16.7
응답자 성별	남성	69.0	14.9	16.2
	여성	71.0	11.7	17.3
응답자 연령	만34세 이하	58.7	4.1	37.3
	만35~49세	65.7	19.3	15.0
	만50~64세	76.1	14.3	9.6
응답자 교육수준	초졸이하	79.6	10.8	9.6
	중졸	75.2	13.7	11.1
	고졸	61.0	15.5	23.5
	대졸이상	70.2	11.3	18.6
응답자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78.8	12.5	8.6
	보통	42.2	22.8	35.0
	건강한 편	39.2	10.2	50.6

응답자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46.7	12.1	41.2
	단순근로가능	77.1	9.6	13.3
	단순근로미약자	75.2	14.3	10.5
	근로능력없음	75.4	14.2	10.4
응답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58.5	20.6	20.9
	실업자	58.6	7.8	33.6
	비경제활동인구	71.3	13.1	15.7
동거 가구원 수	1명	73.8	13.3	12.9
	2명	71.5	10.6	18.0
	3명 이상	59.4	17.9	22.7
가구 구성	단독가구	73.8	13.3	12.9
	모/부자가구	72.9	15.0	12.1
	조손가구	44.8	0	55.3
	다문화가구	28.6	71.4	0
	기타(일반가구)	69.1	15.1	15.9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58.5	15.5	26.0
	51만원~70만원 이하	78.1	10.5	11.5
	71만원~100만원 이하	76.0	11.7	12.3
	101만원~150만원 이하	61.3	18.7	19.9
	151만원 이상	60.0	12.5	27.5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5.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다음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결과이다. 먼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주요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알고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경험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또한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에 한해 해당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다.

먼저 대부분의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국민연금의 경우 81%의 응답자가 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며, 장애인 연금의 경우에도 79.7%가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에 반해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방과 후 교실 등 아동지원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56.6%),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또한 62.4%, 긴급복지제도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비율이 61.4%에 달하였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험한 비율은 제도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경험한 비율이 4.41%에 불과하였으며, 국민연금 또한 응답자의 12.0%만이 경험하였다. 하지만 에너지 비용 지원의

경우 80%이상이 경험한 적이 있었다. 제도 경험자들은 대체로 해당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다른 제도에 비해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 결과만을 토대로 이에 대한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의 2015년 만족도 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 또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기타 공적연금, 개인 연금에 비해 낮으며, 저소득층은 특히 보험료 납입 부담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아동수당,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방과 후 교실 등 아동지원,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른 제도에 비해 다소 낮았다. 해당 결과로 이를 일반화할 수 없지만, 제도의 인지 여부가 제도가 사회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6-16〉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경험 및 만족도

(단위: %)

구분	인지 여부		사회적 필요성		경험여부		만족도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불필요	필요	없음	있음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만족
1) 국민연금	19.0	81.0	9.2	90.8	88.1	12.0	5.9	31.4	33.8	28.9
2) 기초연금	21.6	78.4	9.2	90.8	85.5	14.5	1.7	3.8	25.9	68.6
3) 노인장기요양보험	39.8	60.2	11.3	88.8	95.6	4.4	7.6	6.9	31.3	54.3
4) 장애인연금	20.3	79.7	8.5	91.5	58.7	41.3	8.8	21.3	50.1	19.8
5) 아동수당	46.9	53.1	22.9	77.1	84.5	15.5	6.5	11.6	44.2	37.7
6)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방과 후 교실 등 아동지원	56.6	43.4	23.3	76.7	85.9	14.1	5.0	7.9	48.2	38.9
7)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62.4	37.6	20.7	79.3	85.1	14.9	0.9	3.1	50.3	45.7
8) 긴급복지제도	61.4	38.7	9.1	90.9	70.6	29.4	2.1	2.5	59.5	35.9
9) 장기전세임대주택	38.3	61.7	8.8	91.2	57.8	42.2	6.2	9.2	51.2	33.4
10) 간병, 돌봄 지원 등의 바우처	36.7	63.3	10.2	89.8	77.8	22.3	6.7	4.5	43.3	45.4
11) 에너지 비용 지원(사용료 면제 및 감면방식)	24.5	75.5	3.9	96.1	19.4	80.6	2.8	13.5	53.0	30.8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6. 신뢰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및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0점에서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데, 아래에서는 신뢰하지 않음(0-4), 보통(5), 신뢰함(6-10)으로 재구성하였다.

장기수급자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62.3%의 응답자가 사회보장제도를 신뢰하였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4%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해 일반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42.4%에 그쳤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3.3%에 달하였다.

〈표 4-6-17〉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신뢰

(단위: %)

구분		신뢰하지 않음 (0-4)	보통 (5)	신뢰함 (6-10)
전체		9.4	28.3	62.3
응답자 성별	남성	9.9	28.6	61.5
	여성	8.9	28.0	63.1
응답자 연령	만34세 이하	3.8	28.7	67.5
	만35~49세	9.3	35.7	55.0
	만50~64세	11.6	24.9	63.5
응답자 교육수준	초졸이하	13.0	23.0	64.0
	중졸	8.1	35.1	56.9
	고졸	9.3	26.5	64.2
	대졸이상	5.7	32.3	62.0
응답자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10.7	27.9	61.5
	보통	7.1	36.2	56.7
	건강한 편	3.8	24.0	72.2
응답자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3.4	37.1	59.6
	단순근로가능	10.1	8.1	81.7
	단순근로미약자	11.4	20.2	68.5
	근로능력없음	10.8	32.6	56.6
응답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10.5	33.2	56.3
	실업자	3.1	4.8	92.2
	비경제활동인구	9.6	29.0	61.4
동거 가구원 수	1명	11.2	27.2	61.6
	2명	7.4	29.0	63.6
	3명 이상	8.7	29.5	61.7
가구 구성	단독가구	11.2	27.2	61.6
	모/부자가가구	7.1	37.1	55.9
	조손가구	0	29.9	70.1
	다문화가구	0	71.4	28.6
	기타(일반가구)	10.1	25.3	64.7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13.7	28.0	58.4
	51만원~70만원 이하	14.1	22.8	63.1
	71만원~100만원 이하	7.6	28.3	64.1
	101만원~150만원 이하	4.7	35.9	59.4
	151만원 이상	5.2	28.7	66.1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표 4-6-18〉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

(단위: %)

구분		신뢰하지 않음 (0-4)	보통 (5)	신뢰함 (6-10)
전체		23.3	34.3	42.4
응답자 성별	남성	24.6	32.2	43.3
	여성	21.9	36.7	41.4
응답자 연령	만34세 이하	12.7	31.3	56.0
	만35~49세	20.9	40.5	38.7
	만50~64세	28.4	32.8	38.8
응답자 교육수준	초졸이하	28.4	30.1	41.4
	중졸	20.9	41.7	37.4
	고졸	26.1	31.3	42.7
	대졸이상	10.4	39.2	50.4
응답자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25.8	34.6	39.6
	보통	21.0	41.7	37.4
	건강한 편	9.9	26.4	63.8
응답자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8.3	30.6	61.2
	단순근로가능	28.8	36.9	34.4
	단순근로미약자	27.0	31.6	41.4
	근로능력없음	26.5	36.6	36.9
응답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14.9	46.2	39.0
	실업자	7.9	32.9	59.2
	비경제활동인구	24.6	33.5	41.9
동거 가구원 수	1명	27.0	32.5	40.6
	2명	21.0	36.5	42.6
	3명 이상	19.2	34.8	46.0
가구 구성	단독가구	27.0	32.5	40.6
	모/부자가구	19.1	44.7	36.2
	조손가구	0	41.5	58.5
	다문화가구	0	28.6	71.4
	기타(일반가구)	25.3	30.7	44.0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19.8	33.7	46.5
	51만원~70만원 이하	30.0	33.4	36.6
	71만원~100만원 이하	26.2	29.6	44.2
	101만원~150만원 이하	14.6	44.3	41.1
	151만원 이상	17.1	31.4	51.5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7.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이 절에서는 우리 연구에서 실시한 「근로능력 장기수급자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근로능력 장기수급자의 아동·청소년 시절 여러 경험, 건강, 주거 환경, 가족 관계 등 다양한 생활 영역 전반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우울 정도,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인지여부, 경험여부, 만족도, 사회 및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주관적 지표들은 이들이 자신들의 삶, 이를 둘러싼 사회환경에 얼마나 만족하고 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는 이들의 소득 수준, 일 경험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가 보여주지 못하는 삶의 또 다른 이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청소년 시절의 여러 어려웠던 경험을 보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경험을 한 비율이 65.6%,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한 비율이 77.5%, 생계를 위해 일한 경험이 67.0%, (구)생활보호대상자로 국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72.2%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장기수급자에게서 이러한 아동·청소년 시절의 여러 부정적 경험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때, 이러한 빈곤이나 가족 해체 등에 대한 조기 개입(intervention)이 필요함을 볼 수 있다. 가족 상담, 부부 상담 등 가족 해체에 대한 개입,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수급가정 아동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 등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장기수급자의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사회적 친분 관계, 여가생활 등 세부 영역에서부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까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예상해 볼 수 있듯,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여러 영역에서 일관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각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가구 수입에 대한 불만족(매우 불만족, 불만족 포함하여 78.6%)이 가장 두드러졌다. 건강에 대한 불만족이 그 뒤를 이어, 건강에 대한 불만족(우 불만족, 불만족 포함하여 71.4%)도 높은 편이었다. 이에 반해 주거 환경이나 가족 관계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수급자의 여러 특성과 관련하여 비교할 경우,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장기수급자의 우울감을 미국 CES-D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장기수급자의 우울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24.7, sd=0.68, range 0-33)이며, 전체 응답자의

71.7%가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껏 장기수급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이들의 소득 증대, 경제 활동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우울은 단순히 이들의 정신 건강적 측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장기수급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각종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긴급복지제도와 같이 이들에게 주요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제도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제도를 경험한 사람에 한해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본 결과, 제도에 만족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았는데, 이는 보험연구원(2015) 등 기존 연구를 통해 볼 때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이 높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등 저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등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장기수급자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신뢰는 높은 편으로 62.3%의 응답자가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일반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2.3%로 다소 낮았다. 이는 적어도 국가의 공적지원체계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장기수급자들이 신뢰함을 보여준다.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는 사회를 결속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흔히 “social glue”(사회적 아교)라고 일컬어진다(van Lange, 2015). 이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며 사회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an Lange, 2015). 빈곤에 처해 있고, 우울감을 겪는 등 장기수급자의 여러 불리 경험을 볼 때, 이러한 신뢰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이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자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들의 사회에 대한 신뢰는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 이웃, 공적 체계 등 여러 사회 환경과의 긍정적 상호 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주요연구결과

제2절 정책제언

제1절 주요연구결과

우리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로 장기간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욕구에 부합되는 급여와 일자리 지원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분석하고 여기서 근로능력(만 18~64세)이 있는 장기수급자를 추출하여, 전국 1,005명을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보면, 장기수급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남성 52.1%, 여성 47.9%, 연령을 기준으로 50~64세가 54.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연령대 순으로 35~49세 23.7%, 19~34세 18.7%, 18세 이하 18.7% 순이었다. 장기수급자에 여성과 고령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회적 특성을 보면 건강한 경우 33.1%, 장애가 있는 경우 33.1%로 동일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질병이 있는 경우가 29.2%였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약 67%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근로능력유무에 따라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장기수급자가 74.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있는 경우는 25.4%에 불과하였다. 평균 수급개월수를 살펴보면, 장기수급자 중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중이 높았으나 수급개월수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길게 나타났다(남성 91.4개월, 여성 92.0개월). 연령은 50~64세가 92.5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은 18세 이하 92.2개월, 19~34세 91.5개월, 35~49세 89.9개월로 근로가 가장 활발한 연령대에서 수급개월수가 가장 짧게 나타났다.

근로능력 장기수급자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가구 및 장기수급자의 특성을 보면, 여성(43.3%)보다는 남성(56.7%)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74.2%에 해당하는 비율이 50~64세 인데,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장기수급자 중 중년의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근로능력정도가 양호한 50세 이하의 장기수급자에 비해 이들에게는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요소가 적을 것으로 보여진다.

근로능력 장기수급자의 학력별 특성으로는 고졸 이상이 39.9%, 초졸 이하가 32.3%로 가장 높았는데, 장기수급자 중에는 저학력자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학력별 임금격차를 생각해 볼때 이들은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며 장기적으로 수급자로 머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84.5%의 ‘건강하지 않은편’의 응답자와 52.5%의 ‘근로능력없음’의 응답자를 고려해 보면 연령을 기준으로 한 근로능력 장기수급자 중에는 건강상 실제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응답자가 많으며,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도 나쁜 건강상태로 일하게 될 것임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많은 수의 응답자가 청년보단 중년인 것을 고려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상황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능력 장기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평균 77.4만원, 중위로는 70만원이었으며, 50만원 초과~70만원 이하가 30.8%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그리고 건강하고 근로가 가능한 가구로 일을 할 수 있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지출수준이 높았다.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평균 83.7만원, 중위 70만원으로 지출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즉 근로능력 장기수급가구는 생기는 소득 거의 모두를 지출하고 있고, 위기 발생시 여유 자금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 총자산액은 약 1,815만원에 불과했으며, 중위자산도 400만원에 불과해 자산 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 총자산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36.3%로 가장 많았으며, 자산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1.2%에 불과하다. 주택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아파트(43.7%)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단독주택이 34.7%로 두 주택 유형이 거의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이외에 비정형적인 주택인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은 0.8%, 오피스텔 및 고시원 0.8%, 판잣집 등이 0.4%로 약 2% 정도의 수급가구가 매우 불안정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에 대한 의식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는 주된 이유는 소득활동을 그만두게 된 점이 약 29%로 높았다. 다음으로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서가 약 20% 정도이었다. 생계 및 의료급여에서 벗어날 가능성과 예상 기간을 보면, 생계급여는 응답자의 70% 이상, 의료급여는 약 77%정도가 수급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수급 탈출에 부정적이었으며, 수급 탈출 가능성에 대해, 남성은 1-3년 이내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3년 이후가 가장 많았다. 수급에서 벗어나도 계속 받고 싶은 급여를 보면, 기존연구들과 동일하게 의료비 지

원이 높았으며, 다음은 교육비이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의료비 지원에 대한 필요가 컸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 경험 비율은 여성이 5.7%로 남성에 조금 높았으며, 특성별로 만 50~64세, 고졸학력 집단, 건강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남녀 모두 장애, 질병 등으로 몸이 아픈 점을 지적했으며, 건강한 편인 경우에는 학업을 이유로 든 비율이 높았다. 첫 번째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보면 1년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남녀 모두 1년 이하가 높았지만, 여성은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우리 연구에서 탈수급은 '생계급여를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받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있으며, 전체 조사 대상자의 7.3%가 탈수급 경험이 있었다. 남성보다 여성이, 만34세 이하의 연령대가, 교육수준, 근로능력 및 가구원수가 높거나 많을수록,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탈수급 경험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생계급여 탈수급 사유는 '소득이 늘어서'가 67.4%로 가장 높았으며, '행정상의 이유'와 '재산이 늘어서'가 각각 23.6%와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소득이 늘어서'가 61.9%인 반면, 여성은 72.3%로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이 소득 증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 소득변화의 주요 요인은 '가구주의 소득이 늘어서'로 55.8%로 가장 높았으며, '가구원의 소득이 늘어서'는 19.8%로 두 번째로 높았다. 행정상의 이유로는 '가구여건 변화는 없으나 수급자 판정결과가 달라져서'로 응답한 비중이 22.5%로 나타났다.

기초보장제도로부터 '탈수급'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26.6%가 '원한다'로 응답하였으며, '원하지 않는다'로 응답한 비율은 7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만34세 이하의 경우 탈수급을 원하는 비율이 6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 및 근로능력이 높을수록 탈수급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탈수급을 원하는 비율이 38.2%에 불과 했지만 실업자는 61.7%가 탈수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만을 대상으로 취업 경험 여부를 분석시 대상자의 41.8%가 2011년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 일을 한 경험이 있으며, 취업경험자의 비율이 남성(33.7%)보다 여성(49%)이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취업경험 비율이 높았다. 탈수급시 노동시장 경험자의 취업기간은 평균 21.8개월로 이중 취업기간이 1년 이하인 비율은 응답자의 약 69%이었다. 남성은 21.7개월, 여성은 21.9개월로 유사한 기간을 보여주고 있

다. 연령대별로는 만35~49세의 취업기간이 평균 62.9개월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긴 취업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탈수급이후 첫 번째 기간 종사상 지위를 보면, 48.3%가 임시직, 38.9%는 상용직, 12.9%는 일용직 임금근로자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종사상의 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 보다는 임시직과 상용직이 탈수급을 촉진시키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탈수급 시 노동시장 경험자의 직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65.9%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서비스종사자(26.7%), 사무종사자(3.6%) 순으로 나타났다. 탈수급 시 노동시장 경험자(첫번째 기간)가 일을 그만두게 한 사유로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가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나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이 꼽혔다. 대상자가 비자발적으로 해당 일자리를 떠나고 있었다.

고용희망척도(K-EHS)와 지각된 고용장벽 척도(PEBS)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근로가능하다고 응답시 고용희망 점수가 가장 높았고(3.5점), 단순근로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2.6점), 단순근로미약이라고 응답한 경우(1.9점),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1.7점)의 순이었다. 고용장벽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인적자본을 가장 큰 고용장벽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근로능력이 미약할수록 인적자본의 부족을 크게 지각하고 있었다. 자활사업과 정부 일자리 사업, 탈수급시 일을 한 경험 여부에 따른 고용희망을 분석시, 어떠한 일 경험이든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에 대상자에 비해 고용희망이 높았다. 척도 분석을 통해 보면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경험 후, 정책적, 정서적 지원이 추가적으로 선행될 경우 다음에 다시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높이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관련 기관 등이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능력 장기수급자들이 생애사, 만족도, 정서적 현황 및 사회보장제도 등에 대한 인식을 보면, 먼저 생애사 측면에서, 전체의 27.2%가 아동·청소년 시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경험이 있으며, 응답자의 13.6%가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응답자의 연령이 어린 경우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비율이 높아서 만 34세 이하의 경우, 42.8%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이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주어 아동·청소년기 가계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3.0%에 달하였다. (구)생활보호대상자로서 국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을 보면 27.8%가 경험이

있었으며, 만 34세 이하 집단의 경우 이러한 비율이 7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결국 아동·청소년기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장기수급자의 경우 빈곤대물림을 경험한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자신의 자녀세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3세대에 걸쳐 빈곤대물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에서는 주거 환경이나 가족 관계 영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이 높았지만, 연령이 낮을 경우, 현재 삶의 상태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현재 삶의 상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근로능력이 있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삶의 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서적 측면에서 우울감을 보면, 평균값은 24.7(sd=0.68)로 다소 우울한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울 유무보면 응답자의 71.7%가 우울한 것으로 분석되어, 장기수급자의 우울감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정신건강에 대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장기수급자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신뢰는 높아서, 62.3%의 응답자가 사회보장제도를 신뢰하였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4%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해 일반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주변인보다는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제2절 정책제언

1. 계통분석을 통한 대상자 분류 및 특성

가. 탈수급 경험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분석은 사회보장정보망과 실태조사를 통해 각각의 해당 (설문)항목에 대한 세부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 근로능력 장기수급자의 각 부문별 특성은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과 대상별 유형화를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즉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는 사회보장 정보망

을 통해 추출되고 조사된 대상을 기초로 계통분석을 통해 근로능력 장기수급자를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봄으로써 각 유형에 맞는 자활지원 정책이 어떻게 제안되는 것인지 분석하고 있다.

행정데이터를 통해 2011~2018년 사이 근로능력(연령기준임)이 있는 장기수급자(48개월 이상 수급이력 소유자) 규모는 약 43만명 정도이었다. 2018년 기준 만 18~64세 전체 수급자 약 81만명의 절반 이상이 장기수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10만명이며, 이들의 평균 수급개월 수는 90.3개월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조건제시 유예 혹은 조건부과 유예 등에 있으며, 자활조건을 이행한 경우는 11천여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서도 근로능력 장기수급자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자활의지가 있는지, 탈수급의지가 있는지 혹은 노동시장 참여경험은 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하에서는 우리 분석 대상인 43만명을 계통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분류해보고자 한다. 먼저 자활, 탈수급 희망 및 경험 그리고 노동시장 경험의 네가지 변수를 통해 근로능력 장기수급자를 분류해 보았다. 근로능력 장기수급자 약 43만명을 모수로 볼 때, 자활참여 경험이 있는 비율은 5.5%로 약 24천여명, 탈수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26.6%, 115천명, 탈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는 7.3%로 약 32천명, 이중 노동시장 경험이 있는 경우는 41.8%, 약 13천여명에 불과하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48개월 이상 장기수급자 중 실제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상은 약 13천여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3.1%에 불과한 상황이다.

〈표 5-2-1〉 자활 참여경험, 탈수급희망, 탈수급 경험 및 노동시장 경험

(단위: %)

자활참여경험(n=1005)		탈수급 희망(n=1005)		탈수급 경험(n=1005)		노동시장 경험(n=73)	
있다	없다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5.5	94.5	26.6	73.4	7.3	92.7	41.8	58.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이를 계통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세가지 표를 제시할 수 있다. 아래 표는 탈수급 희망 변수를 기준으로 자활참여 경험, 탈수급경험을 각각 보고, 세변수를 함께 분석한 것이다. 우선 탈수급을 희망하는 장기수급자(26.6%, 약 115천명) 중 자활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는 8.4%(약 97백여명)이며, 탈수급을 희망하지 않으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4%(약 14천여명)으로 오히려 탈수급을 원하지 않으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기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보면, 자활의 목적이 탈수급과 탈빈곤을 추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의 일부는 탈수급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자활에 참여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인식, 탈수급 의지를 높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2-2〉 탈수급희망, 자활 참여경험 및 탈수급 경험 간 비교

(단위: 명, %)

구분		자활참여 경험(n=1005)		
		있다	없다	소계
탈수급 희망 (n=1005)	원한다	8.4(41.0)	91.6(25.7)	26.6
	원하지 않는다	4.4(59.0)	95.6(74.3)	73.4
	소계	5.5	94.5	100.0
구분		탈수급 경험(n=1005)		
		있다	없다	소계
탈수급 희망 (n=1005)	원한다	16.5(60.5)	83.5(23.9)	26.6
	원하지 않는다	3.9(39.5)	96.1(76.1)	73.4
	소계	7.3	92.7	100.0
구분(n=1005)		탈수급 경험		
탈수급 희망	자활참여 경험	있다	없다	
원한다(26.6%)	있다	24.0[0.5]	76.0[1.7]	
	없다	15.9[3.9]	84.2[20.5]	
원하지 않는다(73.4%)	있다	14.5[0.5]	85.5[2.8]	
	없다	3.4[2.4]	96.6[67.8] ³⁾	
소계		7.3	92.7	

주: ()는 열을 100%로 한 것이며, []는 전체 셀을 100으로 놓고 추정된 비율임(저자계산)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두 번째로 탈수급을 희망하면서 실제 탈수급도 해본 경험이 있는 근로능력자 장기수급자 비율을 보면 탈수급을 희망하는 장기수급자(26.6%, 약 115천명) 중 탈수급 경험

3) 탈수급을 원하지 않고, 자활참여 경험도 없으며 탈수급경험도 없는 약 67.8%의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 52.7%, 여성 47.3%, 연령대는 만34세 이하 11.4%, 만35~만49세 이하 27.0%, 만50~64세 이하가 61.6%.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83.7%로 가장 많았다. 보통이 10.6%, 건강이 좋은 경우는 5.7%이었다. 가구형태로는 1인가구(46.2%)가 가장 많았으며, 기타가구(35.2%)이었다. 모부자 및 조손가구는 18.3%이었다. 또한 간병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11.5%이었다.

이 있는 경우는 16.5%(약 19천여명)으로 자활참여자에 비해서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탈수급을 희망하지 않으면서 탈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는 3.9%(약 12천여명)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로 세 변수를 계통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근로능력 장기수급자 약 43만명의 특성을 좀 더 세분화하여 분류해 볼 수 있다. 근로능력 장기수급자 약 43만명을 모수로 하여 추정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세분해 볼 수 있다. 전체 43만명중 탈수급을 희망하고, 자활참여 경험도 있으면서 실제 탈수급도 해 본 장기수급자는 2.2천여명으로 많지는 않았다. 탈수급을 희망하지만 자활참여 경험 없이 탈수급을 경험한 장기수급자는 16.9천명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들의 특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자활참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잠재적으로 자활참여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탈수급을 희망하면서 자활참여 경험이 없는 약 106천여명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들 대상은 탈수급이 가능(약 89천명)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점지원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

〈표 5-2-3〉 탈수급희망, 자활 참여경험 및 탈수급 경험 간 모수추정

(단위: 천명)

구분(n=1005)		탈수급 경험		소계
탈수급 희망	자활참여 경험	있다	없다	
원한다	있다	2.2	7.4	9.6
	없다	16.9	89.1	106.0
원하지 않는다	있다	2.2	12.2	14.3
	없다	10.4	294.6	305.0
소계		31.7	403.2	434.9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분류된 대상들의 탈수급 가능성과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급여가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본 것이 아래 표이다. 우선 각 급여별 탈수급 가능성을 보면 탈수급 희망자로 자활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은 9.7%만이 생계급여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자활참여 경험이 없으면 90.4%가 생계급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위해서 추정한 모수 추정치와 비교해 보면 탈수급을 원하는 수급자(9.6천명)중 9.7%만이 생계급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이들은 의미 있는 자활프로그램이 제시되면 생계급여 없이 생활이 가능한 대상으로 분

류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자활참여 경험이 없는 106.0천명 중 대부분은 생계급여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탈수급을 원하면서 자활참여 경험이 없는 이들을 어떻게 자활사업에의 참여를 유도해 낼 것인가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더 세부적으로는 탈수급을 희망하지만 자활참여 경험도 없고, 탈수급 경험도 없는 장기수급자(89.1천명)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이다. 탈수급 가능성에 있어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장기수급자가 탈수급기 가장 원하는 급여는 생계급여 이외에 의료급여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2-4〉 탈수급희망, 자활 참여경험 및 탈수급 가능성·탈수급시 원하는 급여

(단위: %)

구분(n=1005)		각 급여별 탈수급 가능성("벗어나기 힘들다" 기준)		
탈수급 희망	자활참여 경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원한다(26.6%)	있다	9.7	17.7	9.9
	없다	90.4	82.3	90.1
원하지 않는다(73.4%)	있다	4.1	4.4	4.4
	없다	95.9	95.6	95.6
소계		74.3	77.3	75.5
구분(n=1005)		탈수급시 원하는 지원		
탈수급 희망	자활참여 경험	의료급여	주거급여	기타급여
원한다(26.6%)	있다	48.1	14.4	37.5
	없다	53.3	37.2	9.5
원하지 않는다(73.4%)	있다	62.1	33.5	4.4
	없다	67.8	25.8	6.4
소계		63.7	28.5	7.8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탈수급을 희망과 자활참여 경험 유무 및 응답자 특성을 함께 보면, 탈수급을 희망하면서 자활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만 50~64세가 가장 많은 48.9%를 점유하고 있지만, 만 34세 이하도 37.5%, 자활참여 경험이 없는 만 34세 이하는 51.6%로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자활현황(2장)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이 필요한 점은 탈수급을 희망하면서 자활에도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장기수급자의 48.1%가 (구)생활보호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장기수급자를 연령별

로 구분하여 만 34세 이하가 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이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칫 만 34세 이하 장기수급자가 수급이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그 자녀에게까지 수급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청년층의 탈수급을 유도하고 장기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5-2-5〉 탈수급희망, 자활 참여경험 및 응답자 연령·(구)생활보호 수급여부

(단위: %)

구분(n=1005)		응답자 연령		
탈수급 희망	자활참여 경험	만 34세 이하	만 35~49세	만 50~64세
원한다(26.6%)	있다	37.5	13.6	48.9
	없다	51.6	15.1	33.3
원하지 않는다(73.4%)	있다	—	27.2	72.8
	없다	11.0	27.5	61.2
소계		21.1	24.1	54.8
탈수급 희망	자활참여 경험	(구)생활보호제도 수급 여부		
		있다	없다	
원한다(26.6%)	있다	48.1(7.9)	52.0(9.0)	
	없다	51.6(92.1)	48.4(91.0)	
원하지 않는다(73.4%)	있다	22.2(5.1)	77.8(4.2)	
	없다	19.2(95.9)	80.8(95.8)	
소계		27.8	72.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근로능력 장기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계통분석에서 고려될 수 있는 변수는 노동시장 참여경험이다. 과연 이들이 탈수급을 희망하고 자활사업 참여했다고 해서 노동시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역시 계통분석에 노동시장 참여변수를 투입해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자활사업 참여 경험이 있고, 탈수급 경험이 있으면서 실제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우는 약 1.5천명에 불과하였으며, 자활경험이 없지만 탈수급 경험이 있으면서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장기수급자는 약 11천여명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근로능력 장기수급자 측면에서 자활사업이 실제 노동시장으로 까지 연계되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탈수급을 경험한 장기수급자 중에서 노동시장 경험이 없는 경우가 18.7천여명(2.9+15.8천명)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이들의 탈수급 사유를 보면 소득이 늘어난 경우가 44.0%, 재산이 늘어난 경우가 11.5%, 행정상의 이유로 40.6%, 기타가 4.0%로 나타나, 주로 소득과 재산에 의한 수급탈락이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표 5-2-6〉 자활 참여경험, 탈수급 경험 및 노동시장 경험 간 관계

(단위: %, 천명)

구분(n=1005명)		노동시장 경험(n=73명)	
자활참여 경험	탈수급 경험	있다	없다
있다(5.5%)	있다(18.4%)	33.9 (1.5)	66.2 (2.9)
	없다(81.6%)	—	—
없다(94.5%)	있다(6.6%)	43.1 (11.3)	56.9 (15.8)
	없다(93.4%)	—	—
소계		41.8	58.2

주: 1) ()는 근로능력 장기수급자(약 43만명) 중 해당되는 수급자 규모(단위: 천명)를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나. 탈수급 희망을 기준으로

이하에서는 ‘탈수급 희망’ 변수를 기준으로 일경험과 자활참여 경험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일경험은 우리 실태조사에서 자활참여 경험,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경험(공공근로 등), 일반 노동시장 참여 경험을 모두 포괄한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장기수급자 중에서 15%정도가 지난 8년 사이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한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기초로 자활참여 경험이 있으면서 탈수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2.2%(모수추정치 약9.5천명)는 탈수급을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자활참여 경험이 없지만 탈수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5.8%(모수추정치 약25천명)으로 일경험자 중 자활참여와 상관없이 탈수급을 희망하는 비율은 8.0%정도로 추정된다.

일경험이 없는 85.0% 중에서도 탈수급을 희망하는 비율은 18.5%에 이르고 있어 상당수의 장기수급자가 일 경험과 자활참여 경험은 없지만 탈수급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수급 희망자 26.6%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면 적지만 일부 장기수급자들은 탈수급 혹은 탈빈곤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5-2-7〉 일 참여경험, 자활참여 경험 및 탈수급 희망 간 관계

(단위: %)

구분(n=1005)		탈수급 희망	
일 경험	자활참여 경험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있음(15.0%)	있다	41.0[2.2]	59.0[3.2]
	없다 ²⁾	61.0[5.8] ³⁾	39.0[3.7]
없음(85.0%)	있다	—	—
	없다 ²⁾	21.8[18.5] ³⁾	78.2[66.5]
소계		26.6	73.4

주: 1) []는 전체 근로능력 장기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비율(%)를 의미

2) 일경험이 있으면서 자활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 **조건부과유예(22.2%), 조건제시유예(3.9%), 조건부수급자 아님(74.0%)**이었으며, 일경험이 없으면서 자활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 **조건부과유예(14.2%), 조건제시유예(0.9%), 조건부수급자 아님(84.9%)**이었음3) 일경험이 있으면서 자활참여 경험이 없고, 탈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조건부과유예(34.1%), 조건제시유예(1.6%), 조건부수급자 아님(64.3%)**이었으며, 일경험이 없으면서 자활참여 경험이 없고, 탈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조건부과유예(11.2%), 조건제시유예(0.7%), 조건부수급자 아님(88.1%)**이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그렇지만 탈수급을 희망한다고 해서 모두가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동 설문이 주관적 설문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탈수급이 가능한 규모를 추정해 보기 위해 두가지 조사항목과 함께 분석하였다.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이 높은 변수인 근로능력 정도와 응답자의 연령을 기초로 하여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았다.

먼저 근로능력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근로가능은 19.5%, 단순근로 가능은 9.7%로 나와서 29.2%의 장기수급자가 우선 탈수급의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중 실제 탈수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일경험이 있고, 자활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는 1.5%(0.4%+1.1%)이었으며, 일경험이 없지만 자활참여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는 5.7%(4.7%+1.0%)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7.2%의 일경험이 있고 근로가 가능한 장기수급자가 탈수급을 원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2-7〉의 8.0%에 비해서는 소폭 줄어든 수치로 볼 수 있다. 일 경험이 없지만 탈수급을 희망하는 근로능력 가능 장기수급자는 9.4%(6.7%+2.7%)로 〈표 5-2-7〉의 18.5%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탈수급 희망과 근로능력 변수를 함께 조합해 볼 때 17.4%(모수추정치 약75천명)의 장기수급자가 탈수급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8〉 일 참여 경험, 자활 참여경험, 탈수급 희망 및 근로능력 정도 간 관계

(단위: %)

구분(n=1005)			근로능력정도			
일 경험	자활참여 경험	탈수급 희망	근로가능	단순근로가능	단순근로 미약	근로능력 없음
있음(10.8%)	있다	원한다	18.4[0.4]	49.8[1.1]	13.4[0.3]	18.5[0.4]
		원하지 않는다	31.2[1.0]	16.5[0.5]	12.5[0.4]	39.8[1.3]
	없다	원한다	80.4[4.7]	16.7[1.0]	2.9[0.2]	—
		원하지 않는다	57.8[2.1]	26.0[1.0]	5.1[0.2]	11.2[0.4]
없음(89.2%)	없다	원한다	36.0[6.7]	14.7[2.7]	22.5[4.2]	26.8[5.0]
		원하지 않는다	6.9[4.6]	5.2[3.4]	26.2[17.4]	61.8[41.1]
소계			19.5	9.7	22.6	48.2

주: 1) []는 전체 근로능력 장기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비율(%)를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응답자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장기수급자중 만 34세 이하로 탈수급을 희망하는 비율은 13.4%(0.8%+4.6%+8.0%), 만 35~49세 사이는 4.0%(0.3%+0.2%+3.5%)로 앞에서 분석한 근로능력 변수와 유사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만 49세 이하 장기수급자로 일정한 근로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탈수급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 규모는 전체 장기수급자의 17.4%(모수추정치 약 75천명)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5-2-9〉 일 참여 경험, 자활 참여경험, 탈수급 희망 및 응답자 연령 간 관계

(단위: %)

구분(n=1005)			응답자 연령		
일 경험	자활참여경험	탈수급 희망	만 34세 이하	만35~49세	만50~64세
있음(10.8%)	있다	원한다	37.5[0.8]	13.6[0.3]	48.9[1.1]
		원하지 않는다	—	27.2[0.9]	72.8[2.3]
	없다	원한다	78.5[4.6]	2.7[0.2]	18.8[1.1]
		원하지 않는다	—	50.8[1.9]	49.2[1.8]
없음(89.2%)	없다	원한다	43.2[8.0]	18.9[3.5]	37.9[7.0]
		원하지 않는다	11.6[7.7]	26.2[17.4]	62.2[41.4]
소계			21.1	24.1	54.8

주: 1) []는 전체 근로능력 장기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비율(%)를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2. 정책 제언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고, 시사점과 대안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연구와 우리 분석과정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분류해 보면 실제 자활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근로능력 장기수급자 43만명 중 약 24천여명 만 자활참여 경험이 있고 참여 경험이 없는 수급자가 대부분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자활사업에의 참여경험은 없지만 탈수급을 희망하는 대상은 10만명이 넘는다는 점에서 장기수급자를 좀 더 유형화하여 자활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은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탈수급 희망과 근로능력 및 만 49세 이하 청중년층(장기수급자 기준 약 75천명)에 대한 탈수급 지원프로그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자활사업을 경험하지 못한 수급자들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례관리의 영역에서도 벗어나 있는 수급자들이다. 위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보면 약 16.0%(자활참여 경험자 1.1~1.5%제외)에 해당되는 장기수급자들에게 탈수급에 대한 희망을 주고, 노동시장 참여 경험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이미 2019년 하반기 만여명에 이르는 자활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청중년층이 장기수급으로 가는 길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급대상자를 유형화할 때 대표적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년층과 고령층이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제가 많이 부족하다. 청년들의 자활참여를 유도하고 탈수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청년형 자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부적으로 분석 유형별로 지원방안을 제안해 보면, ① 노동시장은 물론 자활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장기수급자는 현재의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시장 경험이 자활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일반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숙련된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② 노동시장 경험은 있지만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 경험이 없는 장기수급자는 우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구 및 읍면동 차원에서 사례관리를 통한 의무부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장기수급자 스스로 자활사업 보다는 다른 형태의 일자리 경험을 원하는 경우 지역사회내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멘토 및 멘티의 형태로 일자리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 경험은 과거 노동시장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나 자활사업에 참여시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노동시장 경험도 없고, 자활 참여 경험은 없지만 탈수급을 희망하는 장기수급자는 시군구 및 읍면동 복지담당자와 연계(직간접 사례관리)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장기수급자를 발굴하고, 원하는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거나 노동부 노동시장 참여프로그램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의 소개를 통해 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유형화된 약 7만여명의 장기수급자 중 대학에 재학하거나 월 90만원 초과인 일자리 참여를 기준으로 자활참여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일 경험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대학생의 경우 방학 기간 본인 스스로 일을 하거나(아르바이트, 학교에서 제공되는 인턴쉽, 자격증 취득 등), 시군구에서 제안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등 참여, 자격증 취득 등)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단순히 학교 재학이라는 명분으로 자활사업, 일 경험 등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기서 얻은 경험이 대학 졸업후 탈수급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월 90만원 초과자 역시 관련 노동시장 참여 경험이 실제 탈수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가 시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임시·일용 등의 일을 통해 조건부과 유예가 지속될 경우 장기수급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기서의 일 경험이 탈수급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일자리에 대한 평가와 숙련 기술 취득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활사업 전반적으로는 청년과 중년층을 위한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과 개편이 필요하며, 취업률 중심보다는 일 경험을 높이고 탈수급 희망을 부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으로 개편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자활센터 역량강화와 더불어 주변의 다른 조직(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수급자가 충분히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무리 제도를 촘촘히 구성해도 장기수급자 스스로가 참여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일 경험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강한 제재를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수급자 중 만 49세 이하 연령,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3년 혹은 5년 주기로 위와 같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강제하도록 하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앞의 장기수급자는 탈수급에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장기수급자로서 어느 것에도 의욕을 보이지 않는 대상층을 어떻게 탈수급을 유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우리 분석에서 보면 노동 및 탈수급과 관련되어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은 대상이 약 29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 1인 가구인 46.2%를 제외하면 기타 가구가 주류로, 이들 가구에서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속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모부자 및 조손가구 18.3%는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을 통해 자녀 및 손자녀에게 까지 빈곤대물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활사업에 대한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여성가구주가 자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손가구의 청소년이 인적자본 축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책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앞의 실태분석에서도 장기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주요 문제로 학력 혹은 인적자본 축적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부자 및 조손가구 청소년에 대한 인적자본 축적은 외양적으로는 무리 없게 진행될 수 있지만, 멘토 및 멘티 제도를 통해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비슷하거나 유사한 환경속에서 자라고 성공한 멘토들을 이를 청소년에 연계함으로써 일자리는 물론 인생에서의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멘토 및 멘티 제도는 모부자 가정의 청소년 뿐 아니라 새롭게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에게도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역시 제시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시군구의 사례관리 속에서 지역자활센터와 협동조합 등을 활용하여 관련 업무(일자리 경험, 자격증 취득 기회 부여 등)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안되었으면 한다.

셋째, 자활지원제도는 일을 통해 탈수급과 탈빈곤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우리 분석 대상인 장기수급자와 같이 오랜 기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인적자본을 개발하거나 자활지원제도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여야 만

이 탈수급이 가능하다. 이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자활사업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관련 실무자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실무자들은 열악하고 낮은 임금속에서 묵묵히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인간이기에 순수한 열정만으로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자활 사업 실무자의 근무환경, 임금체계 등에 대한 개선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기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

- 김재호. (201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별 상태의존성 검증. 사회보장연구 29(3).
- 김원정류진석.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수급자 근로능력자 전환 도래가 가구분리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전망이론의 손실회피 관점에서. 사회보장연구 33(4).
- 김원정.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근로소득 동태분석. 사회보장연구 32(2).
- 노대명 외.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가구의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 보건복지부. (2019). 2019년 자활사업안내 I.
- 보험연구원. (201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서연·구인화·이원진.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 결정요인 : 근로능력자 집단별 분석. 사회복지정책 38(1).
- 엄태영. (20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성과에 관한 연구.
- 최상미. (2017). 정서적 자활 성과 지표 도입 연구: 한국형 고용 희망 척도(Korean Employment Hope Scale: K-EHS) 개발과 타당도 검증. 사회복지연구. 48(2), 97-119.
- 최상미, 홍영표, 김한성. (2017). 한국형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시행과 효과성 평가-경기지역 지역자활센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9(4), 179-199.
- 최상미. (2018). 이용자 중심적 접근에 기반한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증거기반실천과 효과성.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3), 161-184.
- 최상미. (2019). 자활행동(behavioral self-sufficiency: BSS) 척도 개발과 자활 과정에 대한 이해: 정서적 자활 이론의 확장과 검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1(3), 75-100.
- 최상미, 고가영. (2019). 자활사업 참여 저소득 구직자의 고용장벽 탐색과 한국형 고용장벽 척도 개발. 사회복지연구. 50(2), 29-52.

Diener, E., & Seligman, M. E. P. (2004). Beyond money: Toward an economy of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5(1), 1-31.

- Hong, P. Y. P., Polanin, J. R., Key, W., & Choi, S. (2014). Development of the perceived employment barrier scale (PEBS): Measuring psychological self-sufficienc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2(6), 689–706.
- Hong, P. Y. P., Choi, S., and Key, W. (2018). Psychological self-sufficiency: A bottom-up theory of change in workforce development”, *Social Work Research*, 42(1), 22–32.
- van Lange, P. A. M. (2015). Generalized Trust: Four Lessons From Genetics and Culture.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24(1), 71–76.

부 록 <

부록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기초분석 결과

〈부표 1-1〉 가구주와의 관계(응답자 기준)

(단위: %)

구분		가구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기타
전체		80.2	2.1	9.0	6.3	2.4
성별	남성	81.3	0.0	9.8	5.7	3.2
	여성	79.0	4.4	8.1	6.9	1.6
연령	만34세 이하	50.8	3.7	13.4	29.7	2.3
	만35~49세	79.1	0.9	17.3	0.0	2.8
	만50~64세	92.0	2.0	3.6	0.0	2.4
교육수준	초졸이하	84.0	1.4	6.9	3.6	4.1
	중졸	87.4	0.8	5.7	4.4	1.7
	고졸	77.0	1.1	11.7	7.8	2.5
	대졸이상	72.0	8.1	10.0	9.4	0.5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82.4	1.3	10.0	4.1	2.2
	보통	81.5	9.0	3.4	0.0	6.1
	건강한 편	65.9	1.4	7.5	24.7	0.5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76.7	5.4	2.5	15.0	0.3
	단순근로가능	66.9	2.0	9.6	19.7	1.9
	단순근로미약자	87.3	1.8	7.8	0.0	3.1
	근로능력없음	81.0	0.9	12.0	3.0	3.1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92.1	1.1	5.7	0.0	1.0
	실업자	73.5	0.0	0.0	24.7	1.8
	비경제활동인구	79.6	2.3	9.6	5.9	2.6
지역	수도권	84.6	2.8	6.3	3.8	2.4
	광역시	83.0	0.7	8.2	7.4	0.7
	도	73.9	2.5	12.1	7.8	3.7
동거 가구원 수	1명	100.0	0.0	0.0	0.0	0.0
	2명	66.2	2.3	16.5	11.2	3.8
	3명 이상	60.9	6.3	16.0	11.5	5.4
가구 구성	단독가구	100.0	0.0	0.0	0.0	0.0
	모/부자가구	87.5	0.0	11.8	0.0	0.8
	조손가구	30.6	0.0	0.0	69.4	0.0
	다문화가구	100.0	0.0	0.0	0.0	0.0
	기타(일반가구)	60.6	6.3	21.8	4.2	7.0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82.5	0.0	5.8	11.2	0.5
	51만원~70만원 이하	95.4	0.0	2.5	0.0	2.2
	71만원~100만원 이하	74.0	2.0	14.5	8.7	0.8
	101만원~150만원 이하	74.5	5.6	9.3	8.6	2.0
	151만원 이상	62.9	4.2	14.9	4.8	13.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2〉 조사대상자 성별

(단위: %)

구분		가구주 성별		응답자 성별	
		남	여	남	여
전체		51.6	48.4	52.1	47.9
성별	남성	89.8	10.2	100.0	0.0
	여성	10.2	89.8	0.0	100.0
연령	만34세 이하	48.5	51.5	53.2	46.8
	만35~49세	44.1	55.9	43.4	56.6
	만50~64세	56.2	43.8	55.5	44.5
교육수준	초졸이하	58.4	41.6	57.5	42.5
	중졸	53.0	47.0	56.2	43.8
	고졸	41.6	58.4	44.4	55.6
	대졸이상	65.8	34.2	58.1	41.9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51.7	48.3	53.7	46.3
	보통	49.2	50.8	42.2	57.8
	건강한 편	53.5	46.5	50.7	49.3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46.4	53.6	48.6	51.4
	단순근로가능	39.7	60.3	44.2	55.8
	단순근로미약자	55.4	44.6	50.5	49.5
	근로능력없음	54.4	45.6	55.9	44.1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40.2	59.8	36.7	63.3
	실업자	58.1	41.9	68.6	31.4
	비경제활동인구	52.2	47.8	52.5	47.5
지역	수도권	54.2	45.8	51.2	48.8
	광역시	52.7	47.3	50.7	49.3
	도	48.5	51.5	54.0	46.0
동거 가구원 수	1명	62.7	37.3	62.7	37.3
	2명	32.0	68.0	39.3	60.7
	3명 이상	59.7	40.3	50.2	49.8
가구 구성	단독가구	62.7	37.3	62.7	37.3
	모/부자가가구	23.4	76.6	21.0	79.0
	조손가구	49.6	50.4	59.4	40.6
	다문화가구	100.0	0.0	100.0	0.0
	기타(일반가구)	49.4	50.6	49.8	50.2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46.2	53.8	51.0	49.0
	51만원~70만원 이하	57.6	42.4	59.3	40.7
	71만원~100만원 이하	52.5	47.5	57.2	42.8
	101만원~150만원 이하	44.2	55.8	37.7	62.3
	151만원 이상	55.1	44.9	46.6	53.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3〉 조사대상자 태어난 연도

(단위: %)

구분		가구주				응답자		
		1954년생 이하	1955 ~1969년생	1970 ~1984년생	1985년생 이상	1955 ~1969년생	1970 ~1984년생	1985년생 이상
전체		12.4	56.5	19.6	11.5	54.8	24.1	21.1
성별	남성	11.5	61.4	14.9	12.2	58.3	20.1	21.6
	여성	13.3	51.2	24.6	10.8	50.9	28.5	20.6
연령	만34세 이하	28.4	17.0	0.0	54.6	0.0	0.0	100.0
	만35~49세	16.5	3.8	79.7	0.0	0.0	100.0	0.0
	만50~64세	4.4	95.0	0.6	0.0	100.0	0.0	0.0
교육수준	초졸이하	7.8	79.7	11.2	1.3	78.6	15.7	5.7
	중졸	9.4	61.8	28.8	0.0	61.4	32.1	6.4
	고졸	15.4	47.3	21.5	15.9	44.0	27.1	28.9
	대졸이상	16.4	34.6	15.3	33.7	33.8	18.7	47.4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10.9	65.6	19.6	3.9	64.3	25.0	10.7
	보통	2.5	34.8	32.7	30.0	29.4	36.1	34.5
	건강한 편	29.5	19.7	8.2	42.6	17.9	8.8	73.3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15.8	23.9	16.0	44.2	22.2	16.8	61.0
	단순근로가능	22.8	48.8	16.4	12.0	43.1	18.9	38.0
	단순근로미약자	7.9	71.2	18.0	3.0	72.4	22.8	4.8
	근로능력없음	11.0	64.4	22.4	2.2	62.0	28.8	9.2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5.7	40.1	35.0	19.2	40.1	40.7	19.2
	실업자	24.7	19.6	20.1	35.6	21.4	18.3	60.3
	비경제활동인구	12.3	59.3	18.4	9.9	57.3	23.2	19.5
지역	수도권	8.8	56.0	18.7	16.4	55.4	22.6	22.0
	광역시	11.8	55.9	16.9	15.4	53.6	23.7	22.8
	도	16.1	57.5	22.3	4.0	55.0	25.9	19.0
동거 가구원 수	1명	0.0	70.3	15.1	14.6	70.3	15.1	14.6
	2명	22.0	48.8	18.9	10.3	46.8	23.8	29.4
	3명 이상	23.0	39.8	30.1	7.1	34.8	43.6	21.6
가구 구성	단독가구	0.0	70.3	15.1	14.6	70.3	15.1	14.6
	모/부자가구	7.5	40.4	45.3	6.7	36.6	51.0	12.3
	조손가구	56.8	13.6	1.5	28.1	1.0	1.5	97.5
	다문화가구	0.0	71.4	28.6	0.0	71.4	28.6	0.0
	기타(일반가구)	21.9	54.1	17.9	6.2	53.1	29.1	17.8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14.5	59.2	18.4	7.9	59.9	18.4	21.7
	51만원~70만원 이하	1.4	77.5	13.8	7.2	75.4	14.1	10.5
	71만원~100만원 이하	19.2	51.5	18.4	10.9	50.9	24.0	25.2
	101만원~150만원 이하	12.1	41.6	28.5	17.8	36.3	35.2	28.5
	151만원 이상	21.0	37.4	23.3	18.3	37.1	39.8	23.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4〉 가구주 교육수준

(단위: %)

구분		무학	초등학교 졸	중학교 졸	고등학교 졸	대학 졸 (전문대학 포함)	대학원 이상
전체		9.7	22.0	22.7	34.8	10.3	0.5
성별	남성	10.3	22.7	24.2	28.8	13.5	0.6
	여성	9.2	21.2	21.0	41.4	6.8	0.4
연령	만34세 이하	11.3	13.9	13.2	42.2	19.4	0.0
	만35~49세	8.0	16.5	28.6	37.8	8.3	0.8
	만50~64세	9.9	27.5	23.7	30.7	7.7	0.5
교육수준	초졸이하	24.2	67.6	5.4	2.5	0.3	0.0
	중졸	0.9	2.9	95.1	0.8	0.3	0.0
	고졸	7.7	7.4	3.2	81.6	0.1	0.0
	대졸이상	3.3	11.6	0.5	11.1	70.0	3.4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8.7	25.7	26.4	30.1	8.9	0.2
	보통	8.5	8.3	10.6	64.4	6.9	1.4
	건강한 편	17.0	11.0	10.2	38.2	21.9	1.7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8.2	6.9	11.4	45.8	26.7	1.1
	단순근로가능	8.8	28.7	12.5	44.2	4.5	1.3
	단순근로미약자	7.2	22.5	29.5	34.4	6.1	0.3
	근로능력없음	11.7	26.5	26.1	28.7	6.8	0.2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3.0	9.3	21.3	47.2	18.1	1.1
	실업자	26.1	3.0	4.3	37.5	29.2	0.0
	비경제활동인구	9.5	23.7	23.6	33.8	8.9	0.5
지역	수도권	5.9	23.5	20.6	36.7	12.9	0.2
	광역시	9.8	18.8	19.0	40.2	11.6	0.6
	도	13.3	22.8	27.3	29.1	6.9	0.7
동거 가구원 수	1명	7.4	23.5	21.4	31.9	15.2	0.7
	2명	11.3	23.5	25.1	32.5	7.2	0.4
	3명 이상	12.2	16.4	21.5	44.7	4.9	0.3
가구 구성	단독가구	7.4	23.5	21.4	31.9	15.2	0.7
	모/부자가구	5.1	13.9	30.0	45.7	5.2	0.0
	조손가구	10.3	20.3	35.2	23.9	10.3	0.0
	다문화가구	0.0	0.0	0.0	100.0	0.0	0.0
	기타(일반가구)	14.9	24.1	18.7	35.7	6.0	0.6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5.9	22.8	27.7	32.1	10.5	1.0
	51만원~70만원 이하	9.4	23.9	23.6	36.1	7.1	0.0
	71만원~100만원 이하	15.6	26.0	17.7	26.0	14.3	0.5
	101만원~150만원 이하	4.4	11.7	30.9	44.0	8.4	0.7
	151만원 이상	8.8	24.6	10.4	44.6	10.7	0.9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5〉 가구주 혼인상태

(단위: %)

구분		유배우	별거	사별	이혼	미혼(미혼 부, 미혼 모 포함)
전체		12.9	2.1	19.9	33.4	31.9
성별	남성	14.8	2.6	12.5	29.0	41.1
	여성	10.7	1.5	27.9	38.1	21.8
연령	만34세 이하	7.8	3.9	31.0	11.9	45.4
	만35~49세	16.7	0.7	20.1	28.0	34.4
	만50~64세	13.1	1.9	15.5	44.0	25.5
교육수준	초졸이하	11.3	2.0	16.7	39.5	30.6
	중졸	11.5	0.8	28.0	33.8	25.8
	고졸	14.8	1.5	19.4	34.4	29.9
	대졸이상	12.2	5.6	14.8	19.2	48.2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11.9	2.3	19.6	37.8	28.3
	보통	20.2	0.7	13.3	27.3	38.5
	건강한 편	12.1	1.5	27.1	11.1	48.1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14.0	0.2	21.2	25.3	39.2
	단순근로가능	11.7	0.0	34.2	27.2	26.9
	단순근로미약자	12.6	1.8	15.9	39.7	30.1
	근로능력없음	12.7	3.3	18.3	34.9	30.8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20.7	0.7	16.3	39.6	22.8
	실업자	5.4	0.0	24.7	20.0	49.9
	비경제활동인구	12.6	2.2	19.9	33.5	31.7
지역	수도권	12.4	2.4	15.3	31.9	38.0
	광역시	10.7	1.2	14.8	37.9	35.4
	도	14.9	2.3	27.9	31.4	23.5
동거 가구원 수	1명	0.4	1.6	8.2	39.4	50.4
	2명	9.8	3.0	39.7	26.7	20.9
	3명 이상	43.8	1.5	12.8	31.3	10.6
가구 구성	단독가구	0.4	1.6	8.2	39.4	50.4
	모/부자가구	6.9	3.2	25.7	51.4	12.7
	조손가구	6.1	0.0	50.7	15.1	28.1
	다문화가구	100.0	0.0	0.0	0.0	0.0
	기타(일반가구)	33.0	2.6	26.6	21.3	16.5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0.5	0.5	22.3	39.0	37.7
	51만원~70만원 이하	2.2	0.6	14.0	42.7	40.4
	71만원~100만원 이하	11.5	4.1	26.0	27.5	30.9
	101만원~150만원 이하	25.9	2.8	19.7	31.5	20.1
	151만원 이상	40.3	0.0	13.7	19.5	26.5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6〉 가구주 건강상태

(단위: %)

구분		① 건강이 아주 안 좋다	②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①+② 건강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한 편이다	⑤ 아주 건강하다	④+⑤ 건강하다	평균
전체		46.1	29.8	75.9	13.3	9.5	1.4	10.9	1.9
성별	남성	47.7	27.4	75.1	13.0	10.0	1.9	11.9	1.9
	여성	44.3	32.4	76.7	13.6	8.9	0.8	9.7	1.9
연령	만34세 이하	12.9	36.5	49.4	21.6	23.6	5.4	29.0	2.7
	만35~49세	36.9	32.9	69.8	21.5	8.2	0.5	8.7	2.0
	만50~64세	63.0	25.8	88.7	6.4	4.6	0.2	4.8	1.5
교육수준	초졸이하	60.1	20.3	80.4	12.2	6.7	0.8	7.5	1.7
	중졸	55.9	35.6	91.5	6.2	2.3	0.0	2.3	1.5
	고졸	40.2	28.3	68.5	19.3	11.0	1.1	12.1	2.0
	대졸이상	24.1	41.5	65.7	8.9	20.4	5.1	25.5	2.4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59.2	34.8	94.0	3.8	1.9	0.2	2.2	1.5
	보통	1.0	2.1	3.1	88.6	8.3	0.0	8.3	3.0
	건강한 편	4.4	22.4	26.7	7.0	56.6	9.7	66.2	3.4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14.9	27.5	42.4	26.2	25.5	5.9	31.4	2.8
	단순근로가능	22.1	54.1	76.2	5.4	18.5	0.0	18.5	2.2
	단순근로미약자	53.5	29.9	83.4	13.0	3.3	0.3	3.6	1.7
	근로능력없음	60.1	25.7	85.8	9.7	4.1	0.4	4.4	1.6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17.7	29.2	46.9	25.4	27.8	0.0	27.8	2.6
	실업자	21.8	28.1	49.9	24.6	25.5	0.0	25.5	2.5
	비경제활동인구	49.2	29.9	79.1	11.9	7.4	1.5	9.0	1.8
지역	수도권	45.1	29.6	74.7	12.7	10.8	1.8	12.6	1.9
	광역시	46.5	22.5	69.0	18.4	12.6	0.0	12.6	2.0
	도	46.8	35.2	82.0	10.1	5.9	2.0	7.9	1.8
동거 가구원 수	1명	56.9	26.7	83.5	7.1	6.8	2.5	9.3	1.7
	2명	39.1	35.3	74.4	15.5	9.9	0.2	10.1	2.0
	3명 이상	34.6	27.5	62.1	22.6	14.4	0.8	15.2	2.2
가구 구성	단독가구	56.9	26.7	83.5	7.1	6.8	2.5	9.3	1.7
	모/부자가구	40.2	32.4	72.6	18.2	8.7	0.5	9.2	2.0
	조손가구	15.8	37.4	53.2	18.7	28.1	0.0	28.1	2.6
	다문 화가구	28.6	0.0	28.6	0.0	71.4	0.0	71.4	3.1
	기타(일반가구)	40.7	31.4	72.2	18.3	9.0	0.5	9.5	2.0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53.6	25.9	79.5	10.6	6.9	3.0	9.9	1.8
	51만원~70만원 이하	58.8	24.2	83.0	10.9	5.8	0.3	6.1	1.6
	71만원~100만원 이하	45.0	39.7	84.7	8.7	4.1	2.5	6.6	1.8
	101만원~150만원 이하	30.0	31.2	61.2	23.1	15.7	0.0	15.7	2.2
	151만원 이상	34.8	15.8	50.5	18.2	29.3	2.0	31.3	2.5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7〉 가구주 장애종류(복수응답)

(단위: %)

구분		비해당	신체외부 장애	신체내부 장애	정신장애	감각장애
전체		48.6	21.3	16.7	11.6	4.0
성별	남성	44.7	26.6	17.5	9.4	3.9
	여성	52.9	15.5	15.7	14.0	4.1
연령	만34세 이하	82.0	5.0	4.5	6.5	2.0
	만35~49세	47.0	17.1	20.1	15.0	2.3
	만50~64세	36.4	29.4	19.8	12.1	5.5
교육수준	초졸이하	36.8	26.9	16.7	15.8	7.6
	중졸	38.9	22.3	28.8	8.2	4.1
	고졸	54.3	21.0	11.6	12.1	2.6
	대졸이상	67.4	10.9	13.0	8.0	1.3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42.3	23.9	20.9	11.3	4.1
	보통	66.7	13.9	3.6	12.5	5.0
	건강한 편	72.0	11.6	2.1	12.9	2.6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87.7	8.0	2.1	1.2	1.0
	단순근로가능	62.6	12.4	7.9	17.4	2.7
	단순근로미약자	44.3	22.1	18.2	13.5	4.4
	근로능력없음	32.0	28.1	23.6	13.8	5.2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82.3	9.9	4.8	0.8	2.2
	실업자	82.2	7.4	3.4	3.8	3.2
	비경제활동인구	44.7	22.7	18.1	12.7	4.1
지역	수도권	51.9	18.8	15.9	12.2	4.3
	광역시	50.4	22.3	12.4	13.5	2.6
	도	44.2	22.9	20.5	9.7	4.7
동거 가구원 수	1명	34.3	26.7	19.2	17.0	6.0
	2명	55.2	17.0	17.9	8.5	2.6
	3명 이상	68.2	16.7	9.4	5.2	2.0
가구 구성	단독가구	34.3	26.7	19.2	17.0	6.0
	모/부자가구	51.1	14.7	25.1	7.6	3.0
	조손가구	88.7	10.3	1.0	0.0	0.0
	다문화가구	100.0	0.0	0.0	0.0	0.0
	기타(일반가구)	57.9	19.4	13.0	8.7	2.5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48.5	18.9	14.8	16.9	2.6
	51만원~70만원 이하	38.1	24.4	15.8	20.1	4.3
	71만원~100만원 이하	45.1	25.9	18.2	8.3	3.8
	101만원~150만원 이하	59.4	15.6	18.3	4.4	6.2
	151만원 이상	69.6	11.6	13.3	4.9	0.7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8〉 응답자 장애종류(복수응답)

(단위: %)

구분		비해당	신체외부 장애	신체내부 장애	정신장애	감각장애
전체		40.9	23.2	17.1	17.0	4.4
성별	남성	35.3	29.2	17.0	17.1	4.4
	여성	47.0	16.7	17.1	16.9	4.4
연령	만34세 이하	75.4	5.7	3.5	13.4	2.0
	만35~49세	30.2	22.6	21.2	25.9	3.5
	만50~64세	32.3	30.2	20.5	14.5	5.7
교육수준	초졸이하	24.3	33.1	17.9	21.3	7.9
	중졸	34.3	23.7	28.3	11.4	4.6
	고졸	46.0	20.9	14.0	18.0	3.2
	대졸이상	64.6	12.0	7.7	15.0	1.3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31.7	27.3	21.5	18.1	4.5
	보통	64.8	15.7	2.9	13.2	5.0
	건강한 편	77.1	4.8	2.1	13.7	3.4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91.8	4.0	2.1	1.2	1.0
	단순근로가능	52.3	12.4	7.4	27.0	3.8
	단순근로미약자	38.0	22.3	19.6	18.8	4.1
	근로능력없음	19.4	33.6	23.9	20.6	6.0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79.0	9.9	4.8	4.1	2.2
	실업자	82.2	7.4	3.4	3.8	3.2
	비경제활동인구	36.3	24.9	18.6	18.5	4.6
지역	수도권	46.3	19.9	15.0	17.2	4.6
	광역시	39.8	29.1	12.4	17.2	3.0
	도	36.5	22.1	22.4	16.7	5.3
동거 가구원 수	1명	34.3	26.7	19.2	17.0	6.0
	2명	42.2	19.4	18.1	18.9	3.6
	3명 이상	52.7	21.9	10.9	14.0	2.4
가구 구성	단독가구	34.3	26.7	19.2	17.0	6.0
	모/부자가구	41.3	16.6	27.8	13.1	3.5
	조손가구	86.4	12.6	1.0	0.0	0.0
	다문화가구	100.0	0.0	0.0	0.0	0.0
	기타(일반가구)	39.5	23.8	12.9	22.5	3.6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45.4	21.1	15.1	17.4	2.6
	51만원~70만원 이하	35.8	24.4	17.5	20.8	4.3
	71만원~100만원 이하	37.3	25.5	17.3	17.7	4.7
	101만원~150만원 이하	47.9	20.4	18.2	10.6	6.7
	151만원 이상	46.8	21.1	15.1	16.8	1.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9〉 가구주 장애등급

(단위: %)

구분		비해당	중증(1~2급)	경증(3~6급)	비등록 장애인 (보훈처등록장애 인포함)
전체		48.6	19.0	23.5	8.8
성별	남성	44.7	20.2	27.8	7.2
	여성	52.9	17.6	18.9	10.6
연령	만34세 이하	82.0	2.0	10.0	6.0
	만35~49세	47.0	25.0	21.2	6.8
	만50~64세	36.4	22.9	29.8	10.8
교육수준	초졸이하	36.8	24.4	27.1	11.7
	중졸	38.9	25.3	29.4	6.5
	고졸	54.3	15.6	20.8	9.3
	대졸이상	67.4	9.9	16.5	6.3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42.3	21.9	25.9	10.0
	보통	66.7	14.0	16.8	2.5
	건강한 편	72.0	5.7	14.9	7.4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87.7	1.9	4.8	5.7
	단순근로가능	62.6	5.1	26.2	6.2
	단순근로미약자	44.3	15.3	29.2	11.2
	근로능력없음	32.0	30.5	27.9	9.6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82.3	0.0	16.4	1.3
	실업자	82.2	0.0	12.9	4.8
	비경제활동인구	44.7	21.2	24.5	9.6
지역	수도권	51.9	20.6	22.9	4.6
	광역시	50.4	13.2	27.4	9.0
	도	44.2	21.7	21.3	12.8
동거 가구원 수	1명	34.3	22.8	33.7	9.2
	2명	55.2	20.2	16.9	7.8
	3명 이상	68.2	9.2	12.8	9.8
가구 구성	단독가구	34.3	22.8	33.7	9.2
	모/부자가구	51.1	23.2	15.5	10.2
	조손가구	88.7	0.0	0.0	11.3
	다문화가구	100.0	0.0	0.0	0.0
	기타(일반가구)	57.9	16.2	18.6	7.3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48.5	9.4	30.7	11.4
	51만원~70만원 이하	38.1	9.8	40.2	11.9
	71만원~100만원 이하	45.1	29.2	17.7	7.9
	101만원~150만원 이하	59.4	28.1	8.5	4.1
	151만원 이상	69.6	6.3	14.5	9.6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10〉 응답자 장애등급

(단위: %)

구분		비해당	중증(1~2급)	경증(3~6급)	비등록 장애인 (보훈처등록장애 인포함)
전체		40.9	25.1	26.0	8.0
성별	남성	35.3	28.7	30.2	5.8
	여성	47.0	21.1	21.5	10.5
연령	만34세 이하	75.4	12.0	10.0	2.6
	만35~49세	30.2	34.9	28.4	6.5
	만50~64세	32.3	25.8	31.1	10.8
교육수준	초졸이하	24.3	36.2	28.3	11.2
	중졸	34.3	27.3	31.9	6.5
	고졸	46.0	19.5	26.5	8.0
	대졸이상	64.6	18.2	12.4	4.8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31.7	29.5	28.9	10.0
	보통	64.8	15.8	17.0	2.5
	건강한 편	77.1	6.0	16.4	0.6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91.8	1.9	5.1	1.3
	단순근로가능	52.3	6.0	35.4	6.2
	단순근로미약자	38.0	17.6	32.3	12.1
	근로능력없음	19.4	41.8	29.6	9.2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79.0	0.0	19.7	1.3
	실업자	82.2	0.0	12.9	4.8
	비경제활동인구	36.3	28.0	27.1	8.6
지역	수도권	46.3	26.2	22.8	4.8
	광역시	39.8	20.9	30.6	8.7
	도	36.5	27.1	25.8	10.6
동거 가구원 수	1명	34.3	22.8	33.7	9.2
	2명	42.2	30.2	20.0	7.7
	3명 이상	52.7	21.8	19.5	6.0
가구 구성	단독가구	34.3	22.8	33.7	9.2
	모/부자가구	41.3	29.5	18.6	10.6
	조손가구	86.4	12.6	0.0	1.0
	다문화가구	100.0	0.0	0.0	0.0
	기타(일반가구)	39.5	29.0	24.7	6.8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45.4	11.5	32.3	10.7
	51만원~70만원 이하	35.8	11.7	40.7	11.9
	71만원~100만원 이하	37.3	36.1	20.5	6.2
	101만원~150만원 이하	47.9	37.5	11.1	3.4
	151만원 이상	46.8	21.3	23.3	8.7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11〉 가구주 심신능력상 근로능력정도

(단위: %)

구분		근로가능	단순근로가능	단순근로 미약자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음
전체		24.0	9.0	23.3	43.7
성별	남성	24.4	9.6	23.0	43.1
	여성	23.6	8.3	23.7	44.4
연령	만34세 이하	55.0	13.7	12.2	19.0
	만35~49세	27.8	8.1	19.5	44.6
	만50~64세	10.4	7.5	29.3	52.8
교육수준	초졸이하	15.5	4.8	24.6	55.1
	중졸	13.8	5.6	26.9	53.7
	고졸	25.7	14.4	24.8	35.2
	대졸이상	48.8	6.3	12.0	32.9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16.0	8.1	25.1	50.7
	보통	52.2	8.8	18.8	20.3
	건강한 편	48.8	14.2	16.1	20.8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86.6	2.6	7.7	3.1
	단순근로가능	11.7	74.4	0.0	14.0
	단순근로미약자	6.4	0.5	89.1	3.9
	근로능력없음	9.4	2.3	3.5	84.8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78.4	20.5	0.0	1.0
	실업자	45.7	17.4	26.4	10.6
	비경제활동인구	19.1	7.8	24.9	48.2
지역	수도권	30.7	6.4	14.4	48.5
	광역시	26.3	8.3	28.0	37.4
	도	16.0	11.9	28.4	43.7
동거 가구원 수	1명	13.1	7.6	30.7	48.6
	2명	27.6	11.4	16.0	44.9
	3명 이상	41.2	8.0	19.4	31.4
가구 구성	단독가구	13.1	7.6	30.7	48.6
	모/부자가구	24.0	9.5	19.8	46.7
	조손가구	54.0	0.0	18.0	28.0
	다문화가구	71.4	0.0	28.6	0.0
	기타(일반가구)	32.0	12.6	16.0	39.4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16.0	6.9	27.2	49.9
	51만원~70만원 이하	8.1	12.0	34.7	45.2
	71만원~100만원 이하	22.3	6.5	21.5	49.6
	101만원~150만원 이하	40.8	10.2	14.6	34.4
	151만원 이상	54.4	7.9	7.6	3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12〉 가구주 근로무능력 사유

(단위: %)

구분		중증장애	질병 또는 부상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	기타
전체		47.9	44.0	7.0	1.1
성별	남성	57.2	37.6	4.6	0.7
	여성	38.1	50.7	9.6	1.6
연령	만34세 이하	15.6	26.7	57.7	0.0
	만35~49세	50.0	46.5	0.8	2.6
	만50~64세	51.5	45.4	2.3	0.7
교육수준	초졸이하	53.8	45.0	0.6	0.5
	중졸	38.6	58.2	2.6	0.7
	고졸	50.3	39.0	9.3	1.4
	대졸이상	45.6	21.8	29.4	3.2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47.2	46.2	5.4	1.1
	보통	78.4	18.2	0.0	3.4
	건강한 편	31.7	31.6	36.7	0.0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32.3	0.0	67.7	0.0
	단순근로가능	0.0	0.0	100.0	0.0
	단순근로미약자	25.9	66.9	7.2	0.0
	근로능력없음	50.2	45.6	3.0	1.2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100.0	0.0	0.0	0.0
	실업자	0.0	0.0	100.0	0.0
	비경제활동인구	48.2	44.4	6.2	1.2
지역	수도권	52.2	38.4	9.0	0.4
	광역시	44.6	46.4	6.1	3.0
	도	45.3	48.3	5.6	0.8
동거 가구원 수	1명	55.6	44.1	0.4	0.0
	2명	39.2	43.6	16.1	1.0
	3명 이상	42.5	44.4	7.9	5.2
가구 구성	단독가구	55.6	44.1	0.4	0.0
	모/부자가구	33.3	62.8	0.8	3.1
	조손가구	3.5	0.0	96.5	0.0
	다문화가구	—	—	—	—
	기타(일반가구)	49.5	40.5	7.9	2.1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31.7	54.7	11.4	2.3
	51만원~70만원 이하	45.5	53.6	0.3	0.6
	71만원~100만원 이하	57.1	30.4	12.0	0.5
	101만원~150만원 이하	52.8	45.3	0.9	0.9
	151만원 이상	33.6	45.2	16.0	5.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13〉 응답자 근로무능력 사유

(단위: %)

구분		중증장애	질병 또는 부상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	기타
전체		54.6	41.6	0.3	3.5
성별	남성	62.4	34.7	0.5	2.3
	여성	44.7	50.4	0.0	4.9
연령	만34세 이하	62.2	14.7	0.0	23.1
	만35~49세	54.2	42.7	0.0	3.1
	만50~64세	53.7	45.2	0.5	0.7
교육수준	초졸이하	60.6	38.9	0.0	0.5
	중졸	43.3	55.7	0.3	0.7
	고졸	52.4	38.9	0.4	8.4
	대졸이상	68.8	26.7	1.0	3.4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54.4	44.0	0.3	1.3
	보통	67.2	11.3	0.0	21.6
	건강한 편	41.2	26.6	0.0	32.2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	—	—	—
	단순근로가능	—	—	—	—
	단순근로미약자	—	—	—	—
	근로능력없음	54.6	41.6	0.3	3.5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	—	—	—
	실업자	—	—	—	—
	비경제활동인구	54.6	41.6	0.3	3.5
지역	수도권	58.0	40.6	0.6	0.8
	광역시	54.6	38.9	0.0	6.5
	도	51.1	44.7	0.2	4.0
동거 가구원 수	1명	55.6	44.1	0.4	0.0
	2명	52.0	40.5	0.3	7.2
	3명 이상	57.4	37.9	0.0	4.7
가구 구성	단독가구	55.6	44.1	0.4	0.0
	모/부자가구	42.5	54.7	0.0	2.8
	조손가구	63.8	0.0	0.0	36.2
	다문화가구	—	—	—	—
	기타(일반가구)	58.1	36.3	0.3	5.3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34.3	55.0	0.7	10.0
	51만원~70만원 이하	45.5	50.2	0.3	4.0
	71만원~100만원 이하	70.4	28.2	0.4	1.0
	101만원~150만원 이하	57.2	42.0	0.0	0.8
	151만원 이상	53.3	40.5	0.0	6.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14〉 경제활동 참여상태

(단위: %)

구분		가구주		
		일을 하고 있음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체		13.1	3.1	83.8
성별	남성	12.1	4.4	83.5
	여성	14.2	1.7	84.2
연령	만34세 이하	20.3	6.6	73.1
	만35~49세	21.6	3.9	74.5
	만50~64세	6.5	1.4	92.1
교육수준	초졸이하	9.9	0.7	89.4
	중졸	12.8	1.9	85.3
	고졸	13.9	3.5	82.6
	대졸이상	16.5	7.9	75.6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10.7	1.5	87.9
	보통	26.1	9.8	64.0
	건강한 편	16.4	7.4	76.2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36.2	6.0	57.8
	단순근로가능	18.8	7.0	74.2
	단순근로미약자	5.1	5.0	89.9
	근로능력없음	6.3	0.3	93.4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97.9	0.0	2.1
	실업자	1.8	73.5	24.7
	비경제활동인구	7.4	0.2	92.4
지역	수도권	13.6	1.3	85.1
	광역시	13.8	7.7	78.5
	도	12.1	1.5	86.5
동거 가구원 수	1명	1.1	4.5	94.4
	2명	15.6	2.3	82.1
	3명 이상	34.0	1.6	64.4
가구 구성	단독가구	1.1	4.5	94.4
	모/부자가구	15.7	1.7	82.6
	조손가구	43.7	0.0	56.3
	다문화가구	0.0	0.0	100.0
	기타(일반가구)	21.6	2.6	75.8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8.7	1.4	89.9
	51만원~70만원 이하	2.2	4.1	93.6
	71만원~100만원 이하	3.8	2.4	93.8
	101만원~150만원 이하	31.8	0.6	67.6
	151만원 이상	43.2	10.7	46.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15〉 가구주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구분		근로무 능력	근로의 사 없음	구직활 동포기	가사	양육	군복무	간병	정규교 육기관 학업	진학준 비	취업준 비	기타
전체		43.3	29.3	6.1	4.2	3.4	2.4	2.1	2.0	0.9	0.5	6.0
성별	남성	47.4	28.3	7.4	2.5	1.4	4.4	1.7	1.7	1.7	0.0	3.5
	여성	38.8	30.3	4.7	6.0	5.5	0.2	2.4	2.4	0.0	1.1	8.6
연령	만34세 이하	31.4	12.1	0.0	6.9	13.7	12.4	0.0	10.6	4.7	2.8	5.5
	만35~49세	37.6	34.2	6.7	6.2	2.1	0.0	4.2	0.0	0.0	0.0	9.0
	만50~64세	48.9	32.7	7.8	2.6	0.7	0.1	1.9	0.1	0.0	0.0	5.0
교육수준	초졸이하	51.9	31.8	6.4	3.9	0.0	0.3	0.7	0.0	0.0	0.0	4.9
	중졸	42.6	41.4	7.8	2.1	1.4	0.0	0.4	0.0	0.0	0.0	4.2
	고졸	38.2	25.6	5.0	5.5	7.5	0.0	3.8	2.9	2.2	1.3	7.9
	대졸이상	42.4	15.1	5.9	4.2	1.1	17.4	2.2	6.8	0.0	0.0	4.9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45.7	32.2	6.8	3.1	1.8	2.9	1.2	0.0	0.0	0.0	6.2
	보통	36.7	14.4	6.8	0.0	16.2	0.0	8.5	7.2	0.0	6.3	3.7
	건강한 편	30.7	18.9	0.8	14.9	5.5	0.0	3.4	12.7	7.6	0.0	5.5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15.4	4.4	2.1	11.6	11.9	16.9	6.7	15.1	6.4	3.9	5.4
	단순근로가능	54.7	14.7	6.3	3.2	13.0	0.0	2.4	0.0	0.0	0.0	5.6
	단순근로미약자	41.5	35.4	10.4	5.7	0.3	0.0	0.6	0.0	0.0	0.0	6.0
	근로능력없음	49.2	35.0	5.1	1.8	1.1	0.2	1.5	0.0	0.0	0.0	6.1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48.1	51.9	0.0	0.0	0.0	0.0	0.0	0.0	0.0	0.0	0.0
	실업자	42.7	57.3	0.0	0.0	0.0	0.0	0.0	0.0	0.0	0.0	0.0
	비경제활동인구	43.3	28.9	6.2	4.2	3.4	2.4	2.1	2.1	0.9	0.5	6.0
지역	수도권	45.9	19.1	9.4	1.0	3.4	6.3	2.2	3.2	2.4	0.0	7.1
	광역시	49.8	27.8	4.3	2.9	3.7	0.0	2.5	0.0	0.0	0.0	9.0
	도	36.6	39.7	4.2	8.0	3.2	0.2	1.7	2.3	0.0	1.3	2.9
동거 가구원 수	1명	47.1	29.4	8.3	0.8	0.0	4.7	0.3	3.9	0.0	0.0	5.5
	2명	44.5	29.4	4.1	5.3	8.3	0.0	2.1	0.2	0.0	1.6	4.5
	3명 이상	29.1	28.7	3.6	12.1	3.9	0.0	7.3	0.0	5.3	0.0	10.1
가구 구성	단독가구	47.1	29.4	8.3	0.8	0.0	4.7	0.3	3.9	0.0	0.0	5.5
	모/부자가구	29.8	37.5	5.1	6.5	12.5	0.0	3.2	0.5	0.0	0.0	5.0
	조손가구	52.5	0.0	0.0	18.4	0.0	0.0	0.0	0.0	18.3	0.0	10.8
	다문화가구	0.0	28.6	0.0	0.0	0.0	0.0	71.4	0.0	0.0	0.0	0.0
	기타(일반가구)	42.4	29.7	4.0	6.5	5.2	0.0	4.1	0.0	0.0	1.7	6.4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50.9	24.9	4.2	3.6	2.7	0.0	0.4	3.4	0.0	0.0	10.1
	51만원~70만원 이하	43.3	35.9	9.7	3.0	0.0	0.0	1.1	2.2	0.0	0.0	4.9
	71만원~100만원 이하	45.8	25.2	5.6	6.1	3.6	7.0	1.4	2.6	0.0	0.0	2.8
	101만원~150만원 이하	34.7	29.6	1.4	2.7	7.8	0.0	5.7	0.0	5.3	3.2	9.6
	151만원 이상	32.3	26.9	8.6	4.9	10.6	0.0	5.8	0.0	0.0	0.0	10.9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16〉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 여부 : (1) 경험여부

(단위: %)

구분		가구주		응답자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22.6	77.4	22.4	77.6
성별	남성	23.6	76.4	23.6	76.4
	여성	21.5	78.5	21.1	78.9
연령	만34세 이하	4.0	96.0	4.0	96.0
	만35~49세	22.6	77.4	21.6	78.4
	만50~64세	29.7	70.3	29.8	70.2
교육수준	초졸이하	21.6	78.4	20.5	79.5
	중졸	23.5	76.5	23.2	76.8
	고졸	25.9	74.1	26.0	74.0
	대졸이상	13.7	86.3	14.5	85.5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24.2	75.8	24.2	75.8
	보통	20.8	79.2	19.1	80.9
	건강한 편	13.9	86.1	13.9	86.1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16.8	83.2	16.5	83.5
	단순근로가능	25.2	74.8	23.3	76.7
	단순근로미약자	28.3	71.7	27.6	72.4
	근로능력없음	21.7	78.3	22.2	77.8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23.8	76.2	23.8	76.2
	실업자	13.0	87.0	13.0	87.0
	비경제활동인구	22.9	77.1	22.7	77.3
지역	수도권	25.6	74.4	24.8	75.2
	광역시	27.2	72.8	27.6	72.4
	도	16.4	83.6	16.3	83.7
동거 가구원 수	1명	25.8	74.2	25.8	74.2
	2명	15.8	84.2	15.8	84.2
	3명 이상	26.7	73.3	25.7	74.3
가구 구성	단독가구	25.8	74.2	25.8	74.2
	모/부자가구	22.9	77.1	22.6	77.4
	조손가구	1.0	99.0	1.0	99.0
	다문화가구	100.0	0.0	100.0	0.0
	기타(일반가구)	22.1	77.9	21.6	78.4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13.6	86.4	13.6	86.4
	51만원~70만원 이하	33.0	67.0	33.0	67.0
	71만원~100만원 이하	17.4	82.6	17.5	82.5
	101만원~150만원 이하	21.2	78.8	21.7	78.3
	151만원 이상	24.4	75.6	20.6	79.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17〉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 여부 : (2) 현재여부

(단위: %)

구분		가구주		응답자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58.2	41.8	58.1	41.9
성별	남성	62.6	37.4	62.6	37.4
	여성	52.9	47.1	52.8	47.2
연령	만34세 이하	0.0	100.0	0.0	100.0
	만35~49세	58.4	41.6	57.9	42.1
	만50~64세	61.1	38.9	61.2	38.8
교육수준	초졸이하	71.3	28.7	69.7	30.3
	중졸	55.2	44.8	54.8	45.2
	고졸	52.8	47.2	53.7	46.3
	대졸이상	58.1	41.9	60.3	39.7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61.8	38.2	61.6	38.4
	보통	51.1	48.9	51.3	48.7
	건강한 편	29.0	71.0	29.0	71.0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50.3	49.7	49.3	50.7
	단순근로가능	32.1	67.9	30.8	69.2
	단순근로미약자	52.3	47.7	52.5	47.5
	근로능력없음	70.4	29.6	69.9	30.1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55.4	44.6	55.4	44.6
	실업자	28.9	71.1	28.9	71.1
	비경제활동인구	59.1	40.9	59.1	40.9
지역	수도권	57.4	42.6	57.1	42.9
	광역시	47.6	52.4	46.8	53.2
	도	72.1	27.9	73.5	26.5
동거 가구원 수	1명	58.3	41.7	58.3	41.7
	2명	58.8	41.2	60.5	39.5
	3명 이상	57.5	42.5	55.6	44.4
가구 구성	단독가구	58.3	41.7	58.3	41.7
	모/부자가구	55.5	44.5	54.8	45.2
	조손가구	100.0	0.0	100.0	0.0
	다문화가구	28.6	71.4	28.6	71.4
	기타(일반가구)	60.0	40.0	60.2	39.8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63.9	36.1	63.9	36.1
	51만원~70만원 이하	60.3	39.7	60.3	39.7
	71만원~100만원 이하	61.6	38.4	61.8	38.2
	101만원~150만원 이하	45.5	54.5	46.3	53.7
	151만원 이상	61.4	38.6	59.6	40.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18〉 가구주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 여부 : (3) 해결방법

(단위: %)

구분		본인 또는 가족친지 도움	개인파산	신용회복기관 지원	개인회생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23.2	18.1	14.3	6.9	36.1	1.4
성별	남성	22.8	17.7	13.8	4.4	39.3	2.0
	여성	23.8	18.6	14.8	9.9	32.2	0.6
연령	만34세 이하	100.0	0.0	0.0	0.0	0.0	0.0
	만35~49세	27.2	14.3	17.0	9.4	30.4	1.7
	만50~64세	17.9	20.3	14.1	6.4	39.9	1.3
교육수준	초졸이하	22.3	17.6	6.6	7.7	42.8	2.9
	중졸	12.1	25.2	11.9	10.5	38.7	1.6
	고졸	29.2	15.3	18.5	3.9	32.3	0.7
	대졸이상	22.4	16.1	19.3	11.4	30.9	0.0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19.6	20.0	11.9	7.0	40.2	1.3
	보통	28.4	16.4	26.2	5.0	20.6	3.4
	건강한 편	55.8	0.0	24.7	7.8	11.7	0.0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22.4	16.7	28.5	7.3	22.8	2.3
	단순근로가능	41.0	14.1	11.0	10.3	23.7	0.0
	단순근로미약자	21.7	21.9	10.9	12.7	32.8	0.0
	근로능력없음	20.2	17.1	12.7	2.4	45.2	2.2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33.3	24.6	6.3	13.0	17.8	4.9
	실업자	24.5	23.7	14.3	37.6	0.0	0.0
	비경제활동인구	22.4	17.5	14.9	5.7	38.4	1.1
지역	수도권	22.5	15.8	17.9	4.2	37.9	1.7
	광역시	32.0	13.6	8.2	8.6	35.4	2.1
	도	13.8	26.9	16.3	8.9	34.1	0.0
동거 가구원 수	1명	23.0	18.3	9.8	4.2	43.2	1.5
	2명	19.4	19.6	18.9	8.7	30.7	2.7
	3명 이상	27.4	16.2	19.2	10.6	26.7	0.0
가구 구성	단독가구	23.0	18.3	9.8	4.2	43.2	1.5
	모/부자가구	17.7	22.2	16.8	11.8	31.5	0.0
	조손가구	0.0	0.0	0.0	0.0	100.0	0.0
	다문화가구	0.0	28.6	71.4	0.0	0.0	0.0
	기타(일반가구)	27.2	15.6	18.4	9.1	27.7	1.9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17.9	16.3	13.1	8.7	39.7	4.3
	51만원~70만원 이하	25.1	14.4	11.8	6.2	41.7	0.7
	71만원~100만원 이하	20.8	23.5	8.6	6.7	37.2	3.2
	101만원~150만원 이하	27.6	19.7	19.8	4.4	28.5	0.0
	151만원 이상	16.5	19.0	29.3	14.1	21.1	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19〉 응답자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 여부 : (3) 해결방법

(단위: %)

구분		본인 또는 가족친지 도움	개인파산	신용회복기관 지원	개인회생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23.6	18.3	13.6	7.5	35.7	1.4
성별	남성	23.2	17.7	13.1	5.3	38.8	2.0
	여성	24.0	19.0	14.3	10.1	32.0	0.6
연령	만34세 이하	100.0	0.0	0.0	0.0	0.0	0.0
	만35~49세	26.9	15.0	14.2	12.0	30.2	1.8
	만50~64세	18.6	20.2	14.1	6.4	39.4	1.3
교육수준	초졸이하	23.6	18.6	6.9	8.2	39.6	3.1
	중졸	12.2	25.5	12.0	10.6	38.0	1.6
	고졸	29.3	15.3	16.7	4.9	33.0	0.7
	대졸이상	21.2	15.2	18.3	10.8	34.5	0.0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19.7	20.0	11.4	7.6	39.9	1.3
	보통	31.0	17.9	23.9	5.4	18.0	3.7
	건강한 편	55.8	0.0	24.7	7.8	11.7	0.0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22.9	17.1	29.1	7.4	21.2	2.4
	단순근로가능	44.3	15.2	7.7	11.1	21.7	0.0
	단순근로미약자	21.8	22.5	9.7	13.1	32.9	0.0
	근로능력없음	20.4	16.8	12.5	3.4	44.8	2.2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33.3	24.6	6.3	13.0	17.8	4.9
	실업자	24.5	23.7	14.3	37.6	0.0	0.0
	비경제활동인구	22.8	17.6	14.1	6.3	38.0	1.1
지역	수도권	23.5	16.3	17.3	4.3	36.8	1.8
	광역시	31.5	13.4	8.1	10.0	34.9	2.1
	도	13.8	27.0	14.9	9.0	35.3	0.0
동거 가구원 수	1명	23.0	18.3	9.8	4.2	43.2	1.5
	2명	20.3	19.6	17.2	8.7	31.6	2.6
	3명 이상	27.9	16.8	18.2	13.0	24.1	0.0
가구 구성	단독가구	23.0	18.3	9.8	4.2	43.2	1.5
	모/부자가구	18.0	22.6	17.0	12.0	30.4	0.0
	조손가구	0.0	0.0	0.0	0.0	100.0	0.0
	다문화가구	0.0	28.6	71.4	0.0	0.0	0.0
	기타(일반가구)	28.1	15.9	16.2	10.9	26.9	2.0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17.9	16.3	13.1	8.7	39.7	4.3
	51만원~70만원 이하	25.1	14.4	11.8	6.2	41.7	0.7
	71만원~100만원 이하	21.7	23.4	8.5	6.7	36.6	3.2
	101만원~150만원 이하	26.4	19.2	17.3	6.9	30.3	0.0
	151만원 이상	19.6	22.5	29.4	16.7	11.7	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20〉 미취학가구원 유무 및 돌봄방식

(단위: %)

구분		미취학가구원 유무		돌봄 방식		
		있음	없음	동거가족	민간교육·보육시설	국공립교육·보육시설
전체		3.6	96.4	77.9	13.1	8.9
성별	남성	1.0	99.0	61.4	38.6	0.0
	여성	6.5	93.5	80.7	8.8	10.5
연령	만34세 이하	10.8	89.2	85.8	0.0	14.2
	만35~49세	4.4	95.6	55.3	44.7	0.0
	만50~64세	0.5	99.5	100.0	0.0	0.0
교육수준	초졸이하	1.4	98.6	100.0	0.0	0.0
	중졸	2.0	98.0	73.0	27.0	0.0
	고졸	5.0	95.0	69.1	14.5	16.4
	대졸이상	6.0	94.0	91.5	8.5	0.0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1.4	98.6	79.7	20.3	0.0
	보통	19.3	80.7	71.9	12.4	15.7
	건강한 편	3.8	96.2	100.0	0.0	0.0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12.5	87.5	76.2	10.5	13.3
	단순근로가능	1.2	98.8	0.0	100.0	0.0
	단순근로미약자	1.7	98.3	73.7	26.3	0.0
	근로능력없음	1.4	98.6	100.0	0.0	0.0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4.7	95.3	44.3	55.7	0.0
	실업자	0.0	100.0	—	—	—
	비경제활동인구	3.7	96.3	81.0	9.2	9.8
지역	수도권	4.7	95.3	94.9	5.1	0.0
	광역시	4.0	96.0	54.1	15.9	30.0
	도	2.3	97.7	74.9	25.1	0.0
동거 가구원 수	1명	0.0	100.0	—	—	—
	2명	5.0	95.0	80.9	0.0	19.1
	3명 이상	9.0	91.0	75.3	24.7	0.0
가구 구성	단독가구	0.0	100.0	—	—	—
	모/부자가구	10.5	89.5	66.4	12.8	20.7
	조손가구	0.0	100.0	—	—	—
	다문화가구	0.0	100.0	—	—	—
	기타(일반가구)	6.2	93.8	86.6	13.4	0.0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2.5	97.5	0.0	0.0	100.0
	51만원~70만원 이하	0.4	99.6	0.0	100.0	0.0
	71만원~100만원 이하	2.8	97.2	87.9	12.1	0.0
	101만원~150만원 이하	8.5	91.5	89.3	10.7	0.0
	151만원 이상	7.1	92.9	88.0	12.0	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21〉 가족이나 친척에게 미취학가구원을 맡기는 이유

(단위: %)

구분		비용부담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아이가 좋아해서	기타
전체		60.0	24.6	12.1	3.2
성별	남성	100.0	0.0	0.0	0.0
	여성	54.9	27.8	13.7	3.6
연령	만34세 이하	57.3	25.3	17.4	0.0
	만35~49세	65.9	34.1	0.0	0.0
	만50~64세	67.1	0.0	0.0	32.9
교육수준	초졸이하	17.8	56.7	0.0	25.6
	중졸	100.0	0.0	0.0	0.0
	고졸	38.8	36.2	25.0	0.0
	대졸이상	100.0	0.0	0.0	0.0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89.4	0.0	0.0	10.6
	보통	53.2	46.8	0.0	0.0
	건강한 편	28.5	0.0	71.5	0.0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55.1	26.5	18.3	0.0
	단순근로가능	—	—	—	—
	단순근로미약자	0.0	68.9	0.0	31.1
	근로능력없음	100.0	0.0	0.0	0.0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100.0	0.0	0.0	0.0
	실업자	—	—	—	—
	비경제활동인구	58.0	25.9	12.7	3.4
지역	수도권	56.2	43.8	0.0	0.0
	광역시	25.9	0.0	58.5	15.6
	도	100.0	0.0	0.0	0.0
동거 가구원 수	1명	—	—	—	—
	2명	24.2	50.9	25.0	0.0
	3명 이상	93.8	0.0	0.0	6.2
가구 구성	단독가구	—	—	—	—
	모/부자가구	47.7	19.4	32.9	0.0
	조손가구	—	—	—	—
	다문화가구	—	—	—	—
	기타(일반가구)	67.2	27.7	0.0	5.1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	—	—	—
	51만원~70만원 이하	—	—	—	—
	71만원~100만원 이하	16.2	26.6	45.2	12.0
	101만원~150만원 이하	67.6	32.4	0.0	0.0
	151만원 이상	100.0	0.0	0.0	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22〉 미취학가구를 돌보기 위해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

(단위: %)

구분		4만원 이하	5~9만원	10~14만원	15만원 이상	평균(만원)
전체		40.9	8.3	39.4	11.4	6.7
성별	남성	23.4	12.1	45.9	18.7	9.7
	여성	43.8	7.6	38.3	10.2	6.2
연령	만34세 이하	51.2	0.0	48.8	0.0	4.9
	만35~49세	9.5	22.2	29.4	38.8	12.1
	만50~64세	77.1	22.9	0.0	0.0	1.1
교육수준	초졸이하	25.6	17.8	0.0	56.7	12.2
	중졸	23.8	17.3	32.0	27.0	8.1
	고졸	65.2	8.2	21.6	4.9	4.0
	대졸이상	0.0	0.0	100.0	0.0	10.0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59.8	19.9	9.7	10.7	4.2
	보통	23.9	4.1	57.5	14.5	8.9
	건강한 편	71.5	0.0	28.5	0.0	2.9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38.3	3.5	54.2	4.0	6.5
	단순근로가능	0.0	0.0	0.0	100.0	15.0
	단순근로미약자	22.9	0.0	26.3	50.8	13.8
	근로능력없음	67.9	32.1	0.0	0.0	2.0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0.0	0.0	68.2	31.8	13.2
	실업자	—	—	—	—	—
	비경제활동인구	44.7	9.0	36.7	9.5	6.1
지역	수도권	35.6	5.1	47.2	12.0	7.5
	광역시	40.1	14.0	36.9	9.1	6.4
	도	52.0	7.2	27.6	13.2	5.6
동거 가구원 수	1명	—	—	—	—	—
	2명	69.0	0.0	19.1	11.9	4.3
	3명 이상	16.3	15.5	57.2	11.0	8.8
가구 구성	단독가구	—	—	—	—	—
	모/부자가구	49.5	9.5	20.7	20.2	6.3
	조손가구	—	—	—	—	—
	다문화가구	—	—	—	—	—
	기타(일반가구)	34.3	7.3	53.6	4.7	7.0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0.0	0.0	100.0	0.0	10.0
	51만원~70만원 이하	0.0	0.0	0.0	100.0	15.0
	71만원~100만원 이하	64.5	0.0	12.1	23.4	6.4
	101만원~150만원 이하	34.8	13.2	46.2	5.7	6.7
	151만원 이상	53.9	12.0	34.2	0.0	4.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23〉 미취학가구를 돌보는 것이 취업활동에 주는 어려움

(단위: %)

구분		① 작다	②	①+② 작다	③	④	⑤ 크다	④+⑤ 크다	평균
전체		2.9	6.5	9.3	37.8	6.9	46.0	52.9	3.9
성별	남성	19.9	44.7	64.6	35.4	0.0	0.0	0.0	2.2
	여성	0.0	0.0	0.0	38.2	8.1	53.7	61.8	4.2
연령	만34세 이하	0.0	0.0	0.0	34.6	0.0	65.4	65.4	4.3
	만35~49세	9.8	21.9	31.7	36.9	14.9	16.4	31.3	3.1
	만50~64세	0.0	0.0	0.0	67.1	32.9	0.0	32.9	3.3
교육수준	초졸이하	0.0	0.0	0.0	74.4	25.6	0.0	25.6	3.3
	중졸	0.0	32.0	32.0	27.0	17.3	23.8	41.1	3.3
	고졸	5.3	4.9	10.2	10.1	4.3	75.4	79.7	4.4
	대졸이상	0.0	0.0	0.0	91.5	0.0	8.5	8.5	3.2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9.7	0.0	9.7	35.0	15.2	40.1	55.3	3.8
	보통	0.0	4.7	4.7	48.0	4.1	43.2	47.3	3.9
	건강한 편	0.0	28.5	28.5	0.0	0.0	71.5	71.5	4.1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0.0	9.6	9.6	32.3	3.5	54.6	58.1	4.0
	단순근로가능	0.0	0.0	0.0	100.0	0.0	0.0	0.0	3.0
	단순근로미약자	26.3	0.0	26.3	50.8	22.9	0.0	22.9	2.7
	근로능력없음	0.0	0.0	0.0	39.4	11.0	49.6	60.6	4.1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0.0	76.1	76.1	0.0	0.0	23.9	23.9	2.7
	실업자	—	—	—	—	—	—	—	—
	비경제활동인구	3.1	0.0	3.1	41.3	7.5	48.0	55.6	4.0
지역	수도권	0.0	0.0	0.0	59.3	5.1	35.6	40.7	3.8
	광역시	0.0	9.1	9.1	7.2	15.2	68.5	83.7	4.4
	도	12.0	15.6	27.6	34.5	0.0	38.0	38.0	3.4
동거 가구원 수	1명	—	—	—	—	—	—	—	—
	2명	0.0	0.0	0.0	11.9	0.0	88.1	88.1	4.8
	3명 이상	5.4	12.1	17.5	60.5	12.9	9.1	22.0	3.1
가구 구성	단독가구	—	—	—	—	—	—	—	—
	모/부자가구	0.0	0.0	0.0	24.3	5.5	70.2	75.7	4.5
	조손가구	—	—	—	—	—	—	—	—
	다문화가구	—	—	—	—	—	—	—	—
	기타(일반가구)	5.1	11.4	16.4	48.0	8.0	27.6	35.5	3.4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0.0	0.0	0.0	0.0	0.0	100.0	100.0	5.0
	51만원~70만원 이하	0.0	0.0	0.0	100.0	0.0	0.0	0.0	3.0
	71만원~100만원 이하	12.1	0.0	12.1	37.6	10.6	39.7	50.3	3.7
	101만원~150만원 이하	0.0	5.7	5.7	54.4	5.0	34.8	39.8	3.7
	151만원 이상	0.0	22.2	22.2	0.0	12.0	65.8	77.8	4.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24〉 미취학가구를 돌보기 위해 취업을 중단한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31.6	68.4
성별	남성	0.0	100.0
	여성	36.9	63.1
연령	만34세 이하	43.7	56.3
	만35~49세	13.8	86.2
	만50~64세	0.0	100.0
교육수준	초졸이하	0.0	100.0
	중졸	17.3	82.7
	고졸	50.4	49.6
	대졸이상	8.5	91.5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37.5	62.5
	보통	19.2	80.8
	건강한 편	71.5	28.5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30.2	69.8
	단순근로가능	0.0	100.0
	단순근로미약자	0.0	100.0
	근로능력없음	60.6	39.4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23.9	76.1
	실업자	—	—
	비경제활동인구	32.3	67.7
지역	수도권	0.0	100.0
	광역시	75.3	24.7
	도	38.0	62.0
동거 가구원 수	1명	—	—
	2명	58.9	41.1
	3명 이상	7.6	92.4
가구 구성	단독가구	—	—
	모/부자가구	63.8	36.2
	조손가구	—	—
	다문화가구	—	—
	기타(일반가구)	7.1	92.9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100.0	0.0
	51만원~70만원 이하	0.0	100.0
	71만원~100만원 이하	39.7	60.3
	101만원~150만원 이하	0.0	100.0
	151만원 이상	77.8	22.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25〉 취학가구원 유무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전체		9.5	90.5
성별	남성	6.2	93.8
	여성	13.0	87.0
연령	만34세 이하	7.8	92.2
	만35~49세	19.2	80.8
	만50~64세	5.9	94.1
교육수준	초졸이하	2.8	97.2
	중졸	10.1	89.9
	고졸	12.5	87.5
	대졸이상	11.8	88.2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7.6	92.4
	보통	27.0	73.0
	건강한 편	5.7	94.3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16.7	83.3
	단순근로가능	7.1	92.9
	단순근로미약자	8.4	91.6
	근로능력없음	7.5	92.5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32.8	67.2
	실업자	8.0	92.0
	비경제활동인구	7.8	92.2
지역	수도권	7.7	92.3
	광역시	10.3	89.7
	도	10.6	89.4
동거 가구원 수	1명	0.0	100.0
	2명	7.2	92.8
	3명 이상	33.0	67.0
가구 구성	단독가구	0.0	100.0
	모/부자가구	23.0	77.0
	조손가구	0.0	100.0
	다문화가구	28.6	71.4
	기타(일반가구)	18.1	81.9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3.2	96.8
	51만원~70만원 이하	0.8	99.2
	71만원~100만원 이하	8.1	91.9
	101만원~150만원 이하	22.2	77.8
	151만원 이상	22.2	77.8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26〉 취학가구원을 돌보는 주된 방식

(단위: %)

구분		동거가족	방과후교실	개인	지역공부방 (복지관)	돌보지 못하고 있음	비동거가족 및 친척
전체		80.9	10.8	4.9	1.8	0.8	0.7
성별	남성	74.8	15.9	3.9	3.0	2.4	0.0
	여성	84.1	8.2	5.4	1.2	0.0	1.1
연령	만34세 이하	100.0	0.0	0.0	0.0	0.0	0.0
	만35~49세	76.5	18.3	1.5	3.7	0.0	0.0
	만50~64세	77.4	5.7	12.4	0.0	2.4	2.2
교육수준	초졸이하	88.8	0.0	0.0	0.0	11.2	0.0
	중졸	83.4	13.8	2.7	0.0	0.0	0.0
	고졸	78.8	14.8	4.4	2.0	0.0	0.0
	대졸이상	80.6	0.0	11.0	4.3	0.0	4.1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80.7	8.5	7.9	1.7	0.0	1.2
	보통	84.2	10.6	0.0	2.5	2.7	0.0
	건강한 편	69.1	30.9	0.0	0.0	0.0	0.0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79.0	12.8	2.9	5.3	0.0	0.0
	단순근로가능	100.0	0.0	0.0	0.0	0.0	0.0
	단순근로미약자	83.7	11.4	4.9	0.0	0.0	0.0
	근로능력없음	77.4	10.8	7.7	0.0	2.1	1.9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68.1	19.5	4.4	8.0	0.0	0.0
	실업자	100.0	0.0	0.0	0.0	0.0	0.0
	비경제활동인구	83.9	8.7	5.3	0.0	1.1	1.0
지역	수도권	75.6	11.5	10.1	0.0	2.8	0.0
	광역시	75.3	9.2	6.8	6.2	0.0	2.5
	도	88.5	11.5	0.0	0.0	0.0	0.0
동거 가구원 수	1명	—	—	—	—	—	—
	2명	81.1	6.5	12.4	0.0	0.0	0.0
	3명 이상	80.8	12.3	2.3	2.4	1.1	1.0
가구 구성	단독가구	—	—	—	—	—	—
	모/부자가구	88.4	7.2	4.4	0.0	0.0	0.0
	조손가구	—	—	—	—	—	—
	다문화가구	100.0	0.0	0.0	0.0	0.0	0.0
	기타(일반가구)	76.4	13.0	5.3	2.9	1.3	1.2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80.8	0.0	19.2	0.0	0.0	0.0
	51만원~70만원 이하	50.7	49.3	0.0	0.0	0.0	0.0
	71만원~100만원 이하	75.2	17.9	2.8	4.0	0.0	0.0
	101만원~150만원 이하	85.8	5.4	5.5	0.0	1.7	1.6
	151만원 이상	80.3	12.3	3.6	3.9	0.0	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27〉 가족이나 친척에게 취학가구원을 맡기는 이유

(단위: %)

구분		비용부담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아이가 좋아해서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기타
전체		80.4	8.9	3.8	2.5	4.4
성별	남성	81.8	0.0	7.3	8.0	2.9
	여성	79.8	13.0	2.2	0.0	5.1
연령	만34세 이하	100.0	0.0	0.0	0.0	0.0
	만35~49세	68.0	17.6	6.4	5.4	2.5
	만50~64세	85.0	2.6	2.5	0.0	9.8
교육수준	초졸이하	100.0	0.0	0.0	0.0	0.0
	중졸	86.6	9.4	0.0	0.0	4.0
	고졸	69.1	13.4	7.5	4.9	5.1
	대졸이상	95.1	0.0	0.0	0.0	4.9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81.4	6.2	1.4	4.0	7.1
	보통	74.7	16.1	9.3	0.0	0.0
	건강한 편	100.0	0.0	0.0	0.0	0.0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75.3	16.0	8.8	0.0	0.0
	단순근로가능	72.1	0.0	0.0	27.9	0.0
	단순근로미약자	79.4	4.1	4.1	0.0	12.5
	근로능력없음	87.7	7.4	0.0	0.0	4.9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50.6	28.2	7.9	13.2	0.0
	실업자	64.7	0.0	35.3	0.0	0.0
	비경제활동인구	88.5	4.7	1.1	0.0	5.7
지역	수도권	83.4	3.1	0.0	9.2	4.2
	광역시	65.3	21.2	5.1	0.0	8.4
	도	88.1	4.8	5.1	0.0	2.0
동거 가구원 수	1명	—	—	—	—	—
	2명	83.7	7.4	3.3	0.0	5.6
	3명 이상	79.3	9.4	3.9	3.4	4.0
가구 구성	단독가구	—	—	—	—	—
	모/부자가구	80.2	4.9	6.0	0.0	8.9
	조손가구	—	—	—	—	—
	다문화가구	100.0	0.0	0.0	0.0	0.0
	기타(일반가구)	80.3	11.7	2.4	4.1	1.5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100.0	0.0	0.0	0.0	0.0
	51만원~70만원 이하	100.0	0.0	0.0	0.0	0.0
	71만원~100만원 이하	81.3	15.1	3.5	0.0	0.0
	101만원~150만원 이하	79.7	10.5	2.9	0.0	6.9
	151만원 이상	75.5	0.0	7.3	12.6	4.6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28〉 취학가구를 맡기는 시간

(단위: %)

구분		시간제	필요한 경우에만
전체		62.3	37.7
성별	남성	60.8	39.2
	여성	63.4	36.6
연령	만34세 이하	—	—
	만35~49세	84.6	15.4
	만50~64세	20.3	79.7
교육수준	초졸이하	—	—
	중졸	100.0	0.0
	고졸	58.1	41.9
	대졸이상	28.0	72.0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50.0	50.0
	보통	74.3	25.7
	건강한 편	100.0	0.0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71.9	28.1
	단순근로가능	—	—
	단순근로미약자	69.7	30.3
	근로능력없음	49.0	51.0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71.9	28.1
	실업자	—	—
	비경제활동인구	55.6	44.4
지역	수도권	63.0	37.0
	광역시	53.4	46.6
	도	73.2	26.8
동거 가구원 수	1명	—	—
	2명	46.9	53.1
	3명 이상	68.1	31.9
가구 구성	단독가구	—	—
	모/부자가구	61.8	38.2
	조손가구	—	—
	다문화가구	—	—
	기타(일반가구)	62.4	37.6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0.0	100.0
	51만원~70만원 이하	100.0	0.0
	71만원~100만원 이하	68.4	31.6
	101만원~150만원 이하	61.4	38.6
	151만원 이상	55.7	44.3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29〉 취학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

(단위: %)

구분		4만원 이하	5~19만원	20~39만원	40만원 이상	평균(만원)
전체		48.7	17.0	28.5	5.8	11.4
성별	남성	45.5	19.7	31.0	3.9	11.2
	여성	50.4	15.6	27.2	6.9	11.5
연령	만34세 이하	25.5	26.5	48.0	0.0	12.3
	만35~49세	52.2	14.9	25.3	7.6	11.2
	만50~64세	55.6	15.1	23.1	6.3	11.2
교육수준	초졸이하	70.3	9.1	20.6	0.0	5.6
	중졸	61.7	15.8	22.5	0.0	7.4
	고졸	46.1	22.9	22.8	8.1	12.4
	대졸이상	31.4	4.3	55.5	8.8	15.8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62.1	14.5	15.0	8.3	9.2
	보통	13.5	21.5	62.8	2.3	18.2
	건강한 편	81.0	19.0	0.0	0.0	1.9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23.5	22.8	50.0	3.7	15.9
	단순근로가능	82.3	0.0	17.7	0.0	5.3
	단순근로미약자	75.2	6.7	14.1	4.1	5.2
	근로능력없음	51.0	20.4	18.7	9.9	11.7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43.3	14.4	39.2	3.1	13.5
	실업자	61.1	0.0	38.9	0.0	11.7
	비경제활동인구	49.8	18.5	24.7	6.9	10.7
지역	수도권	27.6	2.5	62.6	7.3	19.8
	광역시	51.6	16.4	19.3	12.7	11.6
	도	61.4	27.5	11.1	0.0	5.3
동거 가구원 수	1명	—	—	—	—	—
	2명	47.4	22.1	21.0	9.5	13.0
	3명 이상	49.2	15.2	31.1	4.6	10.8
가구 구성	단독가구	—	—	—	—	—
	모/부자가가구	59.9	8.7	18.9	12.6	12.5
	조손가구	—	—	—	—	—
	다문화가구	100.0	0.0	0.0	0.0	0.0
	기타(일반가구)	41.7	21.9	34.3	2.1	10.9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20.2	24.8	0.0	54.9	34.4
	51만원~70만원 이하	50.7	49.3	0.0	0.0	4.9
	71만원~100만원 이하	75.7	13.3	11.0	0.0	3.8
	101만원~150만원 이하	36.3	16.0	44.6	3.2	13.3
	151만원 이상	49.3	18.5	22.8	9.4	12.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30〉 취학가구원을 돌보는 것이 취업활동에 주는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① 작다	②	①+② 작다	③	④	⑤ 크다	④+⑤ 크다	평균
전체		13.3	15.0	28.3	46.2	11.4	14.2	25.5	3.0
성별	남성	16.9	25.0	42.0	36.6	3.9	17.5	21.4	2.8
	여성	11.4	9.8	21.3	51.1	15.2	12.4	27.6	3.1
연령	만34세 이하	0.0	0.0	0.0	73.5	26.5	0.0	26.5	3.3
	만35~49세	7.9	23.6	31.5	38.7	6.6	23.2	29.8	3.1
	만50~64세	27.9	10.3	38.3	42.9	10.5	8.4	18.8	2.6
교육수준	초졸이하	28.3	13.4	41.8	48.1	0.0	10.1	10.1	2.5
	중졸	17.7	18.1	35.8	41.8	13.8	8.6	22.4	2.8
	고졸	13.9	16.3	30.2	36.5	14.3	18.9	33.3	3.1
	대졸이상	0.0	8.2	8.2	78.7	4.3	8.8	13.1	3.1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15.5	17.1	32.5	38.3	9.7	19.5	29.2	3.0
	보통	9.5	9.9	19.4	59.2	17.6	3.8	21.4	3.0
	건강한 편	10.7	19.0	29.6	58.4	0.0	12.0	12.0	2.8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8.0	16.0	23.9	49.6	15.6	10.8	26.4	3.1
	단순근로가능	25.9	17.7	43.7	56.3	0.0	0.0	0.0	2.3
	단순근로미약자	14.0	25.4	39.4	46.9	6.6	7.2	13.7	2.7
	근로능력없음	15.3	8.2	23.5	40.7	12.2	23.5	35.7	3.2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20.5	24.3	44.9	47.7	3.4	4.0	7.4	2.5
	실업자	0.0	38.9	38.9	25.8	0.0	35.3	35.3	3.3
	비경제활동인구	11.7	11.1	22.8	46.6	14.3	16.3	30.6	3.1
지역	수도권	7.4	3.2	10.6	72.4	5.7	11.2	17.0	3.1
	광역시	16.1	9.4	25.5	36.3	12.9	25.4	38.3	3.2
	도	15.5	27.2	42.7	34.8	14.2	8.3	22.5	2.7
동거 가구원 수	1명	—	—	—	—	—	—	—	—
	2명	17.5	0.0	17.5	45.8	27.2	9.5	36.7	3.1
	3명 이상	11.9	20.2	32.1	46.3	5.8	15.8	21.6	2.9
가구 구성	단독가구	—	—	—	—	—	—	—	—
	모/부자가구	11.5	17.7	29.3	36.6	11.4	22.8	34.2	3.2
	조손가구	—	—	—	—	—	—	—	—
	다문화가구	0.0	0.0	0.0	100.0	0.0	0.0	0.0	3.0
가구 소득	기타(일반가구)	14.5	13.7	28.1	51.0	11.5	9.4	20.9	2.9
	50만원 이하	0.0	0.0	0.0	39.5	24.8	35.7	60.5	4.0
	51만원~70만원 이하	49.3	0.0	49.3	50.7	0.0	0.0	0.0	2.0
	71만원~100만원 이하	9.2	10.5	19.7	61.1	15.9	3.3	19.2	2.9
	101만원~150만원 이하	10.9	20.1	31.0	44.1	9.7	15.1	24.9	3.0
	151만원 이상	22.8	14.1	37.0	32.7	7.7	22.6	30.3	2.9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31〉 취학가구를 돌보기 위해 취업을 중단한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12.0	88.0
성별	남성	9.5	90.5
	여성	13.3	86.7
연령	만34세 이하	0.0	100.0
	만35~49세	23.2	76.8
	만50~64세	2.0	98.0
교육수준	초졸이하	10.1	89.9
	중졸	8.7	91.3
	고졸	11.6	88.4
	대졸이상	18.1	81.9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11.0	89.0
	보통	17.1	82.9
	건강한 편	0.0	100.0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8.3	91.7
	단순근로가능	0.0	100.0
	단순근로미약자	5.8	94.2
	근로능력없음	20.9	79.1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7.4	92.6
	실업자	35.3	64.7
	비경제활동동인구	12.3	87.7
지역	수도권	9.6	90.4
	광역시	21.8	78.2
	도	6.8	93.2
동거 가구원 수	1명	—	—
	2명	10.7	89.3
	3명 이상	12.4	87.6
가구 구성	단독가구	—	—
	모/부자가구	14.3	85.7
	조손가구	—	—
	다문화가구	0.0	100.0
	기타(일반가구)	10.8	89.2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35.7	64.3
	51만원~70만원 이하	49.3	50.7
	71만원~100만원 이하	4.5	95.5
	101만원~150만원 이하	3.4	96.6
	151만원 이상	32.0	68.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32〉 간병 필요 가구원 유무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전체		8.5	91.5
성별	남성	9.1	90.9
	여성	7.8	92.2
연령	만34세 이하	7.1	92.9
	만35~49세	9.8	90.2
	만50~64세	8.4	91.6
교육수준	초졸이하	12.9	87.1
	중졸	4.9	95.1
	고졸	8.6	91.4
	대졸이상	5.7	94.3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8.7	91.3
	보통	10.8	89.2
	건강한 편	5.2	94.8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4.6	95.4
	단순근로가능	5.8	94.2
	단순근로미약자	4.0	96.0
	근로능력없음	12.6	87.4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7.1	92.9
	실업자	1.7	98.3
	비경제활동인구	8.9	91.1
지역	수도권	9.3	90.7
	광역시	8.6	91.4
	도	7.6	92.4
동거 가구원 수	1명	1.8	98.2
	2명	11.1	88.9
	3명 이상	18.1	81.9
가구 구성	단독가구	1.8	98.2
	모/부자가구	14.3	85.7
	조손가구	12.6	87.4
	다문화가구	0.0	100.0
	기타(일반가구)	14.0	86.0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1.5	98.5
	51만원~70만원 이하	3.6	96.4
	71만원~100만원 이하	10.7	89.3
	101만원~150만원 이하	16.1	83.9
	151만원 이상	8.9	91.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33〉 간병 필요 가구원을 돌보는 주된 방식

(단위: %)

구분		동거가족	개인 (간병사)	돌보지 못하고 있음	주간/단기 보호시설	의료기관	장기요양 시설	비동거가 족 및 친척	기타
전체		60.9	29.4	3.0	2.4	1.5	0.8	0.6	1.3
성별	남성	48.5	36.9	5.4	4.3	0.0	1.5	1.1	2.4
	여성	76.8	19.8	0.0	0.0	3.5	0.0	0.0	0.0
연령	만34세 이하	40.9	59.1	0.0	0.0	0.0	0.0	0.0	0.0
	만35~49세	69.2	18.9	3.2	5.5	0.0	0.0	0.0	3.2
	만50~64세	63.2	25.0	3.9	1.6	2.8	1.5	1.2	0.8
교육수준	초졸이하	42.3	47.4	6.5	0.0	0.0	2.2	1.7	0.0
	중졸	83.2	5.1	4.5	7.2	0.0	0.0	0.0	0.0
	고졸	72.4	16.7	0.0	3.8	3.8	0.0	0.0	3.3
	대졸이상	57.2	42.8	0.0	0.0	0.0	0.0	0.0	0.0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62.8	27.3	3.8	3.1	1.9	1.0	0.0	0.0
	보통	50.4	35.2	0.0	0.0	0.0	0.0	4.6	9.8
	건강한 편	60.1	39.9	0.0	0.0	0.0	0.0	0.0	0.0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66.9	27.1	0.0	0.0	0.0	0.0	5.9	0.0
	단순근로가능	11.9	44.9	8.2	23.2	11.8	0.0	0.0	0.0
	단순근로미약자	88.6	7.3	0.0	0.0	0.0	0.0	0.0	4.1
	근로능력없음	60.4	31.6	3.4	1.2	1.0	1.1	0.0	1.2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33.2	14.4	10.0	28.2	14.4	0.0	0.0	0.0
	실업자	0.0	100.0	0.0	0.0	0.0	0.0	0.0	0.0
	비경제활동인구	63.0	29.7	2.6	0.9	0.8	0.9	0.7	1.4
지역	수도권	64.0	27.0	3.2	0.0	2.0	2.1	1.6	0.0
	광역시	50.0	44.1	0.0	3.2	2.7	0.0	0.0	0.0
	도	66.2	20.1	5.2	4.6	0.0	0.0	0.0	4.0
동거 가구원 수	1명	0.0	89.0	0.0	0.0	0.0	0.0	6.5	4.6
	2명	76.9	14.4	5.2	0.0	1.8	1.8	0.0	0.0
	3명 이상	58.3	31.3	1.5	5.3	1.6	0.0	0.0	2.0
가구 구성	단독가구	0.0	89.0	0.0	0.0	0.0	0.0	6.5	4.6
	모/부자가구	87.0	7.2	5.8	0.0	0.0	0.0	0.0	0.0
	조손가구	0.0	100.0	0.0	0.0	0.0	0.0	0.0	0.0
	다문화가구	—	—	—	—	—	—	—	—
	기타(일반가구)	71.5	15.4	2.8	4.4	2.8	1.5	0.0	1.6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69.0	0.0	0.0	0.0	31.0	0.0	0.0	0.0
	51만원~70만원 이하	57.5	35.1	0.0	7.4	0.0	0.0	0.0	0.0
	71만원~100만원 이하	64.9	23.6	4.2	0.0	0.0	2.1	1.6	3.5
	101만원~150만원 이하	56.3	36.2	1.4	4.0	2.0	0.0	0.0	0.0
	151만원 이상	65.4	25.1	9.5	0.0	0.0	0.0	0.0	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34〉 가족이나 친척에게 간병 필요 가구원을 맡기는 이유

(단위: %)

구분		비용부담 때문에	본인이 가족 및 친척 외 다른 간병서비스 를 싫어해서	믿고 맡길 수 있어서	근처에 시설이 없어서	시간대가 안 맞아서	기타
전체		48.1	40.3	6.9	1.3	1.2	2.2
성별	남성	53.6	34.4	4.4	2.8	0.0	4.8
	여성	43.6	45.2	8.9	0.0	2.2	0.0
연령	만34세 이하	33.3	66.7	0.0	0.0	0.0	0.0
	만35~49세	39.8	53.3	0.0	0.0	0.0	6.9
	만50~64세	55.9	27.6	12.2	2.2	2.1	0.0
교육수준	초졸이하	57.6	24.3	8.9	4.7	4.5	0.0
	중졸	49.6	38.9	11.6	0.0	0.0	0.0
	고졸	35.8	54.1	5.5	0.0	0.0	4.6
	대졸이상	82.5	17.5	0.0	0.0	0.0	0.0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46.3	39.3	8.6	1.6	1.5	2.7
	보통	48.0	52.0	0.0	0.0	0.0	0.0
	건강한 편	68.2	31.8	0.0	0.0	0.0	0.0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47.9	52.1	0.0	0.0	0.0	0.0
	단순근로가능	100.0	0.0	0.0	0.0	0.0	0.0
	단순근로미약자	60.4	26.4	13.2	0.0	0.0	0.0
	근로능력없음	44.5	42.0	6.9	1.8	1.7	3.1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0.0	100.0	0.0	0.0	0.0	0.0
	실업자	—	—	—	—	—	—
	비경제활동인구	49.6	38.5	7.1	1.3	1.3	2.2
지역	수도권	51.4	37.4	5.9	0.0	0.0	5.2
	광역시	21.4	62.6	4.9	5.7	5.5	0.0
	도	60.8	29.9	9.3	0.0	0.0	0.0
동거 가구원 수	1명	100.0	0.0	0.0	0.0	0.0	0.0
	2명	42.7	43.2	5.8	2.3	2.2	3.9
	3명 이상	53.9	37.6	8.5	0.0	0.0	0.0
가구 구성	단독가구	100.0	0.0	0.0	0.0	0.0	0.0
	모/부자가구	47.2	38.1	11.1	3.6	0.0	0.0
	조손가구	—	—	—	—	—	—
	다문화가구	—	—	—	—	—	—
	기타(일반가구)	47.8	42.1	4.7	0.0	1.9	3.4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0.0	51.7	48.3	0.0	0.0	0.0
	51만원~70만원 이하	14.5	85.5	0.0	0.0	0.0	0.0
	71만원~100만원 이하	57.6	29.5	4.6	3.0	0.0	5.2
	101만원~150만원 이하	51.7	37.4	7.4	0.0	3.5	0.0
	151만원 이상	46.2	42.4	11.4	0.0	0.0	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35〉 간병 필요 가구원을 맡기는 시간

(단위: %)

구분		시간제	종일제	필요한 경우에만
전체		74.5	21.9	3.7
성별	남성	83.7	16.3	0.0
	여성	51.7	35.6	12.7
연령	만34세 이하	100.0	0.0	0.0
	만35~49세	51.3	48.7	0.0
	만50~64세	69.3	23.2	7.5
교육수준	초졸이하	95.6	4.4	0.0
	중졸	41.8	58.2	0.0
	고졸	45.8	54.2	0.0
	대졸이상	68.7	0.0	31.3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76.9	18.2	4.9
	보통	51.4	48.6	0.0
	건강한 편	100.0	0.0	0.0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72.7	27.3	0.0
	단순근로가능	56.2	43.8	0.0
	단순근로미약자	100.0	0.0	0.0
	근로능력없음	77.2	17.8	5.0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0.0	100.0	0.0
	실업자	100.0	0.0	0.0
	비경제활동인구	81.2	14.7	4.1
지역	수도권	80.3	19.7	0.0
	광역시	88.2	11.8	0.0
	도	47.7	38.9	13.4
동거 가구원 수	1명	100.0	0.0	0.0
	2명	63.8	20.0	16.2
	3명 이상	66.5	33.5	0.0
가구 구성	단독가구	100.0	0.0	0.0
	모/부자가구	100.0	0.0	0.0
	조손가구	100.0	0.0	0.0
	다문화가구	—	—	—
	기타(일반가구)	35.7	55.1	9.2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0.0	100.0	0.0
	51만원~70만원 이하	56.4	43.6	0.0
	71만원~100만원 이하	84.8	15.2	0.0
	101만원~150만원 이하	77.7	14.3	8.0
	151만원 이상	65.2	34.8	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36〉 간병 필요 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

(단위: %)

구분		0만원	1~9만원	10~19만원	20~29만원	30만원 이상	평균(만원)
전체		68.9	5.7	6.2	11.0	8.3	7.6
성별	남성	65.5	3.9	11.0	12.1	7.5	8.9
	여성	73.2	8.0	0.0	9.5	9.3	6.0
연령	만34세 이하	100.0	0.0	0.0	0.0	0.0	0.0
	만35~49세	50.8	11.2	3.2	22.9	11.8	9.5
	만50~64세	68.0	4.6	9.8	8.4	9.2	9.1
교육수준	초졸이하	81.2	0.0	6.1	10.5	2.2	3.5
	중졸	74.1	0.0	6.1	15.4	4.5	5.9
	고졸	50.7	14.0	5.5	12.7	17.1	13.5
	대졸이상	90.6	0.0	9.4	0.0	0.0	0.9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70.0	2.7	6.7	13.0	7.6	8.3
	보통	44.8	26.0	6.5	5.7	17.0	7.7
	건강한 편	100.0	0.0	0.0	0.0	0.0	0.0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66.7	16.3	0.0	7.4	9.5	5.0
	단순근로가능	34.9	11.9	0.0	0.0	53.2	41.6
	단순근로미약자	87.3	0.0	6.9	0.0	5.8	4.2
	근로능력없음	69.6	4.4	7.6	14.1	4.3	5.4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45.7	15.6	0.0	14.4	24.3	16.9
	실업자	100.0	0.0	0.0	0.0	0.0	0.0
	비경제활동인구	70.0	5.1	6.6	10.9	7.4	7.1
지역	수도권	54.4	2.0	4.0	24.3	15.4	14.7
	광역시	83.0	11.5	0.0	5.6	0.0	1.6
	도	74.2	5.1	13.8	0.0	6.8	4.2
동거 가구원 수	1명	77.3	0.0	0.0	0.0	22.7	20.4
	2명	76.6	7.8	5.1	3.4	7.0	4.8
	3명 이상	59.5	4.8	8.5	20.7	6.5	7.6
가구 구성	단독가구	77.3	0.0	0.0	0.0	22.7	20.4
	모/부자가구	73.6	3.2	3.2	13.7	6.2	5.7
	조손가구	100.0	0.0	0.0	0.0	0.0	0.0
	다문화가구	—	—	—	—	—	—
	기타(일반가구)	59.3	8.9	9.8	13.8	8.3	7.7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66.6	0.0	33.4	0.0	0.0	3.3
	51만원~70만원 이하	70.2	0.0	0.0	0.0	29.8	20.1
	71만원~100만원 이하	71.7	4.5	5.9	13.2	4.7	5.4
	101만원~150만원 이하	68.9	10.2	3.5	11.3	6.1	5.7
	151만원 이상	56.2	0.0	19.6	17.3	6.9	9.6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37〉 간병 필요 가구원을 돌보는 것이 취업활동에 주는 어려움

(단위: %)

구분		① 작다	②	①+② 작다	③	④	⑤ 크다	④+⑤ 크다	평균
전체		8.9	5.2	14.2	20.8	17.6	47.5	65.1	3.9
성별	남성	12.6	8.0	20.6	24.3	19.0	36.2	55.2	3.6
	여성	4.3	1.8	6.0	16.3	15.8	61.9	77.7	4.3
연령	만34세 이하	0.0	0.0	0.0	13.6	0.0	86.4	86.4	4.7
	만35~49세	9.9	6.2	16.1	11.9	13.6	58.4	72.0	4.0
	만50~64세	11.4	6.5	17.8	27.7	25.4	29.1	54.5	3.5
교육수준	초졸이하	9.0	13.9	23.0	33.5	0.0	43.6	43.6	3.6
	중졸	15.4	0.0	15.4	31.2	27.9	25.6	53.5	3.5
	고졸	4.7	0.0	4.7	8.6	25.5	61.2	86.7	4.4
	대졸이상	18.2	0.0	18.2	9.4	39.7	32.6	72.4	3.7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7.6	6.7	14.3	23.0	18.6	44.2	62.8	3.9
	보통	14.3	0.0	14.3	10.3	21.7	53.6	75.4	4.0
	건강한 편	13.1	0.0	13.1	16.7	0.0	70.2	70.2	4.1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5.9	0.0	5.9	7.4	18.2	68.4	86.7	4.4
	단순근로가능	0.0	0.0	0.0	0.0	45.0	55.0	100.0	4.6
	단순근로미약자	4.1	0.0	4.1	18.2	54.6	23.1	77.7	3.9
	근로능력없음	10.9	7.3	18.2	25.0	9.4	47.4	56.7	3.7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0.0	0.0	0.0	14.4	29.9	55.7	85.6	4.4
	실업자	0.0	0.0	0.0	0.0	0.0	100.0	100.0	5.0
	비경제활동인구	9.5	5.6	15.1	21.3	17.0	46.6	63.6	3.9
지역	수도권	14.2	13.5	27.7	24.7	25.1	22.5	47.6	3.3
	광역시	3.2	0.0	3.2	5.6	10.8	80.4	91.2	4.7
	도	7.5	0.0	7.5	28.6	14.3	49.6	63.9	4.0
동거 가구원 수	1명	35.7	0.0	35.7	41.6	22.7	0.0	22.7	2.5
	2명	4.8	1.7	6.5	24.3	24.2	45.0	69.2	4.0
	3명 이상	7.3	9.8	17.1	12.9	10.0	60.0	70.0	4.1
가구 구성	단독가구	35.7	0.0	35.7	41.6	22.7	0.0	22.7	2.5
	모/부자가구	9.8	0.0	9.8	26.4	14.5	49.3	63.8	3.9
	조손가구	0.0	0.0	0.0	0.0	0.0	100.0	100.0	5.0
	다문화가구	—	—	—	—	—	—	—	—
	기타(일반가구)	5.5	9.6	15.1	18.5	21.4	45.0	66.4	3.9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0.0	0.0	0.0	33.4	35.7	31.0	66.6	4.0
	51만원~70만원 이하	0.0	0.0	0.0	5.3	18.6	76.0	94.7	4.7
	71만원~100만원 이하	20.6	13.6	34.3	30.5	17.2	18.1	35.3	3.0
	101만원~150만원 이하	1.2	0.0	1.2	13.4	12.5	72.9	85.4	4.6
	151만원 이상	6.3	0.0	6.3	27.6	34.7	31.4	66.1	3.8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표 1-38〉 간병 필요 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취업을 중단한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23.9	76.1
성별	남성	11.3	88.7
	여성	40.1	59.9
연령	만34세 이하	27.3	72.7
	만35~49세	18.5	81.5
	만50~64세	25.7	74.3
교육수준	초졸이하	9.2	90.8
	중졸	29.6	70.4
	고졸	34.0	66.0
	대졸이상	32.0	68.0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17.1	82.9
	보통	47.9	52.1
	건강한 편	51.0	49.0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59.3	40.7
	단순근로가능	23.6	76.4
	단순근로미약자	13.4	86.6
	근로능력없음	20.4	79.6
경제활동 참여상태	일을 하고 있음	31.9	68.1
	실업자	100.0	0.0
	비경제활동인구	22.8	77.2
지역	수도권	22.6	77.4
	광역시	13.4	86.6
	도	34.1	65.9
동거 가구원 수	1명	0.0	100.0
	2명	29.4	70.6
	3명 이상	23.7	76.3
가구 구성	단독가구	0.0	100.0
	모/부자가구	45.0	55.0
	조손가구	0.0	100.0
	다문화가구	—	—
	기타(일반가구)	23.2	76.8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0.0	100.0
	51만원~70만원 이하	76.0	24.0
	71만원~100만원 이하	12.7	87.3
	101만원~150만원 이하	15.8	84.2
	151만원 이상	44.8	55.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원자료

부록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조사표

ID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수급가구 및 수급자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보건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소중한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 조사주관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문 의 처 : 한국리서치 ☎ 02-3014-0111

• 조사수행기관 : Hankook Research

리스트 ID		응답자 나이	만 _____ 세 ▶ 만65에 이상 조사 중단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 -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상세주소
최종면접일시	____ 월 ____ 일 ____ 시 ____ 분		면접시간	____ 분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수퍼바이저 검증			검증결과	



A. 국민기초생활보장

A1. 귀하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중 현재 수급하고 계신 급여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응답해주시요.

- ① 생계급여
- ② 의료급여
- ③ 주거급여
- ④ 교육급여

A2. 귀하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까지 응답해주시요.

 ,

- ①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 ②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 ③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 ④ 이혼, 가구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 ⑤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 ⑥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 ⑦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 ⑨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A3.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 A1에서 응답한 급여 종류를 우선 먼저 체크하고 체크된 급여 종류만 응답 받습니다.

A1 응답 체크	구분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input type="checkbox"/>	1) 생계급여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2) 의료급여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3) 주거급여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4) 교육급여	①	②	③	④	⑤

A4.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중 앞으로 얼마 후에 각 급여별로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 A1에서 응답한 급여 종류를 우선 먼저 체크하고 체크된 급여 종류만 응답 받습니다.

A1응답 체크	<input type="checkbox"/>	A1응답 체크	<input type="checkbox"/>	A1응답 체크	<input type="checkbox"/>	A1응답 체크	<input type="checkbox"/>
A2-4-1. 생계급여		A2-4-2. 의료급여		A2-4-3. 주거급여		A2-4-4. 교육급여	

- ① 6개월 이내
- ② 6개월 후 ~ 1년 이내
- ③ 1년 후 ~ 3년 이내
- ④ 3년 후
- ⑤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 ⑥ 잘 모르겠다

A5.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중 현재 받지 않는 급여별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응답해주시지요.

※ A1에서 응답한 급여가 아닌 것만 응답 합니다.

A2-5-1. 생계급여		A2-5-2. 의료급여		A2-5-3. 주거급여		A2-5-4. 교육급여	
-----------------	--	-----------------	--	-----------------	--	-----------------	--

- ①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 ②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서
- ③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 ④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 ⑤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 ⑥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수가 줄어들어서
- ⑦ 가족의 병이 나아서
-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 ⑨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 ⑩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A6. (A1에서 ①생계급여를 응답한 경우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여러 지원 중, 귀댁이 수급가구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급여는 무엇입니까? (생계비를 제외하고 하나만 응답)

- ① 의료비 지원
- ② 교육비 지원
- ③ 주거비 지원
- ④ 자활관련 지원
- ⑤ 없다
-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B. 자활 및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 경험

B1. 귀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2011년부터 2019년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① 있다 ② 없다 → 「B3」으로 갈 것

B2. 귀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다가 중단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2011년부터 2019년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있다 ② 없다 → 「B4」로 갈 것

▶ B2-1. 귀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다가 중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장애, 질병 등으로 몸이 아프서
- ② 집에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 ③ 학업 등으로
- ④ 다른 곳에 취업해서
- ⑤ 자활사업을 통해 버는 소득이 적어서
- ⑥ 주거지와 자활사업 참여지와 거리가 멀어서
- ⑦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과 관계가 나빠서
- ⑧ 자활사업단 직원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 ⑨ 음주, 정신질환 등으로 참여가 어려워서
- ⑩ 자활사업이 탈수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 ⑪ 기타(구체적으로 :

B3. 귀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조건부수급자가 아님 ➡ 「B5」로 갈 것
- ② 조건부와 유예받음
- ③ 조건제시 유예받음

▶ B3-1.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신 구체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장애, 질병 등으로 몸이 아파서
- ② 집에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 ③ 학업 등으로
- ④ 다른 곳에 취업해서
- ⑤ 자활사업을 통해 버는 소득이 적어서
- ⑥ 주거지와 자활사업 참여지와 거리가 멀어서
- ⑦ 음주, 정신질환 등으로 참여가 어려워서
- ⑧ 자활사업이 탈수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 ⑨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B4. 자활사업에 참여한 내용을 기입해주시시오. (2011년부터 2019년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구 분	0) 자활 참여 기간	1) 자활근로 유형 ① 간병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음식물 재활용 ④ 도시락사업단 ⑤ 청소사업 ⑥ 세차 ⑦ 기타	2) 근무시간 하루기준 시간	3) 근로일수 한달 평균 일수	4) 급여수준		5) 자활장려금		6)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	
					(1) 급여	(2) 만족도	(1) 경험 여부	(2) 만족도	(1)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2) 전반적 만족도
					① 매우 충분 ② 충분 ③ 보통 ④ 부족 ⑤ 매우 부족	① 경험한 적이 있다 ② 경험 하지 않았다	① 매우 충분 ② 충분 ③ 보통 ④ 부족 ⑤ 매우 부족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② 도움이 되지 않음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됨 ⑤ 매우 도움이 됨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첫 번 째	□□□□년 □□월 ~ □□□□년 □□월		하루기준 □□ 시간	한달평균 □□ 일수	한달평균 □□ 만원					
두 번 째	□□□□년 □□월 ~ □□□□년 □□월		하루기준 □□ 시간	한달평균 □□ 일수	한달평균 □□ 만원					
세 번 째	□□□□년 □□월 ~ □□□□년 □□월		하루기준 □□ 시간	한달평균 □□ 일수	한달평균 □□ 만원					

B5. 귀하는 정부지원일자리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2011년부터 2019년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① 있다

② 없다 ➡ 'C1'으로 갈 것

➔ B5-1. 귀하는 정부지원 일자리 중 어디에 주로 참여하셨습니까? 2011년부터 2019년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① 희망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 ② 청년인턴(행정인턴, 공공부문 인턴, 중소기업 인턴 등)
- ③ 노인일자리
- ④ 사회서비스 일자리(사회적일자리, 사회서비스 바우처, 돌봄서비스 등)
-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C. 탈수급 및 재수급 실태

※ 아래 문항은 현재 수급가구 중, 탈수급 경험이 있는 가구만이 응답하는 질문입니다.
2011년부터 2019년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수급과 탈수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가장 최근 탈수급을 기준으로 응답 해주시면 됩니다.

※ 본 조사에서 탈수급이란 '생계급여'를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받지 않은 경우를 탈수급이라고 정의합니다.

C1. 귀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습니까? 2011년부터 2019년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① 있다

② 없다 ➡ 'C3'로 갈 것

C2. 귀 가구가 '생계급여'에서 가장 최근 벗어난(탈수급)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이 늘어서 ➡ 'C2-1'로 갈 것
- ② 재산이 늘어서 ➡ 'C2-2'로 갈 것
- ③ 지출이 줄어서 ➡ 'C3'로 갈 것
- ④ 행정상의 이유로 ➡ 'C2-3'로 갈 것
-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C2-1. 귀 가구의 소득변화는 주로 무엇에 의해서 발생하였습니까? ➡ 응답 후 'C3'으로 갈 것

- ① 가구주의 소득이 늘어서
- ② 배우자의 소득이 늘어서
- ③ 가구원의 소득이 늘어서
- ④ 친인척이나 주변사람들이 도와줘서
- ⑤ 사망, 이혼, 분가 등으로 가구원수가 줄어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C2-2. 귀 가구의 재산변화는 주로 무엇에 의해서 발생하였습니까? ➡ 응답 후 'C3'으로 갈 것

- ① 금융재산(계좌, 적금)이 생겨서
- ② 부동산재산(상속 등)이 생겨서
- ③ 민간(보장성)보험금을 받게 되서
- ④ 부채가 해결되어서
-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C2-3. 귀 가구의 수급사유와 관련된 행정상의 변화는 주로 무엇에 의해서 발생하였습니까?

▶응답 후 'C3'으로 갈 것

- 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 ② 가구여건의 변화는 없으나 수급자 판정결과가 달라져서
- ③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서
- ④ 사망, 이혼, 분가 등으로 가구원수가 줄어서
-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C3. 귀 가구는 기초보장제도로부터 벗어나기(탈수급하기)를 원하십니까?

- ① 원한다
- ② 원하지 않는다

C4. 귀 가구가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주거부담이 해결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육부담이 해결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보육이나 간병 부담이 해결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의료부담이 해결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부채가 해결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시 수급자격을 얻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D. 탈수급 시 노동시장 이력(※C1에서 ①응답자만 응답)

D0. 2011년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 일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① 예 ➡ 「D1로 갈 것」
 ② 아니오 ➡ 「E. 고용희망척도」로 갈 것

D1. 2011년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 일을 한 경험이 있으시면, 그 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월근로 및 정부지원 일자리는 제외하고 응답해주시십시오.

첫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두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세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구분	D2. 경제활동 참여상태	D3. 업종	D4. 직종	D5. 사업장규모	D6. 국민연금	D7. 산재보험	D8. 고용보험	D9. 건강보험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기타()	※ 산업분류 (한국표준 산업 분류 10차 개정) 코드에서 대분류 코드 2자리를 기입하십시오.	※ 산업분류 (한국표준 직업 분류 7차 개정) 코드에서 대분류 코드 2자리를 기입하십시오.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99명 ⑥ 100~299명 ⑦ 300~499명 ⑧ 500~999명 ⑨ 1000명 이상 ⑩ 잘 모르겠다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첫 번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두 번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세 번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구분	D10. 근무시간	D11. 근무일수	D12. 급여수준	D13. 일을 그만둔 이유
	하루기준 시간	한달평균 일수	한달평균 만원	
첫 번째	<input type="text"/> 시간	<input type="text"/> 일수	<input type="text"/> 만원	
두 번째	<input type="text"/> 시간	<input type="text"/> 일수	<input type="text"/> 만원	
세 번째	<input type="text"/> 시간	<input type="text"/> 일수	<input type="text"/> 만원	

D13. 직장(사업) 혹은 일을 그만두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보기카드 보여주면서 응답)

- ① 일자리(직장)나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 ② 소득 또는 임금이 늘어 수급탈락이 예상되어
- ③ 소득 또는 임금이 조사에서 들어나서
- ④ 정리해고,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 ⑤ 정년퇴직
- ⑥ 계약기간이 끝나서
- ⑦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 ⑧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 ⑨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 ⑩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 ⑪ 근로시간 또는 근로 환경이 나빠서
- ⑫ 자기(가족)사업을 새로 하려고
- ⑬ 결혼, 가족 간병 등의 가사 문제로
- ⑭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 ⑮ 회사나 우리 집의 이사로 거리가 멀어져서
- ⑯ 학업, 군입대 등의 이유로
- ⑰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 ⑱ 출산, 육아 때문에
- ⑲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⑳ 비해당(현재 일을 계속하고 있음)



E. 고용희망척도(K-EHS)

※ 다음은 귀하의 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일을 시작한다면, 잘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무슨 일이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일하거나 직장을 찾을 때, 나는 지금의 나의 모습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일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장벽도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미래에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일 거라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일과 관련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한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미래에 내 직업으로부터 얻을 성취를 생각하면 힘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일과 관련한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마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의 직업과 관련된 목표를 위한 길 위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 삶의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비록 지금 당장 나의 재정적 목적을 성취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성취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도록 도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가 가진 기술이 어떻게 직장/직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내가 가진 자원이 어떻게 직장/직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경력) 커리어를 쌓기 위해 나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F. 지각된 고용 장벽 척도(PEBS)

※ 다음은 고용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각각의 문항들이 일자리를 유지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1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기십시오.

해당되는 점수에 ✓표 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장애물이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장애물이 되는 편이다	매우 강한 장애물이 된다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①	②	③	④	⑤
2) 일하는데 제약이 되는 건강상태(질병/부상)	①	②	③	④	⑤
3) 적절한 직무 기술의 부족함	①	②	③	④	⑤
4) 직장경험이 부족함	①	②	③	④	⑤
5) 육아	①	②	③	④	⑤
6)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	①	②	③	④	⑤
7) 약물/알코올 중독	①	②	③	④	⑤
8) 가정폭력	①	②	③	④	⑤
9) 신체장애	①	②	③	④	⑤
10) 정신장애	①	②	③	④	⑤
11) 일하는데 필요한 옷이 부족함	①	②	③	④	⑤
12) 지역사회 내에 일자리가 부족함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기술이나 훈련받은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함	①	②	③	④	⑤
14) 한부모가 됨	①	②	③	④	⑤
15) 어린자녀를 돌봐야함	①	②	③	④	⑤
16) 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데 문제가 있음	①	②	③	④	⑤
17) 자신감이 부족함	①	②	③	④	⑤
18) 지지체계가 부족함	①	②	③	④	⑤
19) 매일 겪는 고충에 대처할 기술이 부족함	①	②	③	④	⑤
20) 분노조절	①	②	③	④	⑤



G. 개인 및 사회복지제도 인식

G1. 아동 청소년 시절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항목	그렇다	그렇지 않다	비해당
1)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①	②	③
2)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①	②	③
3) 가계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4) (구)생활보호대상자여서 국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G2.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항목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건강	①	②	③	④	⑤
2) 가족의 수입	①	②	③	④	⑤
3) 주거 환경	①	②	③	④	⑤
4) 가족 관계	①	②	③	④	⑤
5) 직업	①	②	③	④	⑤
6) 사회적 친분관계	①	②	③	④	⑤
7) 여가생활	①	②	③	④	⑤
8) 그럼,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귀하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유의사항 >

- 3) 주거환경의 경우 가구원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합니다.
- 4) 가족 관계에서 가구원 외의 경우 직계혈족 1촌 이내까지만을 포함하여 만족 정도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 5) 직업에서 무직, 전업주부 등도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 정도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G3.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 조사시점(2019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5일 이상)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9)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G4. 귀하께서는 밑(0)에서 꼭대기(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하세요. 맨 꼭대기(1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귀하는 2019년 조사일 현재 사다리의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최선의 상태



최악의 상태

10
9
8
7
6
5
4
3
2
1
0

G5.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2018년 1년간 인지여부, 필요성, 경험 및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 「Q5-1. 제도인식」에서 '1.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Q5-3. 경험여부」와 「Q5-4. 만족도」에 대해 응답합니다.

※ 응답자 기준으로 응답하되, 경험여부의 경우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G5-1. 인지 여부		G5-2. (사회적) 필요성				G5-3. 경험 여부		G5-4. 만족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대체로 필요	필요	있음	없음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만족
1) 국민연금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②	③	④
2) 기초연금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②	③	④
3)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②	③	④
4) 장애인연금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②	③	④
5) 아동수당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②	③	④
6) 지역아동센터 공방방, 방과 후 교실 등 아동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②	③	④
7)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②	③	④
8) 긴급복지제도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②	③	④
9) 장기전세임대주택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②	③	④
10) 간병, 돌봄 지원 등의 바우처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②	③	④
11) 에너지 비용 지원(사용료 면제 및 감면방식)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②	③	④

G6. 위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뢰하십니까?

<div> <div>전혀 신뢰하지 않는다</div> <div>←</div> <div>→</div> <div>보통</div> <div>←</div> <div>→</div> <div>매우 신뢰한다</div> </div>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G7. 일반적으로 볼 때,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H. 가구일반사항

※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H1. 2018.12.31.을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명

H2. 2018.12.31.을 기준으로 가구원 중 노인은 몇 명입니까?

※ 만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기준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명

H3. 2018.12.31.을 기준으로 귀댁의 가구원 중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등록 장애인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명

H4. 2018.12.31.을 기준으로 귀댁의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는 몇 명입니까?

※ 만성질환자는 3개월 이상 투병투약하는 경우임. 단,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기간은 최초 투병 및 투약시점부터 산정

명

H5. 2018.12.31.을 기준으로 귀댁의 가구원 중 아동은 몇 명입니까?

※ 만18세 미만으로 주민등록기준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명

H6. 2018.12.31.을 기준으로 귀댁의 가구 구성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단독가구
- ② 모·부자가구(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 자녀, 단 취학(휴학)시 만 22세 미만)
- ③ 조손가구
- ④ 다문화가구(외국국적 가구 포함)
- ⑤ 기타(일반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H6. 2018.12.31.을 기준으로 본인과 가구주의 현황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가구주의와 관계란에 ①가구주라고 기재 하고 빈칸으로 둠.

구분	H7) 가구주의와 관계	H8) 성별	H9) 태어난 연도	H10) 교육수준	H11) 혼인상태	H12) 건강상태	장애종류 및 등급	
							H13) 장애종류	H14) 등급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기타	① 남 ② 여	주민등록상 생년(生年)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 ③ 중학교 졸 ④ 고등학교 졸 ⑤ 대학 졸 (전문대학 포함) ⑥ 대학원 이상	① 유배우 ② 별거 ③ 사별 ④ 이혼 ⑤ 미혼 (미혼 부, 미혼 모 포함)	① 건강이 아주 안 좋다 ②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한 편이다 ⑤ 아주 건강하다	⑥ 비해당 ① 신체외부 장애 ② 신체내부 장애 ③ 감각장애 ④ 정신장애 ※ 외부장애 (지체, 뇌병변, 안면). ※ 내부장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 감각장애 (시각, 청각, 언어)	⑥ 비해당 ① 중증 (1~2급) ② 경증 (3~6급) ③ 비등록 장애인 (보훈처 등록장애인 포함) ※ 중복장애는 중증으로 표기
가구주	1							
응답자								

구분	H15) 근로능력정도 (심신능력상)	H16) 근로무능력 사유	H17) 경제활동 참여상태	H18) 비경제활동 사유	H19)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 여부		
					(1) 경험여부	(2) 현재여부	(3) 해결방법
	① 근로가능 ⇒ H17)로 ② 단순근로가능 (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 H17)로 ③ 단순근로 미약자 (집안일만 가능) ⇒ H17)로 ④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음 (집안일도 불가능) ⇒ H16)으로	① 중증장애 ② 질병 또는 부상 ③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 ④ 기타 ⇒ H16) 모두 응답 후, H17)=3 체크하고 H18)로 이동	① 일을 하고 있음 ⇒ H19)로 ② 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 H19)로 ③ 비경제활동인구 ⇒ H18)로	① 근로무능력 ② 군복무 ③ 정규교육기관 학업 ④ 진학준비 ⑤ 취업준비 ⑥ 가사 ⑦ 양육 ⑧ 간병 ⑨ 구직활동포기 ⑩ 근로의사 없음 ⑪ 기타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본인 또는 가족친지 도움 ② 개인회생 ③ 개인파산 ④ 신용회복기관 지원 ⑤ 기타
가구주	1						
응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 미취학가구원이면서 간병이 필요한 가구원인 경우, 간병이 필요한 가구원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 취학가구원이면서 간병이 필요한 가구원인 경우, 간병이 필요한 가구원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구분	H20) 미취학가구원	H21) 취학가구원	H22) 간병 필요 가구원
1) 해당 가구원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 「H21」로 갈 것	① 있음 ② 없음 ➡ 「H22」로 갈 것	① 있음 ② 없음 ➡ 「I. 생활비」로 갈 것
2) 해당 가구원을 돌보는 주된 방식 ※ 돌보는 방식이 여러 개인 경우 돌보는 시간이 가장 긴 것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십시오.	① 동거가족 ➡ 2-1)로 갈 것 ② 비동거가족 및 친척 ➡ 2-1)로 갈 것 ③ 개인(베이비시터) ➡ 2-2)로 갈 것 ④ 국공립교육·보육시설 ➡ 2-2)로 갈 것 ⑤ 민간교육·보육시설 ➡ 2-2)로 갈 것 ⑥ 돌보지 못하고 있음 ➡ 3)으로 갈 것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2-2)로 갈 것	① 동거가족 ➡ 2-1)로 갈 것 ② 비동거가족 및 친척 ➡ 2-1)로 갈 것 ③ 개인 ➡ 2-2)로 갈 것 ④ 지역공부방(복지관) ➡ 2-2)로 갈 것 ⑤ 방과후교실 ➡ 2-2)로 갈 것 ⑥ 돌보지 못하고 있음 ➡ 3)으로 갈 것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2-2)로 갈 것	① 동거가족 ➡ 2-1)로 갈 것 ② 비동거가족 및 친척 ➡ 2-1)로 갈 것 ③ 개인(간병사) ➡ 2-2)로 갈 것 ④ 주간/단기보호시설 ➡ 2-2)로 갈 것 ⑤ 장기요양시설 ➡ 2-2)로 갈 것 ⑥ 의료기관 ➡ 2-2)로 갈 것 ⑦ 돌보지 못하고 있음 ➡ 3)으로 갈 것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2-2)로 갈 것
2-1) 가족이나 친척에게 맡기는 이유 1) 해당 가구원을 돌보는 주된 방식이 ① 동거가족 또는 ② 비동거가족 및 친척인 경우만 응답해주시십시오.	① 비용부담 때문에 ② 근처에 시설이 없어서 ③ 시간대가 안 맞아서 ④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⑤ 믿고 맡길 수 있어서 ⑥ 아이가 좋아해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① 비용부담 때문에 ② 근처에 시설이 없어서 ③ 시간대가 안 맞아서 ④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⑤ 믿고 맡길 수 있어서 ⑥ 아이가 좋아해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① 비용부담 때문에 ② 근처에 시설이 없어서 ③ 시간대가 안 맞아서 ④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⑤ 믿고 맡길 수 있어서 ⑥ 본인이 가족 및 친척 외 다른 간병서비스를 싫어해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2-2) 맡기는 시간 1) 해당 가구원을 돌보는 주된 방식이 ① 동거가족 또는 ② 비동거가족 및 친척인 경우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1) 해당 가구원을 돌보는 주된 방식이 '돌보지 못하고 있음'인 경우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① 시간제 ② 종일제 ③ 필요한 경우에만	① 시간제 ② 종일제 ③ 필요한 경우에만	① 시간제 ② 종일제 ③ 필요한 경우에만
3) 해당 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 ※ 일반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 해당 가구원을 돌보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을 응답해주세요. ex) 유치원 비용 + 베이비시터 비용 모두 포함하여 응답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3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만원</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3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만원</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3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만원</div>
4) 해당가구원을 돌보는 것이 취업활동에 주는 어려움	작다 ← → 크다 ① ② ③ ④ ⑤	작다 ← → 크다 ① ② ③ ④ ⑤	작다 ← → 크다 ① ② ③ ④ ⑤
5) 해당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취업을 중단한 경험 유무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I. 생활비

- ※ 생활비 : 가정생활을 위한 비용만 기입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 천인척, 이웃,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각종 현물(장학금, 의료비, 각종 공과금 대납, 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등)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 할부 구매의 경우 월 할부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 2013년 12월에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할부(월 50만원)로 구매 한 경우 월 생활비에 50만원을 포함합니다.
- ※ 천원 단위 이하는 소수점으로 표시(예. 5천원 → 0.5). 단 1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11. 지난 1년간(2018.1.1.~2018.12.31.) 지출하신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 ※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과 주택부금상환, 월부, 외상 빌린 돈(이자 포함) 같은 금액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

월평균 만원

12. 지난 1년간(2018.1.1.~2018.12.31.) 지출하신 월평균 공교육비는 얼마입니까?

- ※ 공교육비 : 등록금(초·중·고·대학·대학원), 납입금, 입학금, 교재비, 문방구비, 보충수업비(모든 학생이 다 하는 경우), 유학비, 야외 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월평균 만원

13. 지난 1년간(2018.1.1.~2018.12.31.) 지출하신 월평균 사교육비는 얼마입니까?

- ※ 사교육비: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이용, 과외수업비, 검정고시비, 학생의 여학연수비, 학습바우처 등

월평균 만원

14. 지난 1년간(2018.1.1.~2018.12.31.) 지출하신 월평균 의료비는 얼마입니까?

- ※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비(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치료용바우처(비만아동바우처) 이용료 등이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기입

월평균 만원

15. 지난 1년간(2018.1.1.~2018.12.31.) 지출하신 월평균 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얼마입니까?

- ※ 가족 모두의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갑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국민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합산액

- ※ 본인부담의 보험료만 포함(사업장이나 제3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월평균 만원



J. 소득, 부채 및 이자

J1. 2018년 1년(2018.1.1.~12.31) 동안 귀댁의 가구원 중 누구라도 아래의 사전이전 소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해당항목	수급여부		
		받았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1) 가족으로부터의 보조금	부모나 자녀로부터 보조금(현물 포함)	①	②	③
2) 기타 사전이전 소득	친척, 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로 부터의 보조금(현물 포함)	①	②	③

※ 2018년 1년(2018.1.1.~12.31) 동안 귀 가구 전체의 가구 총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J2. 2018년 1년(2018.1.1.~12.31) 동안 귀댁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총소득 = 근로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 세금 전 소득을 기준으로 파악합니다.

월평균 만원

※ 귀하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 12. 31 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함)

J3.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부채액(명의기준)은 얼마입니까?

※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일반사채, 카드빚, 외상, 미리탄 계돈,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기타부채

만원

J4. 2018년 1년(2018.1.1.~12.31) 동안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는 월평균 얼마였습니까?

※ 명의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월평균 만원



K. 주거 및 재산

※ 지난 1년(2018.1.1.~12.31) 동안 가구의 주거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사 등으로 주거유형 혹은 점유형태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 바뀐 이후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K1.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단독주택(다가구, 영업겸용단독) ⑤ 오피스텔, 고시원
 ② 아파트 ⑥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③ 연립 및 다세대주택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④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K2.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 가구에서 사용하는 방은 모두 몇 개입니까? (세준 경우 제외)

개

K2-1.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용하는 귀가구의 주택면적(APT 등의 경우 분양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마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면적 기준 ※ 1평 ≙ 3.3㎡

㎡

K3.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점유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자가 ④ 월세(사글세, 연세, 일세)
 ② 전세 ⑤ 기타(무상포함)
 ③ 보증부월세

K4.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가격 및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 K3의 응답 값에 따라 기입합니다.

구 분	금 액
1) 주택가격(K3의 ①만 응답)	주 택 가 격 : <input type="text"/> 억 <input type="text"/> 만원
2) 전세(K3의 ②만 응답)	전세보증금 : <input type="text"/> 억 <input type="text"/> 만원
3) 보증금 있는 월세(K3의 ③만 응답)	보 증 금 : <input type="text"/> 억 <input type="text"/> 만원
	월 세 : <input type="text"/> 만원
4)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연세, 일세 포함) (K3의 ④만 응답)	월 세 : <input type="text"/> 만원

※ 귀 가구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의 기준으로 조사하며, 가구원명의로 사업장(가게)도 포함된다.)

K5.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귀 댁에서 보유하고 계신 금융자산은 얼마입니까?

※ 금융자산(정기예금, 청약예금, 주식, 빌려준 돈 등)

억 만원

K6.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부동산 및 기타자산은 얼마입니까?

※ 소유부동산(주택, 토지 등), 점유부동산(전세보증금, 권리금 등),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등

억 만원

◆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조사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 연구기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만18세~64세 기초생활수급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본 조사는 약 30분 내외로 소요될 예정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윤리위원회 지침 하에 본 조사에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한 보안처리가 되어있는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되며, 향후 연구결과물에서 여러분이 응답해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여러분의 개인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는 데이터로 제공 받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 참여를 거절할 수 있고, 응답 도중에 설문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 및 거절, 참여 중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 조사의 자발적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본 조사가 정부정책 수립과 추진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하고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흥식

연구책임자 : 포용복지연구단 김태완 단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이름, 주소, 전화번호, 수급종류, 경제활동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자료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에 부합되는 급여와 일자리 제공방안, 복지지원 방향을 지원하기 위함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들을 이해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으로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2019년 월 일

조사대상자 : _____